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6. 16. (화), 14:00 ~ 19: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위원 : 신안준(위원장), 강동진, 권기혁
김연희, 김이순, 김종현, 목수현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 윤균,
추미경 (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보수·정비 사업	(공 개)
2	「대전 육교(상, 하행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3	「세종 부강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4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5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6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7	「나석주 편지 및 봉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8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9	「6·25전쟁 종군화가 미술작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0	「조선왕조 어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1	「보병과 더불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2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계엄 포고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3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4	「인천 팔미도 등대」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15	「강화 전영근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6	「강화 박수현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7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종합정비계획	(공 개)

【보고사항】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공 개)
----	----------------------	-------

1.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보수·정비 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보수·정비 사업 설계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보수·정비(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사전설계에 해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종로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 사업내용 : 서울 대한의원 보수정비
- 세부 사업내용

<구조보강공사>

- 지반개량 : 건물 좌측 외벽 바닥에 대하여 그라우팅을 실시(밀크그라우트공법)
 - ※ 그라우팅 실시 전 지하수위 계측
- 무기질바인더 충전
 - 외벽 충전 : 단장실, 1층 제2회의실, 2층 회의실, 계단실
 - 내벽 충전 : 계단실
- 하이픽스바 설치 : 벽체 균열부 및 아치 측면에 하이픽스바를 설치
- 탄소섬유 부착
 - 1층(6개소), 2층(4개소) 복도 내부 아치 : 10개소
- 벽돌 고색처리 : 외벽 균열부 벽돌 및 석재면 고색처리
- 목재수지처리 : 종탑부 가세부재 수지처리 후 철판보강

<조적공사>

- 파손벽돌 교체 : 전면 포치
- 줄눈보수 : 균열부, 전면포치
- 건식세척 : 전면 포치

<수장 및 미장공사>

- 회반죽몰탈 및 줄대 철거 : 배면 현관, 아치 탄소섬유 부착부분
- 몰탈철거 : 아치 탄소섬유 부착부분
- 줄대설치 : 배면 현관, 아치 탄소섬유 부착부분
- 회반죽 바르기 : 배면 현관(천장), 아치 탄소섬유 부착부분(천장, 벽)
- 생석회폼칠 : 천장 해체·설치부분, 천장 균열보수부분
- 천장몰딩 설치 : 천장 해체부분/천장몰딩 보수 : 본관 좌측 복도 상부
- 천장미장균열부 보수 : 내부 실 천장미장 균열부
- 벽체미장균열부 보수 : 시멘트몰탈충진 후 벽지 바르기 및 W.P 2회

<창호공사>

- 창호해체·설치 : 별관 아치 보수부분
- 창호주위 코킹 : 외부 노출된 창호 전체

<포장공사>

- 그라우팅 작업 부분의 아스콘포장을 해체, 설치(87.24㎡)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 ○ ○ ('20.2.20.)

- 종탑의 목재부재 부식부분은 수지처리 등으로 보수하기 바람
- 아치부분의 보강은 전반적으로 수행하여 추후 균열발생을 제어하기 바람
- 벽돌 보수는 균열 부분을 충전하고 외관을 정리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병원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수·보강 계획을 강구하시기 바람

○ ○ ○ ○ ('20.4.17.)

- 1982년 전 대한의원건물 근방 건축공사 여부 조사 및 수록
- 건물 왼쪽 부분이 전체 구조의 시계반대방향 회전운동으로 발생한 균열에 대한 주요 원인과 보수-보강공사의 방향이 필요함. 40년 경과 상태의 지반 상태는 안정한지 아니면 지하수위의 변화로 반복적인 움직임인지 평가되어야 함
- 벽체 단면의 상세 및 두께 표시 필요

- 아치부의 조적공사 상세도 표시 필요
 - 아치구조 안전진단은 벽체 균열의 발생원인인 기초부에 수지 또는 회전 변위에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아치부 하부 인장응력의 변화를 평가해야 함
- 지반개량 적용공법 적용하기 위한 현재 기초상세 지하수위 변화 및 응력 상태 검토 필요
- 충전 공법의 효과 분석이 필요함. 기존 에폭시 및 무기 바인더 충진을 통한 훼손된 모르타르의 접착강도 발휘여부
- 아치부의 타이틀 통한 보강방법의 상세제시 요망
- 종탑부 목재의 수지처리는 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보강 방법 제시 필요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심의
- 소위원회 위원 : ○○○, ○○○, ○○○, ○○○, ○○○

○ 출석 12명 / 보류 11명, 제척 1명

2. 「대전 육교(상·하행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전시 대덕구 소재 「대전 육교(상·하행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회 등록 검토('20.4.21.)를 거쳐 등록 예고한 「대전 육교(상·하행선)」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한국도로공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230)
- (2) 대상문화재명 : 대전 육교(상·하행선)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4-3번지 일원
 - 소 유 자 : 국토교통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관 리 자 : 대전광역시
 - 구 조 : 아치교
 - 규 모 : 연장(201m), 교폭(21.4m), 높이(35m)
 - 면 적 : 상행선 2,420㎡, 하행선 2,392㎡ (현황 측량 면적)
 - 건립시기 : '69.10.30. 준공 ('70.7.7. 고속도로 개통)
 - 형 식 : 아치형 교량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3.9.17.) : 문화재 등록 신청(대전시→문화재청)
 - ('13.10.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1차)
 - ('13.10.15.)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시설물 전체 조사 후 재검토)
 - ('19.12.31.) : 근현대 산업시설 목록화 조사 완료(대전육교 : A등급)
 - ('20.3.18.)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2차)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5.4. ~ 6.2. (30일간) *의견 없음

라. 추가 현지조사 의견('20.3.18.)

<○○○, ○○○, ○○○>

- 대전육교는 2013년 등록조사에서 등록가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유사시설에 대한 전체조사 후 비교평가의 필요성, 건설이후 50년 미경과 등의 사유로 등록이 보류된 상태.
- 2019년 동일유형 토목시설에 대한 전체조사를 통해서 대전육교는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등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 현재는 건설이후 50년 이상 경과 조건도 충족된 상태.
- 금회 현장조사에서도 대전육교는 건설 당시 최고 높이와 최장 경간의 대규모 아치형 교량, 국내 토목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집약된 대표적 교량, 지형적 어려움을 극복한 독특한 형식의 교량, 경부고속도로에서 상징성, 역사성, 희소성을 지닌 교량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2013년 등록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전육교는 이상과 같이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보류 사유도 해소되었고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활용의지와 가능성도 높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마. 1차 현지조사 등록조사보고서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전육교

2. 용 도 : (원) 고속도로 (현) 미사용

3. 소재지 :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4-3번지 일원

4. 소유자 : 국토교통부

○ 현소유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 시설물 개요

○ 착공일 : 1969년 3월 13일

○ 준공일 : 1969년 10월 30일

○ 시공자 : 아주토건

○ 수량 : 2기(상·하행선)

○ 연장 : 201m

○ 교폭 : 21.4m

○ 높이 : 35m

○ 형태 및 양식

- 형식 : 아치형 교량

- 상부 : T-빔(18m) + 아치(165m, 경간장 50m) + T-빔(18m)

- 하부 : 중력식+구주식 교대, 확대기초, 라멘형 교각

○ 특징

- 건설당시 교량높이 최고, 국내 최초 아치교량

- 장대한 규모와 우아한 디자인으로 길치계곡의 자연풍광과 어우러진 경관이 아름다움

6. 조사자 의견('13.10.2.)

<○○○>

1) 개요

○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시설물로서 1969년 10월 30일 준공된 아치교이며, 건설 당시 교량높이 35m로서 최고 높이에 최초 국내 아치교량임

2) 주요 특징

○ 길치계곡의 자연풍경과 잘 어울려져 경관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교량임

○ 경부고속도로 선형변경으로 폐도됨으로써 도로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전광역시로 이관된 상태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까지 원형을 잘 보존되고 있으나 일부 콘크리트 탈락 및 부식이 진행 중에 있어 장래 보수조치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잘 보존하여 경부고속도로의 역사적 의미와 토목공학의 기술발전의 의도를 담아 역사탐방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5) 등록가치의견

- 경부고속도로건설 당시 시설물로서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라고 사료됨
- 당시 고속도로시설물로서는 교량, 터 널, 휴게소, 준공기념탑 등이 있는데, 이를 목록화하여 전문가 조사가 우선되고 그 후 등록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대전육교, 옥천 당재육교, 옥천터널은 모두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문화재로서 지정타당성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겠음

<○○○>

1) 개요

- 본 철근콘크리트 아치교의 시점부와 종점부를 RC교량에서 Steel 거더교로 보수하여 보존됨

2) 주요 특징

- 국내 최초의 최대 높이와 길이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아치교량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교량은 사용되지 않고, 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고 일부 콘크리트 피복 탈락 및 부식이 발생함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교량의 하부 공간은 현재 가양비래공원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변의 공원을 확장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등록가치의견

- 본 교량은 근대문화재 등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6)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본 교량의 명칭은 그 지방의 명칭인 길치교량으로 변경할 것을 추천함

<○○○>

1) 개요

-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이루었고, 그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토목기술의 집약체로서 교량이나 터널을 짧은 공기 내에 건설한 의미 있는 유산이다.

2) 주요 특징

- 대전육교는 카테나리(catenary) 커브형 아치교로서, 대전IC와 대전터널을 연결하는 주요교량 구조물이다.
- 165m의 아치교 구간을 50m 경간장으로 3분할하고, 그 각각의 하부 길치계곡 내 기초를 두어 장대한 규모와 우아한 디자인으로 길치계곡의 자연풍광과 어우러진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에는 신 고가육교와 터널이 건축되어 활용되고 있어, 대전육교는 일반인들의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를 친 채 방치되고 있다.
- 1969년 최초 준공된 후 1989년 거더 공사가 현대건설을 통해 있었던 바, 당시 도면이나 자료를 검토하여 변형된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1969년 준공된 대전육교는 경부고속도로의 상징적 자원으로서 활용가능하며, 높은 길치계곡 상부에 설치되어 미국의 하이 라인(High Line)과 같이 공원을 통해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등록가치의견

- 아직 50년이 안되어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요건이 부족하며, 다만 국가 산업화의 대동맥으로서 경부고속도로의 상징적 차원에서 등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 터널, 교량 등 자원을 조사하여, 건축된 시기 및 의미 등을 검토 한 후 역사성 및 상징성이 있는 주요자원을 선정하여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경부고속도로 대전육교

3 「세종 부강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소재 「세종 부강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회 등록 검토('20.4.21.)를 거쳐 등록 예고한 「세종 부강성당」에 대하여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재단법인 천주교 청주교구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세종 부강성당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4길 33(부강리 130-1)
 - 소 유 자 : 재단법인 천주교 청주교구유지재단
(주소: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사천동))
 - 수 량 : 3동(구 한옥성당 및 대문간채, 현 성당)
 - 면 적 : 구 한옥성당 204㎡ 및 대문채 86㎡, 현 성당 545㎡(현황측량면적)
 - 건립시기 : 구 한옥성당(1913년), 구 대문채(1910년대 추정), 현 성당(1962년)
 - 구 조 : 목조, 벽돌 조적조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11.2.) : 문화재 등록 신청(세종시→문화재청)
 - ('20.1.9.)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1차)
 - ('20.1.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등록 범위 재검토)
 - ('20.3.10.)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조사 실시(2차)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5.4. ~ 6.2. (30일간) *의견 없음

라. 관계전문가 추가 현지조사 의견

○ ○○○('20.3.10.)

- 1957년에 건축된 성당은 교회당과 사제관이 하나로 설계되었다.
- 부강성당은 현 성당이 신축되기 전에 사용된 한옥 성당과 함께 주변 환경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성당이다. 성당과 사제관의 외관은 원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성당 내부는 리노베이션되었다. 본당 내부 벽체와 천정 등 전체적으로 내부공간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지만, 창문의 경우 원 모습이 남아있다.
- 그러나 사제관과 성당과 사제관 연결 통로의 경우는 신축 당시의 마감과 창호가 매우 양호하게 남아있다. 특히 나무 마루바닥과 흰색 벽체와 오르내리창 그리고 천정의 몰딩과 전등의 천정플레이트는 신축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사제관의 거실과 침실의 불박이장과 사무 공간 역시 신축 당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어 1960년대~60년대 인근 지역의 성당건축의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성당건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옥성당은 문간채와 본채로 구성되었으며, 목구조의 결구와 여단이 창호의 상세가 본채의 여단이 창호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 한옥의 경우 지금은 교육과 모임의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대공간이 작은 실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으나, 성당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목구조는 매우 양호가 잘 보존되어 있다.
- 초기에 성당으로 사용된 한옥과 현 본당을 함께 등록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 바람직한 근대문화유산 보존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1.9.)

- 원래의 기능인 성당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음. 대문채, 안채 등의 한옥과 1962년 6월 16일 준공된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독특한 성당의 형식이 변형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어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의 성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본당 축조 전에 이용되었던 한옥성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 대문채와 안채로 구성하고 있는 한옥 성당 형식은 1950년대 충북지역의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으며 새로 신축한 적벽돌 성당과 함께 지금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또한, 1950년대 전후 구휼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간의 구휼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강의 지역사를 밝히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음.

○ ○○○('20.1.9.)

- 신청한 세 건물 중 구 부강성당(한옥1)과 부강성당(양옥)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구 부강성당이 한옥주택을 성당으로 다시 수녀원으로 전용된 희귀한 사례라면, 부강성당은 1960년대 충북지역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성당 특유의 건축형식을 잘 간직하여 각각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 다만 성당의 역사로 볼 때 두 건물이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자도 동일하므로 묶어서 등록해도 무방하겠으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묶어서 등록한다면 등록문화재 명칭으로는 '세종 부강성당과 구 부강성당'을 제안함.

○ ○○○('20.1.9.)

- 부강성당(1962년 건립) 및 구. 한옥성당(1957년 매입)은 부강지역에 천주교 전파와 확장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구휼사업을 통해 신앙과 공동체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음.
- 건축적 의미에서 기존 고딕양식의 천주교 건축양식과 다르게 미국 메리놀회 선교를 통해 북미식 교회건축양식이 반영된 성당이며, 구. 한옥성당의 경우도 사가(私家)로 사용되었던 근대식 한옥을 매입해서 초기에 성당으로 사용하고, 이후 수녀원, 회합실의 용도로 활용해오고 있음.
- 부강성당 본당과 옛 한옥성당은 건립 당시의 구조와 형태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서적, 기록화 자료 등) 등은 종교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대문간채의 경우 구조와 재료의 변형이 크고, 성당과 관련된 건축사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금번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구 본당(한옥1) (현) 구 부강성당 본당 (구) 부강 김재식家 별당
 대문채(한옥2) (현) 부강성당 사무실 (구) 부강 김재식家 별당 문간채
 본당(양옥) (현) 부강성당 본당 (구) 부강성당

2. 용 도 : 구 본당(한옥1) (현) 종교시설 (원) 주거시설
 대문채(한옥2) (현) 종교시설 (원) 주거시설
 본당(양옥)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0-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4길 33)

4. 소유자 :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29-8(주성로 135-35))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구 본당(한옥1) 한식 목조
 대문채(한옥2) 한식 목조
 본당(양옥) 조적조
- 준공일 : 구 본당(한옥1) 1934년 6월 24일(음력 5월 13일) 상량¹⁾
 대문채(한옥2) 미확인(한옥1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
 본당(양옥) 1962년 6월 16일(완공 봉헌식)
- 수량 및 면적 : 3동(지상1층) *간이실측면적
 구 본당(한옥1) : 126.67㎡
 대문채(한옥2) : 48.36㎡
 본당(양옥) : 439.76㎡

6. 조사자 의견('20.1.9.)

<○○○>

1) 개요

- 아시아 지역의 전교를 목적으로 1911년 6월 29일 창립한 메리놀 외방전교회(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는 한국의 평안도 지역에 대해 선교권을 위임받아 1922년 11월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강제로 추방당했다가 1945년 한국이 광복이 되면서 1946년 5월 한국에 재입국하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진행하였다.

1) “文宣王 誕降 二千四百八十五載 甲戌年 庚午月 丙寅日 壬辰時 上梁 艮坐坤向 丙子生 成造運”

- 메리놀 외방선교회 활동의 근간은 평양 서포의 메리놀회 한국본회와 그 옆에 있는 서포성당(1931년 준공), 평안북도 비현성당(1928년)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들 성당의 모습은 미국 뉴욕 오시닝에 있는 메리놀회 본부의 모습과도 형태상 연관성을 지닌다. 이 본부의 건축형태는 메리놀 외방 선교회가 활동하는 충북지역의 성당 형식의 기본 모델이 되는 청주 내곡동 성당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메리놀회 본부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중국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여 중국지역의 전통적인 탑 형식을 성당 종탑에 접목한 것으로 보여진다.
- 파 야고보(James V. Parvy, 파비 제임스) 신부가 1953년 9월 16일 충북감목대리로 임명된다. 이때부터 메리놀 외방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충북지역의 독특한 성당 건축을 구축하게 된다. 메리놀회는 카톨릭 구제회를 통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구호활동이나, 한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활동을 해왔다. 이를 통해 충북지역의 지역 사회와 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나갔다. 이로 인해 파리 외방 선교회가 주도하는 성당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부강성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하나는 공소가 없이 메리놀회의 구호활동에 감명을 받은 부강 면장이 성당설립을 요청하고 성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1957년 4월 21일 “성모마리아의 거룩한 이름(S. Nomen Mariae)” 즉, 성모성명(聖母聖名)으로 부강성당의 이름을 받아 부강 성당이 설립되었고 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청주 북문로 본당의 공소로서 1957년 9월 12일 설립되어 성당과 사제관이 부강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초기에 면장의 주선으로 부강성당이 만들어지고 후에 청주 교구가 중심이 되어 한옥성당이 있는 지금의 부강성당의 위치로 이전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부강성당의 초대 주임신부였던 선 다니엘(D. Schneider)신부가 부강리 129-2의 한옥건물을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청주교구청이 소장하고 있는 타자본 「부강본당의 역사」에서 전하고 있다. 이후 1962년 6월 16일 붉은 벽돌을 기반으로 한 새 성당이 축조되기까지 한옥 성당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 한옥성당

- 1962년 6월 본당이 신축되기 전까지 성당으로 사용되었던 한옥으로 대문채와 본채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채가 원래는 지붕이 초가였다고 전하나, 1963년의 사진 자료에는 문간채가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성당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대문채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구조적 형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 인방이 기울어져 있다.
- 한옥의 몸채는 정면 8칸 측면 2칸의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 주심도리는 굴도리이고, 중도리 및 종도리는 납도리도 되어있다. 민도리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에 부엌공간이 있는 등 온돌구조로 평면 구성이 성당으로 지워진 것이 아니라 주거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성당으로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량문에 따르면 1934년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 성당이 축조되기 전 실제성당으로 사용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건물은 정면이 8칸이나 되는 등 한옥으로서는 비교적 큰 건물로서 팔작지붕을 지니고 있다. 가운데 전면 4칸이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툇마루 안쪽은 각각 나누어져 있던 방을 터서 성당 본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1962년 본당이 새롭게 신축된 후 수녀원으로 사용되면서 각 방들이 나누어져 있다. 대들보와 판대공, 보아지의 상태

가 튼실하고 장식조각 또한 정교하다. 좌측에는 부엌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광창이 보이고 있다. 다면 전면 창호가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어 있고 회합실의 입구문이 철판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한옥 구조체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내부는 현대식 주방으로 바뀌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전체를 구성하는 구조체 등은 원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2) 벽돌조 본당

- 3대 주임신부인 문금산 안젤로(A.S. Montuori) 신부 재임기인 1961년 5월 현재의 성당 부지를 매입하였다. 8월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착공 10개월만인 1962년 6월 16일 완공되어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 파리의외방선교회의 전형적인 성당건축과는 달리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전형적인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청주 내곡동 성당을 모델로 하였다. 벽체의 하부는 적벽돌로 하였고, 상부벽체 마감은 시멘트 몰탈로 처리하였다. 종탑은 모두 적벽돌로 하였다. 외곽길이는 22 x 28.5 m, 높이 7 m, 종탑 높이 11.5 m이다.
- 성당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신랑(身廊,nave)과 측랑(側廊, aisle)의 구별이 없는 장방형으로 제단좌측에 주일학교, 우측에 제의실 및 사제실이 배치되어 평면 형태상으로는 T자형의 구성을 하고 있다. 사제실 부분에는 제의실과 침실, 주방, 회의실 등이 구성되어 있다.
- 성당의 입면은 내곡동 성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몸체의 맞배지붕의 높이와 크기를 줄여 몸체에 붙여서 3개의 아치를 이용하여 3문형식의 출입구를 구성하고 있다. 내부 구성은 nave와 aisle 등 전형적인 교회의 공간구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건물의 규모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당 측면은 아치형 창문이 특징적이다. 크고 작은 뾰족 아치를 이용한 창문을 설치에 측면입면이 리듬감을 갖고 있다. 측면에는 굴뚝을 겸하고 있는 플랫폼 버트리스 또한 중요한 요소이고 굴뚝이 높이 솟아 있다. 메리놀 외방선교회 성당의 입면구성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종탑이다. 이는 미국의 본부 건물의 특성과도 연관되는데 동양권의 선교를 위한 선교회로서 동양의 탑 형식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파리의외방선교회에 소속된 성장과는 다른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독특한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우측에 돌출한 종탑과 함께 형성한 마당은 적당하고 잘 정리된 외부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 조적조로서 하부 벽체는 적벽돌 치장쌓기로 되어 있다. 상부벽면은 몰탈을 발랐다. 지붕의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목조트러스 구조로 생각하며, 지붕은 평기와의가 설치되어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한옥성당의 경우 본당으로 사용되었다가 수녀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회합실 등으로 사용되는 등 내부는 지속적으로 용도가 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내부 바닥 및 공간 구성이 변화를 해 왔다. 하지만 외관의 경우는 창호를 알루미늄 창호와 일부 출입문을 철판을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큰 변형 없이 잘 유지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문간채에 있어서 전언에 의하면 초가지붕이었다고 하나 1963년 사진에 기와로 되어 있어 성당으로 사용한 후에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외관을 형성하는 인방부재가 처져있어 구조적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

- 적벽돌조의 본당은 외관의 경우 축조 당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내부는 bay unit가 반복된 교회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다소 변화가 있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부강성당 본당 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문채, 회합실이 있는 안채 공간 등 2채의 공간을 본당과 더불어 성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본당이 신축되면 공간 활용을 위해 그전에 사용되었던 본당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강성당은 본당을 축조하기 전에 이용했던 한옥 성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메리놀 선교회의 독특한 외관의 모습을 잘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성당에서 보여지는 파리 외방선교회의 성당과는 다르 다른 모습으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성당에서 시행한 한국에서의 구휼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부강성당과 부강 지역인들의 삶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원래의 기능인 성당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부강성당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의 성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본당 축조 전에 이용되었던 한옥성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부강성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곡동성당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오송 성당도 부강성당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강성당은 메리놀 선교회에서 새로운 성당을 신축하기 전의 본당으로 활용되었던 한옥성당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1950년 대 말 1960년대 초의 상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곡동성당이나 오송 성당과 성격을 달리한다. 부강성당의 역사는 부강의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결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원래의 기능인 성당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대문채, 안채 등의 한옥과 1962년 6월 16일 준공된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독특한 성당의 형식이 변형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의 성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당 축조 전에 이용되었던 한옥성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문채와 안채로 구성하고 있는 한옥 성당 형식은 1950년대 충북지역의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 새로 신축한 적벽돌 성당과 함께 지금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 부강 성당 자체가 1950년대 전후 구휼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간의 구휼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강의 지역사를 밝히는 측면에서도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개요

- 신청된 세 건물은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부강성당 관할로서 구 부강성당(한옥1), 부강성당 사무실(한옥2), 현재 본당으로 사용중인 부강성당(양옥)이다.
- 메리놀외방전교회는 중국과 만주에서 전교활동을 하던 중에 1923년 당시 식민지조선에 처음 진출하여 평남지역에서 평양교구를 설정하고 전교활동을 하다가 1942년 6월 일제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해방 후 남한에 재진출하였고 1953년 초 한국천주교회 노기남 주교에 의해 충북지역 카톨릭 선교를 메리놀외방전교회에 위임받은 후 이 지역에 소속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전교활동을 벌였다.
- 해방을 전·후하여(1923년~1960년대전반, 현대식 성당을 건축하기 이전)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성당건축은 대략 3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즉, ①한옥주택을 성당으로 전용하거나 ②한·양 절충식 성당을 짓거나 ③메리놀외방전교회 특유의 동·서양 절충식 성당을 지었다. 신청된 구 부강성당(한옥·) 및 현 부강성당(양옥)은 이 세 가지 경향 중 ①과 ③을 대표하는 사례이다.

<구 부강성당(한옥1)>

- 1907년 당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비룡(飛龍)공소가 설립되어 이 일대에 공식적으로 천주교 전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룡공소는 부강성당에서 약 6.3km 떨어진 곳이었고 부강지역에는 1933년경에 용포(龍浦)공소(당시 충북 부용면 부강리)가 설립되었고, 해방후에도 본당 없이 용포공소가 지속되었다.
- 1957년 1월, 미국의 구호물자가 부용면 지역에 배분되자 이에 감동한 부용면 면장이 성당 설립을 천주교회 측에 요청하고 그해 3월에는 부용면 부강리에 “적당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한다(등록신청서). 그러나 이 부지가 신청대상 성당이 자리한 부지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부강성당 첫 주임신부로 1957년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선 다니엘(J. D. Schneider) 신부가 부임하여 “부강리 129-2번지 한옥 건물을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사용했다”(타자본 「부강 본당의 역사」, 천주교구청 소장)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한옥 건물이 구 부강성당인데, 원래 광산업으로 거부가 된 김재식 가의 별당으로 1934년 지어진 주택이었고, 별당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문간채(한옥2)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 1957년 4월 21일이 부강성당 설립일이므로, 매입은 그 보다 조금 이전에 있었고 별당을 성당으로, 대문채를 성당 사무실로 전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변경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단 위에 우측 2번째 칸 앞에 2단 돌계단을 두어 우측 2칸의 마루방으로 2짝 여단이 판문(현재 철문)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보아, 성당으로 전용할 당시 계단을 놓았고 이쪽으로 신자들의 주출입구였을 것으로 보이고, 우측 2칸 마루방은 일종 전실로, 가운데 5칸 온돌방은 예배실로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 당시 주임신부의 사제관은 “용포공소에 마련했다”고 한다(등록신청서). 그런데 등록조사시 신청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1962년 사제관을 짓기 전까지 주임신부들은 구 부강성당(한옥1) 한켠에 잠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므로, 어느 시기부터는 한옥1의 일부공간이 사제관 역할을 겸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강성당 사무실(한옥2)>

- 사무실(한옥2)은 원래 별당 문간채로서 별당을 성당으로 전용한 동시에 문간채의 어칸은 대문칸 그대로 두고 좌측 2칸은 사무실로, 우측 2칸은 사무실 겸 창고로 전용했고, 대문칸 우측 전면에 ‘부강천주교회’ 명패를 걸었다. 현재 용도도 그대로이다.

<부강성당(양옥)>

- 1958년 청주교구가 설정되고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파 야고보 주교(James V. Pardy, 1958-1972 재임)가 청주교구 초대 교구장이 되었다. 파 주교는 일제강점기 평남지역에서, 해방 후에는 충북지역에서 전교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를 따라 평남지역 신도들이 남하하여 충북에 자리잡았는데, 그 중에는 박태봉(요셉), 김□□(분도)이 있었고, 이들은 파 주교의 지도 하에 평남지역에 지어졌던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성당건축을 모델로 삼아 청주 상당구 내덕동 주교좌성당(1962)을 비롯해 1960년대 전반기 관할 성당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부강성당 역시 이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961년 5월 문금산 안첼로(A. S. Montuori) 3대 부강성당 주임신부가 부지 3,004평을 매입하고, 그해 8월 양옥으로 성당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0개월 만인 1962년 6월 완공하고 그달 16일 완공 봉헌식을 올렸다.
- 부강성당 우측 트란셉트에 연이어 사제관이 자리하는데, 성당 신축 직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²⁾

<구 부강성당(한옥1)>

- 1962년 6월경 양옥 부강성당이 건축되고 사제관도 연이어 증축되자 이 건물은 성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 한편 1962년 예수성심시녀회 분원이 성당 내에 설립되었다가 1970년 폐쇄된 이후 2003년 다시 분원이 설립되는 등의 역사가 있고, 그 사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본 건물을 수녀원으로 전용했다.
- 현재는 비워져 있으며 맨 우측 2칸만 모임장소로 사용중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구 부강성당>

- 김재식 가의 별당으로 지어진 18.2m × 5.7m 크기의 一자 한옥으로 정면 8칸(좌우 퇴칸), 측면 2칸의 2고주 5량가이다.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다. 정면 8칸 중 좌측 6칸에 전퇴를 두었다. 가운데 5칸에 방 3개가 연이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방에 기둥을 노출시켜 대량을 받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방으로 사용하는 5칸 위에 넓은 다락을 두었고 우측2칸과 간막이 벽 상부 대들보 위에 실내창을 내었다. 김재식 가 안채에서도 동일한 처리를 볼 수 있다.
- 기단은 강석 장대석 두벌대로 들렀고 원형 초석을 두었다. 목부재는 압록강변 목재를 공수해 왔다고 하며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벽체는 한식 흙벽 위 회 미장이 대부분이나 배면 일부에 몰탈마감이다.

2) 등록신청서에는 성당과 사제관이 함께 건축된 것으로 나오나, 조사일 현장에서 받은 등록신청서기타참조자료 및 천주교회 충북교구 웹사이트(<http://www.cdcj.or.kr>)에는 사제관이 증축된 것으로 나온다. 확인이 필요하다.

<부강성당 사무실>

- 元 별당 영역의 문간채로서 전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이다. 애초에 초가지붕을 얹었다고 하며 1960년대 지붕재를 함석판으로 바꾸었고, 현재는 우진각으로 일식 시멘트기와가 이어져 있다. 기와 무게 때문인지 정면 우측 2칸의 도리가 심하게 처져 있다.

<부강성당>

- 파리외방전교회(1836), 성 베네딕트수도회(1909), 메리놀외방전교회(1923), 성 콜롬바노외방전교회(1933) 등 여러 카톨릭 전교단체가 한국에 진출하여 전국 각지에 한국천주교회의 성당을 건축했다. 이들의 선교이념에 따라 지어진 성당의 건축형식도 차이를 보이는데, 해방후 1960년대에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청주교구 소속으로 지진 성당들도 형식상의 특성을 공유한다. 소위 ‘메리놀 양식’이라고 불린다 (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 건축사』).
- 메리놀외방전교회는 미국 최초의 카톨릭 외방전교회로서 1911년 창설되었다. 이때 본부를 뉴욕 메리놀(Mary Knoll) 언덕에 지은 건물(1911, 그림1)로 삼았는데, 이 건물은 반원아치와 두터운 벽체를 가지는 석조 로마네스크 풍이지만 지붕은 목조로 짜고 중국풍 기와를 얹어 절충식으로 지어 중국 선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탑 상부 네 벽면에 개구부를 만들고 목조가구식 기둥과 보의 가구식 짜임을 번안한 디자인을 개구부 안에 설치한 외관이 특징적이다.
- 이 본부가 비록 성당은 아니지만, 내덕동 주교좌성당(1962, 그림2)을 비롯해 1960년대 전반기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의 청주교구 성당들은 그 디자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 교회정면 모서리에 종탑을 세우되 상부에 목조가구식을 번안한 장식을 둔 개구부를 두고, 정면에서 네이브 쪽으로 조금 낮게 박공면의 나르텍스를 만들고 3개 반원아치 개구부를 둔 점, 트란셉트 중 한쪽을 사제관으로 만들어 편리를 도모하면서 전체적으로 십자가 모양의 성당평면을 구성한 점이 뚜렷하다. 내덕동 주교좌성당 외의 사례로 본 부강성당(그림3), 오송성당(그림4), 내수성당(그림5)이 있다.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형하여 지은 경우도 있다. 다만 내덕동 주교좌성당은 지붕구배 처리에 중국풍 곡면이 뚜렷하지만, 다른 성당들에서는 이를 따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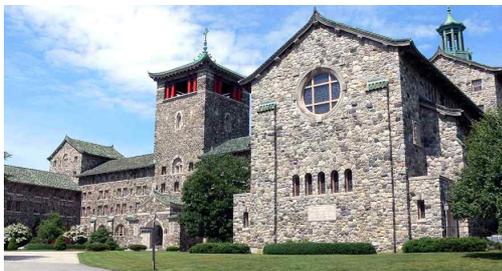


그림 1 메리놀외방전교회 본부 건물
출처: <https://maryknollsociety.org/>



그림 2 청주 내덕동 주교좌성당
출처: 천주교회 충북교구
웹사이트(<http://www.cdcj.or.kr>)



그림 3 부강성당



그림 4 오송성당



그림 5 내수성당

- 부강성당은 라틴 십자가 평면이고 트란셉트가 꽤 큰데, 좌측 트란셉트를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우측 트란셉트에 제의실을 두었다. 또한 제의실에 연이어 증축된 사제관이 있어 우측 트란셉트가 훨씬 길다. 내부는 바실리카식이 아닌 홀 형식(폭 9m)으로 처리하였고, 제단까지 전체가 같은 높이인 평천장을 얹어 지붕에 짠 목조트리스(등록신청서)는 감춰져 있다.
- 외관을 보면, 정면에 3개의 반원 아치 개구부를 둔 홀(네이브) 보다 조금 낮고 좁은 박공면을 취하는 나르텍스를 두고 우측모서리에 탑을 세워 ‘메리놀 양식’의 특징을 뚜렷하게 가진다.
- 외벽은 수직으로 보면 3단 구성을 취하는데, 기단부에 밝은 색 테라조 판석으로 덮고 징두리에 화란식 적벽돌 치장쌓기를 한 후에 창대석 높이에서 기단과 같은 재료로 가로띠를 건너지르고 그 위 벽에는 시멘트 몰탈 뽀칠 마감을 했다. 종탑과 굴뚝은 전체적으로 화란식 적벽돌 치장쌓기를 했다.
- 외벽은 수평으로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부벽(버트레스)를 두고 그 사이에 완만한 뽀족아치 창을 대소 교대로 내었다. 목재창틀이고 고딕풍 트레이서리를 짰는데, 큰 창은 2짝 여단이로, 작은 창은 오르내리창으로 처리했다. 사제관 외벽에는 아치창을 대신 단순한 오르내리창으로 처리했다.
- 좌·우측 벽면과 사제관 외벽에 굴뚝을 지붕으로부터 상당히 올렸는데 이 모습도 ‘메리놀 양식’의 한 특징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구 부강성당>

- 구조체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원래 김재식 家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김재식은 일제강점기 광산으로 거부가 된 인물이다. 압록강에서 목재를 수송해 와서 본 건물을 지었다고 하며 목재 관리상태도 매우 좋다.
- 다만 별당(주택)에서 성당으로, 성당에서 수녀원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애초에 주택의 방을 구획하던 벽체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 온돌 위에 마루를 깔았다가 다시 그 위에 온수난방장치를 설치, 흙바닥이던 부엌바닥을 높여 실내화하고 천장을 새로 설치, 실내 화장실을 뒷마루 끝에 설치, 다용도실·샤워실·보일러실을 배면 우측 부엌 뒤로 증설 등에 따라 공간구획·단면·마감·외관에 변화가 있었다.
- 정면 전퇴 끝에 달았던 목재미닫이창을 모두 걷어내고 알루미늄 창, 안쪽으로 방범용 창살, 바깥쪽으로 망을 설치했다. 전면 우측 2칸에 2짝 판문을 내었는데 그중 안쪽 칸 판문을 뜯어내고 철문을 설치했다. 좌측 2칸 중 1칸반 정도에 실내화장실을 만들고 그 안쪽도 실내부엌을 만들어 외관의 변화가 있었다.

<부강성당 사무실>

- 구전 및 1960년대 촬영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 구조체를 제외하고 외벽·창호·지붕·내부공간에 걸쳐 상당히 많은 변형이 있었고, 원래 지붕을 짚으로 엮은 초가였다가 함석으로 바꾸고 다시 일식 시멘트기와를 엮는 등의 과정에서 지붕하중의 변화로 인해 건물 우측부가 내려앉은 상태이다.

<부강성당>

- 전체적으로 구조와 외부마감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2008년 실내공사를 통해 실내는 원형을 거의 잃어버렸다. 이 공사로 성당 측벽 창호 중 작은 창은 내벽 마감으로 감춰졌고, 홀(네이브)와 트란셉트를 구획하던 4짝 목재 미단이창이 철거되었다.
- 이에 반해 사제관 중에서 2008년 실내공사에서 부분은 붙박이가구까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신청자 측은 부강지역에서 메리놀외방전교회의 전교 및 구울활동이 이루어진 현장으로서 신청 건물에 대한 애정과 보존 및 관리 의지가 있고, 건물 뿐 아니라 건물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의 보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
- 비교적 넓은 대지 안에 3개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대체로 나지막한 주택지로서 주변환경도 양호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구 부강성당>

- 신청자 측은 구 부강성당(한옥1)을 한옥 홈스테이 시설로 만들어 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종교인들의 피정공간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제의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유물관으로 만들어 성당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의 원본을 전시할 계획이다. 다만 “사제의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구 부강성당의 한켠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 한옥 홈스테이로 활용할 경우 화장실·부엌·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시설들이 건물의 현재 변형에 변형을 추가시킬 우려가 있다.
- 본 건물은 주택으로 지어진 한옥을 성당으로 전용했고 이후 다시 수녀원으로 전용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성당과 수녀원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공간구획, 단면, 마감, 창호, 설비 등에 여러 변형이 있었기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한옥 주택을 성당으로 전용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전용방식(쓰임새)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수녀원으로 사용할 당시의 실측 평면도·입면도가 남아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등록신청서 추가자료).
- 선불리 활용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건물변형이력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물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강성당>

- 신청자 측은 부강성당(양옥)을 현재와 그대로 성당으로 활용할 계획은 적절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구 부강성당>

-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성당으로는 <진안성당 어은공소>(국가등록번호 제28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제140호), <장수성당 수분공소>(제189호), <서산 동문동성당 상흥리공소>(제338호) 등이 있다. 이들 성당 및 공소는 모두 애초에 성당으로 지은 건물이다. 반면 구 부강성당은 부강지역 부호의 꽤 규모 있는 한옥 별당으로 건축된 건물을 성당으로 전용한 경우로 희귀한 사례이다.
- 기존 건물을 공소로 전용한 사례로 <영덕 구 영해공소>(제762-8호)가 있는데 이 경우 일본식 가옥을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신부가 방문하여 미사전례를 했다는 점에서 본 건물과는 차이가 있다.

<부강성당>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양옥성당은 여럿인데, 대부분 정면 중앙에 종탑을 가지는 성당이다. <옥천성당>(제7호) <진주 문산성당>(제35호), <나주 노안성당>(제44호),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제54호), <울산 언양성당과 사제관>(제103호), <구 함평성당>(제117호), <원주 원동성당>(제139호), <전주 옥봉성당>(제154호), <홍천성당>(제162호), <횡성 풍수원성당 구 사제관>(제163호), <구 포천성당>(제271호), <서산 동문동성당>(제321호), <횡성성당>(제371호), <강릉 임당동성당>(제457호), <구 김포성당>(제542호), <대전 대흥동성당>(제643호), <강경성당>(제650호),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제659호), <군산 둔율동성당>(제677호),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제682호), <칠곡 왜관성당>(제727호), <인제성당>(제742호), <신안 흑산성당>(제759호)이 그러하다. 기타 독특한 형식과 모더니즘 양식으로 <춘천 소양로성당>(제161호), <서울 혜화동성당>(제230호)이 있다.
- 이들과 비교할 때 부강성당은 종탑을 정면 모서리에 배치하고 트란sept 한쪽에 사제관 연이어 짓는 구성이 독특하다. 2019년 지정된 <목포 경동성당>(제764호) 역시 정면 모서리에 종탑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충북 성당들과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아일랜드 성 골롬반외방전교회 관할 성당이기도 하다.
- 같은 카톨릭 성당이라 해도 각 전교단체마다 그 나름의 선호하는 형식의 성당 및 사제관 건축을 지었고 지역적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강성당은 메리놀외방전교회가 1960년대 전반기 충청지역에 지은 성당건축의 경향(소위 ‘메리놀 양식’)을 간직하는 사례로서 가치를 지닌다.

7) 등록가치 의견

<구 부강성당>

-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성당으로서 한옥을 성당으로 전용한 해방 전 사례로 평양교구 관할 은산성당(1923)과 초기 마산성당(1926)이 있고, 해방후 사례로는 본 구 부강성당이 있다. 북한지역에 있는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한옥성당의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고, 새 성당을 지은 후 기존 한옥성당을 철거하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이 건물은 살아남았으며, 특히 한옥이되 주택을 성당으로 전용한 사례가 드물고 그로 인해 출입구가 한옥성당과 같은 측면이 아닌 정면이고 내부공간도 주택 모습 거의 그대로 수용한 점, 상량에 건축시기가 남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물의 가치는 높다.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 한옥성당 부속채>

- 건물의 변형이 심하여 원래모습을 상당히 잃어버렸고 건물 자체로서 건축적 가치는 낮다. 특히 한옥성당을 사용할 부속 사무실로서 지역사회 구휼활동이 이루어지던 현장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변형은 꽤 아쉬운 부분이다.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부강성당>

- 해방 후 메리놀외방전교회의 한국 전교활동의 중심지역은 충북 청주교구인데 1960 전반기 관할 성당은 소위 '메리놀 양식'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건축형식을 취하는데, 부강성당은 그 경향을 비교적 잘 간직하므로 교회사·건축사적 가치가 있다. 다만 2008년 내부공사로 인해 그 원형을 상당히 잃은 점은 아쉽지만, 한국전쟁 직후부터 성당을 중심으로 구휼활동 등을 통해 부강지역 공동체에 인도적 도움을 준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어 사회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신청한 세 건물 중 구 부강성당(한옥1)과 부강성당(양옥)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구 부강성당이 한옥주택을 성당으로 다시 수녀원으로 전용된 희귀한 사례라면, 부강성당은 1960년대 충북지역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성당 특유의 건축형식을 잘 간직하여 각각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 다만 성당의 역사로 볼 때 두 건물이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자도 동일하므로 묶어서 등록해도 무방하겠으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묶어서 등록한다면 등록문화재 명칭으로는 '세종 부강성당과 구 부강성당'을 제안한다.

< ○ ○ ○ >

1) 개요

- 부강성당 설립 이전 1907년 비룡공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1933년 대전과 청주교구가 분리되고, 1957년 초 부강지역 본당 설립 계획과 함께 이 지역에서 천주교의 구호활동을 계기로 면장의 요청과 성당부지의 무상제공에 따라 건립여건이 마련됨.
- 이후 신청대상 부강성당은 1961년 5월 부지를 매입하고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62년 6월 17일 문금산 안젤로(A.Montuorri) 신부재임 당시에 본당과 사제관이 정식으로 준공됨
- 현 부강성당 건립 이전에 사용되었던 한옥성당(부강리 129-2)은 인접해 있던 김재식 가옥에 별당채를 1957년 선 다니엘(D.Schneider)신부 재임 당시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사용되었다가, 본당 건립 이후 예수성심시녀회의 수녀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교우 회합실로 사용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청연로와 인접한 부정형의 대지 위에 남쪽으로 진입로와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성당은 대지의 북쪽 청연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음, 구. 한옥성당은 대지의 동쪽에 사무실로 사용되는 대문간채와 함께 배치되어 있고, 진입로 서쪽으로 성모동산과 마당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쪽 구. 한옥성당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 본당은 본당 출입구과 제대를 축으로하는 중심축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제대는 북동방향으로, 출입구는 남서방향에 위치하고 있음,
- 옛 한옥성당은 북서와 남동쪽으로 장방형에 ‘—’자형 배치를 하고 있으며 마당 건물의 남서쪽에 마당이 설치되어 있음.
- 신청대상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부강성당 본당(소성당 및 사제관 포함)과 옛 한옥성당 배치는 기본적으로 라틴크로스 형식의 십자가형 치 형태로 되어 있음.
- 제대 좌측에 소성당과 우측에 사제관이 배치되어있으며, 제대 좌우측의 돌출공간은 대칭이 아닌 좌측에 규모가 작은 장방형의 소성당이 위치하고, 사제관이 우측에 배치되어 있음
- 평면은 주출입구는 포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측 문을 통해 본당에 들어서면 좌우 외벽에 돌출된 기둥외에 내부공간은 신랑(nave)과 측랑(aisle)의 구분없이 무주공간으로 구성되어 개방감이 확보됨, 제대는 장방형의 평면이 그대로 적용되어 끝단에 제단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원형이나 다각형의 앱스공간은 생략되어 있음.
- 본당의 제대 좌우측으로 소강당과 사제관이 본당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음
- 종탑은 본당과 별도로 분리되어 출입구 우측에 종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단부 위에 적벽돌로 마감됨.
- 본당 내부는 2009년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호 일부를 제외하고 인테리어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사제관의 바닥과 벽체 등은 원형 모습을 보존하고 있음
- 종탑부가 중앙에 배치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본체와 출입구의 배치 지붕에 형식 등은 북미식 교회건축의 스타일을 반영하였음.
- 박공지붕에 중앙출입구 앞으로 전실(narthex)을 포오치를 확장하고, 성당의 창문 형태와 마찬가지로 포인티드아치로 구성된 3개의 출입구를 설치함.
- 중앙은 본당과 같은 형태의 작은 규모에 경사지붕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좌우측에 출입문을 대칭으로 두고 있으며, 그 상부 지붕은 한쪽으로 경사를 갖는 외쪽 지붕으로 구성하여 2단 경사지붕에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소강당과 사제관의 출입문은 외벽에서 돌출시켜 포오치를 형성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였음.
- 본당의 구조는 적벽돌로 14칸을 쌓아 징두리벽을 돌리고 상부벽체는 모르타르 거친 미장마감을 하였음. 처마와 창호와 아치 인방 및 징두리벽 상부 띠, 테두리 등은 흰색 페인트로 마감됨 .
- 좌우측 외벽으로 돌출기둥(플라잉버트레스)이 세워지고 일부는 적벽돌로 굴뚝이 형성되어 입면에 변화를 주고 있음.
- 지붕의 선이 정리되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으며 안정된 입면을 취하고 있음
- 근대시기 파리외방전교회로부터 메리놀회가 평안도와 충청북도 등에 관할권을 받아 선교하는 과정에서 건립된 성당이 북미식 교회건축양식에 영향을 받아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1950년대 이후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이 집중되었으며, 1962년 건립된 부강성당의 건축양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 구 한옥성당은 좌측 한칸은 주방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면 8칸, 측면 2칸 규모로 구조는 2고주 5량가로 구성되어 있고, 회합실과 중앙에 2칸을 사용하는 하나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둥이 노출되어 있음.
- 지붕은 팔작 지붕에 한식기와로 마감되어 있음.

- 정면중앙에 5칸은 퇴칸으로 되어 있으며, 한식목창호와 상부 고창이 설치되어있고, 외부에는 AL창호 및 방법창이 설치되어 있음, 내부는 2짝 미닫이문, 우측면은 4짝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음.
- 건물의 배면에는 기존 한옥과 연벽해서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샤워실이 증축되어 있고, 다용도실을 통해 주방으로 출입이 가능함.
- 초석은 원형초석으로 배면은 기단부가 변형되면서 초석의 상부 일부만 노출된 상태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부강성당 본당은 지속적인 관리로 건물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2009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내부마감에 변형이 있었으며, 기존 목재 창호에 플라스틱 창호를 덧대어 시공함. 구조와 외형에 원형보존 및 노후화 상태가 양호함.
- 구.한옥성당은 배면과 좌측면 일부 시멘트벽들을 쌓아 변형된 부분이 있으며, 내부에 기존 회벽과 마루 마감이 방으로 사용되면서 벽지 및 장판지로 마감이 바뀌었고, 화장실과 주방 일부는 타일을 붙여 마감함.
- 본당의 창호는 기존 목재창호에 플라스틱 창호를 덧대었으며, 구.한옥성당의 창문은 외부에 알루미늄과 방법창이 설치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천주교 전례기에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의 시작점이 되었던 비룡공소가 설립되고, 부강에서 한국전쟁 이후 구휼사업 등 지역민과 생활사를 같이 했던 장소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은 부강성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원형복원 및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에 대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강성당 본당과 옛 한옥성당이 동일 필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교구와 성당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신청대상 건물은 성당 본당과 회합실(구. 한옥성당)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는 마당과 조경 부분 등 완충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재 훼손이나 변형 등 저해할 만한 주변 환경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부강성당 본당은 메리놀회를 중심으로 청주교구의 선교활동을 통해 부강에 자리 잡고 건립된 성당이며, 건립 이전에 성당으로 사용했던 구.한옥성당과 함께 보존 관리되고 있음
- 신청대상인 두 개의 건물은 부강성당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역에 근대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또한 부강지역 천주교 신자들에 신앙의 산실이며, 지역 주민들에 쉼터이고 안식처에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임
- 종교적, 건축적 가치와 더불어 지역에서 문화적 의미를 내재한 부강성당은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면 물리적인 수리·보수 외에도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부강성당은 신앙적으로 청주교구에 역사적 맥락과 함께하고 있으며, 건축적으로 북미의 교회양식이 반영된 건물임.
- 지역의 근대 생활사와 문화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으로 연계하여 순례객이나 방문객에게 근대식 한옥에 대한 체험과 종교적 습터로써의 활용계획을 목표하고 있음.

다. 기타사항

- 부강성당 내 보관 중인 기록화 자료나 유물에 대한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에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활용계획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옥천성당(국가등록문화재 제7호)은 1956년 4월 건립된 성당으로, 부강성당을 건립한 메리놀회 소속 선교에 의해 건립됨.
- 고딕양식과 전면출입구의 지붕을 박공지붕으로 표현한 조지안 양식이 절충된 성당임.
- 처마면과 창문인방, 띠돌림 등 돌출부는 백색페인트 마감이며, 외벽은 거친 미장면 위에 페인트로 마감함.
- 부강성당의 본당은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구조와 의장, 재료 등에 측면에서 고딕과 북미식 교회건축 양식이 혼재된 절충식 교회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강성당은 외형이나 양식에 있어서 기존 문화재로 등록된 성당과 비교했을 때 고딕양식 보다는 북미식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부강성당(1962년 건립) 및 구. 한옥성당(1957년 매입)은 부강지역에 천주교 전파와 확장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구휼사업을 통해 신앙과 공동체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음.
- 건축적 의미에서 기존 고딕양식의 천주교 건축양식과 다르게 미국 메리놀회 선교를 통해 북미식 교회건축양식이 반영된 성당이며, 구. 한옥성당의 경우도 사가(私家)로 사용되었던 근대식 한옥을 매입해서 초기에 성당으로 사용하고, 이후 수녀원, 회합실의 용도로 활용해오고 있음.
- 부강성당 본당과 옛 한옥성당은 건립 당시의 구조와 형태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서적, 기록화 자료 등) 등은 종교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대문간채의 경우 구조와 재료의 변형이 크고, 성당과 관련된 건축사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금번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부강성당은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건축적 측면에서 구.한옥성당과 현재 본당이 갖는 양식적 특징, 구조 및 형태 등 건축적 보존가치가 높다고 사료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한옥성당의 등록 시 명칭은 '구. 부강성당'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4.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회 등록 검토('20.4.21.)를 거쳐 등록 예고한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240-8
 - 소 유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 수 량 : 1동(본관, 부속동, 연결복도) *온실동 제외
 - 면 적 : 300㎡ (현황측량면적)
 - 건립시기 : 1940년대 추정
 - 구 조 : 조적조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3.29.) : 문화재 등록 신청(제주시→문화재청)
 - ('19.12.1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0.1.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대상건축물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자료 보완)
 - ('20.2.28.) : 보완자료 제출(제주시→문화재청)
 - ('20.4.6.) : 문화재 등록 추가 검토 조사 실시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5.4. ~ 6.2. (30일간) *의견 없음

라. 보완자료<붙임1>에 따른 추가 검토 의견

○ ○ ○ ○ ('20.4.6.)

-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지소의 성격과 기능 검토의견

- 보완 자료 1page “京城帝大藥學部 漢藥原料研究”(동아일보 1928년 1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경성제국대학은 의학부 소속의 약초원 건립을 총독부학무과와 교섭 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보완 자료 2page “一流講師動員된 藥草講習盛況”(동아일보 1938년 10월 13일 기사)과 “篠田城大總長來開”(동아일보 1940년 7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개성 소재의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본관낙성식과 강습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당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가 개성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완 자료 3page “濟州道藥草園 -城大서實現에努力”(매일일보 1941년 11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경성제국대학 부속 약초원을 제주도에 설치하여 약초 재배생산연구하기 위하여 성대교수(杉原)등과 함께 전남도위생과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를 통해 제주도에 설치 예정인 경성제국대학 부속 약초원의 성격이 약초 재배생산연구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부속건물의 시험장 기능과 성격 검토의견

- 보완 자료 4page 1944년 12월 3일 발표한 石宙明의 논문“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附近의蝶相”을 통해 1944년 당시 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이 현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완 자료 6page “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配置圖”에 의하면 당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관련 건축물은 본관 1동과 전면의 관사 2동, 본관 후면에 위치한 창고시설을 확인 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 신청자료와 현장조사에 따르면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로는 본관동과 이후 건립된 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사동과 창고시설은 철거된 것으로 추정됨.
 - ① 본관 222.15m² (본관 192.4m²/부속동 19.83m²/연결복도 9.92m²)
 - ② 온실동 29.75m²

- 검토의견

- 대상 문화재의 명칭 문제: 현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지소, 제주시시험장(약초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완자료 4page 1944년 12월 3일 발표한 石宙明의 논문 “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附近의蝶相”과 보완자료 6page “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配置圖”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은 “舊)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으로 이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대상 문화재의 기능과 성격: 보완 자료 3page “濟州道藥草園 -城大서實現에 努力”(매일일보 1941년 11월 19일 기사)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부속 약초원의 성격이 약초 재배생산연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舊)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의 경우 약초의 재배생산 연구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配置圖” 등 도면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연구기능을 위한 시설은 보이지 않음으로 약초의 재배생산이 주 기능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대상 문화재의 등록범위: “京城大藥付屬生藥研究所濟州道試驗場配置圖”등 도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관동, 관사,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실동의 경우 최초건립 연도가 불분명하며 원 건물의 기능과도 연관성이 떨어짐. 또한 철골건물로서 유지 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온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장소와 기초부분은 보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관동 222.15㎡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향후 복원이 필요한 관사 부지를 포함한 2240-8 지역 중 일부를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 ('20.4.6.)

- 신청대상이 일제강점기 연구를 목적으로 건립되어진 시설로, ‘생약연구소’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시험장의 목적을 재검토하고자 보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도지소의 시험장 개장 일자(자료에 제시된 1943년 4월 24일)와 석주명 선생의 근무기한(1943년부터 약 2년 1개월)을 토대로 해당 연구시설은 석주명 선생이 관여된 곳으로 제시된 보완자료를 통해서 당시 일제에 의해 연구시설 및 연구내용 등이 본래의 계획과 다르게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삼이나 약초를 통해서 생약 민간요법의 사용과 발전이 있어 왔으며, 이를 일제는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도지소의 시험장 개장을 통한 연구에 목적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보완자료를 검토한바 생약연구소 및 시험장(약초원) 건립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과 약초의 확보가 용이한 점을 토대로 개장이 계획되었고, 경성 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도지소의 시험장 개장 시기와 석주명 선생의 근무시기에 연관성 등을 토대로 제시된 시험장의 성격과 연구소의 관련 시설 규모 및 연구에 있어서 개방적인 연구 활동 등은 해당 시설이 약초 등에 관한 생약연구를 위한 연구소 및 시험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라고 사료됨.

○ ○ ○ ○ ('20.4.6.)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등록문화재 검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소유자 측 보완자료에 따르면, 최초 건립 당시 동 시설의 구체적인 성격 및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동 시설의 역할 및 목적과 함께 제주도에 건립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 및 매일신보 기사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이밖에, 등록 시 등록 명칭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 ○ ○ ('19.12.13.)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동시기 연구소 건축이 갖는 배치 및 공간구성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평면과 입면, 구조적 측면에서의 원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학 연구의 개척자인 나비박사 석주명선생이 근무했던 시설로 지역사(인물) 측면에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용계획(석주명 기념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사업효과가 기대됨.
- 이에, 부속동 등을 포함한 본관 222.15㎡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온실 제외), 보존범위는 향후 복원이 필요한 관사 부지를 포함한 2240-8 지역 중 일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 ('19.12.13.)

- 부속 생약연구소는 1940년대에 건립되어 제주지역의 자연 및 민속 문화를 연구해 온 장소이며, 석주명 선생이라는 인물과 연관된 장소로 의미가 있음.
- 배치형태와 지붕 및 벽체 등 주요 구조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정면성이 강조된 파사드와 포오치 부분에 표현된 디테일과 사용된 마감재 등이 특징이며, 원형이 잘 남아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따라서 건립시점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고,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주변 경관 및 배치에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등록문화재로서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 ○○○ ('19.12.13.)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는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1940년에 신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 여러 곳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험장 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오랜 세월동안 여러 기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은 있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음.
- 이밖에,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선생이 생약 관련 연구를 위해 한때 (1943년~1945년)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석주명 유품'으로 의류 등 14점이 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등록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1>

「舊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보완자료

1. 보완 사유

-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가 당시 어떤 성격의 연구소 지소로서 기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험장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음.
- 시설 및 장소성에 대한 자료 보완을 통해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부속된 공간인 시험장의 기능과 성격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함.

2. 약초원과 생약연구소

2-1. 경성제국대학의 생약연구소 및 시험장(약초원)의 기능과 성격

- 1928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의학부 약물학교실의 제2강좌를 특색 있도록 1929년도 예산에 3천원을 계상하여 한법의학(漢法醫學)의 원천인 초목(草木)의 약원(藥園)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삼천여종의 초목을 재배하여 의학부 소속의 약초원(藥草園)을 만들어 놓으면 동양최대가 될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1].
- 이는 약초원이 생약개발을 위한 시험장으로 조성,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개성에 건립된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와 시험장인 약초원의 기능과 성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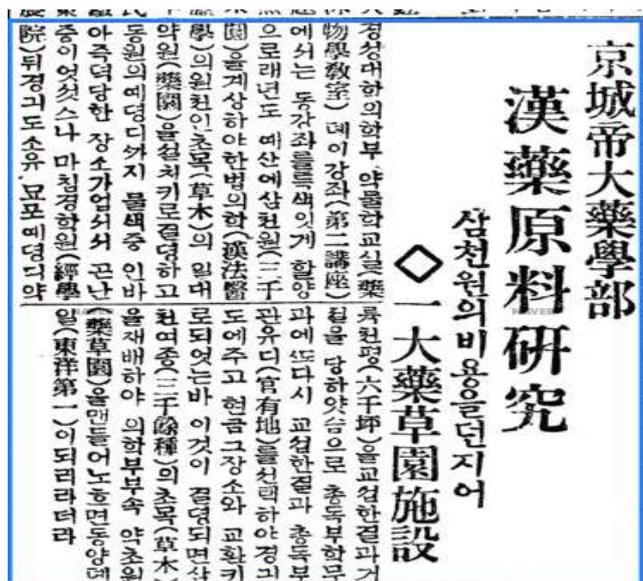


그림 1. 동아일보 기사(1928년 1월 14일자)

-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는 초기에 “약초원”에서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전해짐.
- 동아일보 1938년 10월 31일 기사는 개성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대(경성제국대학) 약초원에서 본관 낙성식에 계속이어 4일간에 걸쳐 도 위생과의 주최아래 약초강습회를 개최하여 경성제국대학의 스기하라(杉原)교수 등 일류 강사가 참여함으로써 경기도, 경북, 충남, 강원, 황해, 평남 등 각 도

(道)로부터 약60여명의 참가자가 홍삼제조 및 약초의 실지채취지도를 강습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그림 2].

- 또한 경성제국대학 총장의 개성방문을 소개하는 동아일보 기사(1940년 7월 31일자)에서는 「개성 내 운학정(雲鶴町)에 위치한 생약연구소를 시찰하고 관계자들과 개성의 약도(藥都), 즉 약초재배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약연구소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 이는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의 기능과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사내용으로 약초 재배 및 실험 중심으로 시설과 공간을 운영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과 공간 개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생각됨.



그림 2. 동아일보 기사(1938년 10월 13일자)



그림 3. 동아일보 기사 (1940년 7월 31일자)

2-2.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시험장(약초원)의 기능과 성격

-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시험장 건립 시기는 석주명선생의 논문에서 생약연구소 제주지소 제주시험장의 재장식일을 1943년 4월 24일로 언급하고 있어 1943년 4월 24일 제주도지소와 제주시험장이 개장된 것으로 추정됨.
- 당시 개성에 있던 연구소장이 제주도 시험장에 보낼 사람을 찾고 있던 차에 석주명이 스스로 파견을 원하였고, 1943년부터 약 2년 1개월간 제주도 시험장에서 연구소장을 맡았음.
- 석주명 선생이 제주지소에 부임하기 2년 전인 1941년 매일신보 기사(1941년 11월 19일자)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이 제주도 약초원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기사에서는 「조선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제주도이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과일은 물론이고, 자연생장하고 있는 약초가 150여종에 달하고 있어, 약초부족을 느끼고 있는 이때 목포 등에서는 약초회사 등을 조직하여 제주도의 약초재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약초원을 제주도에 설치하여 여러 가지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 한약계 권위자인 경성제국대학의 스키하라(杉原) 교수가 직원을 대동하고 전남 도 위생과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음. 그리고 조성규모는 약 3만평에 달함[그림 4].

- 그리고 2년 후인 1943년 4월에 제주지소와 제주시험장이 건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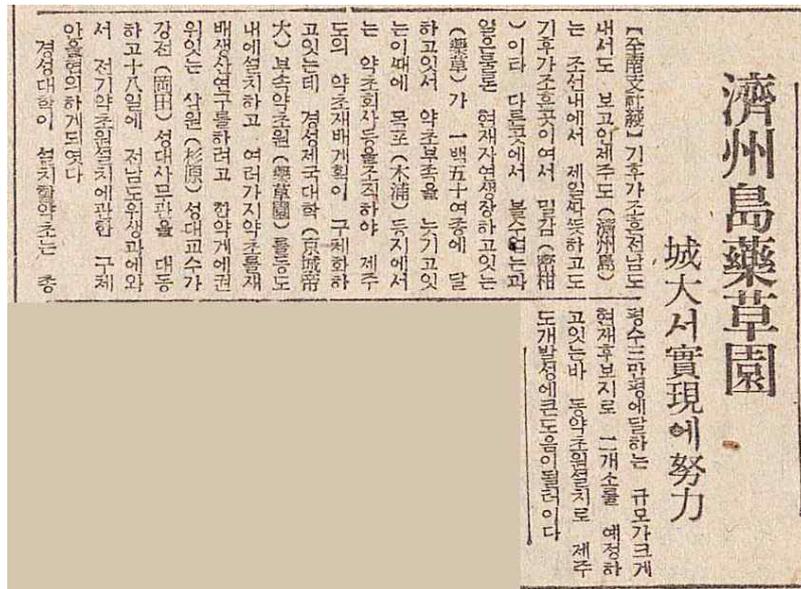


그림 4. 매일신보 기사(1941년 11월 19일자)(주: 서울대학교 약대 제공)

- 특히 석주명선생이 1944년 12월 3일 작성한 제주시험장(약초원) 부근의 나비에 관한 논문 「京城大學附屬生藥研究所濟州島試驗場附近의蝶相」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제주시험장(약초원)의 성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그림 5].
- 제주시험장으로부터 동쪽으로 4km, 서쪽으로 8km, 남쪽으로 3km, 북쪽으로 1km거리를 시험장 부근으로 정의하고, 이지역내 나비를 채취한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제주시험장(약초원)은 순수한 생약연구를 위해 조성된 연구소이자 약초재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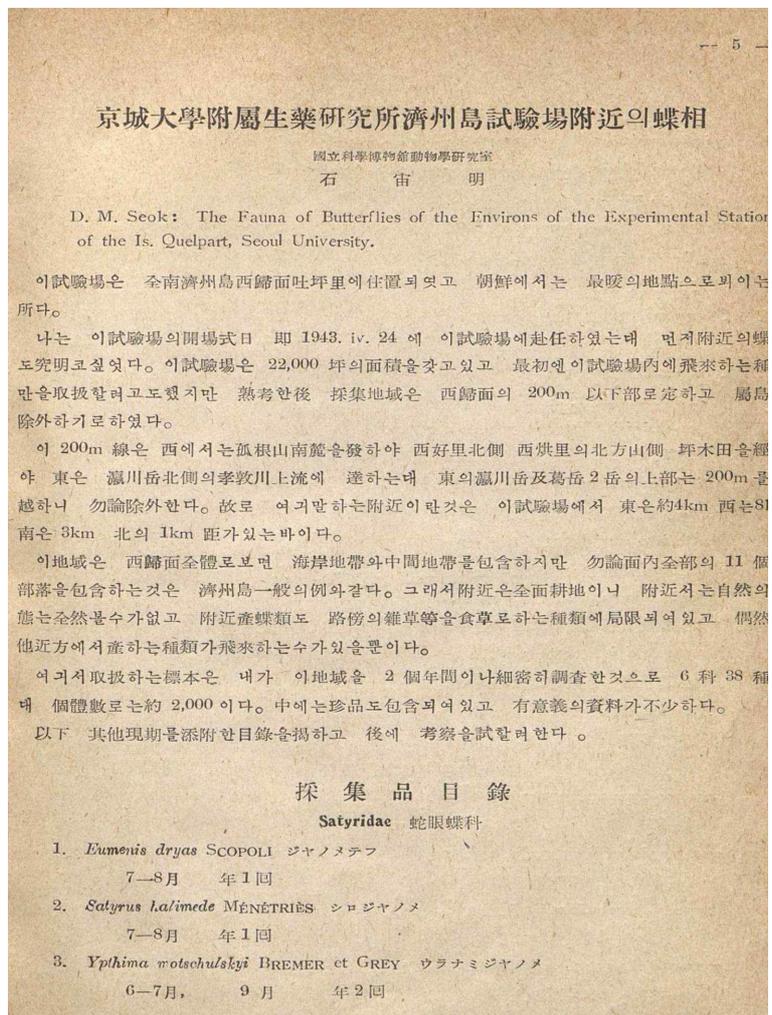


그림 5. 석주명 선생이 작성한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부근의 나비에 관한 연구논문(1944년 12월 3일)

- 그리고 매일신보 1944년 5월 18일자에서는 경성제국대학 야마가(山家) 총장이 「제주도 약초재배와 채취에 대하여 백여 종의 약초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약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옛날부터 불노장생의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제주도에 그러한 약초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그림 6].
- 이는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여 제주도의 특징과 생약연구소 제주지소와 시험장(약초원)의 기능과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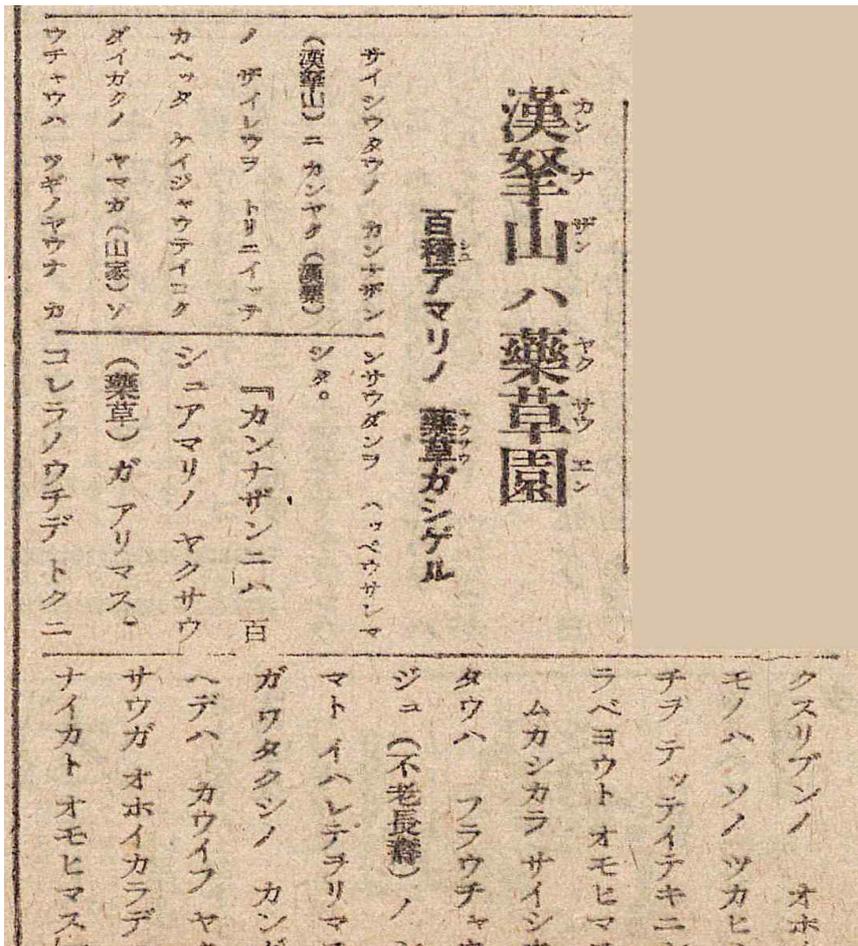


그림 6. 매일신보 기사(1944년 5월 18일자)(출처: 서울대학교 약대 제공)

3.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제주시험장 규모

- 제주시험장(약초원)은 약 3만평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1,918평 규모로 조성되었음.
- 당시의 배치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이 약초재배 시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생약연구소 제주지소는 본관과 관사, 창고 등 건물만이 계획되어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연구시설은 아니었음[그림 7].
- 실제 해방직후인 1948년 항공사진으로 본 당시의 제주시험장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넓은 약초재배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연구소 및 부속시설들은 마을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음[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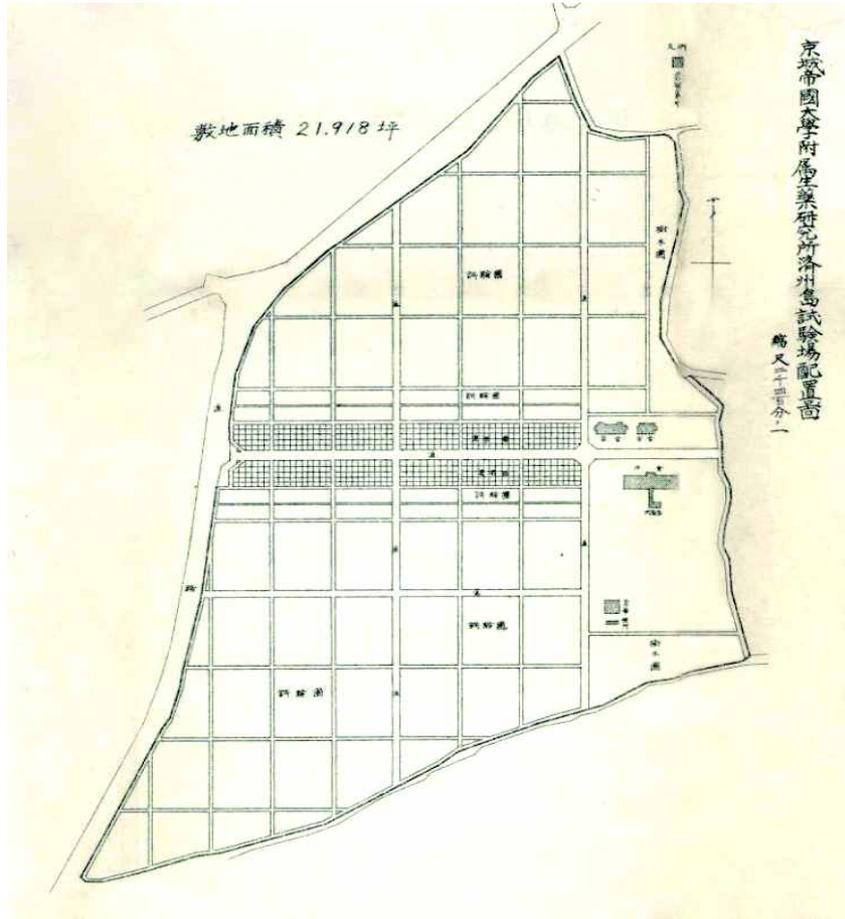


그림 7.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제주시시험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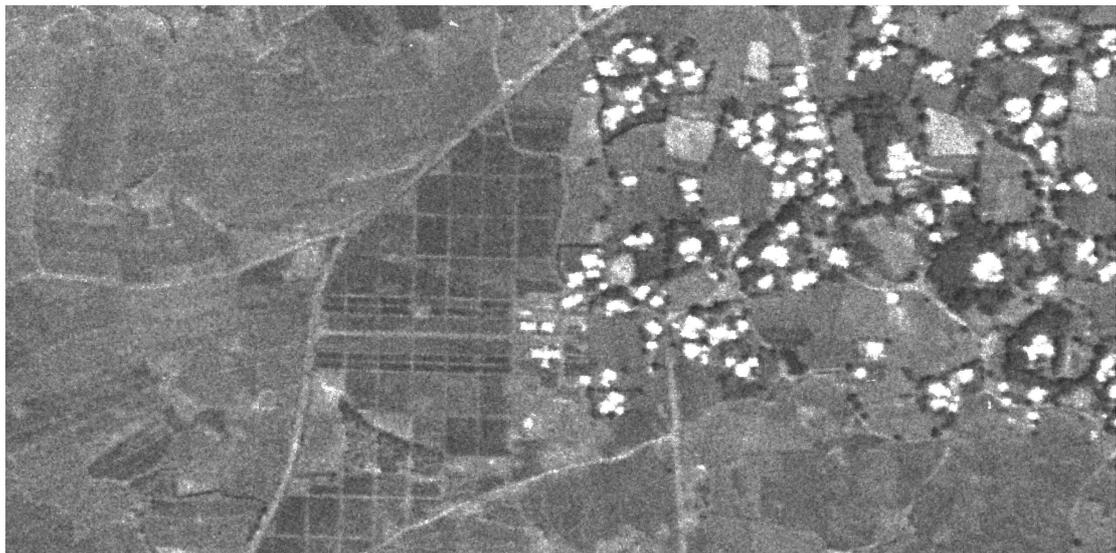


그림 8. 1948년 촬영한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 및 제주시시험장 모습

4. 결론

-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와 제주지소, 제주시험장(약초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들 생약연구소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소속으로 약학교실을 중심으로 약초연구를 통해 생약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
-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공개강습 등 활발한 연구정보 및 자료의 공유를 하는 등 개방적인 연구 활동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특히 제주시험장은 경성제국대학 설립 단계에서 한라산에 자생하는 약초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추진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설립 후 경성제국대학 총장 인터뷰에서도 약초개발에 있어서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 제주지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그 제주지소와 제주시험장의 기능과 성격은 약초재배와 생약개발에 두고 있음.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2. 용 도 : (현) 연구시설 (원) 연구시설
3.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240-8
4. 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조적조
 - 제작년도 : 일제강점기 (1940년대) 추정
 - 수량 및 면적 : 본관동 222.15㎡ (본관 192.4㎡/ 부속동 19.83㎡/ 연결복도 9.92㎡)
온실동 29.75㎡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15.03.17)

<○○○>

1) 개요

- 일제강점기 (1940년대)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설로 건립추정
- 1968년 소유권 국가귀속
- 1981년 아열대농업연구소
- 1987년 대수선 공사 실시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석주명선생 기념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2018.12, pp.45-49 참고)
- 1995년 교육부로 관리이첩
- 2001년 농업동물과학연구소
- 2013년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사용.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배치 및 구성: 본 등록문화재 대상 건축물은 본관동, 부속동, 온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마치 항공기 모양과 같은 배치 형식을 갖고 있음.
- 주요구조: 본관 및 부속동은 건립 당시 붉은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구조로 상부 목조트러스 위 일식기와 지붕으로 근대기 연구시설의 구성양식을 따르고 있음.
- 평면구성: 본관은 2개의 연구실과 사무실, 탕비실과 관리실(소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동은 화장실과 암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본관과 부속동의 경우 외부 복도를 통해 연결하고 있으며, 본관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온실은 철골조 유리구조로 별도의 출입구를 갖고 있음.

- 입면 및 재료: 본관은 조적벽체 위 시멘트 몰탈 마감(혹은 별도 외장재)으로 추정되며, 격자형 창호구조으로 근대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정면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입면을 구성하는 등 근대기의 공공건축의 입면구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창호 및 외벽마감은 대수선 공사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지붕의 경우 시멘트 일식기와로 지붕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수선 공사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 온실동: 현재 본관과 부속동을 연결하는 외부복도 좌측 편으로 29.75㎡ 규모의 온실이 위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건립연도를 확인 할 수 없음. (1981년 아열대농업연구소 개설시 신축된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① 본관동

- 본관: 일제강점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관의 경우 1987년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내부마감과 창호, 문의 교체로 인하여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내부 공간구성에는 변화가 없어 원형을 간직하고 있음.



- 부속동: 1987년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원형마감 부분에 있어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공간 구성(전실)에 있어 일부 변형이 있음.
- 연결복도: 기둥 및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목조부재 및 지붕재가 1987년 대수선 공사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됨.

- ② 온실동: 온실의 경우 정확한 건립연도를 알 수 없으나 부재구성 및 용접상태는 1981년 이후 신축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온실의 경우 경량철골로 구성되어 있으나 접합 및 용접상태, 창호의 결합부분에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를 보존처리하여 재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③ 기타사항: 본관, 부속동, 연결복도의 경우 일부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재료의 노후화 및 구조 안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음.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석주명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 석주명선생의 경우 본 유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인 동시에 시설과도 연관성이 높아 활용계획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유산 주변의 경우 생약연구소로 사용될 당시의 자연적 환경이 잘 남아 있으며 또한 관사 건축물에 대한 도면과 위치가 확인되는 바 이와 연계한 활용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광양의 서울대 학술림 등 유사 연구시설과 연관성을 검토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실현가능성 및 효과가 기대됨.

다. 기타사항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당시 연구소의 배치 및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조사를 통하여 원형을 규명하고, 동시에 연구소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시설들의 주변정비 및 멸실 시설의 복원을 통하여 동시기 대학연구시설이 갖는 원형적 모습으로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서귀포시의 소유이며, 지차체의 보존의지가 높으며,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사용할 당시의 주변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환경이 양호한 편임.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도면이 현존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건물의 원형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임. 특히 외벽 구성방식과 재료, 그리고 당시의 건축기술 분야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복원 및 활용방안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석주명선생 기념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 일제강점기 연구소 시설로서 현존하고 있는 국립대학 연구시설(광양시 소재 서울대 학술림)과의 연관성 등 동 시기 연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동 시기 연구소 건축이 갖는 배치 및 공간구성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평면과 입면, 구조적 측면에서의 원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출입구 장식 등 일부 시설의 경우 특이성을 갖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본 건물의 경우 건립 당시의 도면자료가 현존하고 있어 연구소 시설주변을 정비계획이 가능하며 멸실된 관사를 복원하는 등 원형(기능)에 충실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학 연구의 개척자인 나비박사 석주명선생이 근무했던 시설로 지역사(인물) 측면에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용계획(석주명 기념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사업효과가 기대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가. 등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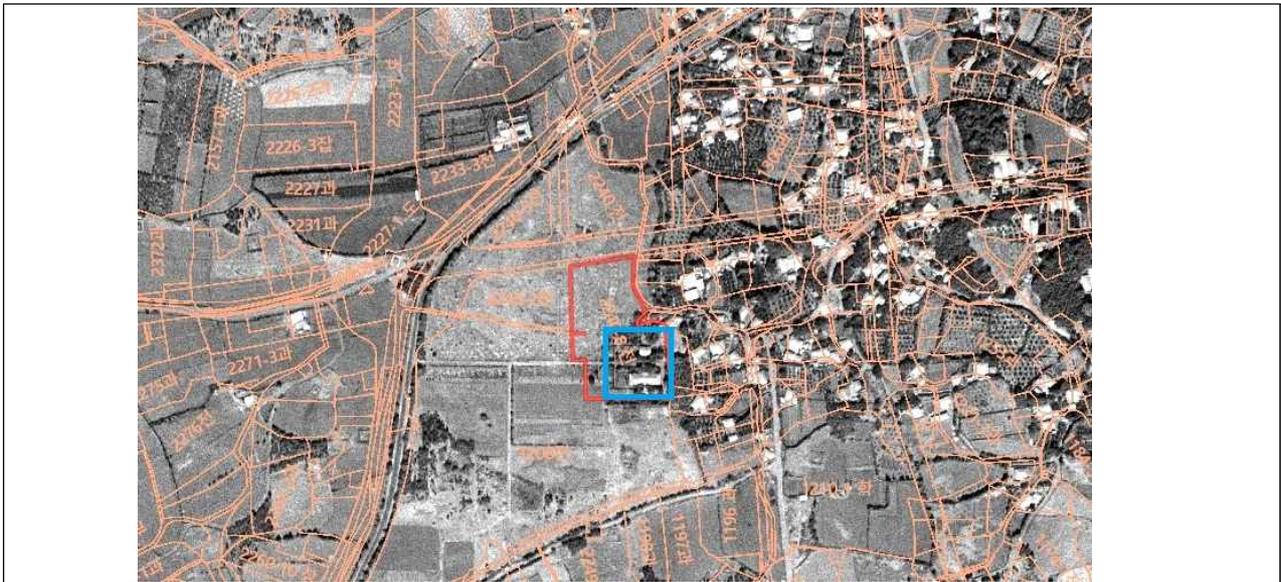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의 경우 최초건립 연도가 불분명하며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기능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노후화된 철골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온실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소와 기초부분 등 일부시설은 활용측면에서 보존하는 것을 권유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존대상 및 범위

- 현재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였으나, 보존범위는 관사가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를 포함하여 연구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변시설(담장 등)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결론

- 본 조사자는 부속동 등을 포함한 본관 222.15㎡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범위는 향후 복원이 필요한 관사 부지를 포함한 2240-8 지역(그림 참고)중 일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1) 개요

- 신청대상 건물은 서귀포시 토평동 2240-8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0년대 건립된 옛 경성제국대학 부설 생약연구소는 당초 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전해지며, 현 건물에 현황은 당시 도면과 비교해 볼 때 배치와 건축적인 형태(정면 출입구의 기둥과 출입구의 디테일 등)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잘 남아 있음

- 또한 신청대상 건물은 나비와 제주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긴 석주명 박사가 1943년부터 약 2년 1개월간 연구소장을 맡아 머물렀으며, 당시 머물던 관사는 신청건물에서 북쪽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 있음.
- 현재 정식 명칭은 제주대학교 부설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이며, 소유자는 서귀포시가 소유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의 축은 동서방향에 'T'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화장실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음
- 대지의 북쪽이 중산간동로변에 면해 있고 신청건물까지 110m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음. 일제강점기 때 배치도와 비교해보면 주변에 건물은 대부분 철거가 되었고 북쪽 주출입구 방향으로는 수목으로 채워져 있고, 남쪽으로는 온실이 들어서 있으며, 도로의 위치 등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건물에 배치는 남북방향으로 'T'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정면을 서쪽으로 두고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장고가 위치하고 있음
- 북쪽 건물의 중앙에 건물의 입구를 설치하고 돌출된 포오치(Porch)를 통해 출입구로 진입방향으로 건물 뒤편으로 연결되는 중앙복도식이며, 복도 좌우측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는 좌우대칭형에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관과 부속건축물(현 화장실) 사이에 연결통로는 경사지붕의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음
- 본관 중앙복도 좌측으로 관리실과 탕비장이 있으며 관리실과 주출입구 사이에 동쪽 방향에 복도를 통해 좌측에 연구실로 진입함, 중앙복도 우측으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출입구에서 서쪽으로 복도를 통해서 우측에 연구실 진입이 가능함. 우측 연구실은 복도에 들어서면 복도부분이 확장되어지도록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음.
- 부속건축물에는 양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관의 우측면에 인접해 온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립년도가 명확하지 않고 이형에 거šet플레이트 등 건축재료 및 용접과 리벳치기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있음.
- 건물 입면은 중앙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의 입면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앙출입구 앞에 포오치를 설치하여 정면과 좌우측으로 현관 진입이 가능함.
- 각 실에 창 의 형태는 장방형에 큰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방이 돌출된 형태로 미닫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 연구실로 진입하는 복도에 설치된 창문은 6등분할(2개씩 세로 방향으로 3칸 등분)된 작은 고정창이 설치되어 있어 좌측면과 비대칭형에 창문 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단순할 수 있는 입면에 변화를 주고 있음.
- 포오치의 기둥부에 장방형의 형상('—'형)에 유약을 바른 자기타일의 마감이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보 부분에 마감 등 세부적인 디테일은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본관의 지붕은 우진각기와지붕이며, 북쪽 중앙현관부 상부에 박공면의 경사지붕으로 마감되어 있고, 전면 중앙부에 돌출된 포오치는 좌우 반모임지붕의 형태로 박공면 경사지붕과 같이 중앙현관부의 인지성과 건물의 정면성이 강조됨.
- 구조는 왕대공 지붕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八' 자보와 왕대공, 평보의 목조지붕 틀에 형식을 갖추고 있음
- 부속건물(화장실)은 모임기와지붕으로 본관의 배면 중앙출입구와 부속동의 중앙에 주출입구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남북방향으로 중심축을 이루면 연결되어져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87년도에 연구소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세부 용도는 사무실과 창고, 식물조직배양 육종실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창문은 기존 목재 창호를 철거 후 플라스틱(PVC)창을 설치했으며, 주출입구 현관의 경우 기존 목재 창호 철거 후 알루미늄도어로 교체되었으며, 기존 환기구는 벽돌로 막고 모르타르 위 수성 페인트로 마감하였음
- 지붕의 경우 주 구조부는 목조트러스로 현재는 천정이 텍스로 마감되어 있으나상부에 원래의 트러스 구조가 잘 남아 있음, 지붕재는 기존 함석철거 후 기존 판재 위에 루핑을 깔고 시멘트기와를 잇고 페인트를 칠하여 마감하였으며, 본관과 화장실, 연결통로(회랑) 부속건축물의 지붕 역시 기존 함석 철거 후, 방수처리 후 시멘트기와 잇기 위에 페인트로 마감함.
- 벽체는 벽돌을 쌓고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로 칠로 마감 되어져 있음.
- 전반적으로 구조체는 대수선과 유지관리가 지속되면서 노후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실내 바닥재 등 마감재의 훼손 부위가 확인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는 현재 제주대학교 부설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사용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음.
- 서귀포시 중심지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비롯한 다양한 근대유산과 자연유산이인 접해 있어 보존여건과 함께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석주명 선생과 연관된 곤충학,제주도의 민속학 등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요소가 다양함.
- 신청대상건물은 지역사회와 제주대학교 내에서 역사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원형보존과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주변에 역사문화와 경관적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져 보존관리와 활용에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교육연구시설 내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하고, 외관의 변경요인이나, 훼손에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보존관리 측면에서 문화재등록 이후 제주도 특유에 돌담과 수목과 같은 녹지환경과 어우러져 보존과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주대학교의 역사와 인물과 연관된 인지성이 높은 건물로서 소유자에 보존과 활용 의지가 강하고, 향후 지리적 특성상 외부환경의 변화요인이 크지 않아 역사와 교육, 문화적 차원에 석주명기념관, 생태형나비공원 등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기념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적절한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재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사항

- 본관 우측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온실의 경우 문화재 활용과 연계된 공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립시기와 구조 및 건축기술, 형태 등에 있어서 문화재 등록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청주 공립보통학교 강당(등록문화재 제350호, 2007년 9월21일)은 청주지역 근대 식교육기관으로 1923년 건축된 강당건물임, 지상 1층에 장방형 평면은 정면을 장변 방향으로 배치하고,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붕 상부에 장식창이나, 전면과사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행자 출입용 포오치가 현관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지붕은 쌍대공 지붕틀에 우진각지붕으로 양식기와를 마감되어 있음. 현재 연단 등의 시설들은 철거되었으며, 2001년부터 교육박물관으로 본교의 자료와 의식주와 민속문화, 지역 사회 문화자료 등 생활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부속 생약연구소는 1940년대에 건립되어 제주지역의 자연 및 민속문화를 연구해 온 장소이며, 석주명 선생이라는 인물과 연관된 장소로 의미가 있음.
- 배치형태와 지붕 및 벽체 등 주요 구조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정면성이 강조된 과사드와 포오치 부분에 표현된 디테일과 사용된 마감재 등이 특징이며, 원형이 잘 남아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따라서 건립시점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고, 1940년대 건립 당시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주변 경관 및 배치에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등록문화재로서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문화재 명칭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가 적절함

<○○○>

1) 개요

- 동 시설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로 사용된 곳으로,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1940년대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험장 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또한, 이곳은 소위,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선생이 생약 관련 연구를 위해 한때(1943년~1945년)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는 ‘석주명 유품’으로 의류 등 14점이 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록되었으며, 유품은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음.
-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연구시설로 이용하였으며, 1968년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관되면서 제주대학교 부속 아열대농업연구소와 동물과학연구소,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등으로 줄곧 사용되어 왔고, 2017년 제주도로 관리 전환되었음.
- 현재는 빈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나, 최근 제주도(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석주명선생 기념사업’을 통해 기념관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최초 건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해오면서 내부 공간의 변형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신축 당시의 설계 원도(국가기록원 소장)와 비교해 볼 때, 배치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신축 당시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헌기록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건물은 북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크게 본관 건물과 농기계창고,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본관만이 남아 있음.
- 또한, 기록사진에 의하면 본관 남쪽 즉, 정면으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2동의 관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에 모두 철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밖에, 본관 뒤편으로는 유리온실 1동이 위치하고 있으나, 1940년대 항공사진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건립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됨.
- 신축 당시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본관은 크게 사무 및 연구공간인 청사(廳舍)와 부속체인 부속가(付屬家), 이 두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시설인 도랑하(渡廊下)로 구성되며, 이들 건물은 전체적으로는 공(工)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음.
- 이밖에, 최초 건립 당시 청사 및 부속채 내 각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청사의 경우에는 크게 연구실과 사무실, 탕비실, 소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시설은 창고와 암실, 화장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
- 청사(廳舍)는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였고 현관을 들어서면 동·서 방향으로 연장된 복도를 놓고 양단부쪽에 각 1개씩의 연구실을 통칸으로 설치하였음.
- 또한, 동·서방향의 복도와 직교하는 남·북방향의 복도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정(丁)자형의 내부 통로를 구성하였으며, 이 통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탕비실과 소사실(관리실), 우측에는 사무실을 두었음. 이밖에, 청사 뒤편에 위치한 부속채와의 연결을 위해 남·북방향 복도 남쪽 끝단에 별도로 외부 복도를 달아내었음.
- 전체적인 구조는 조적(붉은벽돌) 벽체에 목조 지붕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에는 칼라 시멘트기와를 올렸으나, 당초에는 개관 위에 함석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임. 벽체는 기본적으로 조적 위에 몰탈을 발라 마감하였으며, 내부의 경우에는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를 칠을 하였으나, 당초에는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임.
- 창호의 경우에는 형태와 재료 등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1987년 제주대학교 부속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때 각 실의 내부 공간 역시 다소의 변형이 생긴 것으로 판단됨.
- 현관은 정면 좌·우측에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목조 지붕가구를 짜올린 포치 형태를 취하고 있음. 기둥 외부에는 일종의 자기 타일로 마감한 것이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신축 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최초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됨.
- 도랑하(渡廊下) 즉, 청사 뒤편에 달아낸 외부 복도는 목구조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최초 건립 당시의 형태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임. 다만, 청사와 마찬가지로 지붕에는 시멘트 기와를 올렸으나, 당초에는 개관 위에 함석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임.
- 부속가(付屬家)는 일종의 부속채로 당초 창고와 암실, 화장실로 사용된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다만, 화장실의 경우에는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한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1987년 보수공사 도면에 따르면, 부속채 일부 벽체는 본래의 것으로 헐어 내고 새로 쌓아 보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 마감재 및 창호 등도 역시 변경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신축 당시 작성된 설계도서(국가기록원 소장)와 비교해 보면, 구조체 및 외부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1987년 보수공사를 통해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 등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이전 상황을 알 수 없어 외부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2017년 제주도(서귀포시)로 관리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관련 연구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 노후화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제주도(서귀포시)에서는 동 시설을 시대적·지역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를 ‘(가칭)석주명 기념관’ 등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현재 관련 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음.
-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가칭)석주명 기념관’을 비롯하여 이 일대를 역사문화자원으로 발굴·조성,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꾀하고 이와 함께 석주명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 보존 관리할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석주명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등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와 유사 시설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로는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223호)’가 있음. 다만, 이 시설의 경우 연습림 내에 숙소로 사용하였던 관사만 남아 있는 상태로 당시 건립된 부속 연구시설로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는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1940년에 신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 여러 곳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험장 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오랜 세월동안 여러 기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은 있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음.
- 이밖에, 소위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선생이 생약 관련 연구를 위해 한때(1943년~1945년)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석주명 유품’으로 의류 등 14점이 국가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록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서귀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5.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구 목포세관 부지 및 구 세관창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회 등록 검토('20.4.21.)를 거쳐 등록 예고한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향동 6-8 / 6-33
 - 소 유 자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 수 량 : 세관부지 및 세관창고 2동
 - 면 적 : 세관부지 1,848.6㎡
세관창고 A동 710.2㎡, B동 372.9㎡(현황측량면적)
 - 건립시기 : 세관창고 1954년~1960년 추정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9.3.) : 문화재 등록 신청 “구 목포세관 창고”(목포시→문화재청)
 - ('18.11.1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1차)
 - ('19.8.28.) : 문화재 등록 재신청 “구 목포세관 창고 및 구 세관부지”
 - ('20.2.1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2차)
 - ('20.3.20.) : 목포세관 부지 문화재 발굴(표본조사) 실시
 - ('20.3.24.)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3차)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5.4. ~ 6.2. (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18.11.15. '20.2.13. '20.3.24.)>

- 구 목포세관 본관의 고층 및 유구발굴은 근대기 목포개항의 대표적, 상징적 존재이었던 목포세관의 실체적 흔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항이후 목포 조계지의 도시계획 및 공간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 판단됨.
- 세관창고는 구 목포세관 주변지역에 다수가 분포되며 이 지역 도시공간의 기본적 특성을 형성하였던 세관관련 건물들이 대부분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본관과 함께 구 목포세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과거 흔적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 사료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구 목포세관 본관 터와 창고는 목포개항과 목포세관의 실체적, 구체적 흔적으로서 근대사, 목포지역사, 도시건축사, 세관사 등의 중요한 사료라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보존 및 활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8.11.15. '20.2.13. '20.3.24.)>

-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념물에는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가 포함되어 있어 구 목포세관 부지는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존 창고 건물 자체의 등록가치는 충분하지 않으나 구 목포세관 본관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 세관부지는 6-33번지를 포함한 6-8번지로서 창고를 포함한 2개 번지가 모두 사적지로서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8.11.15. '20.2.13. '20.3.24.)>

- 현존하는 '구 목포세관 창고'가 당대의 유구가 아닌, 한국전쟁 이후에 새롭게 건립되었다는 점과 세관 청사의 흔적이 '부지(터)'로만 남아 있다는 것은 한계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구 목포세관 창고 및 세관부지'는 대한제국기 개항(開港)과 함께 목포에 설치·운영 되었던 '세관' 청사 건물과 관련 시설의 흔적들로, 축항(築港) 시설등과 함께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음.
- 즉, '구 목포세관 창고'는 도시화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 과거 세관이 위치 하였던 장소성을 인지시켜 주는 유일한 대상물로서 그 가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세관부지(터)' 역시 근대기 개항도시로서의 중요한 역사적 산물로서 적절한 보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구 목포세관 (구) 목포세관
2. 용 도 : (현) 세관 본관 터, 창고 (원) 세관 본관, 창고
3.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향동 6-8, 6-33
4. 소유자 : 기획재정부

5. 건축물 개요

<세관본관 터>

- 건축구조 : 조적조
- 준공일 : 세관본관 1908년(1950년대 멸실)
- 대지면적 : 6,728.2㎡

<세관창고>

- 건축구조 : 조적조
- 준공일 : 1954~1960년대
- 수량 및 면적 : 2동 (A동 661.16㎡ B동 330.58㎡)
- 층수(높이) : 지상 높이 A동 7.1m, B동 7.1m

6. 조사자 의견('18.11.15. '20.2.13. '20.03.24.)

<○○○>

1) 개요

-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해 1876년 부산,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이 각각 개항된 이후 목포는 진남포와 함께 이들 개항지에 이어 네 번째로 1897년 개항되었으며, 이후 1899년 군산, 마산, 성진이 개항되었고 1905년 청진이 개항되었음.
- 목포는 강화도조약에 의해 수동적으로 개항되었던 부산, 원산, 인천과는 다르게 1997년 10월 1일 고종 칙령에 의해 능동적으로 개항되었으므로, 자주적 개항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해석도 존재.
- 목포 지역은 본래 영산강과 다도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조운선 이동의 길목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중요 포구로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세종 21년(1439년) 해안방어를 위한 수군진영으로 목포진(木浦鎭)이 현재의 만호동 일대에 설치된 후 이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하며 성장.
- 목포진은 고종 21년(1895년) 폐진되었지만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목포진 주변 일대가 공동조계지로 설정되고 그 안에 해관(海關, 세관의 본래 명칭으로 1907년 명칭 변경), 일본영사관 등 각종 관공서와 일본인 주거지가 설치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심적 시가지로 성장.

-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과거 목포진의 부속건물에 목포해관 청사를 개소하고 관세업무 시작하였으며, 업무량이 증가하자 조계지 확장을 위해 1903년부터 매립 하였던 목포진 서쪽의 해안매립지로 1908년 청사를 이전.
- 목포세관은 1908년 이전 당시 본관이 1908년 신축된 후 1955년 철거되고 그 자리에 신본관이 건축되었으며, 목포세관이 이전해 나간 후 신본관은 국가정보원으로 사용되다 2009년 철거되었고 현재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
- 목포세관은 본래 본관을 중심으로 앞쪽에 부두, 부잔교, 화물검사소, 창고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자리에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이 건설되었으며, 뒤쪽에는 창고가 여러 동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파괴되었고 이후 새롭게 건축된 창고 두 동이 현존.
- 과거 목포세관의 흔적으로서 1908년 건축된 본관 터, 1954~1960년경 건축된 창고 두 동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세관본관 터>

- 구 목포세관 본관은 군산세관 본관과 함께 1908년 건축되었으며, 과거 사진의 목포세관 본관이 현존하는 군산세관 본관(사적 제545호)과 같은 건축형식이고 과거 두 건물 관련도면에서도 동일한 건축형식의 확인이 가능함.
- 1908년 건축된 구 목포세관 본관은 1955년 신본관이 건축되면서 철거된 이후 그 동안 다른 건물과 용도로 활용되며 존재가 잊혀졌으나, 2020년 3월 일부 발굴조사를 통해 적벽돌조 기초 유구를 확인.
- 구 목포세관의 과거 도면, 항공사진 등 고증자료를 통해 본관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본관이 위치하였던 터에서 일부 발굴조사를 통해 적벽돌조 기초, 철근콘크리트조 기초, 석재 열 등을 확인.
- 과거 위치 고증을 바탕으로 일부 발굴된 적벽돌조 기초부가 과거 군산·목포 세관 본관 평면도의 적벽돌조 벽체와 위치가 일치하고 석재 열은 군산세관 외곽 경계석과 위치와 형식이 유사하므로, 발굴된 적벽돌 기초와 석재 열은 1908년 건축된 구 목포세관 본관의 유구로 판단됨.
- 추후 본관 터를 발굴할 경우 본관 전체 기초부와 주변 유구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구 목포세관 본관의 위치와 건축형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고증자료가 될 수 있음.
- 구 목포세관 본관의 고증 및 유구발굴은 근대기 목포개항의 대표적, 상징적 존재이었던 목포세관의 실체적 흔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항이후 목포 조계지의 도시 계획 및 공간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세관창고>

- 1897년 목포개항과 함께 목포진 지역에 최초 설치되었던 목포세관이 1908년 금회 등록조시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 세관업무가 늘어나면서 본관 주변지역에 여러 동의 세관창고가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사라지고 금회 등록을 신청한 두 동만이 현존.

- 현재 본관 터 후면에 두 동의 세관창고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도면과 항공사진을 통해 본래 그 자리에는 다른 창고들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파괴되었고 1954~1960년경에 현재의 창고 두 동이 건설된 것으로 확인.
- 세관창고 두 동의 기본적 건축형식이 상호 유사하며, 긴 장방형 평면, 벽돌조 벽체 위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외벽, 목조트러스 지붕구조체, 박공지붕 등이 기본적 건축형식.
- 세관창고는 건물의 기본적 용도인 세관물품 보관에 적합하도록 장방형 평면, 통칸 형식의 넓은 내부공간을 형성하고 단순한 기법에 의해 기능적, 정형적 형식으로 건축.
- 세관창고는 구 목포세관 주변지역에 다수가 분포되며 이 지역 도시공간의 기본적 특성을 형성하였던 세관관련 건물들이 대부분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본관과 함께 구 목포세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과거 흔적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 사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 목포세관 본관 터는 현재 시범적으로 일부만 발굴했지만 과거 본관 기초부 일부가 확인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초부도 지면 아래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기초부 전체를 발굴,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구 목포세관 창고는 두 동 모두 부분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지붕마감재는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적으로 본래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는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구 목포세관 부지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이고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시범사업(문화체육관광부), 1897개항 문화거리 목포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등 확정된 국고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세관창고를 문화예술복합공간(근대역사 체험공간 및 야외공연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
- 목포시는 구 목포세관 본관 터 전체 발굴을 통해 본관 건물의 기초부를 확인하고 보존을 바탕으로 전시, 활용할 계획이며, 세관창고의 일부도 구 목포세관 관련 전시시설로 조성할 계획.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목포세관과 같이 1908년에 동일한 형식으로 건축된 구 군산세관 본관이 사적 제 5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 군산세관 본관은 개항기 세관청사로서는 유일하게 현존.
- 그 외 세관관련 문화재로는 인천해관문서(인천 문화재자료 제20호), 인천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이 있으며, 터 관련 등록문화재로는 부여 신동업 가옥 터(국가등록문화재 제339호)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구 목포세관 본관의 고층 및 유구발굴은 근대기 목포개항의 대표적, 상징적 존재이었던 목포세관의 실제적 흔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항이후 목포 조계지의 도시계획 및 공간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 판단됨.
- 세관창고는 구 목포세관 주변지역에 다수가 분포되며 이 지역 도시공간의 기본적인 특성을 형성하였던 세관관련 건물들이 대부분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본관과 함께 구 목포세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과거 흔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 사료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구 목포세관 본관 터와 창고는 목포개항과 목포세관의 실제적, 구체적 흔적으로서 근대사, 목포지역사, 도시건축사, 세관사 등의 중요한 사료라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보존 및 활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구 목포세관 또는 구 목포세관 본관 터와 창고

<○○○>

1) 개요

- 1897년 목포 개항이후 구 목포진 부속건물을 해관청사로 사용하다가 목포시 향동 6번지에 세관용지를 조성하였고, 세관용지에 구 목포세관 본관이 1908년 준공됨. 구 목포세관 본관 이외에도 세관 창고와 수산시험소 등이 세관용지에 지어짐.
- 향동 6번지 필지 분할로 구 목포세관 본관과 현존 창고 건물이 자리 잡은 부지는 6-8번지로 분할됨. 이후 구 목포세관 부지는 별도의 6-33번지로 분할됨.
- 구 목포세관 본관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손되었고 1950년대 철거된 후 부지 일부에 신청사가 신축됨. 신청사 철거 후 해당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임.
- 현존 창고는 1954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지 않고 1969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 1950년대 후반~1960년대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됨. 1968년 목포세관이 삼학도로 이전하기 이전까지 세관 창고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08년 준공된 구 목포세관 본관은 사진과 도면 등의 자료를 통해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과 동일한 건축 양식의 건축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발굴을 통해 확인된 기초부와 벽체 일부의 유구 등에서 구 군산세관 본관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로 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존하는 창고는 벽돌 조적 기둥과 벽체에 목조 트러스를 올린 장방형의 건물로 전형적인 창고 형식의 건물임.
- 내외부 벽체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고, 내부 바닥 마감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함. 천장은 별도 마감 없이 목조 트러스가 노출되어 있고 출입구는 쌍미단이 행거도어를 설치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 목포세관 본관은 1950년대 철거되어 기초 부분과 벽체 일부가 현재의 주차장 영역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됨. 부분 발굴을 통해 최근 유구 일부를 확인함.
- 창고 건물은 현재까지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나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부분적인 마감재 탈락 등이 확인됨. 창호와 환기구 등이 전반적으로 훼손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등록문화재 제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약 200~500m 떨어진 위치로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하여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보존 및 활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 목포세관 본관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원형 고증, 창고를 활용한 공적 문화 공간 등의 활용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구 목포세관 본관의 복원 후 전시·교육공간 활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세관 창고의 활용이 도시재생사업 등 기타 유관 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목포세관 본관은 현존하지 않으나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과 동일한 건축물로서 발굴된 건축 유구는 목포 근대사의 중요한 흔적으로서 가치가 있음.
- 현존 창고는 등록문화재 제580호 완주 구 삼례 양곡창고와 유사함. 완주 구 삼례 양곡창고는 1920년대부터 그 이후에 지어진 목조 4동, 조적조 2동의 창고로 구성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념물에는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가 포함되어 있어 구 목포세관 부지는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존 창고 건물 자체의 등록가치는 충분하지 않으나 구 목포세관 본관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 세관부지는 6-33번지를 포함한 6-8번지로서 창고를 포함한 2개 번지가 모두 사적지로서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창고’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1) 개요

- 이번 등록 신청한 ‘구 목포세관 창고 및 세관부지’는 대한제국기 개항(開港)과 함께 목포에 설치·운영 되었던 ‘세관’ 청사 건물과 관련 시설의 흔적들로, 축항(築港) 시설 등과 함께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1897년 개항과 함께 초기 세관 업무는 당시 목포진(만호진)의 부속시설을 사용하였고, 이후 해벽 및 갯벌 매립공사 등을 거쳐 1908년 ‘세관 청사’를 건립하였는데, 그 위치는 이번 등록 신청한 ‘세관부지(터)’로 추정되는 곳임.

- 세관 청사 건물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실되어 그곳에 '신청사(1955년~1968년)'를 새롭게 건립하게 됨.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청사 북쪽으로 창고시설 2동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존하는 '구 목포세관 창고'임.
- 이후에도, '구 세관부지(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후로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 등과 같은 국가정보기관(1968년~2009년)을 비롯해 '목포시공영주차장(2009년~현재)' 등의 시설들이 점유해 왔음.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기록사진(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구 목포세관 창고' 2동은 모두 운송회사에서 창고시설로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일부 내·외부 벽체의 마감재 등을 제외한 전체적인 구조체에는 큰 변형이 없어 보임. 반면, '구 세관부지(터)'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상 구조물 없이 '터'로서만 남아 있는데, 최근 목포시가 이 일대에서 실시한 시굴(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후로 점유되어 왔던 시설물들의 것으로 보이는 유구들이 층첩 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목포시는 '구 목포세관 창고 및 세관부지'의 문화재 등록을 통해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시범사업(문체부)' 및 '1897개항문화거리 목포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과 연계한 활용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구 목포세관 창고'는 동일 부지 내에서 넓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2동(편의상 A동과 B동으로 호칭)의 창고가 서로 마주보고 대칭되게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에서만 약간의 차이만을 보일 뿐, 모두 장방형 평면을 기본으로 조적조(붉은벽돌)의 벽체 위에 목조트러스로 지붕가구를 구성하고 있음.
- A동 창고는 32.27(m)×16.34(m) 높이 7.105(m), B동 창고는 36.0(m)×9.5(m) 높이 7.10(m)로 2동 모두 기본적으로 내부 공간을 하나의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A동 창고의 경우에는 우측 모서리 일부 공간에 별도의 소규모 2층 공간을 마련하여 1층에는 화장실과 주방, 2층에는 방을 설치하였음.
- 지붕가구의 목조트러스는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A동은 조적 벽체위에 철근콘크리트 보(테두리보)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쌍대공트러스를 짜올린 반면, B동에서는 왕대공트러스를 사용하였음.
- 트러스 부재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시기에 보수공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보수 이력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지붕은 2동 모두 박공지붕으로 하였으며 A동은 골슬레이트, B동은 함석으로 마감하였으며, 양쪽 박공면은 지붕면 보다 약간 높게 벽돌을 쌓아 마무리하였음. 전·후 외벽면에는 별도의 부축벽을 쌓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방형의 조적 기둥을 외부로 돌출하여 쌓은 것임.
- 내·외부 벽체는 붉은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과 수성페인트로 마감한 것으로 보임. 다만, 내부 벽체에는 벽돌 사이에 나무 쇄기를 박고 여기에 수평방향의 띠장을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나무 줄대를 수직방향으로 세워 마감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창고 내에 어구(漁具)를 보관하게 될 경우 염분으로 인해 벽체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2동 모두 창고 시설인 만큼, 창호는 기본적으로 행거도어를 설치하였고, 지붕 처마 아래에는 환기 또는 채광 등을 위한 고창을 두었으며, 일부 고창은 벽돌로 막혀있음.
- ‘구 목포세관 창고’ 남쪽으로는 필지를 분할하여, 현재 목포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908년 당시 이곳에 목포 세관 청사가 있었던 곳으로, 최근 목포시에서 실시한 시굴(표본)조사에서 최초 건립 당시 청사 건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붉은 벽돌 일부가 확인되었음.
-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세관 청사 건물은 1908년 군산 세관과 함께 건립되었으며, 또한 소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이 유구의 흔적을 현존하는 군산 세관 건물과 비교해 볼 때, 벽체(외벽,내벽)를 세우기 위한 줄기초의 일부로 판단됨.
- 이밖에도, 시굴(표본)조사 과정에서 과거 선·후로 자리 잡고 있었던 세관신청사 등 여러 건물의 흔적들이 확인되었고, 과거 기록사진 등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등록 신청한 ‘구 세관부지(터)’는 1908년 목포 세관 청사 건물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사료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 목포세관 창고’의 경우,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마감재(지붕 및 벽체 등) 등을 제외하고는 구조체 등의 큰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해풍(해풍)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외벽의 테두리보와 캐노피 등에서 콘크리트 피복이 벗겨져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된 상태임.
- ‘구 세관부지(터)’는 시굴(표본)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과거 여러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1908년 건립된 세관 청사의 유구가 상당수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구 목포세관 창고 및 세관부지’ 모두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적어 보이며, 향후 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관할 지자체인 목포시에서는 대한제국기 자주적 개항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역사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이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활용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인접한 ‘목포진(만호진)’을 비롯하여, 기 등록된 근대역사문화도시공간 및 주변 개별 등록문화재 등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 교육의 장소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쌀수탈 등과 관련하여 창고 시설이 등록문화재 등록된 곳은 ‘완주 구 삼례 양곡창고(등록문화재 제580호)’를 비롯하여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사례가 있음. 전문적인 세관 창고로는 ‘구 군산세관 본관(사적 제545호)’ 사적 구역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가 있음.
- 이밖에, ‘부지’ 또는 ‘터’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로는 ‘부여 신동엽 가옥 터(등록문화재 제339호)’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존하는 ‘구 목포세관 창고’가 당대의 유구가 아닌, 한국전쟁 이후에 새롭게 건립 되었다는 점과 세관 청사의 흔적이 ‘부지(터)’로만 남아 있다는 것은 한계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구 목포세관 창고 및 세관부지’는 대한제국기 개항(開港)과 함께 목포에 설치·운영 되었던 ‘세관’ 청사 건물과 관련 시설의 흔적들로, 축항(築港) 시설등과 함께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음.
- 즉, ‘구 목포세관 창고’는 도시화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 과거 세관이 위치하였던 장소성을 인지시켜 주는 유일한 대상물로서 그 가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세관부지(터)’ 역시 근대기 개항도시로서의 중요한 역사적 산물로서 적절한 보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목포세관 청사 부지 및 창고」

6.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4.21.)를 거쳐 등록 예고한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7,521건	1950~1953년	육군기록 정보관리단장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502-25

* 문화재 등록 신청 당시 명칭 : 전투상보

(3) 추진경과

- ('16.1.19.) : 문화재 등록 신청(충청남도→문화재청)
- ('16.7.7. / '20.1.2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 조건부 가결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은 6.25 전쟁 기록물만 대상으로 하고,
베트남전쟁·대침투작전은 연한 미도래로 제외

(4)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5) 등록예고 : '20.5.4.~6.2. (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1.29.)

- 등록 신청 대상 중 6·25전쟁 기록물은 전쟁기간 동안 육군본부·군단·사단·후방부대·타군 등에서 생산한 작전명령·지시·전투경과·교훈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쟁의 경과와 실상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군사작전 기록물임. 이 기록물은 전쟁 당시 상황을 미군이 아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음. 또한 전쟁 전후 한국군의 기록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희소성이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20.1.29.)

- 6·25전쟁 기록물은 6·25전쟁 기간 동안에 국방부, 육군본부 등의 전략 부서와 군단·사단 등 전술부대에서 보고서 또는 내부분서 등으로 생산한 것임. 해당 기록물은 전쟁 당시 긴박한 상황 하에서도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각급 부대에서 작성된 기록물임. 아직까지 정전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해당 기록물은 전쟁 당시의 정확한 역사를 조명 및 인식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20.1.29.)

- 6·25전쟁 기록물은 전쟁 당시부터 각급 부대에서 작성한 기록들이 육군본부로 제출된 것으로 현재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보존하고 있는 자료임. 해당 기록물은 전쟁관련 내용, 당시의 사회적 정황, 지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한국전쟁 관련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높으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1> 조사대상 목록(6·25전쟁 기록물)

연번	구분	수량	유물 설명
1	작전계획	138	전투, 작전 등을 위해 사전에 육본, 군단, 사단, 연대, 대대 등에서 계획을 수립한 문서이며, 전투·작전 부대는 이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
2	작전명령/지시	2,686	작전계획에 따라 작전, 전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령, 지시를 하달한 문서
3	훈령/지령	485	
4	작전예규	17	해당 부대에서 적용 및 공유하기 위해 정립한 작전 수행절차
5	작전교육	220	작전,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필요한 부대 및 장병들의 교육에 관한 문서
6	행정명령/지시	54	작전, 전투 등 임무를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령, 지시한 기록물
7	서한/지시서한	2	작전수행과 관련하여 전달한 서한
8	전투경과/전투상보	1,025	주요 작전 후에 작전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한 문서
9	정기작전보고	2,735	육군본부·미8군사령부에서 일자별로 작전상황을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타 부대에 전파 배부한 문서
10	작전일지(육본)	13	제대 또는 부대별로 작전상황을 일일단위로 작성하되,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별로 관련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사항(보고/전파/지시/상황도 표시 등)을 간략히 기록
11	전투/진중일지	66	해당부대가 실시한 작전이나 일상 내용을 일일단위로 요약하여 기록한 것으로 특히 소속 부대가 참여했던 주요 전투에 대해 일자별로 작성함.
12	전례	42	상급부대 또는 예하부대에 전파하기 위해 주요 작전의 내용을 전투상보에 준하여 작성하고 결론 부분에 작전 수행 결과 성공 또는 미흡 요인을 도출하여 작성
13	전훈	11	
14	공적서	2	관련자의 포상 등을 따지기 위해 전투 후 전투와 관련한 공적을 기술한 기록물
15	무용담	25	주요 작전에 참가한 전투요원이 활약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기술한 문건
총 계		7,521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 2. 소재지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502-25
- 3. 소유자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 4. 조사자 의견('20.1.29)

<○○○>

※ 소장처에서 '전투상보'로 포괄하여 등록 신청(6.25전쟁, 베트남 전쟁, 대침투 작전)하였으나, 1970년대 전후에 생산된 베트남전쟁(1965~1973년, 152건)과 대침투작전(1953~1980년, 673건)에 관련된 기록물은 등록문화재 하한선 기준인 50년 미만의 문서가 있고, 연한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격이 아님. 따라서 소장처와의 합의 하에 이번 문화재 등록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차후에 연한 도래 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검토는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에 대하여 서술함.

1) 현상

-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정전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육군본부, 군단, 사단, 연대, 후방지원부대 등에서 생산한 작전계획, 작전지시, 작전명령, 전투경과, 작전일지, 후방지원, 전투상보, 전투결과, 교훈분석 등을 포함한 매우 희귀한 군사작전 기록물임. 이들 문서 중 상당 부분은 전쟁 직후 향온향습 처리 시설이 미비하여 훼손된 것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전쟁 당시부터 긴박한 전쟁 기간 중에도 각 군이 사후 전쟁분석이나 기록물 보존을 위해 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이나 책임감을 갖고 보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육군본부로 제출되었음. 당시 군사작전 기록물은 군의 역사자료 수집과 군사 편찬을 담당하던 육군본부 군사감실에 제출되었고, 군사감실이 이를 체계적으로 접수 관리하다가 군사감실의 후신 기관인 군사연구실(현재 육군군사연구소)에 인계하였고, 육군군사연구실에서 이를 전사 연구 및 작전 분석 등을 위해 활용하다가 2009년에 최종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기록물 원본을 이관하였음.
- 육군군사연구실에서는 1985~1990년에 걸쳐 군사작전 기록물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문서의 성격, 발행부대 및 발행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영인 작업을 수행하여 109권의 영인본 사료집을 발간하였음. 이 사료집에는 부대별 정기정보보고, 작전보고, 전투상보, 전투명령, 작전일지 등이 구분하여 수록되어 있으며, 관련 부대와 기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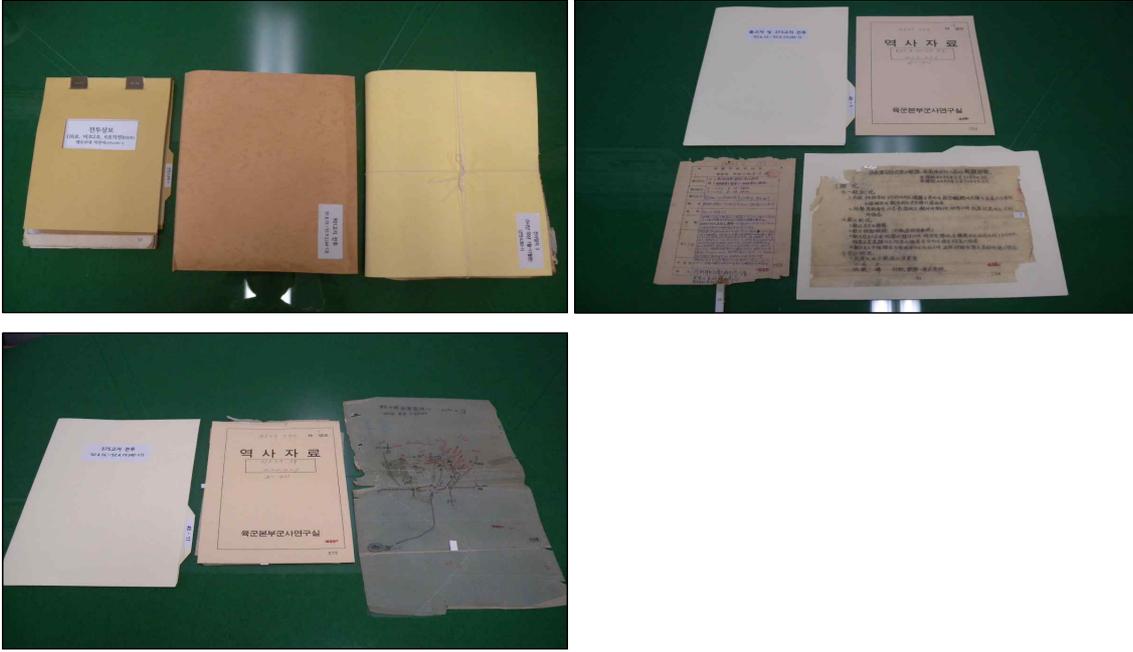
<전투상보 서고 보존 모습>



<산화방지 보존 상자에 관리>

- 이후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된 원본 기록물은 영구보존 기록물로 설정되어 장기 보존과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항온항습시설이 완비된 지하서고에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산화방지용 보존상자에 넣어 존안하고 있는 상태임. 마이크로필름으로 이중화하여 종이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과 장거리 이격된 별도의 장소에 분산 보존하고 있음.

<기록물의 표지, 내부기록물 모습>



- 상기 군사작전 기록물을 유형별, 부대별, 연도별로 현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기록물 세부 분류(건수)

(1) 유형별 현황(총 7,521건)

전투 경과	정기 작전 보고	작전 계획	작전 명령/지시	훈령, 지령	작전 예규	작전 일지 (육본)	전투, 진중 일지	작전 교육	전례	전훈	행정 명령/지시	공적서	무용담	서한 / 지시 서한
1,025	2,735	138	2,686	485	17	13	66	220	42	11	54	2	25	2

(2) 연도별 현황(건수)

연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총계
수량	902	2,189	2,510	1,920	7,521

2) 내용 및 특징

- 이번 문화재 등록을 위한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 대상은 6·25전쟁 개전 전후와 정전협정체결 전후에 생산된 문서임.
-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특징 그리고 사료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기록물의 분류 기준은 상황 발생 이전과 상황 진행, 상황 이후 등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으며, 상황 이전 기록물(작전계획, 작전명령,

지시, 훈령 및 지령, 작전교육, 행정명령 및 지시), 상황 진행 기록물(작전일지, 진중일지, 참모총장 지휘일지), (전투상보, 정기작전보고, 정기정보보고), 상황이후 기록물(공적서, 무용담, 전례, 전훈) 등으로 분류됨. 전쟁 시기 미국자료나 미군이 생산한 기록물을 제외하면 전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자료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전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희귀한 자료라고 평가되며, 상기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된 기록물의 특징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가)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작전계획, 작전명령·지시, 훈령·지령, 작전교육, 행정명령·지시)

- 작전계획은 전투, 작전 등을 위해 사전에 육본, 군단, 사단, 연대, 대대 등에서 계획을 수립한 문서이며, 전투, 작전부대는 이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음. 작전명령/지시는 작전계획에 따라 작전, 전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령, 지시를 하달한 문서임. 작전교육은 작전,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필요한 부대 및 장병들의 교육에 관한 문서임. 행정명령/지시는 작전, 전투 등 임무를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령, 지시한 기록물임. 본 기록물에는 후방지역 사령부와 경비대대 등에서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계획, 명령, 지시, 서한 등을 각급 부대에 하달한 내용들이 있음. 작전교육은 작전 성공에 필요한 교육적 성격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하달한 기록물임. 이 기록물들은 전쟁 기간 작전, 전투 및 지휘관의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며,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희귀한 사료임.

나)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작전일지, 진중일지, 참모총장 지휘일지)

(1) 작전일지

- 작전일지는 각 부대가 매일의 전황을 날짜 및 시간에 따라 일지의 형태로 기록한 문서임. 작전일지의 양식은 아래 예시된 바와 같이 날짜로 기록하였으며, 보존상태는 습기로 인해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이 다수 있음. 군사작전 기록물에 포함된 작전일지는 전쟁기간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서 전쟁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과 예하 군단, 사단 등에 지시한 내용, 예하부대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일자 및 시간별로 기록한 것임. 이 기록물들은 전쟁 기간 작전, 전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며,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희귀한 사료임.



< 작전일지 기록물 예시 >

(2) 진중일지

- 진중일지는 군단, 사단, 연대 등이 일자 및 시간별로 작전상황을 기록한 내용임. 본 군사작전 기록물에 포함된 진중일지는 6·25전쟁에 미군으로 가장 먼저 참전한 부대인 미 제24사단, ○○부대와 ○○부대가 전쟁기간 참여했던 전투상황 및 부대상황을 일자별로 작성한 내용임. 본 기록물에 작성된 내용 가운데 천안전투, 진주전투, 창녕지구전투 등 낙동강방어작전, 반격작전, 북진작전, 철수작전, 1.4후퇴, 재반격작전, 서부지역 고지쟁탈전 등의 상황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음. 이 기록물들은 전쟁 기간 작전, 전투 등 전쟁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며,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희귀한 사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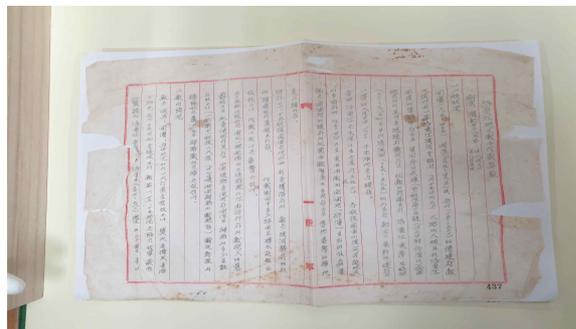
(3) 총참모장 지휘일지

- 지휘일지는 지휘관의 지휘내용을 일지형태로 기록한 것이며, 총참모장 지휘일지는 총참모장의 지휘내용을 부관실에서 일지의 형태로 매일의 상황일 기록한 내용임. 본 군사작전 기록물에 포함된 지휘일지는 개전 초기부터 낙동강 방어작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정일권 총참모장의 지휘내용을 부관감실에서 일지 형태로 기록한 것이며, 전쟁 초기와 낙동강 방어작전 시기 총참모장의 지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록물임. 이 기록물은 정일권 총장의 전속부관이었던 이극성(예)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1996년에 윤용남 총장에게 기증하였고, 이를 다시 군사연구실에서 전사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다가 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었음. 이 기록물들은 전쟁 기간 작전, 전투 및 지휘관의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며,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희귀한 사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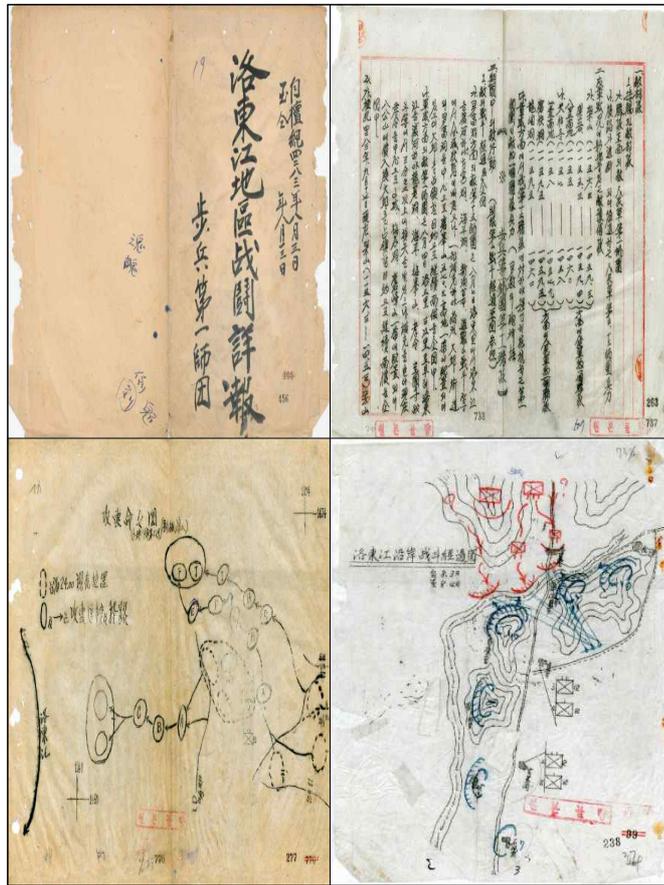
다)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전투경과·전투상보, 정기작전보고, 정기정보보고)

(1). 전투상보

- 전투상보는 전쟁기간 작전, 전투, 상황 등이 발생한 직후 관련 내용을 기승전결로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한 것임. 본 기록물에는 총 18개 사단 및 예하부대에서 작성한 전투상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50년도부터 1953년까지 주요 작전 종료 후에 작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 및 해당 부대에 보존하는 기록물임. 전쟁기간 작전 및 전투 분석에 매우 소중한 1차 사료임. 전투상보는 해당 부대에 보존하는 기록물로서 일반사항(기상, 지형 등), 적의 상황(구성, 장비, 병력, 사기, 보급), 아군상황, 적의 작전계획, 아군의 작전계획, 전투경과 개요, 작전완료 후 피아상황, 전과 및 피해, 작전요도(투명도) 등의 내용을 망라하여 작성되어 있어 전쟁사 또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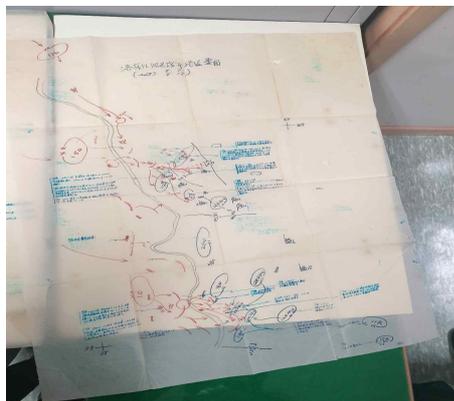


<낙동강지구 전투상보 기록물(34.8x25.3cm) 예시>



<낙동강지구 전투상보 기록 예시>

- 본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에 포함된 전투상보는 사단, 여단, 경찰 등의 보고가 포함되어 있음. ○○부대, ○○부대에서 작성한 전투상보는 1952년 2월 6일부터 1952년 12월 25일까지 금화지구 전투와 신회산 기습작전간 화력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기술한 기록물임. 또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사령부, ○○사령부, 후방지역의 병참선 경계와 공비소탕작전을 주 임무로 했던 ○○○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수행하였던 주요 작전의 수행 결과를 세부적으로 기술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본 기록물에는 1950년 7월 22일부터 1951년 7월 31일까지 해병대에서 경남, 경북, 강원도 등에서 수행한 주요 작전의 수행 경과를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52년 6월 8일~7월 1일 간 경남의 10개 경찰서에서 육군에 보고한 공비토벌 상황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음. 이 기록물들은 전쟁 기간 작전, 전투 등 전쟁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며,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희귀한 사료임.



<전투경과 요도 기록물(83×62cm)>

(2) 정기작전보고

- 정기작전보고는 군단, 사단, 연대 등의 부대에서 해당부대의 상황을 보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일의 작전, 전투, 후방상황 등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한 것임, 본 군사작전 기록물에 포함된 정기작전보고는 예하부대에서 보고된 내용을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서 종합하여 일자별로 작전상황을 정리하여 사단급 부대까지 배부한 사료임. 본 내용에는 1951년 2월부터 1953년 5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8군사령부에서 1950년 7년 17일부터 1953년 7월 31일까지 작성한 정기작전보고를 번역하여 수록되어 있어 전쟁사 연구에 꼭 필요한 사료임.

(3) 정기정보보고

- 정기정보보고는 군단, 사단, 연대 등의 부대에서 적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일의 적의 장비, 규모, 특이사항 등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한 것임, 본 군사작전 기록물에 포함된 정기정보보고는 예하부대에서 보고된 내용을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종합하여 일자별로 적 상황을 정리하여 사단급 부대까지 배부한 사료임. 이 기록물들은 전쟁 기간 작전, 전투 등 전쟁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며, 특히 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희귀한 사료임.

라)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공적서, 무용담, 전례 및 전훈)

- 공적서는 1사단에서 수원·고양·봉일천·문산 지구 전투 후 전투와 관련한 공적을 기술한 기록물이며, 무용담은 주로 주요 작전에 참가하여 공훈을 세운 전투 요원의 공적 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며, ○○부대의 전투요원이 팔공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에서 활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전례, 전훈은 상급부대 또는 예하부대에 전파하기 위해 주요 작전의 내용을 전투상보에 준하여 작성하고 결론 부분에 작전수행 결과 성공 또는 미흡 요인을 도출하여 작성하였음. 전훈 기록물 가운데에는 육군 이외에도 해군본부에서 1951년 7월 1일부터 1952년 8월 15일까지의 주요 전투업적을 기술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음. 공적서, 전례 및 전훈 분석 기록물은 전투원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며, 인접 부대 혹은 관련 부대가 생산한 기록물과 교차 확인할 수 있는 1차 사료임.

3) 문헌자료

○ 자료집

- 육군군사연구실, 1985~1990, 『한국전쟁사료집』 (전109집)

○ 연구서

- 육군본부, 1993, 『한국전쟁의 재조명』, 육군본부
-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상,중,하)』, 군인공제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정문사문화주식회사
-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연구』, 군인공제회
-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1988, 『대비정규전사(1)』, 서라별인쇄주식회사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98, 『대비정규전사(2)』, 군인공제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대비정규전사(3)』, 신오성기획인쇄사
- 이중근, 2013, 『6·25전쟁 1129일』, 우정문고

4) 기타

- 육군본부 기록관리정보단에서 보유 중인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현재 그 명칭이 전투상보로 일괄하여 부여되어 있으나, 전투상보는 그 자료들 중의 하나이므로 모든 문서를 망라할 수 없으므로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상기 기록물의 특징과 내용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성격별로 중분류가 필요하며, 2가지 혹은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정리, 활용 면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2가지 분류 시) 지시·계획 성격의 문건(작전계획, 작전명령·지시, 훈령·지령, 작전교육, 행정명령)과 상황보고적 문건(작전일지, 진중일지, 전투경과, 공적서, 전훈 등)으로 나누어 2가지로 분류
 - (4가지 분류 시)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 가운데 상황(전투)이 발생하기 전의 기록물 즉 계획, 명령, 지시, 훈령 등의 문서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된 기록물(작전일지, 진중일지, 지휘 일지 등), 그리고 상황이 발생한 후 사후에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상황을 정리한 문서(전투경과, 전투상황, 정기작전보고 등) 또 사후에 상황을 분석 평가한 문서(공적서, 무용담, 전례, 전훈 등) 등으로 각각 분류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6·25전쟁 기간 육군본부, 군단, 사단, 연대, 후방지원부대, 경찰, 해공군 등이 생산한 전쟁의 경과와 실상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1차 문서이고, 전쟁 당시 미군이 생산한 많은 방대한 기록물들에 비해 다소 분량이 적은 편이지만, 한국군이 작성한 적지 않은 희귀한 군사작전 기록물임. 전쟁 전후 한국군의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이 기록물은 전쟁 당시 상황을 미군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상황을 담고 있고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기록물임.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을 일괄 등록 문화재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기록물 보존 관리 면에서나 일반인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경과되었고, 육군에 소장되어 있으며 기록물 모두가 원본 문서이고 제작 출처가 분명하며,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며 당시 기록물로서는 희소성이 있으며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등록 문화재로 등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문화재 등록에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군이 생산한 군사작전 기록물로서 역사적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 사항

-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 중 많은 문서가 보존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전쟁 초기 기록이나 투명지 기록의 경우는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특별하게 보존정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 기록물은 부분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위탁하여 산화방지를 위한 1차 정비를 수행한 상황이지만, 상당 부분의 기록물이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 기록물은 6·25전쟁사를 연구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기록물들로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에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 자료들은 육군본부 내 기록정보관리단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써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전쟁사나 6·25전쟁 당시 역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인터넷을 통해 대외로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전투상보'라는 명칭으로 6·25전쟁, 베트남전쟁, 대침투작전 기록물을 모두 포괄하여 등록 신청하였으나, 6·25전쟁 기록을 제외한 기록물은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연대(50년 이상)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한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격의 문화재가 아니므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검토는 6·25전쟁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함.

1) 현상

가).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의 개념

- (1)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은 단일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립된 개념이나 정의는 없음. 따라서 이번기회를 계기로 정기작전보고서, 전투경과 등을 포함한 전쟁, 전투 및 제반 군사작전과 관련한 문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2) 개념(정립안) : 6·25전쟁 기간 동안에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등과 같은 정책·전략 부서와 군단·사단·연대 등과 같은 전술부대 및 경찰 등에서 보고서, 지시문 또는 내부분서로 생산한 6·25전쟁 관련 기록물 중에서 현재 육군기록정보관리단(향후 해군·공군역사기록관리단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총칭임

나)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에 포함되는 기록물 현황

(1). 유형별 현황(건수)

연번	구 분	수량
1	전투경과	1,025
2	정기작전보고	2,735
3	작전계획	138
4	작전명령/지시	2,686
5	훈령/지령	485
6	작전예규	17
7	작전일지(육본)	13
8	전투/진중일지	66
9	작전교육	220
10	전례	42
11	전훈	11
12	행정명령/지시	54
13	공적서	2
14	무용담	25
15	서한/지시서한	2
총 계		7,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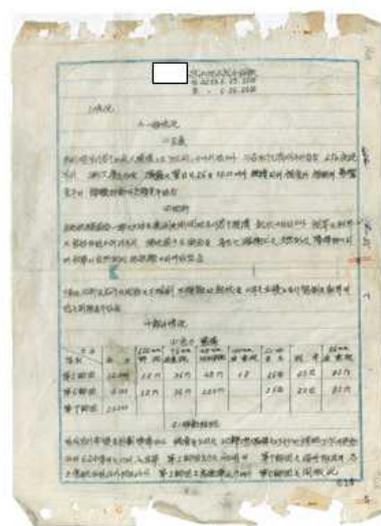
(2) 부대별·연도별 현황(건수)

연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총계
수량	902	2,189	2,510	1,920	7,521

2) 내용 및 특징

가) 전투경과(1,025건)

- (1) 전투경과는 통상 ‘전투상보(戰鬪詳報)’로 칭하는 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주요 작전 종료 후에 해당 작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 및 해당 부대에 보존하는 기록물임
- (2) 제대별 전투경과 문건 작성실태
 - (가) 군단급 : 군단에서 작전 종료 후에 작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 및 해당 부대에 보존하는 기록물로서 일반사항(기상, 지형 등), 적의 상황(구성, 장비, 병력, 사기, 보급), 아군상황, 적의 작전계획, 아군의 작전계획, 전투경과개요, 작전완료 후 피아상황, 전과 및 피해, 작전요도(투명도) 등의 내용을 망라하여 작성
 - (나) 사단급 : 총 18개 사단 및 예하부대에서 작성한 것이며, 문건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일반사항(기상, 지형 등), 적의 상황(구성, 장비, 병력, 사기, 보급), 아군 상황, 적의 작전계획, 아군의 작전계획, 전투경과개요, 작전완료 후 피아 상황, 전과 및 피해, 작전요도(투명도) 등의 내용을 망라하여 작성
 - (다) 여단급 : ○○부대, ○○부대에서 작성한 전투상보는 1952. 2. 6.~ 1952. 12. 25.까지 금화지구 전투와 신회산 기습작전간 화력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기술함.
 - (라) 후방부대 :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부대, ○○부대, 후방지역의 병참선 경계와 공비소탕작전을 주 임무로 했던 ○○부대 등이 전국 각지에서 수행하였던 주요 작전의 수행 결과를 세부적으로 기술함.
 - (마) 타군 및 경찰 : 1950. 7. 22.~1951. 7. 31.까지 해병대에서 경남, 경북, 강원도 등에서 수행한 주요 작전의 수행 경과를 기술한 내용을 1952년도에 발간한 자료와 1952. 6. 8.~7. 1간 경남의 10개 경찰서에서 육군에 보고한 공비토벌 상황보고서임
- (3) 제원 : 제지, 가로 17.5cm(펼쳤을 때 35cm), 세로 25cm 등 제원이 문건별로 상이한 것이 다수임.
- (4) 전투경과 예시 : 문산지구전투(50. 6. 25~6. 26, 보병 제1사단 ○○부대)
 -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전투상보 제1호	문산지구전투
	자(부터) 단기 4283(1950)년 6월 25일
	지(까지) 단기 4283(1950)년 6월 26일

제○○부대 문산지구 전투상보								
自 4283. 6. 25. 1000								
至 " 6. 26. 2400								
1. 정황								
가. 일반정황								
(1) 기상								
미명 정부터 약간의 우천모양으로 “가는 비[細雨]”가 나리였으나 오후부터는 청명하여졌음. 25일 야만(밤늦은 시각)부터 점차 도(강도)를 가한(더해진) 농무는 익일(다음날) 26일 08:00까지 계속되어 시도(視度)와 관측에 영향을 주어 제반 행동에 지장을 주었음.								
(2) 지형								
주저항선 전면 일대는 대체로 광활한 개활지로서 약간 독과 체구(도랑)의 기복이 있었으나 시계 및 사계는 양호하였으며 더욱이 진지 전방 및 측면을 흐르는 임진강은 천연적인 장애물이며 아군의 자연적인 저항선이 되어 있었음.								
진지 내부 및 우방(오른쪽)의 지형은 불규칙. 단, 복잡한 기복을 이루는 구릉으로서 관측 및 시계에 많은 제한을 주었음.								
나. 적의 정황								
(1) 병력 장비								
구분 대별	병력	122mm 야포	76mm 박격포	45mm 대전차포	120mm 박격포	사마 호트	전차	82mm 박격포
제1사단	12,000	12문	36문	48문	18	16대	20대	81문
제6사단	9,000	12문	36문	120문		16대	20대	81문
제7사단	10,000							
(2) 이동경로								
일찍부터 남침을 계획 준비하고 기회를 노리던 북한 괴뢰군은 교묘한 모략공작에 발동하여 6월 24일 경에는 이미 인민군 제1사단 주력은 여현(勵峴, 개풍군 북서부)에, 제7사단은 해주 부근에 각각 집결하였다가 동일 다시 제1사단은 고량포 북방에서 제6사단은 개성 북 (하략)								

(다) 문건의 의의(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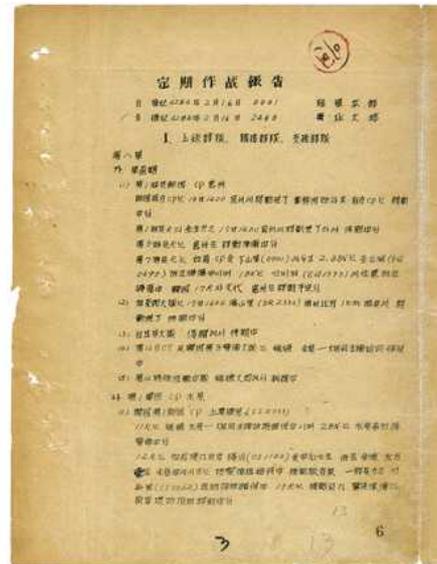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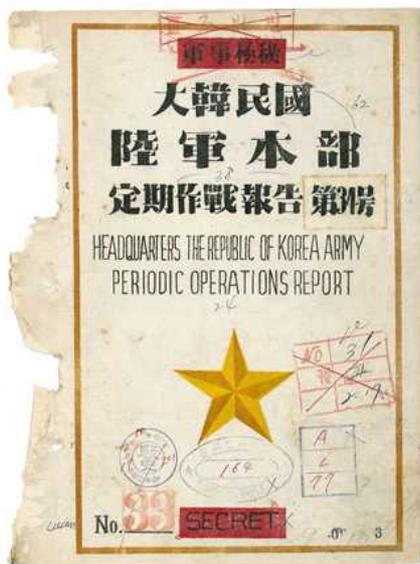
- ① ○○부대가 시행한 문산지구전투와 관련하여 1.정황(일반정황, 적의 정황, 아군 정황), 2.피아의 전투서열(적전투서열, 아군전투서열), 3.적의 작전기도, 4.아군 지휘관의 작전명령, 5.전투경과, 6.전투완료 후 피아형세의 개요(적의 태세,

아군태세), 7.전과 및 피해, 8.별지(전과피해통계표, 전투경과요도, ○○부대 작전명령, 병력배치도, 장교직위표, 전투경과, 지구구분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② 적군과 아군의 부대 구성, 인원수, 무기수, 지휘관 이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일자별로 진행된 상황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과요도를 첨부하여 당시 상황을 적, 아군, 지형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파악 하기가 용이함
- ③ 특히 상황도의 경우 적군과 아군의 구체적인 부대명칭과 이동경로 등이 상세히 도식되어있어 전장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전투결과 아군이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철수함에 따라 북한군은 양면전술을 활용하여 문산으로 침입 후에 일부는 과주방면으로 우회한 것을 알 수 있음.
- ④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수색에 주둔 하고 있던 ○○부대가 전방지역인 문산지역으로 투입되어 문산지역 방어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대뿐만 아니라 ○○부대지역으로 공격해온 북한군의 편성, 이동경로, 전술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나) 정기작전보고(2,735건)

- (1) 정기작전보고는 육군본부와 미8군사령부 등에서 일자별로 작전상황을 정리하여 상급 부대에 보고하거나 예하부대 또는 관련부대에 전과 및 배부한 문건임
- (2) 제대별 정기작전보고 문건 작성실태
 - (가) 육군본부 : 1951년 2월부터 1953년 5월까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서 일자별로 작전상황을 정리하여 39건을 생산하여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포함 하여 사단급까지 배부하였던 자료임.
 - (나) 타군 : 미8군사령부에서 1950. 7. 17.~1953. 7. 31.까지 작성한 정기작전보고를 번역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 (3) 정기작전보고 예시 :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34호(51.2.16, 육본작전교육국)
 -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군사극비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제34호

정 기 작 전 보 고 (육군본부 경북대구)
自 단기 4284. 2. 16. 0001
至 단기 4284. 2. 16. 2400

I. 상급부대, 인접부대, 지원부대
제8군
가. 군직할

(1) 제1해병사단 CP(지휘소) 충주
사단 전방 CP는 15일 1400 충주에 이동 완료 업무개시하고 후방 CP는 이동 중임.
제○○부대의 전 주력은 15일 1400 충주에 이동 완료하여 대기 중임.
제△△부대는 충주로 이동 준비 중임.
제□□부대는 여전(전과 같이) CP를 하산리(0900)에 두고 2, ▽▽부대는 충요동 (EQ 0695) 부근 소탕 중이며 ◎◎부대는 인비동(EQ 1393)에 위치 부근 소탕 중. 한국 17R과 교대, 충주로 이동 예정임.

(2) 캐나다[加奈陀] 대대는 15일 1600 계산리(DR 2330) 상주 북방 1km 지점에 이동 완료 대기 중임.

(3) 터키[台耳其] 대대 왜관에서 대기 중.

(4) 제○○BCT 및 한국 제○○부대는 계속 김천-대전 간 주 보급로 확보 중.

(5) 제○○부대 계속 대구에서 훈련 중.

나. 제1군단 CP 수원

(1) 한국 제1사단 CP 상광교리(CS2533)
○○R는 계속 수원-대전 간 주 보급로 확보 중이며 □□는 수원비행장 경비 중임.
○○R는 전과 같이 한강 남안 양천(CS 1160)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김포 북방, 동쪽으로 영등포에 이르는 방어진지 유지 중. 접적 보고 없음. 일부 병력은 인화리(CS 0062) 도단(渡斷) 진지 확보 중. ○○R는 접적 없이 노량진 한강남안 제방 진지 이동 중임.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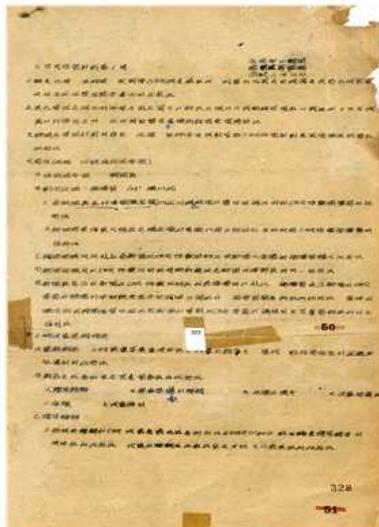
(다) 문건의 의의(意義)

- ① 당시 대구에 위치하고 있던 육군본부 내 작전참모부서인 작전교육국에서 1951년 2월 16일자 상황을 작성한 것으로 주요 구성내용은 어디에 사본번호 몇 번의 문건을 배부했는지를 적은 '배포구분'을 포함하여 작전정기보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맨 앞에 표로 넣고, 1.상급부대, 인접부대, 지원부대 상황(미8군, 국군부대), 2.작전(각 사단, 육본직할부대, 전투경찰), 3.전과, 4.전투능력(병력총계표), 5.연대장 이상 지휘관의 이동, 6.군대구분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음

- ② 특히 군사작전의 상황변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주요 직위자의 보직이동을 고려 시 문건의 말미부분에 연대장급 이상 장교의 보직이동을 명시하였는바, 본 문건에서는 육군본부특명(갑) 제 144호에 의거 2월 15일부로 수도사단 참모장에 ○○○ 대령에서 ○○○ 대령으로 변경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어 당시 대령급 이상 장교의 보직이동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음
- ③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6.25전쟁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전군상황을 일일 단위로 정리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전군상황 뿐만 아니라 전군의 전과나 전투능력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아울러 육군본부의 의도와 각 군단의 상황 등을 상세히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다) 작전계획, 작전명령/지시/예규, 훈령/지령, 작전교육, 행정명령/지시(3,600건)

- (1) 작전계획 등은 단일 문건이 아니고 6.25전쟁 기간 동안에 발행된 작전계획, 작전명령, 작전지시, 작전예규, 훈령 및 지령, 작전교육, 행정명령 및 행정지시 등을 설명 목적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그룹화한 문건의 집합체이지 원래부터 그룹화 되어있거나 비슷한 성격의 문건은 아님
- (2) 제대별 작전계획 등의 문건 작성실태
 - (가) 육군본부 : 육군본부에서 각종 계획, 명령, 지시 등의 형태로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부대에 하달한 내용들이며 작전교육은 작전 성공에 필요한 교육적 성격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하달한 기록물임
 - (나) 군단/사단/여단급 : 각종 계획, 명령, 지시 등은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각급 부대에 하달한 내용들이며 작전교육은 작전 성공에 필요한 교육적 성격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하달한 기록물임. 작전예규는 해당 부대에서 적용 및 공유하기 위해 정립한 작전수행절차임
 - (다) 후방부대 : 후방지역 사령부와 경비대대 등에서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계획, 명령, 지시, 서한 등을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각급 부대에 하달한 내용들이며, 작전교육은 작전 성공에 필요한 교육적 성격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하달한 기록물임
 - (라) 타군과 경찰부대 : 미1군단의 작전계획('53.7.15), 미10군단의 작전지시('51.6.23~7.10), 미8군사령부의 지시서한('53.5.13~17)이 포함됨
- (3) 작전계획 등의 예시 : 작전계획 제 1호 CBR방어계획(52. 1. 19, 제2사단)
 -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CBR(화생방)방어계획 제1호

보병 제2사단

강원도 제공동

4285(1952).1.19 12:00

1. 적은 화학 생물학 방사학전을 통해 아군에게 막대한 손실 및 병원(병력)의 피해를 끼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미 9군단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력이 허용하는 한에서 전술적 상황과 일치하여 CBR 공격에 대비하고자 그에 대한 관구(관할구역)를 편성 교육을 실시한다.
3. 사단은 군단 계획에 의한 화학, 생물학 및 방사학적 방어계획을 실시 편성 교육하려 한다.
4. 책임(지역 부록 투명도 참조)
 - A. 지역사령관 사단장
 - B. 부차지역 지휘관(39°선 이북)
 1. 각 연대장은 39도선(황좌표) 이북에 현 연대의 책임지역에 대한 CBR 방어 지휘관에 임한다.
 2. 사단 전차공격대대장은 황좌표 39도선 이남의 사단 후방에 대한 CBR 방어 지휘관에 임한다.
 - C. 사단지역 내에 있는 전 부대는 CBR 방어 목적상 그 부대가 위치한 지휘 관할 하에 둔다.
 - D. 사단 지역 내의 CBR 방어에 대한 기술적 책임은 사단 화학부장에게 일임한다.
 - E. 부대장은 그의 부대의 CBR 방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다. 지휘관은 그 부대의 CBR 요원의 보직 이용 효능 및 충분한 이용에 관해서 항상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신체의 점차적인 파괴로 말미암아 한 부대의 다수에 CBR 요원이 희생되는 것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5. CBR 공격 경보 규정
 - A. 경보 보고 CBR 해독요소를 사용하는 공격의 보고는 군기(군사기밀) 취급 순위로서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 B. 보고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암호어군 2.해독요소의 종류 3.전파의 매개 4.공격 지점의 좌표 5.공격일시
 - C. 암호어군
 1. 여하한 종류의 CBR 공격을 표시하는 데에는 EDGE WOOD라는 어(문구)를 암호어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공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 a. "EDGE WOOD"라는 어 다음에 "CHARLIE"라는 어가 오면 화학적 해독 요소 공격을 뜻한다.
 - b. "EDGE WOOD"라는 어 다음에 "ROGER"라는 어가 오면 방사학적 해독 요소 공격을 뜻한다.
 - c. "EDGE WOOD"라는 어 다음에 "BAKER"라는 어가 오면 생물학적 해독 요소 공격을 뜻한다.모든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군기전문(군사기밀전문)의 예 EDGE WOOD~CHARLIE BLISTER GAS(독가스에 일종) 공기~CT2050~080600
 - D. 지역사령관은 모든 CBR 경계 책임 지역 내의 전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 E. 경보 취명(사이렌과 같이 소리를 울리는) 기구의 이용
CBR 공격 경보 발령 제도를 각 본부 부대 혹은 중대에 대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CBR 공격이 유(있을) 시에 CBR 공격 경보를 취명하는 아 보조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알려야 한다. 소극적 방어 대책은 여하한

종류의 CBR 공격이라도 사이렌 혹은 □□경적과 같은 단일한 경보를 사용할 수 있다.

GAS 혹은 분로(공격 세균으로서 증기상태)라는 것이 판명되는 시에는 적절히 “가스 혹은 분로 공격”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지역 전체에 알려야 한다.

6. 독염된(화생방에 오염된) 지역 장비 및 의류

*A~D 내용 ‘해제’는 생략함

7. CBR공격에 대한 방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사단장 육군준장 ○○○

주무참모 육군중령 ○○○

하달법 인쇄배포

배포선 전부대

육본 1부, 군단 1부, 미24사단 1부, 미2사단 1부,

각 연대 각 1부, 직할대 각 1부

(다) 문건의 의의(意義)

- ① 이 문건은 6·25전쟁 당시 적의 화생방전(CBR warfare :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arfare)에 대비하는 국군 사단급부대의 대비작전을 알 수 있는 문건으로, 적의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군단 방어계획과 연계하여 보병 제2사단이 작성한 화생방방어작전계획임.
- ② 주요 내용은 1.적의 화생방공격능력, 2.미 9군단장의 의도, 3.사단장의 의도, 4.부대별 책임, 5.화생방 공격경보 규정, 6.독염된(화생방에 오염된) 지역 장비 및 의류, 7.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로 방어계획의 본문을 구성함.
- ③ 작전계획의 본문이외 부록에 정보, 화학부, 공병, 헌병대, 의무, 병참, 병기, 민사, FOO 부록이 포함되어 있음
- ④ 2사단의 경우 사단 지역 내의 CBR 방어에 대한 기술적 책임은 사단 화학부장에 의해 일임을 하되, 위도 39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의 각 연대 책임지역은 연대장 책임 하에 대비하고, 39도선 이남 나머지 사단책임지역은 대전차공격대대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 지휘책임자를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화생방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대응시간이 매우 제한되며 오염종류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사비밀 취급 우선순위로 정하여 신속히 전파되도록 하였으며, 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해 각각 특정한 암호를 정하여 혼선을 초래하거나 시간이 지체하지 않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한 내용임
- ⑤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전선이 고착되어있던 1952년 초순 적이 전을 돌파하기 위해 화생방 공격을 감행할 것에 대비하여 유엔군 및 국군은 화생방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비훈련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라) 작전일지(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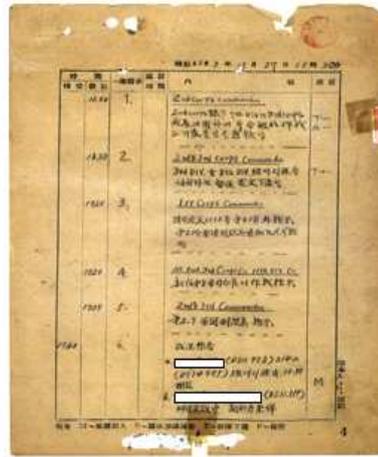
- (1) 작전일지는 제대 또는 부대별로 작전상황을 일일단위로 작성하되,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별로 관련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사항(보고/전파/지시/상황도 표시 등)을 간략히 기록해 놓는 일지임

(2) 제대별 작전계획 등의 문건 작성실태

- (가) 육군본부 : 1950. 12. 27.~1953. 6. 28까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서 전쟁과 관련하여 보고, 접수, 지시, 하달한 주요 내용을 연월일시별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자료임
- (나) 군단/사단/여단급 : 전투일지, 진중일지는 수도·1·3·5·8사단의 일부 부대에서 전투와 관련한 내용을 전투상보에 준하는 항목들을 일일단위로 작성한 기록물임

(3) 작전일지 예시 : 작전일지(55.12.27~51.1.1,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작 전 일 지	
자(부터) : 단기 4283년 12월 27(1950.12.27.)	
지(까지) : 단기 4283년 12월 31(1950.12.27.) 5일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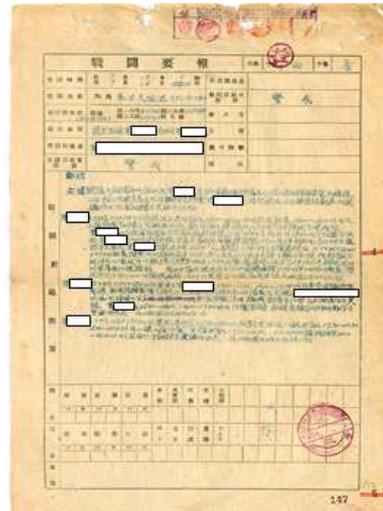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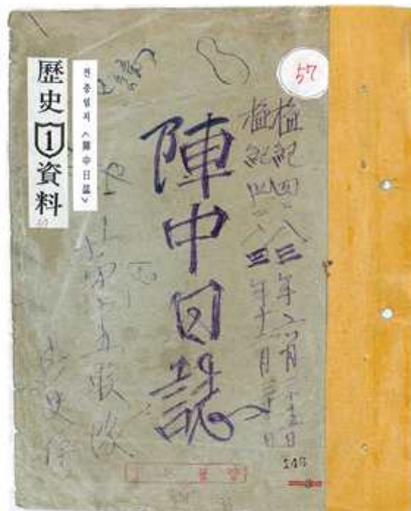
단기 4283년 12월 27일 11시 30분					
시간		일련 번호	처치 시간	내 용	처치
접수	발송				
	11.30	1		2군단사령부 2군단 예하 7사단의 3군단 배속에 관하여 □전반적 작전상의 처치임을 통보함	T- A-
	13.30	2		2군단 및 3군단 사령부 3사단을 8사단선까지 진출시키라는 독촉 전문 하달함	T+
	17.20	3		1군단사령부 육본전문 0138호 제4항 재지시 제2항 요청 된 포병추가는 불가능함	
	17.20	4		1군단, 2군단, 3군단사령부, 11사단사령부 신임8군사령관의 작전지시	
	17.25	5		2군단 및 3군단사령부 제2,3사단제한점 지시	
17.40		6		전황보고 a. ○○부대(DS1197.8) 214고지(DS1495. 5)선까지 진출 10:30분 현재 b. ○○부대 800고지(DS11599)에서 교전중 적병력 미상	M
비고 M 지도기입 S 관계참모 통보 T 부대하달 F 보관					

(다) 문건의 의의(意義)

- ① 이 문건은 6·25전쟁 중인 1950. 12. 27. 11:30~17:25까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서 전쟁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보고, 접수, 지시, 하달한 주요 내용을 시간대 별로 작성한 것임
- ② 육군본부의 특성상 군단급부대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렇게 보고된 것에 대해 다시 예하부대에 하달(T), 상황도에 도식(M)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 ③ 1950년 12월 27일은 중공군 3차 공세가 개시되기 직전으로, 당시 국군 1, 2, 3군단 사령부와 그 예하 사단들의 상황을 알 수 있음. 특히 1950. 12. 23일 워커장군이 전사하고 이어서 새로 부임한 리지웨이 신임 8군사령관의 작전지시가 이날 국군의 각 군단에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음
- ④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군단급부대로부터 육군본부에 보고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렇게 보고된 것에 대해 다시 예하부대에 하달(T), 상황도에 도식(M)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별로 군단급 부대와 전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마) 전투/진중일지(66건)

- (1) 전투일지 및 진중일지는 주로 전쟁 중에 해당부대가 실시한 작전이나 일상 내용을 일일 단위로 요약하여 기록한 것으로 특히 소속 부대가 참여했던 주요 전투에 대해 일자별로 작성함.
- (2) 제대별 진중일지 문건 작성실태
 - (가) 육군본부 : 1950. 6. 25.~1953. 9. 15.까지 미24사단 및 예하 ○○부대, ○○부대의 지휘관이 소속 부대가 참여했던 주요 전투 위주로 일자별로 작성했던 기록을 번역한 자료(참여 전투 : 포항·경주·충남·진주·창녕·안의 지구 전투)
 - (나) 사단급 및 여단급 : 주로 전쟁 중에 해당부대가 실시한 작전이나 일상 내용을 일일 단위로 ‘작전경과에 대한 개요’형태로 간략히 기록해 놓은 일종의 부대일기임
- (3) 제원 : 제지, 가로 19.5cm, 세로 27.2cm
- (4) 진중일지 예시 : ○○부대 진중일지(50.7.10~8.19, 보병 제1사단 ○○부대)
 -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와속내영이바편것이로추정됨 내영이. 보관(보관)과정에서 표 1951년 7월 10일 이후의 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내영 3(1950)년 6월 25일부터라 * 표지에 수록기간이 단기 428	진중일지(陣中日誌) 역사 1사단 자료	진중일지 단기 4283년 6월 25 단기 4283년 12월 31
-----------------------------------------------------------------------------------------------------------------------	-------------------------	-------------------------------------------

- 전투요보 천후 오전 비, 오후 구름?
 - 전투시간 : 1951년 7월 10일 0시 ~ 7월 10일 24:00시
 - 전투지역 : 봉일천지구(CP107.0 79.0) 전투 후 적의 태세 : 경계
 - 지휘소위치 : '해제 생략'
 - 인접부대 : 전방좌측 ○○부대 우측 △△부대
 - 전투부대명 : 제○○부대 수색대
 - 전투후 아군태세 : 경계
 - 전투경과 개요
- 적정
- 기도 : 연대는 사단 명에 의하여 제○대대를 사단전초부대로 임진강교두보를 확보, 2개조의 척후를 차출하여 적정을 수색, 제2, 3대대는 숙영지내에서 교육계획표에 의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려함
 - 제○대대 : OP를 (073966)에 위치하고 각 중대는 08:00~12:00까지 야간사격, 14:00~16:00까지는 소대방어훈련을 실시하였음. □□□중대는 계속하여 사단우측진지를 경계함.
 제○중대에서 야간척후를 15명 차출 최종목표(035085)를 향하여 18:00 원 위치를 출발. 제○중대에서도 야간척후 15명을 차출하여 최종목표(070090)를 향하여 18:00시에 출발
 작일(어제) 출발한 제○중대 척후 15명은 24:00 「4」 목표(034067)를 수색 종유(종료함에 따라) 01:00에는 (040077)에 도착 수색하여 우측전방(035080) 지점에서 병력불상의 적(식별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적)이 출현. 우리 부대는 이 지점에 잠복하여 적정을 탐지하고 03:00에 철수개시 05:00에 이상 없이 귀대하였음 병력배치(병력 현 위치)는 작일(어제)과 동일함
 - 제△대대 : OP를 (067778)에 위치하고 제○,○중대는 09:00~11:30, 14:00~17:00까지 각각 분대방어요령, 사격지휘요령을 우천으로 인하여 내무반에서 강의를 실시. 제○중대는 ○,○중대와 동일한 시간으로 □시 내무반에서 분대방어진지 편성요령을(078768) 지점에서 실시. 제○중대는 08:30~12:00, 14:00~17:30까지 방어요령 명령 수령 후 반장의 동작(작은 조직 단위로 행동)을 실시하였음. 병력배치(병력 현 위치)는 작일(어제)과 동일함.
 - 제○대대 : OP를 (056786)에 위치하고 각 중대는 주둔지 내에서 교육을 실시함. 소총중대는 07:30~10:30, 16:00~19:00까지 소총소대방어, 중화기중대는 07:30~10:30, 16:00~19:00 경계훈련, 22:00~24:00까지는 야간행군훈련을 실시하였음. 병력배치(병력 현 위치)는 작일(어제)과 동일함.

(다) 문건의 의의(意義)

- ① 이 문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7월~8월경 제1사단 ○○부대가 작성한 진중일지임.
- ② 문건의 표지에 진중일지 기록 시작일을 단기 4283(1950)년 6월 25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안의 내용은 1951년 7월 10일 이후의 내용임. 따라서 보관(취급)과정에서 불상시기(不詳時期)에 원인불명(原因不明)에 의거 일지표지에 명시된 1950년도 6월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빠졌고, 그 대신에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일지 내용을 넣어서 보관한 것으로 추정됨.
- ③ 또한 이후 또 다른 불상시기(不詳時期)에 일지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부대 진중일지’라는 것만 확인하고, 실제 내용이 6월 25일이 아니고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식별하였으나 ‘1950년’이 아닌 ‘1951년’인 줄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추정) 단지 표지의 기간을 1950년 7월 10일부터 1950년 8월 19일로 수정(연필)한 흔적이 있음. 따라서 표지와 일치하는 1950년도 6월부터 시작하는 진중일지 내용물은 망실(亡失)되었거나 어딘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④ 1951년 7월 10일자 진중일지의 내용으로 볼 때 봉일천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사단 명에 의하여 제○대대를 사단 전초부대로 임진강교두보를 확보하되, 제○대대에서 2개조의 척후를 차출하여 적정을 수색하도록 하고, 제○, ○대대는 숙영지 내에서 교육계획표에 의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내용을 대대단위로 나누어 기록하였음.
- ⑤ 특히 ○대대의 2개 척후조 중에서 제○중대 척후 15명은 24:00시에 목표「4」를 수색하고 01:00에는 또 다른 지점(040077)에 도착하여 수색할 때 우측전방(035080) 지점에서 적이 출현하자 척후조는 잠복하여 적정을 탐지하고 03:00에 철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볼 때 1951년도 7월 10일부터 정전협정회담이 개시되는 시점이라 적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교전은 회피하고 적정을 탐지하는 정도에 그쳤음을 유추할 수 있음.
- ⑥ 또한 전초부대인 ○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 ○대대는 방어나 공격전투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방어진역 주둔지에서 교육훈련에 임한 점을 볼 때 정전협정이 개시되는 시점의 전선 상황이 심각하다거나 적의 공격징후가 농후한 것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전선의 유동이 없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임을 알 수 있음.
- ⑦ 척후조 운용과 관련하여 오늘날은 야간 척후조가 야간에 ‘수색작전’을 실시하지 않고 적이 은밀하게 접근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매복(잠복)작전’을 실시하는데, 당시 부대는 야간에 특정지역 일대에서 수색을 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매복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함.
- ⑧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개시될 무렵 최전방 일선에 위치하였던 연대급 부대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임



바) 전례/전훈(53건)

- (1) 전례나 전훈은 상급부대 또는 예하부대에 전파하기 위해 주요 작전의 내용을 전투상보에 준하여 작성하고 결론 부분에 작전수행 결과 성공 또는 미흡 요인을 도출하여 작성한 문건임

(2) 제대별 전례/전훈 문건 작성실태

(가) 군단/사단/여단급 : 전례, 전훈은 상급부대 또는 예하부대에 전파하기 위해 주요 작전의 내용을 전투상보에 준하여 작성하고 결론 부분에 작전수행 결과 성공 또는 미흡 요인을 도출하여 작성

(나) 타군과 경찰부대 : 해군본부에서 1951.7.1.부터 52.8.15.까지의 주요 전투업적을 기술한 기록물

(3) 전례 예시 : 1·3실지 탈환 작전전례(52.1.3, 제1사단 ○○부대, 경기 장단 장도)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보병 제○○부대
경기 파주 금곡

소전례 제8호 4285(1952).1.4

제목 1·3실지탈취작전(빼앗겼던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

1. 일반상황

가. 전투전 정세

(1) 적의 상황

아필면의(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적은 중공군 제63군 제188사단의 병력으로서 적은 연속주진지(상호 연결시킨 주진지) 확보하고 그의 전초부대인 제188사단단 제○○연대는 대덕산으로부터 철모고지, 막골, 사랑리 90고지, 89고지를 연하는 선일대에 포진하여 아방의 수색행동을 적극 저지하여 오던 중 지난 12월 28일에는 일모(해질 무렵)를 기하여 약 2개 대대의 병력이 일제히 아방전초선에 침입하여 아경계진지를 점령한 후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제반보급을 보완하고 완강히 아방의 탈환작전을 저해하고 있었음

(2) 아방의 상황

연대는 사단 우익 제1선(우측 전방부대)을 담당하여 현재 진지(제3 제임스타운 선, Jamestown line)를 확보. 제○대대를 중간, 제○대대를 좌익. 제○○연대 제○대대를 배속 받아 우익진지를 각각 확보하게 하던 중, 거(지난) 12월 28일 일모(해질 무렵)를 기한 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전초진지 일부를 점령당한 후 연이일(계속해서 2일)에 걸쳐 반격탈환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지를 탈환하지 못함에 이르러 연대는 12월 31일 23시를 기하여 좌지구대(좌측지역 담당부대로) 제○대

대를 예측대로 하여 제○대대와 교대하도록 하고 제○중대, ○○중대(○○중대) 연대 내 각 대대 수색대로 하여금 전초부대로서 점적에 임하고(적과 접촉유지하고) 제○대대로 하여금 차기(다음번)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음

나. 시일(일시)

단기 4285(1953)년 1월 3일 10:00~18:00, 천후(기상상황) 쾌청(맑음) 온화하여 공격에는 절호의 조건이었음

다. 장소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두매리(CT045075) ~ 치룡동(CT036072) 지점

라. 군대구분 및 지휘관

(1) 군대구분

보병 제1사단 제○○연대 제○대대

(2) 지휘관

연대장	육군대령	○○○	작전주임	육군소령	○○○
정보주임	육군소령	○○○	제○대대장	육군소령	○○○
제○중대장	육군중위	○○○	제○중대장	육군대위	○○○
제○중대장	육군중위	○○○	제○중대장	육군중위	○○○

마. 적의 병력 및 장비

(1) 병력

중공군 제63군 제188사단 제○○부대 제○대대 및 제○대대의 병력인바 당면의(대적하고 있는) 적은 약 4개 중대임

(2) 장비

122모야포, 60모 82모박격포, HMG, LMG, BAR, 다발총, 소총 및 수류탄 등임

바. 아방의 병력 및 장비

(1) 병력

보병 1개 대대(장교 26명, 사병 551명)

(2) 장비

(가) 보병연대편성에 의한 완전장비

(나) 지원부대로서 ○○부대 ○중대(15대) 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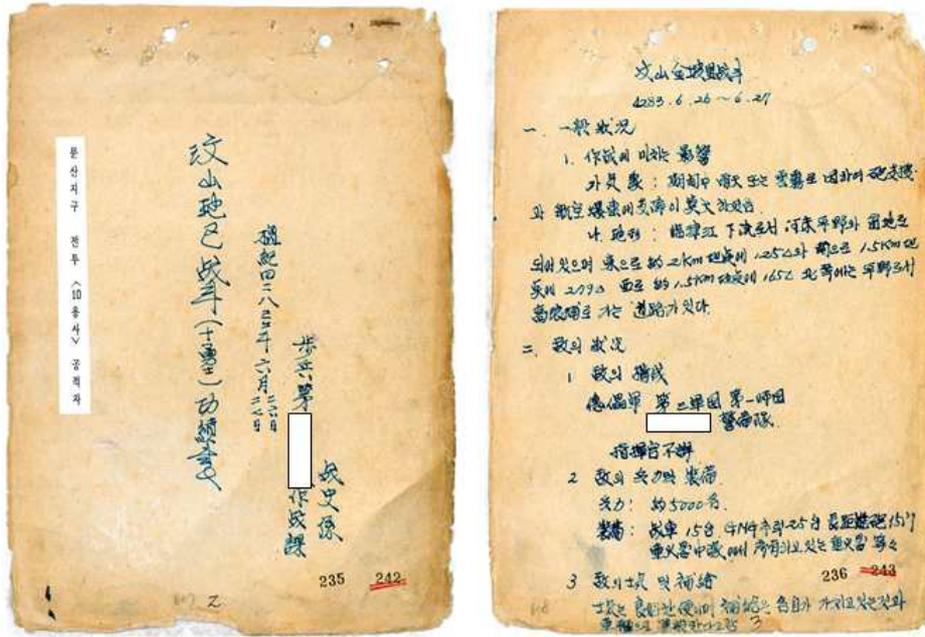
(다) 문건의 의의(意義)

- ① 이 문건은 6·25전쟁 중인 1952년 1월 3일에 국군 제1사단 제○○부대 ○대대가 적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 다음 날인 1월 4일에 작성하여 보고한 전훈보고서임.
- ② 문건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전투관련 일반상황, 전투경과, 전투상황 요도, 피아의 손해통계표(피아인원/장비손실표), 탄약소모통계표, 피복망실통계표(장구류손실표), 전훈분석 내용 등으로 구성됨

- ③ 위의 문건 해제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전훈 분석내용으로 도출한 것은 11건으로 다음과 같음
- 적정 파악이 부정확하여 적을 과소평가함에 따라 적보다 열세한 병력으로 공격하여 실패함. 적이 아군보다 3배나 우세하고 진지가 견고한 점을 고려 시 최소 동등 내지는 그 이상의 병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적절함
 - 아군의 피해 중 초반은 적의 포격에 의한 것임. 따라서 공격개시선 출발을 전후하여 적의 관측소 또는 포진지에 연막탄 또는 포격으로 제압하기 위해 포병관측장교와 함께 충분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아군 공격부대는 적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공격력 및 적개심이 박약함
 - 적의 포는 그 외 병력이 배치된 지점에 탄막을 구성하여 아군이 적 고지를 점령하면 적의 포는 해당지점에 맹렬히 포격하였기 때문에 아군이 적포탄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음. 따라서 목표지역을 점령 시 적의 반격 및 포격에 대비해야함.
 - 공격간 또는 적진지를 점령하였을 시 적포탄이 다량 낙하되고 적병력이 반격 시 지휘관은 침착성을 잃고 부대 운용 및 장악하지 못해 공격 시기를 상실함. 그러므로 지휘관은 용맹 과감하고 침착하여 상황판단에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여야 함.
 - 공격부대 지휘관중 주로 소대장 또는 중대장은 적정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를 함으로써 상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지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야 함.
 - 공격부대는 포병 지원 하에 수류탄 투척거리 이내까지 접근하여 포사격최종신호(포병사격을 종료하는 신호)와 동시에 돌격하여야 함에도 포병지원 간에는 원거리에 위치하였다가 사격최종신호 후에야 겨우 공격을 개시함으로 포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기도만 노출시킴. 따라서 아군 포사격에 희생되지 않을 거리만큼 접근하였다가 사격중지신호와 아울러 용감하게 돌격하여 백병전을 수행해야 함.
 - 공격부대는 공격진출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적진지 점령 시에 가용한 시간을 활용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적포탄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여야 함을 명심
 - 국군이 중공군과의 전투 시 포격과 경폭탄만으로는 적진지를 파괴할 수 없으므로 순전히 백병전으로써 수류탄 폭발과 동시 또는 화염방사기로 적의 토치카(참호) 특화점을 확보하여야 함. 특히 적의 특화점 공격에는 항공기에 의한 네이팜탄 투하와 화염방사기를 사용함이 가장 효과적임
 - 지원부대에 우군의 진출상황 또는 우군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개인 대공포판(항공기가 공중에서 지상부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된 색상으로 만들어 휴대하는 천)을 등(back)에 펴서 표시하게 함이 필요함.
 - 공격준비사격을 2시간이나 하여 아군의 기도가 폭로되었음은 물론 공격준비사격 종료 후에 공격개시선을 출발함은 공격준비사격효과가 없음. 향후 공격개시선 출발 종료 10분전부터 공격준비사격을 하되 사격 중에 공격개시선을 돌파하고 계속 진출하여 적에게 접근하여야 함이 필요함
- ④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1952년도 전선이 고착된 상태에서 고지쟁탈전이 벌어질 때 한 번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란 쉽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부대급 전투행동의 성공요인으로 도출한 것을 상세히 살필 수 있음. 또한 전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11가지 사항은 다음 작전 시 착안할 수 있도록 환류(feedback)한 점을 알 수 있어 대대급 이하 소부대전투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임. 특히 아군 공격부대가 적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공격력 및 적개심이 박약하다고 분석한 점이 특이함.

사) 공적서/무용담(27건)

- (1) 공적서는 관련자의 포상 등을 따지기 위해 전투 후 전투와 관련한 공적을 기술한 기록물이며, 무용담은 주요 작전에 참가한 전투요원이 활약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기술한 문건임
- (2) 제대별 공적서 및 무용담 문건 작성실태
 - (가) 사단급 : 공적서는 1사단에서 수원·고양·봉일천·문산지구 전투 후 전투와 관련한 공적을 기술한 기록물이며, 무용담은 주요 작전에 참가한 전투요원이 활약한 내용을 기술함
 - (나) 후방부대 : 제○○부대의 전투요원이 팔공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에서 활약한 내용을 기술한 기록물임
- (3) 공적서 예시 : 문산지구전투 10용사 공적서(50.6.26~6.27, 보병 제1사단 ○○부대)
 -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문산지구전투(10용사)공적서	문산지구전투(십용사)공적서	단기 4283년 6월 27일	보병 제○○부대 작전과 전사계
-----------------	----------------	-----------------------	---------------------

문산 금파리전투
4283(1950) 6.26~6.27

一. 일반상황

1. 작전에 미치는 영향

- 가. 기상 : 기간 중 우천 또는 운무로 인하여 포지원(포병화력 지원)과 항공 폭격에 지장이 막대하였음
- 나. 지형 : 임진강 하류로서 하상평야와 분지로 되어 있으며 동으로 약 2km 지점에 125고지와 남으로 1.5km지점에 279고지, 서로 약 1.5km지점에 165고지, 북쪽에는 평야로서 고랑포로 가는 도로가 있다.

二. 적의 상황

1. 적의 구성

북괴군 제3군단('제1군단' 오기록) 제1사단, ○○부대
지휘관 불상

2. 적의 병력 및 장비

병력 : 약 5,000명
장비 : 전차 15대, GMG 트럭('GMC 트럭' 오기록)25대, 장거리포 15문, 중화기 중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화기 등

3. 적의 사기 및 보급

사기는 양호한 편이며 보급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차량으로 운반한다고 함

四. 공적사유서

*계급, 군번, 성명, 비고 등으로 구성된 도표로서 ○○○ 대위 등 13명 제시,
'해제'는 생략

1. 공적서

단기 4283년 6월 27일 적은 전차 7대를 가지고 아진지(아군 진지) 전면 약 500m 지점에 나타났을 때 아방(아군)은 차(이) 전차를 저지 또는 파괴할 무기를 가지지 못하고 소총만으로는 대항 불가능한 차제 아 진진 박두하고(아군 진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전차를 파괴하기 위하여 육군대위 김선일 외 하사관 12명은 각자 수류탄을 5발 이상 휴대하고 약 100m 전방의 소나무 숲에 잠복하여 전차의 통과를 대기하였다. 적전차 1대가 선두에 나타났을 때 육군 소위 ○○○, 육군 일등중사 ○○○, 동(동일계급) ○○○은 수류탄을 오른손에 들고 선두 전차에 뛰어올라 기관실에 2발을 폭발시켰을 때, 2번 전차에는 육군 대위 ○○○, ○○○과 ○○○, 3번 전차에 ○○○, ○○○, 4번 전차에 ○○○, ○○○, ○○○, ○○○ 등과 상과 여한(위와 같은) 4대의 전차를 완전 격파시키고 후미 2대는 방향을 바꿔 퇴각하려다 아 결사대원의 수류탄으로 완전 6대를 파괴하고 차(이) 전차를 호위하는 적군 약 2개 소대와 교전, 당(이) 전투에서 육군대위 ○○○, 소위 ○○○, ○○○은 전사를 당하고 ○○○은 중상을 당하였다. 교전 10분 후 적을 완전 격퇴시켰으며 전차 1대를 노획하고 사상 13명, 포로 1명, 장총 4정, 다발총 3정, 기관총 1정의 전과를 획득하였음

(다) 문건의 의의(意義)

- ① 이 문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6.26~6.27 제1사단 ○○부대 ○○○ 대위 등 13명이 문산 금파리일대에서 적전차를 육탄공격으로 파괴한 전투와 관련한 공적을 기술한 것임
- ② 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차포로 적전차 파괴가 불가능하게 되자 특공조를 조직하여 수류탄 등을 들고 육탄(肉彈)으로 공격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전차당 2~3명으로 조를 편성하고 개인당 소총과 수류탄 5발 가량을 휴대하여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적전차가 바로 앞을 통과할 때 적전차에 뛰어올라 수류탄으로 전차엔진 등을 파괴하는 공격방법을 적용한 점과 이런 공격방법이 목숨을 건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 ③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6·25전쟁 당시 목숨을 건 대전차특공조의 적전차 공격과 같은 소부대 공세행동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임

아) 서한(2건)

(1) 서한의 성격

- (가) 서한은 소식을 서로 알리거나 용건을 적어 보내는 글로 발신인(發信人), 수신인(受信人), 용건(用件)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기록이나 문서임. 이 중에서 문서에는 공적(公的)인 것과 사적(私的)인 것이 있음. 서한에 대한 다른 명칭은 서간·서찰(書札)·서자(書字)·서한(書翰)·서함(書函)·척독(尺牘)·편저(片楮)·소식(消息)·수찰(手札)·신서(信書)·안신(雁信) 등 한자어로 된 명칭과 우리 고유말로 우(유)무·글월·고목(告目)·기별(寄別)·편지(片紙, 便紙) 등이 있음
- (나)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의 일부로서 보존되어있는 서한은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발신인, 수신인, 용건을 적은 공적인 문서임
- (다) 현재 군에서 사용되는 서한은 ‘서신’이란 명칭으로 지휘서신(指揮書信), 참모서신(參謀書信) 등이 있다. 지휘서신은 행정 기관이나 단체의 수장(首長) 운영이나 지휘 방향을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하여 직원이나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안내문임. 또한 참모서신은 행정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 단체의 수장(지휘관)을 도와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는 업무조직의 수장(참모)이 기관이나 단체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해당 참모기능에 관련된 업무선상에 있는 조직원에게 한정하여 보내는 편지나 안내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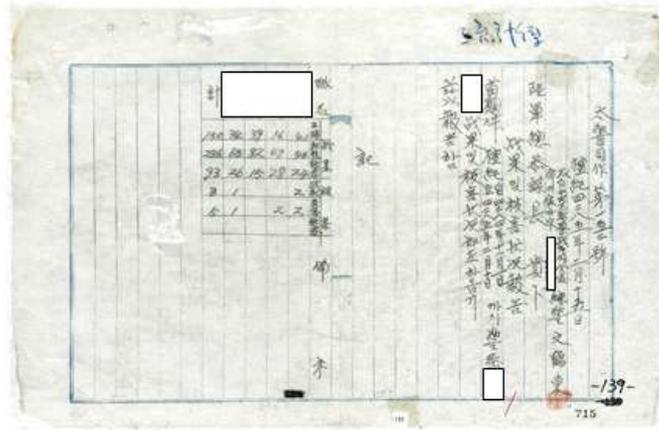
(2) 제대별 서한 문건 작성실태

(가) 후방부대

- ① 1953년 5월 13일 미8군사령부에서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한 제1군단, 한 제2군단사령부에 보낸 지시서한임. 주된 내용은 미 8군사령부 작전지시 제1호 부록 제7호 제2항에 기술된 내용에 제시되었던 전초진지(前哨陣地)를 특별전투 전초로 지정한다는 내용
- ② 전초(outpost)는 군대가 방어작전을 수행하거나 주둔할 때에 적을 경계하기 위해 맨 앞에 배치하는 초소를 말함. 여기서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현 휴전선일대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진지를 특별전초진지로 격상시킨 것임.
- (나) 경찰 :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소속 경찰 ○○부대장이 1951년 11월 1일부터 1952년 2월 10일까지 부대의 전과 및 피해현황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서한임.

(3). 서한 예시 :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서한(52.2.15, 경찰 ○○부대)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계	○○○ ○대대	○○○ ○대대	○○○ ○대대	○○○ ○대대	대명	
					생포	전과
130	34	39	16	41	생포	전과
236	63	82	47	44	사살	총기
93	26	15	28	24	전사	부상
3	1			2	총기	비고
5	1		2	2		

기(追記、본문에 덧붙여 기입함)

태경사 작제 152호
단기 4285년 2월 15일
태백산지구 경찰 전투사령부 총경 문학동
명에 의하야(의하여) ○○○부대장
육군참모총장 귀하

전과 및 피해상황보고
수제건 단기 자 4284년 11월 1일
지 4285년 2월 10일까지
경찰 ○○○부대 성과 및 피해상황 여좌하야기
(왼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이)에 보고함

(다) 문건의 의의(意義)

- ① 6·25전쟁당시 남한 내 잔류하고 있는 북한군 조선인민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1951년 12월부터 1953년 2월까지 임시로 운용한 ‘백야전사령부(백선엽 장군)’에 소속된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경무관)’ 예하의 경찰 ○○부대(○○○ 총경)가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 중 1951. 11. 1~1952. 2. 10일까지 발생한 전과 및 피해상황을 육군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음
- ② 6·25전쟁당시 작전명령이나 작전계획이 아닌 유엔군과 국군이 사용한 일반 문서의 성격을 띠는 ‘서한’의 양식이나 구성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군기록물’로서의 가치도 있음
- ③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6·25전쟁 당시 후방지역에서 시행된 북한군 조선인민유격대 토벌작전간 전과 및 피해상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국군이 사용한 일반 문서의 성격을 띠는 ‘서한’의 양식이나 구성을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임

3) 기 타

가) 소장 경위

- (1) 6·25전쟁 당시 육군본부에서 생산하였거나 예하부대에서 생산하여 보고 또는 자체 처리한 문건을 육군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자대 보관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문서보관 및 기록을 전담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1차 관리.
- (2) 이렇게 전담부서로 이관 후 1차 관리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비밀 문건’ 등을 ‘평문’으로 전환하여 육군본부 ‘군사연구실’로 전환하여 2차 관리
- (3) 육군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군사연구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현재 3차 관리 중

나) 등록문화재 명칭에 대한 의견

- (1) 지금까지 군내부에서 위의 문건들을 통틀어 ‘전투상보’라는 명칭을 통칭하였으나 전투상보는 여러 종류의 문건 중에서 한 종류에 속하므로 ‘전투상보’라는 통칭은 적절하지 않음
- (2)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이라는 명칭으로 잠정 설정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6·25전쟁’ :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과서 편수용어로 당시 혼재하여 사용하던 명칭인 ‘한국전쟁’, ‘한국동란’, ‘6.25사변’ 등의 용어를 ‘6·25전쟁’으로 통일한 것을 적용함
 - ② ‘군사작전’
 - 군사작전은 전쟁, 전투, 교전(交戰), 교육훈련, 사무행정 등을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문건의 내용이 ‘전투’만을 한정하여 다루지 않기 때문에 폭넓게 개념을 적용함.
 - ‘군사’의 개념은 전쟁, 전투 등과 같이 적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대치하여 행하는 전투행동뿐만 아니라 휴가, 포상, 인사조치, 보급 등과 같은 군과 관련한 사무행정 및 군수보급 등도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임. 특히 이번 문건 중에는 ‘공적서’, ‘서한’ 등과 같은 행정문서도 있음
 - ③ ‘작전’의 개념은 군에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광의 또는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협의의 ‘작전’개념에는 전쟁이나 전투 또는 교전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나 ‘명령 하달’ 등의 ‘행위’를 말하거나 ‘직접적인 전투 또는 교전을 수행’하는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협의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전쟁, 전투, 교전보다 더 하위의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함
- (3) 육군기록물 : 이번 자료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육군문서이지만, 향후 해군역사기록단, 공군역사기록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사문건도 통합할 경우를 대비하여 육군, 공군, 해군 등과 같은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명칭은 부적절함.

다) 등록문화재 세부 분류방안

(1) 분류표

등록번호 700-1호	등록번호 700-2호	등록번호 700-3호	등록번호 700-4호
가. 전투경과	가. 작전계획	가. 전례	가. 작전교육
나. 정기작전보고	나. 작전명령	나. 전훈	나. 행정명령
다. 작전일지	다. 작전지시	다. 공적서	다. 행정지시
라. 전투일지	라. 훈령	라. 무용담	라. 서한
마. 진중일지	마. 지령		
	바. 예규		

(2) 등록번호는 법규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부여함을 전제로 하되, 각각을 그룹화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3) 1호 그룹

- (가) 6·25전쟁 군사작전 기록물 중에서 중요하면서 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으로, 주로 ‘전쟁(전투/교전)상황’과 같은 당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들로 형태만 다르지 유사한 성격의 문건임
- (나) 전투경과, 정기작전보고는 작전상황과 관련하여 상급부대에 보고 또는 예하 부대에 하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작전일지, 전투일지, 진중일지 등은 소속부대 자체 상황을 기록하는 일종의 일지임. 따라서 형태만 약간 다를 뿐 모두 전쟁(전투/교전)상황을 주로 사실대로 기록하는 데 주안을 둔 문건임

(4) 2호 그룹

- (가) 계획, 명령, 지시, 훈령, 지령 및 예규 등은 실제 ‘작전수행 또는 전투행위와 같이 행동을 유발하는 근거가 되는 문건’을 범주화한 것임
- (나) ‘작전계획’을 수립 후 이를 시행하라고 하달하면 ‘명령’이나 ‘훈령, 지령’이 됨. 특히 ‘예규’는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계획이나 명령관련 내용을 특별히 사전에 정해놓은 것임. 즉 야간 매복시간은 예규에 박명중(薄明終, EENT: End Evening Nautical Twilight)부터 박명초(薄明初, BMNT: Begin Morning Nautical Twilight)까지 한다고 할 경우 날짜별로 매복작전시간을 별도 정해서 명령하지 않아도 그 날짜에 맞는 EENT부터 BMNT전까지 야간매복작전을 수행하게 됨

(5) 3호 그룹

- (가) 전쟁이나 전투 및 교전 수행간에 있었던 교훈이나 무용담 등을 묶은 것으로 전례, 전훈, 무용담은 전쟁 중에 상하급부대 또는 다른 부대에 전파하여 교훈으로 삼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것임.
- (나) 공훈기록이나 공적서는 상벌을 위한 행정처리문서로 문서의 성격을 보면 ‘4호’ 그룹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잘한 점이 나타나는 교훈, 전훈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임(관점에 따라 4호 그룹으로 전환 가능)

(6) 4호 그룹

(가) 이 그룹의 문건은 전쟁 중 오고간 행정문건들을 범주화한 것임.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가) 문건의 역사 및 관리상태 개관

- (1) 6·25전쟁 기록물은 전쟁 당시부터 긴박한 전쟁 기간 중에도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각급 부대에서 작성한 기록들이 육군본부로 제출되었음. 당시 군의 역사 자료 수집과 군사 편찬을 담당하던 육군본부 군사감실에서 이를 접수, 수집하여 2009년까지 군사감실의 승계 기관인 군사연구실(군사연구소)에서 존안하면서 전사 연구를 위해 활용하다가 2009년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기록물 원본을 이관함.
- (2) 육군군사연구실에서는 1985~1990년에 걸쳐 문서성격, 발행부대 및 발행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한 전 109권의 영인본 사료집을 발간함. 이 사료집에는 부대별 정기정보보고, 작전보고, 전투상보, 전투명령, 작전일지 등이 구분하여 수록함.
- (3)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된 원본 기록물은 영구보존 기록물로 설정되어 장기 보존을 위한 향온향습시설이 완비된 지하서고에 안전하게 보존 중이며, 마이크로 필름으로 이중화하여 종이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과 장거리 이격된 별도의 장소에 분산 보존하고 있음

나) 현대 역사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로서의 기록물

- (1) 현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직까지 정전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6·25전쟁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큼. 또한 정전협정체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파괴로부터 복구 및 발전을 모색하였고, 한편으론 전쟁재발 및 종결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2) 이렇게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6·25전쟁에 대한 1차 사료 중에서 군 내부 기록물은 동일시기 정부문서와 복합적으로 비교분석할 경우 당시의 정확한 역사를 조명 및 인식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됨
- (3) 특히 군문서의 성격상 비밀로 지정되어 그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 시 현재 비밀이 해제된 이 문건은 6·25전쟁에 대한 살아있는 사료로서 손색이 없음
- (4) 그간 6·25전쟁관련 역사 서술이나 6·25전쟁관련 문화를 창조함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사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일반에 널리 알려짐. 특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6·25전쟁 공간사를 작성 시 기본사료로 활용되었고, 일반 학술연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수가 널리 인용하고 있음

다) 자료의 진정성과 한계성

- (1) 전쟁 중에 작성한 전쟁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후대의 기록보다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성이 높은 1차 사료임은 분명함
- (2) 하지만 전쟁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내포된 상황에서 당시 국군이 적에 대한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적군과 아군의 상황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부 적에 대한 기록은 부정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음
- (3) 또한 제3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체 허물이나 과오 등은 최소화하거나 완화된 흔적이 있음
- (4) 따라서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구조적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라) 세부 문건별 각각의 의미와 가치

(1) 전투경과 문건

- (가) 전투경과는 통상 ‘전투상보(戰鬪詳報)’로 칭하는 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주요 작전 종료 후에 해당 작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 및 해당 부대에 보존하는 기록물임
- (나) 일례로 문산지구전투(50. 6. 25~6. 26, 보병 제1사단 ○○부대)문건을 보면,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수색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전방지역인 문산 지역으로 투입되어 문산지역 방어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대뿐만 아니라 ○○부대지역으로 공격해온 북한군의 편성, 이동경로, 전술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2) 정기작전보고 문건

- (가) 정기작전보고는 육군본부와 미8군사령부 등에서 일자별로 작전상황을 정리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예하부대 또는 관련부대에 전파 및 배부한 문건임
- (나) 일례로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34호(51.2.16, 육본작전교육국)문건을 보면 6·25전쟁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전군상황을 일일단위로 정리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전군 상황 뿐만 아니라 전군의 전과나 전투능력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아울러 육군본부의 의도와 각 군단의 상황 등을 상세히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3) 작전계획, 작전명령/지시/예규, 훈령/지령, 작전교육, 행정명령/지시 문건

- (가) 작전계획 등은 단일 문건이 아니고 6·25전쟁 기간 동안에 발행된 작전계획, 작전명령, 작전지시, 작전예규, 훈령 및 지령, 작전교육, 행정명령 및 행정지시 등을 설명 목적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그룹화한 문건의 집합체이지 원래부터 그룹화 되어 있거나 비슷한 성격의 문건은 아님
- (나) 일례로 작전계획 제 1호 CBR방어계획(52. 1. 19, 제2사단)문건을 보면 전선이 고착되어있던 1952년 초순 적이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화생방 공격을 감행할 것에 대비하여 유엔군 및 국군은 화생방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비훈련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4) 작전일지 문건

- (가) 작전일지는 제대 또는 부대별로 작전상황을 일일단위로 작성하되,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별로 관련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사항(보고/전파/지시/상황도 표시 등)을 간략히 기록해 놓는 일지임
- (나) 일례로 작전일지(55.12.27~51.1.1, 육군본부 작전교육국)문건을 보면 군단급부대로부터 육군본부에 보고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렇게 보고된 것에 대해 다시 예하부대에 하달(T), 상황도에 도식(M)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별로 군단급 부대와 전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임.

(5) 전투/진중일지 문건

- (가) 전투일지 및 진중일지는 주로 전쟁 중에 해당부대가 실시한 작전이나 일상 내용을 일일단위로 요약하여 기록한 것으로 특히 소속 부대가 참여했던 주요 전투에 대해 일자별로 작성함.

(나) 일례로 ○○부대 진중일지(50.7.10~8.19, 보병 제1사단 ○○부대)문건을 보면 표지와 속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개시될 무렵 최전방 일선에 위치하였던 연대급 부대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임

(6) 전례/전훈 문건

(가) 전례나 전훈은 상급부대 또는 예하부대에 전파하기 위해 주요 작전의 내용을 전투상보에 준하여 작성하고 결론 부분에 작전수행 결과 성공 또는 미흡 요인을 도출하여 작성한 문건임

(나) 일례로 1·3실지 탈환 작전전례(52.1.3, 제1사단 ○○부대, 경기 장단 장도)문건을 보면 1952년도 전선이 고착된 상태에서 고지쟁탈전이 벌어질 때 한 번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란 쉽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부대급 전투행동의 성공 요인으로 도출한 것을 상세히 살필 수 있음. 또한 전투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11가지 사항은 다음 작전 시 착안할 수 있도록 환류(feedback)한 점을 알 수 있어 대대급 이하 소부대전투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임. 특히 아군 공격부대가 적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공격력 및 적개심이 박약하다고 분석한 점이 특이함.

(7) 공적서/무용담 문건

(가) 공적서는 관련자의 포상 등을 따지기 위해 전투 후 전투와 관련한 공적을 기술한 기록물이며, 무용담은 주요 작전에 참가한 전투요원이 활약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기술한 문건임.

(나) 일례로 문산지구전투 10용사 공적서(50.6.26~6.27, 보병 제1사단 ○○부대)문건을 보면 6·25전쟁 당시 목숨을 건 대전차특공조의 적전차 공격과 같은 소부대 공세 행동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임

(8) 서한 문건

(가) 서한은 소식을 서로 알리거나 용건을 적어 보내는 글로 발신인(發信人), 수신인(受信人), 용건(用件)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기록이나 문서임. 이중 문서에는 공적(公的)인 것과 사적(私的)인 것이 있다. 서한에 대한 다른 명칭은 서간·서찰(書札)·서자(書字)·서한(書翰)·서함(書函)·척독(尺牘)·편지(片楮)·소식(消息)·수찰(手札)·신서(信書)·안신(雁信) 등 한자어로 된 이칭과 우리 고유말로 우(유)무·글월·고목(告目)·기별(寄別)·편지(片紙, 便紙) 등이 있음

(나) 일례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서한(52.2.15, 경찰 ○○부대)문건을 보면 6·25전쟁 당시 후방지역에서 시행된 북한군 조선인민유격대 토벌작전간 전과 및 피해상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국군이 사용한 일반 문서의 성격을 띠는 '서한'의 양식이나 구성을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임.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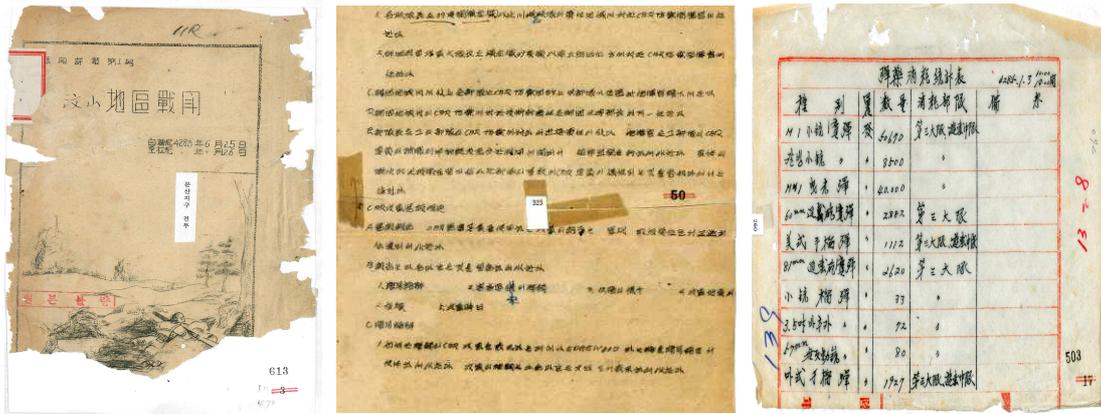
가) 보존정비

(1) 수장상태 개요 : 이 문건류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별도의 전용 나무보관함을 제작하여 항목별로 분리하여 항온항습 되는 수장고에 보관중이어서 문건이 훼손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있으나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존처리 및 복원과정을 거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2) 문서류 : 훼손 및 산화가 다수 진행되어 체계적인 보존처리 필요

- (가) 문건을 처음 생산 시 서류철에 첩했던 것을 보관을 위해 분리하면서 훼손되거나 보관과정에서 찢어짐 및 데이핑 등과 같은 물리적 피해발생
- (나) 곰팡이 및 해충 등에 의한 생물학 훼손뿐만 아니라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체계적인 보존처리 필요



(3) 상황도: 훼손 및 산화가 다수 진행되어 체계적인 보존처리 필요

- (가) 일반 A4지 크기의 양지가 아닌 전지 크기 정도의 트레이싱페이퍼 또는 미농지(美濃紙) 등의 반투명지를 사용하여 강도가 약함
- (나) 상황도의 특성상 여러 번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면서 찢어지거나 접힌 부분의 마모가 심하게 진행됨



나) 활용 착안사항

(1) 해군 및 공군자료를 추가하여 한건으로 통합 관리 필요

- (가) 현재의 이문건은 육군기록이 대부분이므로 당시 해군 및 공군관련 부분은 일부가 누락되었음.
- (나) 따라서 해군역사기록단과 공군역사기록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6·25전쟁 기록물을 향후 추가로 조사하여 한건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함(2차 등록사업)

(2) 원문과 해제자료 공개 추진

- (가) 이번에 등록추진중인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소유의 6·25전쟁 기록물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1차 사료 원본을 정리하여 영인본으로 편철하여 109권으로 발행하였고, 이렇게 발행했던 영인본을 토대로 육군군사연구소에서 연차적으로 한글해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2020년 1월 현재 109권중에서 72권이 해제되었음
- (나) 따라서 학술적 연구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문에 대한 전산파일(pdf파일) 뿐만 아니라 한글 해제본도 병행하여 공개추진이 필요함.

<000>

※ 등록 신청된 6·25전쟁·베트남전쟁·대침투작전 문건 중, 베트남전쟁과 대침투 작전 관련 기록물은 등록 기준 연한이 미도래하였으며, 연한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격은 아니므로 추후 검토 필요

1) 현상

○ 일부 탈산차리가 요구되고 지도자료의 절첩으로 인한 손상 등은 보존 처리가 시급.

2) 내용 및 특징

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5월 20일 부산에서 창설된 육군중앙문보존소가 이후 1968년 육군중앙문서관리단으로 개명되고, 2004년 현재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최종 개명하면서 보관해온 자료임.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보관 연혁

(1) 6·25전쟁 당시부터 각급 부대에서 작성한 기록들이 육군본부로 제출되었음. 당시 군의 역사자료 수집과 군사 편찬을 담당하던 육군본부 군사감실에서 이를 접수, 수집하여 2009년까지 군사감실의 승계 기관인 군사연구실, 군사연구소에서 존안하면서 전사 연구를 위해 활용하다가 2009년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기록물 원본을 이관하였음.

(2) 육군군사연구실에서는 1985-1990년에 걸쳐 문서성격, 발행부대 및 발행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한 전 109권의 영인본 사료집을 발간하였음. 이 사료집에는 부대별 정기정보보고, 작전보고, 전투상보, 전투명령, 작전일지 등이 구분하여 수록되어 있음.

(3) 참고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된 원본 기록물은 영구보존 기록물로 설정되어 장기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시설이 완비된 지하서고에 보존 중이며, 마이크로필름으로 이중화하여 종이기록물 보존 시설과 장거리 이격된 별도의 장소에 분산 보존하고 있음.

다) 1950년 7월 17일부터 1954년 12월 31일까지의 한국전쟁 당시의 전투부대의 전투 상황과 작전상황 등의 작전기록 자료임.

라) 다양한 형태로 낱장자료, 지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7,521건임. 그중 1-69번의 자료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한국전쟁 군사작전 자료의 일부

	생산자원	기관명	기본식별자	철, 건명	세부화내용(연대표기무기명)	생산일시	종료일시
최종0001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한강방어전투	수도사단 한강방어전투, 지휘소(시흥)('50.6.29.~7.2.)	1950	1950
최종0002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청주지구전투	수도사단 청주지구전투('50.7.12.~7.18.)	1950	1950
최종0003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기계안강지구전투	수도사단 기계,안강지구전투('50.8.7.~9.3.)	1950	1950
최종0004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대관령방어 및 월비산 지구전투	수도사단 대관령방어 및 월비산 지구 전투('51.5.18.~11.8.)	1951	1951
최종0005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지리산지구전투	수도사단 지리산지구전투('51.11.30.~12.17.)	1951	1951
최종0006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운장, 성수, 장안산 지구 전투	수도사단 운장산, 성수산, 장안산지구 전투('51.12.18.~'52.1.5)	1951	1952
최종0007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지리산, 백운산 지구 전투	수도사단 지리산, 백운산 지구 전투 기록('52.1.6.~'52.2.2.)	1952	1952
최종0008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수도 지형 고지 전투	수도사단 수도,지형고지 전투('52.9.6.~9.20.)	1952	1952

	생산자원	기관명	기본식별자	철, 건명	세부화내용(연대표기무기명)	생산일시	종료일시
최종0009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575 수도고지 및 지형 능선 전투	수도사단 575.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전투('52.10.6.~10.15.)	1952	1952
최종0010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금화 돌출부 일대 전투(1)	수도사단 금화 돌출부 일대 전투 기록(1부)('53.5.1.~7.27.)	1953	1953
최종0011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금화 돌출부 일대 전투(2)	수도사단 금화 돌출부 일대 전투 기록('53.5.1.~'53.7.27.)	1953	1953
최종0012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금화 동북방 지구 전투	수도사단 금화 동북방지구 전투 ('53.7.13.~'53.7.16.)	1953	1953
최종0013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금화 동북방 지구 전투	수도사단 금화 동북방지구 전투 ('53.7.13.~'53.7.16.)	1953	1953
최종0014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마천령전투	수도사단 ○○연대 마천령전투 ('50.10.27)	1950	1950
최종0015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성진, 길주 부근 전투	수도사단 ○○연대 성진.길주부근 전투('50.10.27.~11.5.)	1950	1950
최종0016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부대이동, 반동리·여양·구산동·황계리 전투	수도사단 ○○연대 부대이동, 반동리 전투('50.12.1.~'51.2.15.)	1950	1951
최종0017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하진부 속사리 방면 전투	수도사단 ○○연대 하진부 속사리 방면 전투('51.2.25.~3.5.)	1951	1951
최종0018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Finger Ridge 전투(공방전)	수도사단(○○연대) Figer Ridge 전투(공방전/ 강원,금화) 기록 (52.9.29.)	1952	1952
최종0019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금화지구(울동)일대 전투	수도사단(○○연대) 금화지구(울동) 일대 전투 기록('53.4.2.)	1953	1953
최종0020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금화지구 셋별고지 전투	수도사단(○○연대) 금화지구 셋별고지 전투 기록('53.5.14.)	1953	1953
최종0021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금화지구 셋별고지 전투	수도사단(○○연대) 금화지구 셋별고지 전투 기록('53.5.15.~5.16.)	1953	1953
최종0022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의정부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의정부 지구 전투('50.6.25.~6.28.)	1950	1950
최종0023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지연전(동두천 - 대전 남일면)	수도사단(○○연대) 지연전(동두천-대전 남일면) 전투 기록 ('50.6.25.~7.15.)	1950	1950
최종0024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진천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진천 지구전투 기록('50.7.9.~7.11.)	1950	1950
최종0025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청주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청주 지구전투 기록('50.7.11.~7.16.)	1950	1950
최종0026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지연전(안동 및 경주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지연전(안동 및 경주 지구) 전투 기록 ('50.8.2.~8.15.)	1950	1950
최종0027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안동, 경주 지구간의 전투	수도사단(○○연대) 안동, 경주 지구간의 전투 기록('50.8.14.~8.18.)	1950	1950
최종0028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각 지구 전투(덕원, 홍원, 북청)	수도사단(○○연대) 각 지구 전투(덕원,홍원,북청) 기록 ('50.10.11.~10.21.)	1950	1950
최종0029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풍산 부근 전투	수도사단(○○연대) 풍산 부근 전투 기록('50.10.24.~10.28.)	1950	1950
최종0030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방어 및 부대이동 전투 일보	수도사단(○○연대) 방어 및 부대이동 전투 일보('50.12.1.~12.31.)	1950	1950
최종0031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방어 공격 전투 일보(강원도)	수도사단(○○연대) 방어 공격 전투 일보(강원도) 기록('51.1.1.~1.31.)	1951	1951
최종0032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삼척 강릉 주문진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삼척 강릉 주문진 지구 전투 일지 ('51.2.1.~2.28.)	1951	1951
최종0033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강원 노동리 양양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강원 노동리 양양 지구 전투 기록('51.3.1.~3.31.)	1951	1951
최종0034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강원 오색리 가리봉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강원 오색리 가리봉 지구 전투 일지 ('51.4.1.~4.30.)	1951	1951
최종0035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칸사스선 및 간성선 공방전투	수도사단(○○연대) 칸사스선 및 간성선 공방 전투 일지 ('51.5.1.~5.31.)	1951	1951
최종0036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강원 진부령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강원 진부령 지구 전투 일지('51.7.1.~7.31.)	1951	1951
최종0037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간성 1039.9 고지 전투	수도사단(○○연대) 간성 1039.9고지 전투('51.7.20.~7.25.)	1951	1951
최종0038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고성치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고성치 지구 전투('51.8.16.~8.17.)	1951	1951

	생산자원	기관명	기본식별자	철, 건명	세부화내용(연대표기무기명)	생산일시	종료일시
최종0039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간성지구 양덕리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간성지구 양덕리 지구 전투('51.8.16.~8.17.)	1951	1951
최종0040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송지곡(923.5 고지)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송지곡(923.5고지) 지구 전투('57.8.18.~8.21.)	1951	1951
최종0041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무명 고지 전투	수도사단(○○연대) 무명 고지 전투('52.7.8.)	1952	1952
최종0042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A B C 고지 공격 전투	수도사단(○○연대) A B C고지 공격 전투('52.7.8.~7.9.)	1952	1952
최종0043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월봉리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월봉리 지구 전투('53.5.23.~5.24.)	1953	1953
최종0044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안변 공격 전투	수도사단(○○연대) 안변 공격 전투('50.10.8.~10.9.)	1950	1950
최종0045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공략 및 소탕전투(연대부 발전소, 팔공산, 사창)	수도사단(○○연대) 공략 및 소탕전투(연대부 발전소, 팔공산, 사창)('50.10.25.~11.24.)	1950	1950
최종0046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흑수리 공격 전투	수도사단(○○연대) 흑수리 공격 전투('50.11.20.~11.21.)	1950	1950
최종0047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삼수 및 북청 역습 전투	수도사단(○○연대) 삼수 및 북청 역습 전투('50.12.3.~12.9.)	1950	1950
최종0048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오대산 1209고지 조우전	수도사단(○○연대) 오대산 1209고지 조우전('51.1.3.)	1951	1951
최종0049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강릉 탈환 전투	수도사단(○○연대) 강릉 탈환 전투('51.2.3~2.7.)	1951	1951
최종0050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유천리 방어 작전	수도사단(○○연대) 유천리 방어 작전('51.3.1.~3.3.)	1951	1951
최종0051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수하리 일대 소탕전	수도사단(○○연대) 수하리 일대 소탕전('51.3.16.~3.17.)	1951	1951
최종0052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양양 지구 공격 전투	수도사단(○○연대) 양양지구 공격 전투('51.3.26.)	1951	1951
최종0053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양양 북방고지 공략 전투	수도사단(○○연대) 양양 북방고지 공략 전투('51.3.27.)	1951	1951
최종0054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동대산 철수 작전	수도사단(○○연대) 동대산 철수 작전('51.5.22.)	1951	1951
최종0055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향노봉 산맥 900고지 무명고지 전투	수도사단(○○연대) 향노봉 산맥 900고지 무명고지 전투('51.6.8.~6.9.)	1951	1951
최종0056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위력 수색 전투	수도사단(○○연대) 위력 수색 전투('52.7.6.~7.7.)	1952	1952
최종0057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923.5 고지 지구 전투	수도사단(○○연대) 923.5고지 지구 전투('51.8.18.~8.23.)	1951	1951
최종0058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장수동 지구 전초 지구 탈환전	수도사단(○○연대) 장수동 지구 전초지구 탈환전('52.8.5.~8.8.)	1952	1952
최종0059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좌수동 지구 전초 진지 전투	수도사단(○○연대) 좌수동 지구 전초 진지 전투('52.7.28.~10.1.)	1952	1952
최종0060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입암,도평,청송,영월,평창 대화 지구 전투	수도사단(포병대대) 입암,도평,청송,영월,평창 대화지구 전투('50.9.16.~9.30.)	1950	1950
최종0061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원산 지구 전투	수도사단(포병대대) 원산 지구 전투('50.10.1.~10.15.)	1950	1950
최종0062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함흥,길주,면천,부막산 지구 전투	수도사단(포병대대) 함흥,길주,면천,부막산 지구 전투('50.10.16.~11.18.)	1950	1950
최종0063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주을경성, 나남,청진 구임동 부녕지구 전투	수도사단(포병대대) 주을 경성, 나남,청진, 구임동 부녕지구 전투('50.10.19.~12.2.)	1950	1950
최종0064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양양 강릉 지구 공방전	수도사단(포병대대) 양양 강릉지구 공방전('50.12.2.~'51.2.15.)	1950	1951
최종0065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주문진 및 속사리 지구 전투	수도사단(포병대대) 주문진 및 속사리 지구 전투('51.3.1.~'51.3.31.)	1951	1951
최종0066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양양 및 악수리 지구 공세 방어전	수도사단(포병대대) 양양 및 악수리 지구 공세 방어전('51.4.1.~4.30.)	1951	1951
최종0067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각 지구 전투(15개 지구)	수도사단(포병대대) 각 지구 전투(15개 지구)('51.5.1.~5.31.)	1951	1951
최종0068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각 지구 전투(대곡리외 6개 지구)	수도사단(포병대대) 각 지구 전투(대곡리외 6개 지구)('51.6.1.~6.30.)	1951	1951
최종0069	수도사단	육군	한국전쟁기록	향로봉 904.6고지 고성치 지구 전투	수도사단(포병대대) 향로봉 904.6고지 고성치 지구 전투('51.7.1.~7.19.)	1951	1951

마) 자료의 대부분은 주로 한글로 필사되어 있음. 지도와 같은 지도자료도 포함되어 있음. 일부 1950년의 종이기록물 판식을 살필 수 있는 계선과 광곽인 있는 판식의 종이기록물도 있음.

바) 작전보고 성격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1) 실지탈환작전(경기 장단 장도, 전례)
- (2) 문산지구 전투
- (3) 진중 일지
- (4) 문산지구 전투(용사 공격서)
- (5) 전투상보
- (6) 작전보고(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정기작전보고 34호, 1951년 2월)
- (7) 정기작전보고(미8군 장기작전보고서, 1950년 7월 17일부터 8월 31일)
- (8) 전사일지 5사단 1950년 12월분
- (9) 육군본부 작정교육국의 작전일지(1950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
- (10) 전투상보

사) 1950년 7월 17일부터 1954년 12월 31일까지의 한국전쟁 당시의 전투부대의 전투 상황과 작전상황 등의 작전기록 자료임.

- (1) 이들은 유일한 기록물로서 한국전쟁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음.
- (2) 특히 한국전쟁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의 연구 가치가 높음.
- (3) 일반인을 위한 한국전쟁 이해에 가치가 높음.

아) 보존상태

- (1) 보존상자에 정리 보존되어 있음(<그림 1> 참조)
- (2) 낱장자료는 파일화하고 있음(<그림 2>참조).

자) 일부 손상 등의 현상이 보임.

- (1) 연번 등이 필사와 낙인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음(<그림 3> 참조).
- (2) 필사자료로서 기록필기류가 아닌 일반적인 필기류로 필사되어 일부 번짐이나 흐려짐 등의 현상이 보임.
- (3) 낱장자료의 경우 파일화하고 있으나 일부 손상이 보임(<그림 4> 참조).
- (4) 지도자료의 경우 절첩되어 보존되어 온 이유로 절첩된 부분의 손상 등이 다소 우려됨(<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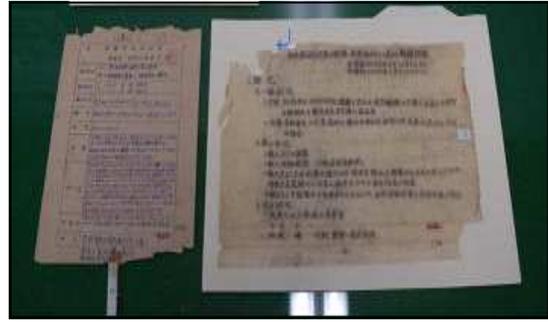
<그림1> 보존상자 보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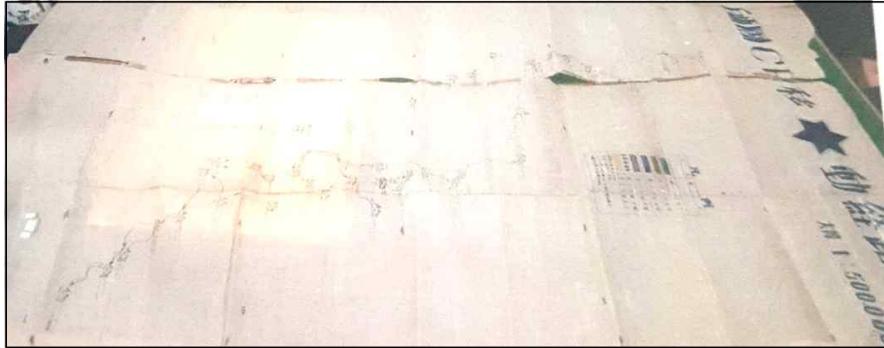
<그림 2> 파일화 모습



<그림 3> 연변 등의 상태



<그림 4> 날장자료



<그림 5> 절첩 보관되어 온 지도자료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한국전쟁 당시의 전투부대의 전투상황과 작전상황 등으로 유일한 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음.
- 현재 유일한 한국전쟁 작전기록 자료로서 한국전쟁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의 이해와 연구로서의 가치가 높고, 일반인을 위한 한국전쟁 이해에도 가치가 높음.
- 일부 기록재료와 필기의 탈산처리 필요, 손상 등의 보존 처리가 시급함.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한국전쟁 관련 다양한 방면의 연구에의 활용 가치가 높음.
- 전쟁기록물로서 전쟁관련 내용, 당시의 사회적 정황, 지도자료 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의 활용 가치가 높음.
- 일부 지도자료의 경우 절첩에 따른 손상 보존 정비가 필요함.
- 필사된 부분의 일부 번짐이나 흐려짐 등의 현상에 대한 탈산 등 처리가 필요함.
- 보존 상자에 보관 상태이나 좀 더 적절한 보존 환경이 필요함.

7.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회 등록 검토('20.4.21.)를 거쳐 등록 예고한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8건	○ 편지:20.4×21.2cm, 봉투:14.8×9.7cm 등	1924 ~1925년	국립 중앙박물관장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2) 추진경과

- ('18.6.~10월) : '근현대문화유산 대한민국의정부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
- ('19.1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등록예고 : '20.5.4. ~ 6.2. (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19.12.6.)

- 1926년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여 항일투쟁 정신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 나석주 의사의 편지 및 봉투 8건임. 해당 유물들은 나석주 의사가 이승춘·김구 등에게 보낸 것으로서, 그의 투쟁활동 경위와 백범 김구와의 연계성, 그리고 초기 의열단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이는 항일독립투쟁과 관련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 ○ ○ ('19.12.6.)

- 해당 유물은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의 편지와 봉투 8건임. 나석주 의사는 1910년대부터 국내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벌여왔던 인물로, 1926년 12월 서울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투탄 의거를 감행하였음. 그의 편지 및 봉투는 거사 준비, 추진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증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유물들은 항일 의열투쟁의 위대한 족적과 고단했던 이면을 후대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줄 유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19.12.6.)

- 나석주 의사는 1926년 12월 서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순국하여 대한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 독립운동가임. 의열투쟁을 한 독립운동가가 직접 남긴 기록이 적어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해당 유물은 국내에 잠입하여 일제 착취기관을 폭파하려던 계획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소중한 역사 경험을 후대에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문화재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1>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목록

구분	유물명(국박)	작성시기	작성자	크기(cm)	수량
1	나이(羅李)의 편지	1924.9.11	나석주 이승춘	봉투:14.8×9.7 편지:20.4×21.2	봉투(1점) 편지(1장)
2	나석주의 편지	1925.7.28	나석주	봉투:17.9×8.5 편지:24.1×16.0	봉투(1점) 편지(4장)
3	석주(石柱)의 편지	1925.7.28	나석주	봉투:19.0×9.6 편지:24.2×16.0	봉투(1점) 편지(4장)
4	석주의 편지	1925.8.4	나석주	편지:20.5×27.3	편지(5장)
5	김영일 또는 나석주 기재 추정 편지	1925.8.12	김영일	봉투:15.5×10.0 편지:20.8×17.4	봉투(1점) 편지(3장)
6	김영일의 편지	1925.8.14	김영일	봉투:15.5×10.0 편지:21.0×17.4	봉투(1매) 편지(1장)
7	김영일의 편지	1925.8.25	김영일	편지:21.0×17.4	편지(2장)
8	김영일의 편지	1925.8.26	김영일	편지:21.1×17.4	편지(1장)

<붙임2>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필적감정 의견서

필적감정 의견서	
대 상	순번 1 : 羅錫疇(나석주)의 편지(신수6284-7) - 편지지 4매 및 편지봉투 1점 순번 2 : 石柱(석주)의 편지(신수6284-12) - 편지지 4매 및 편지봉투 1점 순번 3 : 石柱(석주)의 편지(신수6284-25) - 편지지 5매 순번 4 : 羅李(나리)의 편지(신수6284-6) - 편지지 1매 및 편지봉투 1점 순번 5 : 金永一(김영일) 또는 羅錫疇(나석주) 기재 추정 편지(신수6284-11) - 편지지 3매 및 편지봉투 1점 순번 6 : 金永一(김영일)의 편지(신수6284-10) - 편지지 3매 및 편지봉투 1점 순번 7 : 金永一(김영일)의 편지(신수6284-13) - 편지지 1매
내 용	순번 1~7(신수6284-7, 신수6284-12, 신수6284-25, 신수6284-6, 신수6284-11, 신수6284-10, 신수6284-13)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 필적인지 여부.
감정 의견	
1. 감정물 : 순번 1~7(신수6284-7, 신수6284-12, 신수6284-25, 신수6284-6, 신수6284-11, 신수6284-10, 신수6284-13).	
2. 감정사항 : 순번 1~7(신수6284-7, 신수6284-12, 신수6284-25, 신수6284-6, 신수6284-11, 신수6284-10, 신수6284-13)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 필적인지 여부.	
3. 시험방법 : 문자구성과 배자, 방향과 각도, 자획의 간격과 위치, 필순, 곡획과 굴절 및 속련상태에 따른 기재습성 등의 외관 검사 및 기필과 종필 부분, 필압과 필세, 필적의 변화상태에 따른 자모음의 특성 등의 검사.	

4. 시험 고찰 :

- 가. 순번 1 : 羅錫疇(나석주)의 편지(신수6284-7)는 붙임사진 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지 4매 및 편지봉투 1점에 기재된 필적으로 동 붙임사진 청색표시 내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 작성자의 성명이 “羅錫疇”(나석주)로 기재되어 있음.
- 나. 순번 2 : 石柱(석주)의 편지(신수6284-12)는 붙임사진 2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지 4매 및 편지봉투 1점에 기재된 필적으로 동 붙임사진 청색표시 내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 작성자의 성명이 “石柱”(석주)로 기재되어 있음.
- 다. 순번 3 : 石柱(석주)의 편지(신수6284-25)는 붙임사진 3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지 5매에 기재된 필적으로 동 붙임사진 청색표시 내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 작성자의 성명이 “石柱”(석주)로 기재되어 있음.
- 라. 순번 4 : 羅李(나리)의 편지(신수6284-6)는 붙임사진 4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지 1매 및 편지봉투 1점에 기재된 필적으로 동 붙임사진 청색표시 내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 작성자의 성명이 “羅李”(나리)로 기재되어 있음.
- 마. 순번 5 : 金永一(김영일) 또는 羅錫疇(나석주) 기재 추정 편지(신수6284-11)는 붙임사진 5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지 3매 및 편지봉투 1점에 기재된 필적으로 동 붙임사진 적색표시 내 한자와 같이, 편지 내용 중에 “金永一”(김영일) 및 “羅錫疇”(나석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의 대한 정확한 정보 식별은 곤란함.
- 바. 순번 6 : 金永一(김영일)의 편지(신수6284-10)는 붙임사진 6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지 3매 및 편지봉투 1점에 기재된 필적으로 동 붙임사진 청색표시 내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 작성자의 성명이 “金永一”(김영일)로 기재되어 있음.
- 사. 순번 7 : 金永一(김영일)의 편지(신수6284-13)는 붙임사진 7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지 1매에 기재된 필적으로 동 붙임사진 청색표시 내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 작성자의 성명이 “金永一”(김영일)로 기재되어 있음.
- 아. 순번 1~7(신수6284-7, 신수6284-12, 신수6284-25, 신수6284-6, 신수6284-11, 신수6284-10, 신수6284-13)에 기재된 필적은 모두 국한문 혼용의 흘림체(또는 반흘림체)인 특징이 관찰되며, 동 필적자료의 종이(지질)이 동

일하지 않아 필기구 잉크의 지면 흡수 정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관찰되는 등 기재조건의 차이점이 관찰되나,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문자의 구성과 배자, 간격과 위치, 숙련상태 등의 기재습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자, 분석 결과, 기재조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변화 차이점 이외에, 문자의 구성과 배자, 간격과 위치, 숙련상태 등의 기재습성에서 유사점이 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유사점이 관찰됨.

- 아 래 -

비교 필적 부분	특징 유사점 부분	비고
"보"	- 초성 "ㅂ"의 구성형태	붙임사진 8~31호 (검색표시 참조)
"로"	- 초·중성의 독특한 구성형태 및 상대적 위치	
"할", "힐", "외", "곳"	- 초·중·중성의 독특한 구성형태 및 상대적 위치	
"라", "란", "라", "린", "리", "림"	- 초성 "ㄹ"의 구성형태	
"안", "만"	- 초·중성의 상대적 위치 및 구성형태	
"야", "양", "약"	- 중성 "ㅛ" 2,3획의 독특한 연결형태	
"中", "動", "其"	- 연결형태 및 구성형태	
"尙白凡"	- "尙"과 "白凡"의 상대적 크기 및 구성형태	
"先生"	- 연결형태 및 구성형태	
"李承憲"	- 배자 및 구성형태	

붙임사진 31매 참조. 「붙임 사진은 설명 등을 위하여 임의로 선정한 것임」

5. 감정결과 : 순번 1~7(신수6284-7, 신수6284-12, 신수6284-25, 신수6284-6, 신수6284-11, 신수6284-10, 신수6284-13)에 기재된 필적은 모두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

2020년 2월 19일

소 속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 명 : 강태이 (인), 이가영 (인), 김홍석 (인)

<붙임4>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3. 소유자 : 국립중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19.12.6.)

<○○○>

1) 현상

- 잉크색이 탈색되기는 하였으나 유물은 대체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나석주(羅錫疇, 1892~1926)는 황해도 재령 출신임. 1923년에 중국 육군군관단강습소(陸軍軍官團講習所)에 입교하여 사관 훈련을 수료하고, 중국군 장교로 임관되었음. 1925년부터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1926년에는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였음. 마침 일제의 경제침탈을 응징하기 위해 김창숙, 유우근, 한봉근, 이승춘(李承春) 등과 거사계획을 세우고, 1926년 12월에 인천으로 귀국하였음.
- 이어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폭파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불발로 실패하였음.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자 권총으로 자결을 시도하였다가 병원에서 순국하였음.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음. 1994년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앞에 “나석주의사 의거기념터”라는 표석(문구는 “1926년 12월 나석주 의사가 일제 동양척식회사에 투탄하고 일본경찰과 총격전 중 자결한 곳”)이 설치되었고, 1999년에는 같은 장소에 동상(“나석주 열사의 상”)이 건립되었음.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나석주 의사의 편지와 봉투는 모두 8건임. 이 편지들은 봉투와 함께 전하는 것도 있고, 편지만 전하는 것도 있음. 모두 1924-5년에 쓰여진 것인데, 이들을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1> 나석주 의사의 편지 및 현상(現狀)

구분	번호(국박)	유물명(국박)	작성시기	작성자	크기(cm)	수량
1	신수6284-6	나이(羅李)의 편지	1924.9.11	나석주 이승춘	봉투:14.8×9.7 편지:20.4×21.2	봉투(1점) 편지(1장)
2	신수6284-7	나석주의 편지	1925.7.28	나석주	봉투:17.9×8.5 편지:24.1×16.0	봉투(1점) 편지(4장)

3	신수6284-12	석주(石柱)의 편지	1925.7.28	나석주	봉투:19.0×9.6 편지:24.2×16.0	봉투(1점) 편지(4장)
4	신수6284-25	석주의 편지	1925.8.4	나석주	편지:20.5×27.3	편지(5장)
5	신수6284-11	김영일 또는 나석주 기재 추정 편지	1925.8.12	김영일	봉투:15.5×10.0 편지:20.8×17.4	봉투(1점) 편지(3장)
6	신수6284-10	김영일의 편지	1925.8.14	김영일	봉투:15.5×10.0 편지:21.0×17.4	봉투(1매) 편지(1장)
7	신수6284-10	김영일의 편지	1925.8.25	김영일	편지:21.0×17.4	편지(2장)
8	신수6284-13	김영일의 편지	1925.8.26	김영일	편지:21.1×17.4	편지(1장)

- 위의 편지 작성자 중에서 김영일은 내용이나 필체로 보아 나석주의 다른 이름으로 보아야 함. 마침 국과수에서도 김영일의 필체와 나석주의 필체를 대비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필적감정의견서를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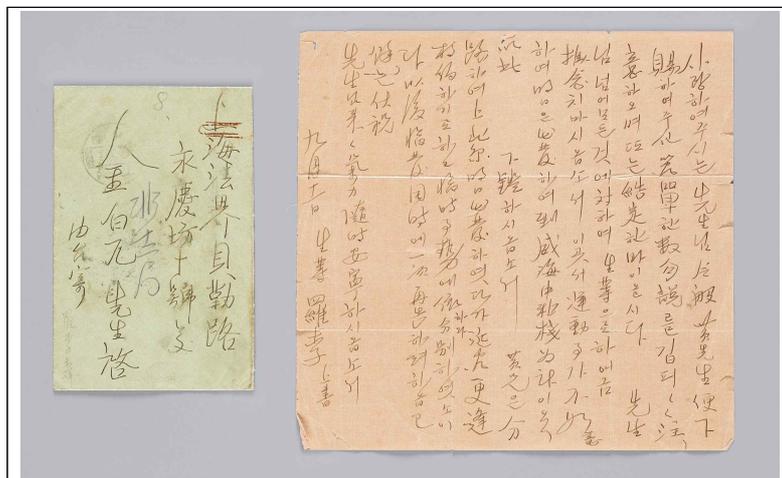
감정결과 :

순번 1~7(신수6284-7, 신수6284-12, 신수6284-25, 신수6284-6, 신수6284-11, 신수6284-10, 신수6284-13)에 기재된 필적은 모두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

- 나석주 의사의 편지 8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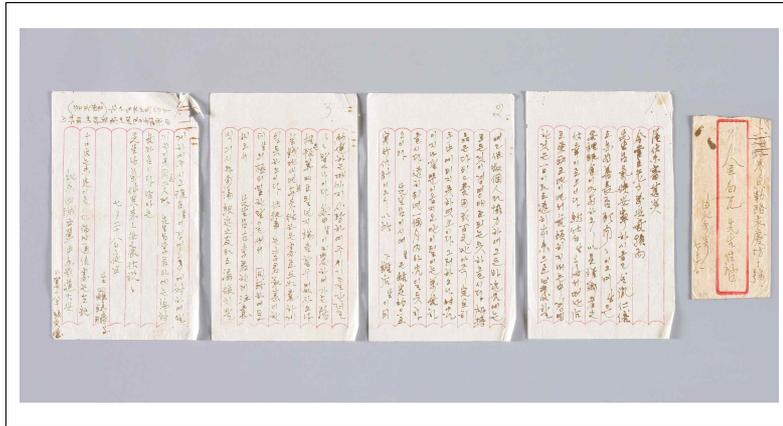
① 나석주와 이승춘이 김구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1924.9.11)

나석주와 이승춘이 김구에게 보낸 국한문혼용의 편지 1장과 봉투 1점임. 검은 잉크로 13행에 걸쳐 쓰여져 있음. 처음 “사랑하여 주시는 先生님”으로 시작되며 “내려주신 말씀을 깊이 주의하고 결정한 바”라고 하고 있음. 끝에는 “羅李上書”라고 하여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봉투에는 상해의 김백범(金白凡)선생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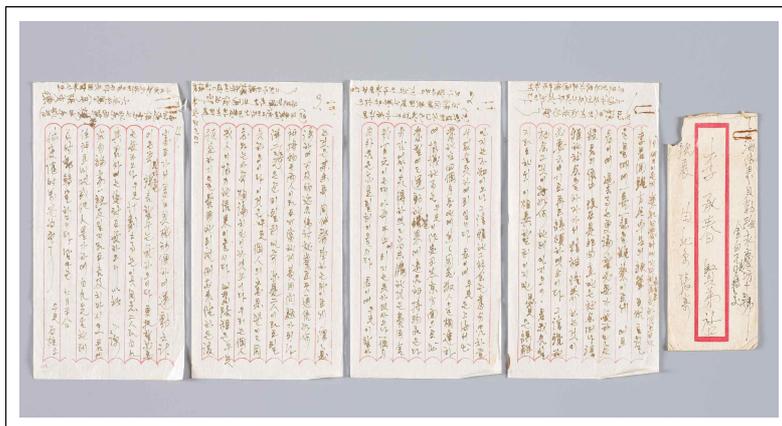
② 나석주가 김구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1925.7.28)

나석주가 김구에게 보낸 국한문혼용의 편지 4장과 봉투 1점임. 흰색 봉투와 8행의 붉은 색 계선이 찍힌 흰색 종이에 검은 잉크로 흘림체로 쓰여져 있음. 편지의 오른쪽 위부분에는 1부터 4까지 숫자를 기록해두어 차례를 표시해 놓았음. 말미에는 “이승춘에게 자신의 매우 비밀스런 말을 적어 보냈으니 선생님께서도 이군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주의시켜 달라.”고 적어 놓았음. 이 편지는 7월 28일 야반에 쓴 것으로 “중국을 떠남과 동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며 다음 거처인 여관(公寓)의 연락처를 적고 이름은 장수덕(張秀德)이라고 하였음. 봉투의 수신자는 상해의 김백범(金白凡)선생으로 되어 있음.



③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1925.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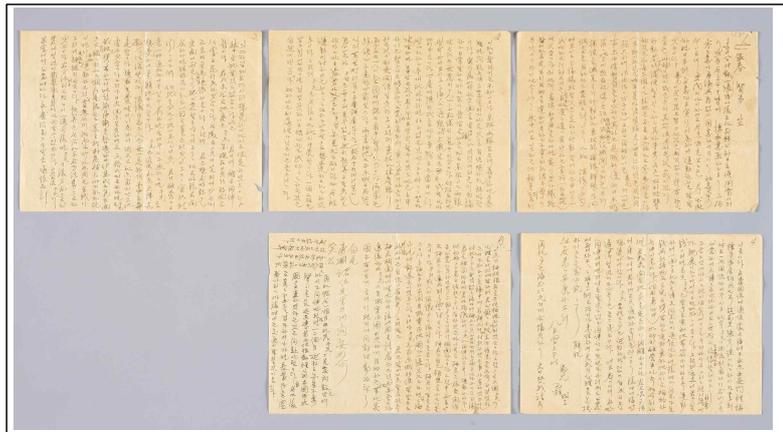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국한문혼용의 편지 4장과 봉투 1점임. 흰색 봉투와 8행의 붉은 색 계선이 찍힌 흰색 종이에 검은 잉크로 흘림체로 쓰여져 있음. 편지의 오른쪽 위부분에는 1부터 4까지 숫자를 기록해두어 차례를 표시해 놓았음. 이 편지 역시 7월 28일에 쓴 것으로 비밀이 많은 이번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적으면서 다음 거처인 여관(公寓)의 연락처를 적고 이름은 장수덕(張秀德)이라고 하였음. 봉투의 수신자는 상해의 이승춘 현제(李承春 賢弟)로 되어 있음.



④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192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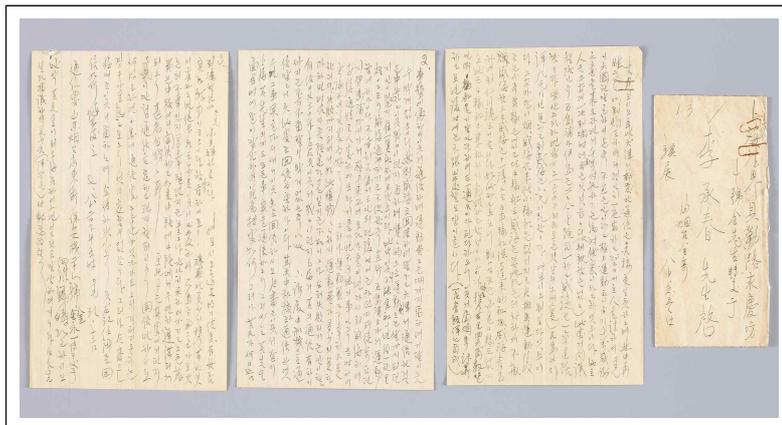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국한문혼용의 편지 5장임. 미색 종이에 검은 잉크로 20행에 걸쳐 정서(淨書)해 놓았음. 처음 “承春 賢弟 앞”으로 시작되고, 제4장의

말미에는 “8월4일 상오 우형 석주”가 보이는데, 4장으로 끝내려다 1장을 더 쓴 것이 아닌가 함. 내용은 거사 목적지와 필요한 장비를 모두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임. 봉투는 없고 편지만 5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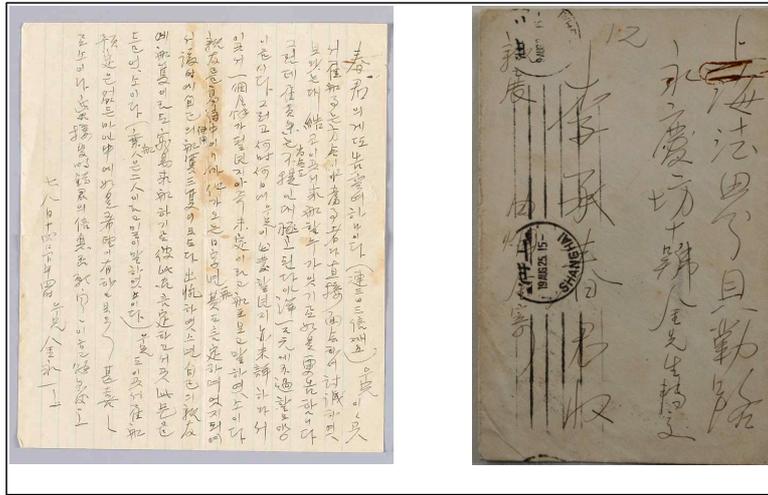
⑤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1925.8.12)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국한문혼용의 편지 3장과 봉투 1점임. 17행의 옥색 계선이 찍힌 흰 종이에 검은 잉크로 정서(淨書)해 놓았음. 편지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1부터 3까지 숫자를 기록해두어 차례를 표시해 놓았음. 내용은 이승춘에게 그간의 활동과 연락방식에 대해 적은 것이다. 말미에 백범선생과 상의하여 “양이 십원 부우송(洋二十元 付郵送)”이라고 한 사실을 보아 거사자금이 송금된 것이 아닌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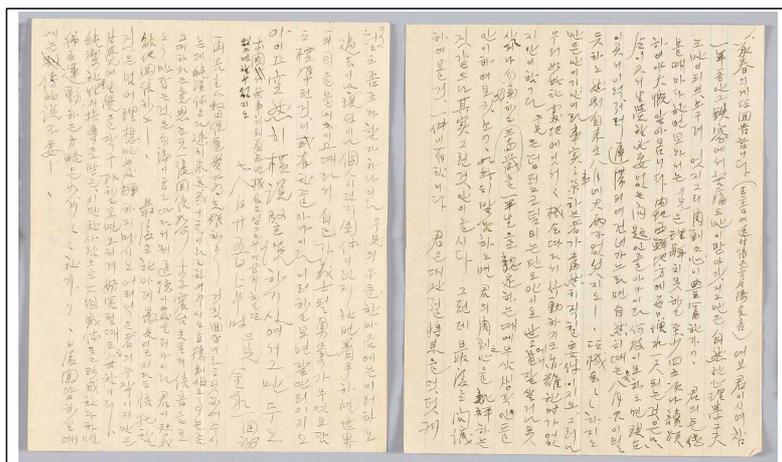
⑥ 김영일이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1925.8.14)

김영일(나석주)이 이승춘에게 보낸 국한문혼용의 편지 1장과 봉투 1점임. 17행의 옥색 계선이 찍힌 흰 종이에 검은 잉크로 정서(淨書)해 놓았음. 이 편지는 이승춘에게 또 전하고 싶어서 쓴 것임. 당시 3일간에 걸쳐 세 번의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임. 편지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배로 들어오고자 하는 내용이 보임. 말미에 “八月 十四日 下午四時 우兄金永一上”이라고 되어 있음. 나석주는 편지에서 “愚兄”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우兄”으로 쓰는데, 이 편지도 그런 사례임. 김영일은 나석주의 다른 이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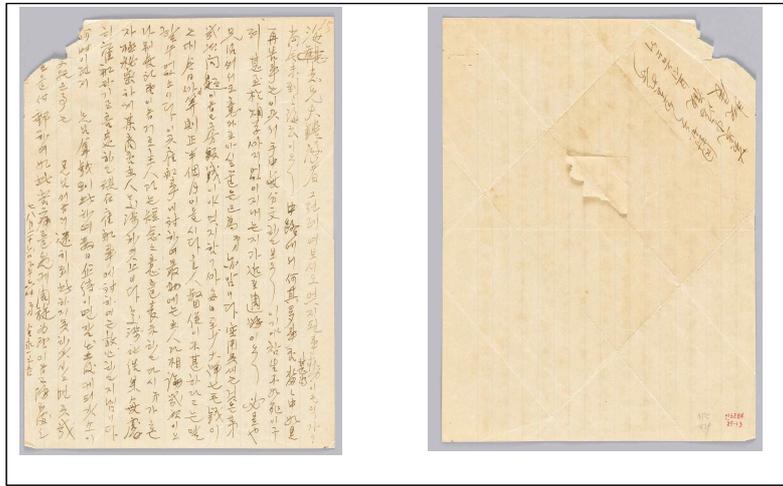
⑦ 김영일이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1925.8.25)

김영일(나석주)이 이승춘에게 국한문혼용의 편지 2장임. 17행의 옥색 계선이 찍힌 흰 종이에 검은 잉크로 정서(淨書)해 놓았음. 편지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1부터 2까지 숫자를 기록하여 차례를 표시해 놓았음. 편지의 말미에는 “지사(志士)들의 말과 같이 중국에 와서 무심하게 기아(飢餓) 아니면 한사(寒死)하느니 차라리 본국에 가서 몸값이나 하고 죽을까 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술회하고 있음.



⑧ 김영일이 해관에게 보낸 편지(1925.8.26) 신수6284-13

김영일이 해관(海觀) 황익수(黃翊秀)에게 보낸 편지 1장임. 17행의 옥색 계선이 찍힌 흰 종이에 검은 잉크로 정서(淨書)해 놓았다. 이 편지는 대각선으로 접어 작은 장방형으로 만든 흔적이 있고, 뒷면에는 “海觀보시옵소서 親展” 등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우송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임. 내용은 수령해야 할 것(자금)을 아직 받지 못해 중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불안해하며, 임시로 배를 빌리는데 드는 비용을 걱정하고 있음. 8월 26일 하오 6시에 쓴 것인데, 개봉할 때 손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왼쪽 윗부분이 일부 찢겨나가 몇 자를 확인할 수가 없음.



3) 참고자료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2018.10)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02_\\$1exp](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02_$1exp))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의열단원인 나석주 의사는 1926년에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폭파함으로써 대한인(조선인)의 항일투쟁 정신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였음. 비록 이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후일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이러한 방식의 투쟁을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음.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나석주 의사의 편지 8건(편지 21장, 봉투 5점)은 그의 투쟁활동의 경위를 살필 수 있는 1차 사료임. 아울러 백범 김구와의 연계성 및 초기 의열단원의 동지에 등도 엿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유물이기도 함. 그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항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 현상

- 편지는 모두 우편발송 후 1차 개봉된 상태대로 접하여 봉투 속에 들어있고, 편지와 봉투 모두 훼손 없이 상태 양호함. 필압이 적절하고 필체는 알아보기 쉬워서 全文 판독이 거의 가능함.
- 봉투의 앞면 혹은 뒷면의 우표 위에 발송지 우편국의, 뒷면의 여백 부분에 수신지(모두 上海) 우편국의 한자식 소인과 영자식 소인이 찍혀 있음. 한자식은 오른쪽부터 중화민국 연호의 연도, 월, 일, 시각 순으로, 영자식은 오른쪽부터 시각, 서기년도(뒷자리 숫자 2개만), 월, 일 순으로 각인 표기되었음. 일부 소인은 선명하여 전체 판독이 가능하나, 일부 소인은 마모되어 흐릿하거나 숫자 일부가 잘 찍혀 있지 않아서 부분 판독만 가능함. 건별 편지 및 봉투의 상태는 아래의 <내용 및 특징> 항에서 따로 서술할 것임.

2) 내용 및 특징

- 조사대상 편지는 8통이었고, 그 중 6통이 소인 찍힌 우편 봉투에 넣어져 있으며(2통은 1개의 봉투에 동봉), 2통은 봉투 없이 편지만 있음. 이들 편지와 봉투 전체를 작성일 순으로 목록화하여 표로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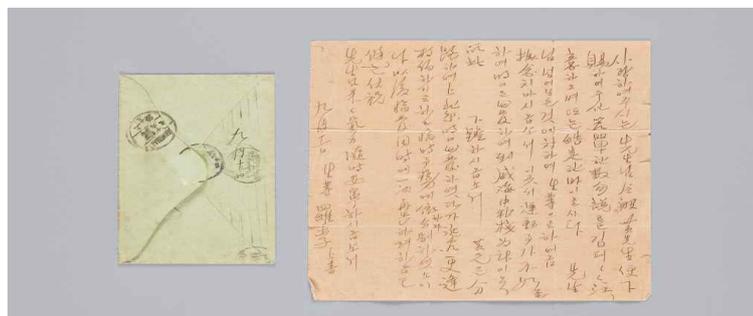
□ 조사된 유물 목록

연번	유물번호	작성일	작성(발송)자	지명 수신인	유물 내용	
1	6284- 6	(1924.) 9.11	羅李	金白凡	편지 1장과 봉투 1개	
2	6284-12	(1925.) 7.28	石柱	李承春	편지 4장과 봉투 1개	
3	6284- 7	(1925.) 7.28	羅錫疇	金白凡	편지 4장과 봉투 1개	
4	6284-25	(1925.) 8.4	石柱	李承春	편지 5장	
5	6284-11	1925. 8.12	羅錫疇 (金永一)	李承春	편지 3장과 봉투 1개	
6	6284-10	1925. 8.14	金永一	李承春	편지 1장	봉투 1개 (2통 동봉)
7	6284-10	1925. 8.25	金永一	李承春	편지 3장	
8	6284-13	1925. 8.26	金永一	(黃)海觀	편지 1장	

- 비고: ① ‘작성일’에서 () 안의 연도는 봉투의 소인으로 추정하는 것임.
 ② 연번 5와 연번 7의 봉투가 서로 바뀌어 소장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아래 ⑦항 설명 참조), 표는 현 소장상태대로 편지와 봉투를 짝지어 작성하였음.
 ○ 다음으로, 각 유물의 상세 내용과 특징을 연번 순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음.

① 6284-6 (羅李가 金白凡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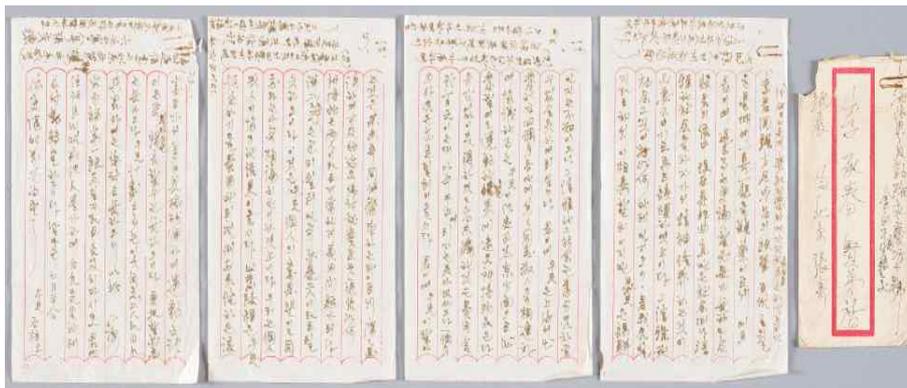
- 편지는 21.2×20.4cm 크기의 갈색 갱지 1매에 종서로 正書되었음.
- 편지 冒頭에 “사랑하여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칭하여, 安岳 楊山學校 시절의 스승이었던 백범 金九에 대한 친애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였음. 이어서 ‘황선생’ (=多勿團 단장인 海觀 黃翊秀를 말함)을 통해 받은 충고를 명심하겠으며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고 적었음. 그리고는 “運動事가 不如意”하므로 자기는 내일 ‘이곳’(=烟台)을 떠나 威海衛로, 황해관은 北京으로 갈 것이며 일이 더 진행된 후 다시 만나기로 했음을 알리는 내용임. 발송인이 이 무렵 모종의 항일운동을 황해관과 함께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백범에게 알려 교시도 받고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편지임.



- 편지 작성일을 ‘9월 11일’로 명기한 바로 뒤에 ‘生等 羅李 上書’라고 하여, ‘학생 등급’ 즉 제자 되는 羅李가 올리는 서신임을 밝혔음. ‘羅李’란 羅錫鑄가 1921년 망명지인 중국에서 서로 알게 되어 결의형제를 맺었고 그 후 같이 활동하다 1924년 8월 18일 상해에서의 도박장습격 거사 때 중국경찰에 붙잡혀간 동지 李承春을 잊지 않고 있으며 언제나 한 마음임을 강조하는 뜻에서 지은 임시가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됨.
- 봉투는 9.7×14.8cm 크기에 연녹색의 것임. 앞면에 수신자를 “上海 法界 貝勒路 永慶坊 十號 交 金白凡 先生 啓”로 표기했고, 발신자 표시는 “由台寄”[烟台에서 부침]이라고만 적었음. 봉투 뒷면에 “9월 11일”이라는 발신인의 필서와 함께, 수신지 우편국의 원형 스탬프가 2개 찍혀있음. 한자식은 “SHANGHAI / 7 16 (우측은 판독 불능) / 上海”로 각인되었고, 영자식은 “上海 / 16 SEP 24 / SHANGHAI”로 되어 있음. 두 소인을 종합해보면 이 편지는 상해시 우편국에 1924년 9월 16일 7시에 도착 접수된 것이고, 따라서 편지가 작성된 해도 의당 1924년으로 추정되는 것임.

② 6284-12 (石柱가 李承春에게 보낸 편지 1과 봉투)

- 편지는 朱色の 연한 實線으로 구획된 竹皮形의 칸들이 세로로 배열된 16.0x24.1cm 규격의 얇은 漢紙에 국한문 혼용의 速筆 펜글씨로 쓰였고, 일련 번호가 붙여진 4장으로 되어 있음.
- “李君回鑑”으로 시작하고 ”七月 二十八日 愚[愚]兄 石柱 上”으로 끝맺었음. ‘石柱’는 錫鑄의 획수를 크게 줄이면서 같은 발음의 글자로 표기한 것일 터임. 따라서 이 편지는 앞의 편지 ①의 설명에서와 같이 의형제 사이인 이승춘에게 나석주가 보낸 것임이 확실시됨.



- 편지 문장의 일부를 인용해보면, “君이여 우兄은 上海서 出發한 後 四個月 동안에 某某 同志 數人을 相逢하여 協議한 事는 우兄이 作定코 本京 方面으로 出發할여고 運動한 結果에 這間 所持物品은 다 유감없이 求得하였고 尙 미비한 것은 費用金 기백원이온대 아즉 手中에 되지는 못하였사오나 一個月 內外間은 亦是 될 터이올시다. 君이여 우兄이 발하는 것은 某條路 同伴 希望하는 바이로세. (중략) 우兄 計劃之事는 이곳 同志 二人과 白凡與君 外에는 絶對로 無하오니” 라고 하였음. 나석주 본인이 상해를 떠나온 후 북경에서 동지 2명을 규합하여 ‘本京’ 즉 본국 서울에서의 거사를 추진하여 그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비용만 조달되면 출발한 것인즉 이승춘도 동반해주기를 바라니 곧 회답해달라는 것이 요지임. 맨 뒷장의 여백에 “北京 西單牌樓 中京成道 大安公寓 十八號 張秀德”을 이후 10일간의 임시통신처로 부기해놓았음.

- 봉투는 백지 재질에 9.6x19.0cm 규격의 것임. 앞면에 “上海 法界 貝勒路 永慶坊 十號 金白凡 先生 轉交 李承春 賢弟 啓”라고 수신인을 적었으며, 그 원편에 “親展 / 由北京 張寄”라고 써놓아 북경의 장씨가 보내는 것으로 위장하였음.
- 봉투 뒷면의 우표 위에 발신지인 북경시 우편국의 소인이 찍혔는데, 연월일 숫자가 흐릿하여 판독 불능임. 여백 부분에는 도착지인 상해시 우편국의 원형 스탬프가 한자식과 영어식의 두 가지로 찍혔는데, 전자는 “SHANGHAI / ○[마모로 판독 불능]年 八月 七日 十 / 上海”로, 후자는 “上海 / 7 AUG 25 / SHANGHAI”로 되어 있음. 양자를 종합하면 1925년 8월 7일 10시에 상해시 우편국에 이 편지가 도착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 편지의 작성연도는 1925년으로 批正되는 것임. 이승춘이 1924년 8월 중국경찰에 체포되었다가 1925년 7월 13일에 석방되었다는 사실도 하나의 방증이 됨.

③ 6284-7 (羅錫疇가 金白凡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

- 편지는 앞의 편지 ②와 같이 朱色の 연한 實線으로 구획된 竹皮形의 칸들이 세로로 배열된 16.0x24.1cm 규격의 얇은 漢紙에 국한문 혼용의 速筆 펜글씨로 쓰였고, 일련번호가 붙여진 4장으로 되어 있음.



- “屠伏未審甚炎”[이 부분을 ‘源伏未審基炎’으로 읽은 것은 오독임]으로 시작되는 안부인사에 이어, 본인의 북경에서의 활동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비용조달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지원을 바라는 뜻을 은근히 표하는 내용임. “先生님 氣體候 來來安康福祝, 七月二十八日 夜半 生 羅錫疇 上”으로 끝맺어지고, 이후 10일간의 임시통신처를 “北京 西城 西單 中京成道 大安公寓 十八號 張秀德”으로 부기 되었으며, 상단 여백에 “중국지방을 떠날 동시에 또다시 上告하려 하나이다(최후로)”라고 첨언되었음.
- 봉투는 백지 재질에 8.5x17.9cm 규격의 것임. 앞면에 “上海 法界 貝勒路 永慶坊 十號 交 金白凡 先生 台啓”라고 수신인을 적었고, 그 원편에 “由北京寄 7월 28일”이라고 첨기하였음. 뒷면의 우표 3장 위에 찍힌 발송지 우편국의 소인 3개에서는 ‘PEKING’과 날짜(28)만 판독되고, 년·월 부분은 마멸되어 불명임. 도착지 우편국의 소인 1개에서는 ‘SHANGHAI’와 ‘上海’만 판독되고 연·월·일은 판독 불능임.
- 연도를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편지의 맨 뒤에 부기된 임시통신처가 앞의 편지 ②에 적힌 임시통신처와 동일하고, 편지지의 재질과 필체도 ②와 동일하다는 사실임. 따라서 이 편지의 작성연도 역시 1925년이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바임. 다만, 義弟인 이승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기를 일컬어 ‘石柱’라고 한 반면에 스승인 백범에게는 본명 그대로 ‘羅錫疇’로 밝혀 적었음이 다른 점임.

④ 6284-25 (石柱가 李承春에게 보낸 편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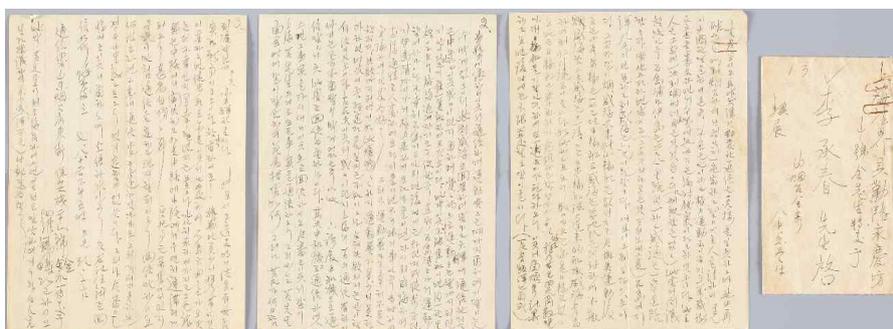
- 23×20.5cm 크기의 갱지에 국한문 혼용의 달필 펜글씨로 正書되었고, 일련번호가 붙여진 5장으로 되어 있음. “承春 賢弟 앞”으로 시작되며, 며칠 전 (1925년 7월?) 28일에 이승춘이 부친 1장의 편지를 받아보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편지에 대한 답장 삼아 쓴 것으로 짐작됨.



- 장문의 편지 내용 중에 “愚兄 이곳서 其間 노력한 것은 別것 없고 휴대물품으로는 싸창이던지 혹은 우리 其前 사용하던 것 그 式이던지 행동자 1, 2인의 隨便될 수 녀녀하고 其外 중요품은 파괴탄 相當한 것은 불과 3개이나 投彈은 역시 5, 6개라도 용이하올시다(투탄이란 것은 작년 夏 故張德震君이 매수하였든 것과 同樣 大小며 작용법이 같소이다) 그리고 목적하기는 우형의 一心은 本京內 倭督府를 중심하고 其外는 見機形便하여 京城內 某某지방에 산재한 왜놈 정치적 殖銀, 鮮銀店 4개처를 목적하고 發程之計이오니...”라고 하여, 서울 투탄거사 대상기관 4곳을 正해놓았음과 사용할 무기가 무엇인지를 밝혀 적었음.
- 4장의 말미에 “8월 4일 上午時 愚兄 石柱 語上”이라 쓴 데서 마무리가 다 된 듯했는데 이어서 1장을 더 썼음. 5장 끝부분에는 큰 글씨로 “白凡 甫淵 笑公 諸位先生의게 問安如何”라고 적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보임.
- 이 편지의 작성연도가 편지 자체에 명기되지 않았고 단서가 될 소인도 없지만, 내용을 보면 앞의 편지 ②·③에 바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음에서 1925년 으로 추정하는 것임.

⑤ 6284-11 (羅錫疇/金永一이 李承春에게 보낸 편지 1과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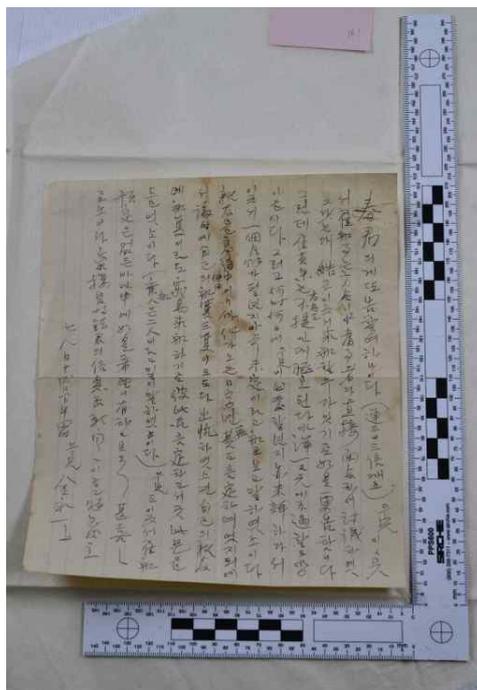
- 편지는 17.4×20.8cm 크기의 누런 갱지에 국한문 혼용의 달필 펜글씨로 縱書되었고, 일련번호가 붙여진 3매임.



- “李君 보시오”로 시작되며, 그에게 大連서 우송한 편지를 받았을 줄 안다고 한 것은 앞의 편지 ④(1925.8.4. 작성)를 가리키는 말일 것임. 편지 ④에서 예정된 투탄거사의 표적과 그 방법을 상세히 적었다면, 이 편지에서는 본국으로 들어갈 배편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여실히 그려져 있음. 극비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알리는 편지를 연이어 이승춘에게 보낸 것은 그가 거사행동에 가담해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뜻을 담아서였을 것임.
- 편지 말미에 “七. 八. 十二日 下午 五時 우兄 라 上言”이라 적었는데, 이는 대한 민국 7년(즉 1925년) 8월 12일에 의형 라석주가 쓴다는 뜻임. 그러면서 통신처를 “山東 烟台 廣東街 保安棧 21호 金永一 轉交 于 羅錫疇”로 적었는데, 이로부터 나석주가 烟台로 옮겨가 있으며 이후로는 金永一이라는 가명을 쓰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봉투는 백지 재질의 10.0×15.5cm 규격임. 앞면에 “上海 法界 貝勒路 永慶坊 十號 金先生 轉交 于 李承春 先生 啓”라고 수신인을 기재하고, 그 왼쪽에 “由烟台 金寄 / 親展 / 八月 十二. 五 付”라고 첨기하였음(‘金寄’는 金永一이 보낸다는 뜻). 봉투 뒷면에는 우표와 “上海 / 28 AUG 25 / SHANGHAI”로 각인된 롤러식 영자소인 2개와 판독이 어려운 원형의 한자소인 1개가 찍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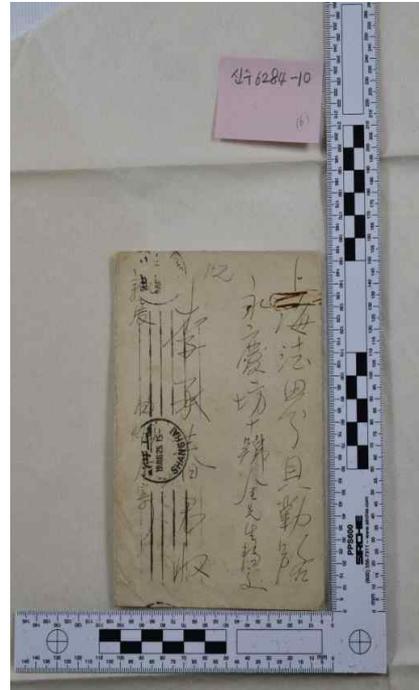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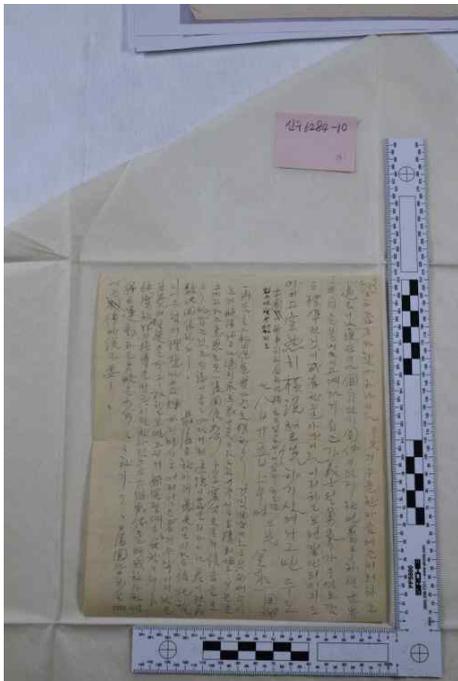
⑥ 6284-10 (金永一이 李承春에게 보낸 편지 2와 봉투)

- 1장짜리 편지로, 연청색의 세로 패선이 그어진 17.4×20.8cm 규격의 편지지에 국한문 혼용의 단정한 펜글씨로 씌었음.
- “春君의게 또 말씀여 하나이다(連三日 三信째요)”라고 시작되고 있어서, 나석주가 연일 계속하여 이승춘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그를 설득하여 국내 폭탄거사계획에 가담토록 하고 서울로 동행하려는 김영일 즉 나석주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라 하겠음. 말미에 “七[1925년]. 八月十四日 下午四時 우兄 金永一 上”이라고 적혀있어서 작성일과 작성자가 분명히 확인됨.
- 이 편지는 아래의 편지 ⑦과 함께 한 봉투에 넣어져 있음.



⑦ 6284-10 (金永一이 李承春에게 보낸 편지 3과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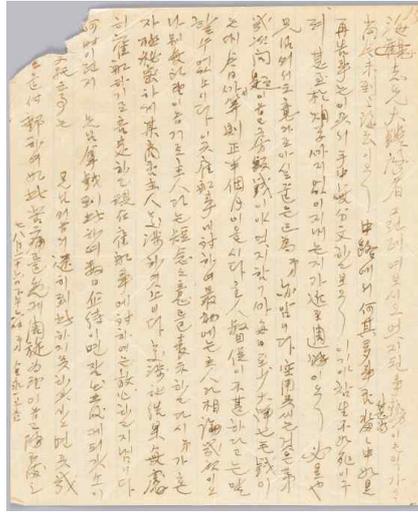
- 일련번호가 붙여진 3장짜리 편지인데, 연청색의 세로 껍선이 그어진 17.4×21.0cm 규격의 편지지에 국한문 혼용의 단정한 펜글씨로 씌었음.
- 편지 ⑥의 서두와 비슷하게 “承春의게 또 回告합니다”로 시작되고, 며칠 전 21일에 받은 이승춘의 편지에 대한 회신으로 쓴다고 했음. 주된 내용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에 관하여 이승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설득하는 것임. 맨 뒷장에 “7[=대한민국 7년, 즉 1925년]. 8월 25일 上午時 우兄 김영일 回語”라고 작성일과 작성자를 명기하였음.
- 봉투는 백지 재질의 10.0×15.5cm 크기이고, 앞면에 “上海 法界 貝勒路 永慶坊 十號 金先生 轉交 于 李承春君 收”라고 큼직한 글씨로 최종 수신자를 기재했고, 그 왼쪽에 “親展 / 由烟 金寄”라고 적힌 위에 롤러식 우편 스탬프가 뚜렷이 찍혔음. “上海 / 19 AUG 25”로 소인되었는바 수신지 우편국의 소인이라 할 것임. 뒷면에는 “8월 14일 付耳”이라고 명기되었고, 우표 위에 발신국의 소인이 찍혔는데 영문 지명은 판독 불능이나 날짜는 한자로 “14년 8월 14”라고 되어 있음.



- 그렇다면 원래 이 봉투에는 1925년 8월 25일에 작성된 편지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임. 수십 년간 보관·전수되고 중간에 유출도 되던 중에 누군가가 꺼내본 편지를 다시 담으면서 편지와 봉투를 잘못 짝 지워놓았음이 분명해 보임.
- 편지 ⑤가 넣어져 있고 8.25 소인이 찍힌 6284-11의 봉투가 실은 이 편지 ⑦의 원래 봉투이고, 이 봉투는 8월 12일 작성인 편지 ⑤와 8월 14일 작성인 편지 ⑥을 동봉해 부치면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함. 그러므로 소장처에서도 이 기회에 편지와 봉투의 짝지음을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사료됨.

⑧ 6284-13 (金永一이 海觀에게 보낸 편지)

- 봉투 없이 17.4×21.1cm 크기의 백지에 縱書로 써내려간 국한문 혼용의 달필 펜글씨 편지 1매임.



- 첫머리에서 “海觀志兄”으로 상대를 호칭하고 곧바로 “그런데 여보시오 엇지된 事勢이온익가? 尙今未到는 海公이오니 中路에서 何其多事 否甚爲沓沓中 如是再告事는 이곳서 手中無分文하고 보오. 이기야 참 生不如死이구려”라고 강한 어조의 항의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난관 중에도 모든 준비를 다해가고 있음을 “이곳 雇船事에 대하여... 弟가 혼자 極祕密하게 某 商店主人 交渉하였소이다. 交渉한 結果 無慮히 雇船하기로 言定하고 현재 雇船事에 대하여는 放心하고 지냅니다.”고 알리고, “何時이던지 兄님 拿錢到此하여 數日企待이면 잘 出發케 되갓소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음.
- 말미에 “七[=대한민국 7년, 즉 1925년] 八月 二十六日 下午六時 弟 金永一 上言”이라고 작성시점과 작성자를 밝혀 적었음. 편지 뒷면에 “同封하오니 勿冊如何 黃先生海觀 보시옵소서 親展”이라고 적어놓았음에서, 이 편지는 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소재 불명인 다른 어느 편지에 동봉(하려)했던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 ① 이상의 8건 편지의 작성자가 ‘나석주’, ‘석주’, ‘김영일’로 달리 되어 있어도 실은 모두 동일인이었음이 편지 자체에서도 확인되지만, 그들의 필적이 모두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나와 있음. (강태이 외 2인, <필적감정 의견서> , 2020.2.19 참조)
- ② 나석주(1892~1926)의 공훈록 (국가보훈처)
 황해도 재령(載寧) 사람이다. 그는 재령 명신학교(明新學校) 2학년을 수료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23세때 만주로 건너가서 4년간 군사훈련을 받고 27세 때에 귀국하여 황해도 겸이포(兼二浦)에서 표면상 점포를 경영하면서 이면으로는 독립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동지를 규합하여 상해의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결사대를 조직하여 한대홍(韓大弘)과 같이 평산군(平山郡) 상월면(上月面) 주재소 일경과 상월면장을 사살하였고 다시 안악군(安岳郡) 친일파(親日派) 부호를 사살한 후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1920년 9월 22일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는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활약하다가 하남성(河南省) 한단군관학교(邯鄲軍官學校)를 졸업하고 중국군 장교로 있으면서 보안육군강무당(保安陸軍講武堂)에 적을 두었으나 이때 봉직전(奉直戰)관계로

퇴학하였다.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한 그는 1926년 4월 천진(天津)으로 가서 김창숙(金昌淑)과 상면하여 김창숙으로부터 조국의 강토와 경제를 착취하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와 조선은행(朝鮮銀行)·식산은행(殖産銀行) 등을 폭파하여 학정에 시달리는 동포를 구해 달라는 권고를 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동년 12월 26일 그는 중국인 노동자로 가장하고 폭탄과 권총을 휴대하여 지부이 통환공사(芝蔴利通丸公司)의 역부로 가칭하고 천진(天津)에서 상선 용극호(戎克號)에 편승하여 위해위(威海衛)를 거쳐 이튿날 27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는 28일 오후 중국청년으로 변장하고 동척(東拓)으로 가서 회사의 상황을 정찰한 다음 그 길로 남대문동에 있는 식산은행(殖産銀行) 일반 통용문으로 들어가 대부계 철책 앞에서 폭탄 한 개를 던졌다. 다시 오후 2시 동척(東拓)으로 가서 수위실 책상에서 무언가 쓰고 있던 조선부업협회(朝鮮副業協會) 잡지기자 고목길강(高木吉江)을 사살하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총소리를 듣고 놀라 따라 올라오던 사원 무지광(武智光)을 쏘아 쓰러 뜨리고 토지개량부(土地改良部) 기술과장실로 들어가서 차석 대삼태사랑(大森太四郎)과 과장 능유평(綾由豊) 등을 저격한 후 폭탄 한 개를 던졌으나 불발되었다. 그는 다시 층계를 내려와 문밖으로 나가 조선철도회사(朝鮮鐵道會社)로 들어갔다. 정문에 들어서자 회사 수위 송본필일(松本筆一)과 마침 이곳에 왔던 천진당(天真堂) 점원 김정열(金井悅)을 쏜 후 황금정(黃金町) 길거리로 발길을 옮길 때 경기도 경찰부(京畿道警察部) 경부 전전유차(田畑唯次)를 만나 그를 사살하였다. 황급히 출동한 경찰대와 기마대의 추격을 받은 그는 최후를 각오하고 권총 세발을 자신의 가슴에 쏘고 쓰러졌다. 일경은 그를 총독부 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약간 정신이 되살아 나는 듯 하였다. 이때 일경이 그의 이름을 묻자 "나석주"라 대답하고, "김창숙과 밀의 하였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일경은 폭탄 두 개, 스페인제 10 연발 권총 1정, 탄환 66발을 그 자리에서 압수하였다. 1927년 5월에 동지 이화익(李化翼=이승춘)이 북경에서 붙잡혀 신의주(新義州)로 압송되자 비로소 그의 의거가 자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동월 31일에 그의 장남 응섭(應燮)이 상경하여 사진으로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유해를 인도받아 안장하였다. 응섭(應燮)이 백운학(白雲鶴)으로 변성명한 후 감시망을 뚫고 상해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상해의 동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그의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③ 이승춘(1900~1978)의 공훈록 (국가보훈처)

황해도 장연(長淵) 사람이다.

1920년 12월경 최창한(崔昌翰)·이기춘(李起春)·김경선(金敬善) 등과 함께 장연에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단(獨立團)을 조직한 그는 1921년 1월 11일 김경선·최창한 등과 함께 장연군 목일면(牧日面)의 곽수(郭琇)에게서 독립단의 결성취지를 설명하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120원을 얻었으며, 3월 1일에는 나당리(羅唐里) 손승훈(孫承薰)에게 군자금을 요청하였으나 손(孫)이 이에 불응하자 방화(放火)로써 응징하였다. 또한 3월 20일 밤에는 동지 이기춘(李起春)과 같이 경현리(鏡峴里) 이응엽(李應燁)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불응하자, 이기춘은 이(李)의 집에도 방화하였다. 이어서 4월 초순 그는 다시 학현리(鶴峴里) 김병순(金炳淳)에게 군자금을 모금하려 했으나, 김병순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제 경찰에 밀고하자 그와 동지들의 군자금 모금운동이 모두 드러나고, 일경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더이상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중국 연대(煙臺)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나석주(羅錫疇)와 함께 북경(北京)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24년 3월경에는 나석주와 함께 상해(上海)로 가서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으며, 1926년 12월 경에는 다시 천진(天津)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6년 12월 28일 그는 일제의 집요한 추적으로 북경(北京)에서 붙잡혀 신의주(新義州)로 압송되었다. 1928년 6월 27일 그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서울 마포형무소에서 14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들 편지와 봉투는 백범 김구의 애제자로 일찍이 1910년대부터 국내와 중국에서 전투적 독립운동을 벌여온 나석주가 1924년부터 국내 잠입 투탄의거를 추진하여 1925년에는 중국의 북경·대련·연태·위해위에서 그 준비에 진력하던 상황과 그 실행이 바로 성사되지 못했던 내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원본 귀중문서임. 익히 알려진바 1926년 12월 나석주가 서울에서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 투탄의거를 단신으로 감행하고 즉시 자결한 의거는 그 2년 전부터의 계속된 추진과 준비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증거자료이기도 함.
- 따라서 독립운동 특히 항일 의열투쟁의 위대한 족적과 고단했던 이면을 후대인들도 추찰하여 잘 알 수 있게끔 해줄 이들 문서를 일괄하여 국가문화재로 등록하고 영구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음.

<○○○>

1) 현상

- 국한문 혼용의 반흘림체로 작성된 서한으로서 보존상태는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나석주 의사는 1926년 12월 28일 서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일인 경찰 등을 사살한 후 자결 순국한 독립운동가임. 1891년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1920~1921년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함.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한국노병회, 병인의용대 등 임시정부 외곽단체 뿐 아니라 의열단에도 가입하여 의열투쟁의 방안을 모색함. 이후 1925년 국내에 잠입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 등을 폭파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함. 1926년 김창숙이 국내에서 모집한 군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국내로 잠입하여 12월 28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며 일인들을 사살한 후 자결 순국함. 1926년 6.10만세운동의 열기를 이어 일제 식민통치 기관에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대한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의열투쟁의 하나임.
- 나석주 의사의 서간문은 총 7종이며, 그 중 3종은 나석주, 3종은 金永一 명의로 작성되었고, 1종은 나석주와 이모(서간문에 “生等 羅李”로 표시됨)의 공동명의임. 7종 서간문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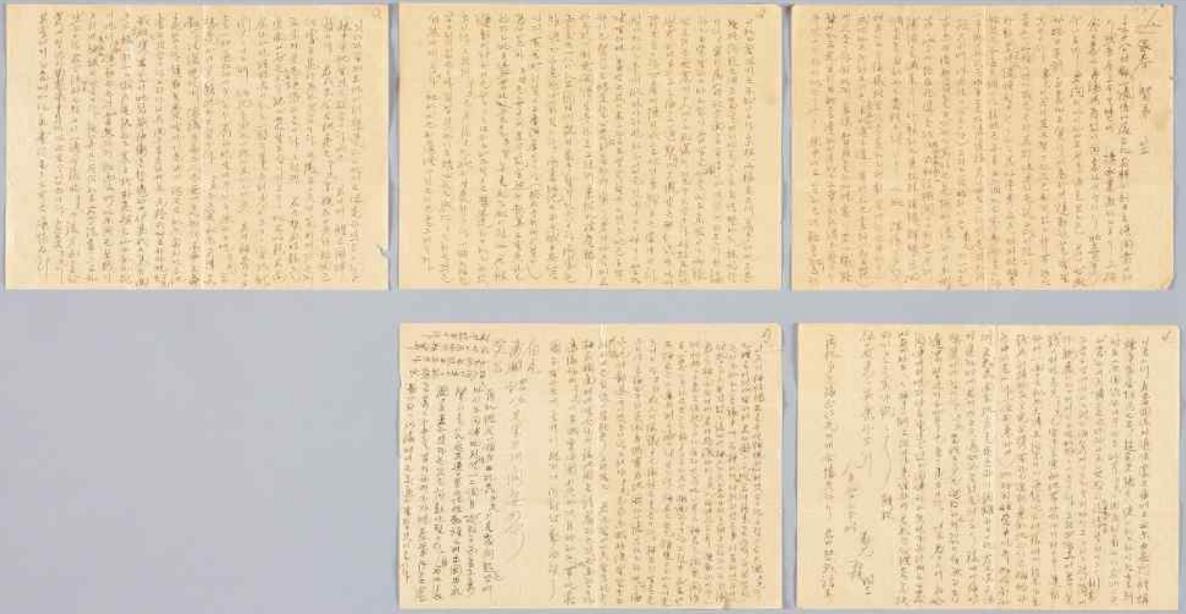
	구분번호	유물명	작성일자	작성자	수신자	사이즈
1	6284-7	나석주서간문 羅錫疇書簡文	1925.7.28	나석주	김구	봉투:8.5x17.9 /편지지:16x24.1
2	6284-12	나석주서간문 羅錫疇書簡文	1925.7.28	나석주	이승춘	봉투:9.6x19 /편지지16x24.2
3	6284-25	나석주서간문 羅錫疇書簡文	1925.8.4	나석주	이승춘	27.3x20.5
4	6284-6	나이서간문 羅李書簡文	1925.9.11	나석주	김구	봉투:9.7x14.8 /편지지:21.2x20.4
5	6284-11	김영일서간문 金永一書簡文	1925.8.12	김영일	이승춘	봉투:10x15.5 /편지지:17.4x20.8
6	6284-10	김영일서간문 金永一書簡文	1925.8.14. 1925.8.25	김영일	이승춘	봉투:10x15.5 /편지지:17.4x21
7	6284-13	김영일서간문 金永一書簡文	1925.8.26	김영일	황해관	17.4x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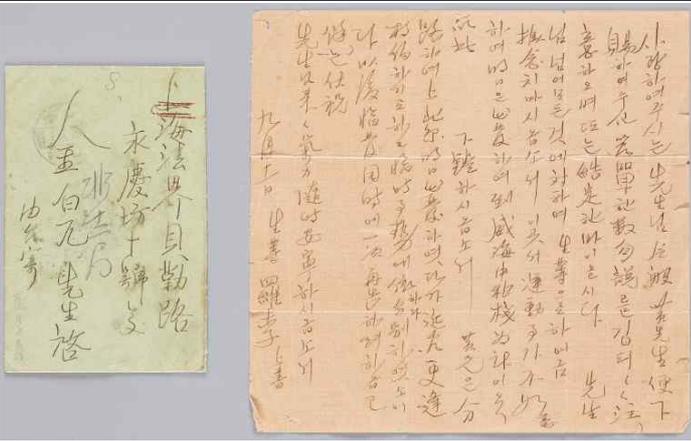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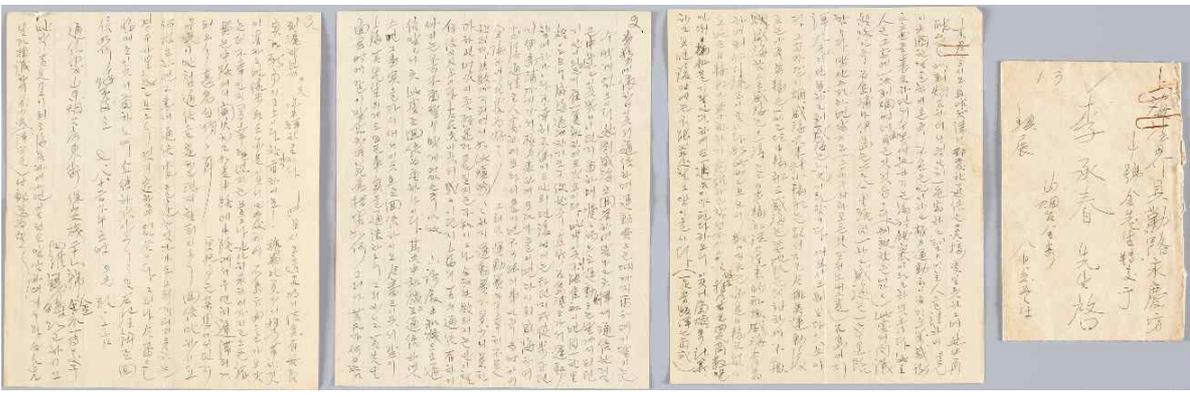
- 이 중 김영일 명의로 작성된 서한도 나석주가 작성한 것임. 1925년 8월 12일 김영일 명의의 서한(번호 6284-11)의 내용 중 “金永一 傳交于 羅錫疇라고 하시오”라는 표현이 있을 뿐 아니라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거사계획과 동일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7종의 서한은 모두 나석주가 작성한 것임.
- 서한의 작성시기는 첫째 서한 내용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둘째 우편국 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나석주는 서한에 작성 날짜 뿐 아니라 시간까지 기재함. 서한 중 1925년 8월 12일자 서한(명단 6284-11번)의 3쪽에 “七, 八, 十二日 下午五時”라고 작성 시기를 기재했으며, 이 서한의 소인에는 “上海 28 AUG 25”라고 찍혀있음. 서한 내용의 “七, 八, 十二日”은 임시정부 7년 즉 1925년 8월 12일을 의미하며 소인의 “上海 28 AUG 25”은 1925년 8월 28일로 해석됨. 당시 상해는 여러 나라의 조계였으므로 서기를 사용했을 것이며, 중국혁명 이후의 중화민국 연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1925년 8월 14일자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서한(6284-10번)에도 말미에 “七 八月 十四日 下午 四時”라고 기재했으며 이 서한의 봉투 우체국 소인에 “上海 19 AUG 25 15-”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됨. 즉 이 서한은 임시정부 7년 즉 1925년 8월 14일 오후 4시에 작성하였으며, 상해 우편국에서 1925년 8월 19일 소인을 찍은 것임. “上海 19 AUG 25 15-”의 뒷부분 숫자 ‘15’는 중화민국 연호 15년(즉 1926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뒷부분 ‘15’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음.) 서양의 경우 날짜기재를 일반적으로 ‘일-월-연도’순으로 기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19일 8월 (19)25년’으로 이어서 기재했을 것이며, ‘25’를 건너뛰어 ‘15’를 연도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소인의 ‘25’를 ‘1925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한 내용 중 서한 작성일자로 나석주가 기재한 “七 八月 十四日 下午 四時”의 “七”이 임시정부 7년 즉 1925년이라는 사실과도 부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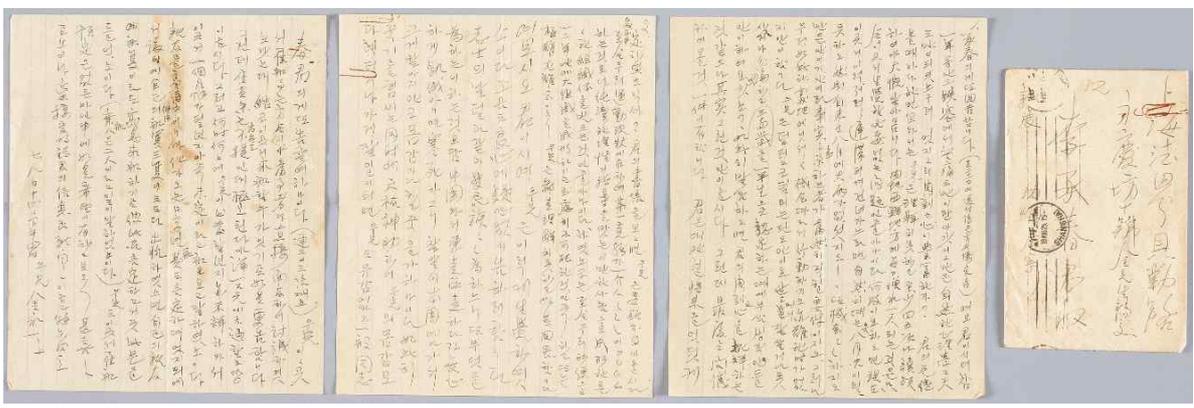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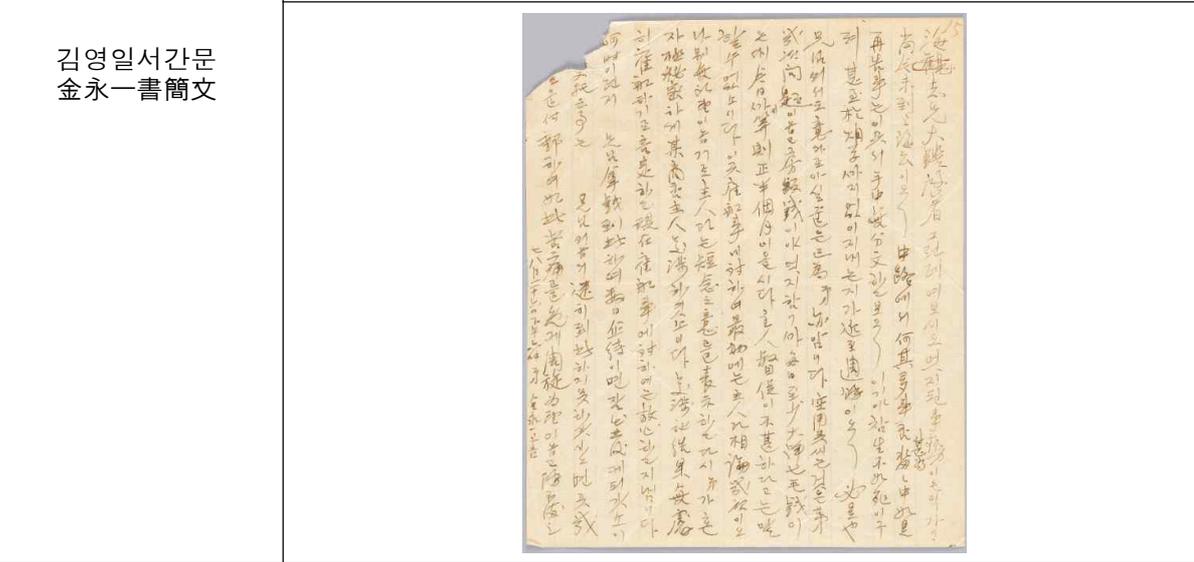
- 그 외에 서한 내용에서도 작성시기를 알려주는 부분이 확인됨. 1925년 8월 4일 (명단 6284-25) 서한은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것으로서 작성일자가 “八月四日 上午時 愚兄 石柱”라고만 기재되었고 봉투가 없어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내용을 통해 연도를 확정할 수 있음. 서한의 수신자인 이승춘은 1924년 張德震 등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상해 도박장을 습격하였다가 장덕진은 총격을 받아 1924년 8월 16일 순국하였으며, 이승춘은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다가 1925년 7월 하순 출옥함(「李金兩氏釋放」 『동아일보』 1925. 7. 25. 기사) 그런데 서한의 1쪽 내용 중 “투탄이란 것은 昨年 夏 故 張德鎮君이 買收하였든 것과 同樣 大小며”라는 표현이 있음. 1924년 장덕진이 도박장 습격 중 총격을 받아 순국했으므로 서한의 표현 중 “昨年 夏”라는 기록을 보면 이 서한이 1925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또한 “君이 出獄하면서부터”라는 부분은 이승춘이 이 활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1925년 7월 하순 이후가 됨. 이를 통해 이 서한이 1925년 8월 4일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1925년 9월 11일 나석주 외 1인이 백범 김구에게 보낸 서한에는 “九月十一日 生等 羅李 上書”라고 하여 연도가 기재되지 않음. 이 서한에는 흐릿하여 판독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19 SEP 25”라는 소인과 “15 SEP 24”라는 2개의 소인이 확인됨. 그런데 “15 SEP 24”라는 소인은 ‘SEP’에서 ‘24’ 숫자 사이에 거리가 있어 중간에 다른 숫자가 있는 것 같은 반면 “19 SEP 25”는 바로 붙어 있어 “일-월-년도” 표기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나석주와 함께 발신인으로 기재된 李某는 이승춘으로 추정되는데 이승춘은 1924년 8월 장덕진과 함께 중국도박장을 습격했다가 체포되어 1년여간 옥고를 치르고 1925년 7월에 출옥함. 따라서 이승춘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면 1924년 9월 11일이 될 수 없음. 또한 서한 내용 중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黃先生”(黃海觀으로 추정됨)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서한은 1925년 9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그 외에 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서한 중 하나(명단 6284-10)는 부치지 못한 편지 내용이 포함된 것일 수 있음. 이 서한은 편지 겹봉과 총 4장의 편지로 구성되어었는데, 그중 1, 2, 3으로 번호가 부여된 3장은 작성시점이 “七 八月二十五日 上午時 愚兄 金永一”이라 기재되었음. 그러나 마지막 1장은 번호 부여 없이 “七 八月十四日 下午 四時”라고 기재되었음. 따라서 이 4장의 편지는 8월 14일 작성된 1장과 8월 25일 작성된 3장을 합친 것임. 그런데 편지 봉투는 8월 14일 봉합한 것으로 표시되었고 우편국 소인도 “19 AUG 25”라고 찍혀 1925년 8월 19일 상해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상해에 부친 편지는 8월 14일 작성한 마지막 1장일 것임. 그 외에 8월 25일 작성한 3장은 우송하지 못한 편지일 가능성이 있음. 두 종류의 편지를 8월 14일에 우송한 편지봉투에 보관했을 수 있음. 그렇지 않다면 번호를 부여하며 작성한 3장의 편지에 기재된 날짜인 “七 八月二十五日 上午時 愚兄 金永一”의 ‘二十五日’이 ‘十五日’의 오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석주가 편지를 아껴서 작성했고, 이승춘에게 장문의 편지를 작성한 전례를 본다면 8월 14일에 짧은 내용으로 1장만 작성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8월 14일에 1장을 작성하여 보내려다 다시 8월 15일에 작성한 3장을 합쳐서 우송한 것일 수도 있음.

○ 다음 각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유물명	작성일자	작성자	수량	재질	사이즈
1	나석주서간문 羅錫疇書簡文	1925.7.28	나석주 → 김구	1	종이	봉투:8.5x17.9 /편지지:16x24.1
<p>나석주가 金白凡(김구)에게 보낸 서신. 白紙 봉투와 붉은 줄이 쳐진 漢紙편지지에 검은 잉크로 쓰인 흘림체의 국한문혼용 서신. 나석주의사가 국내에 잠입하여 일제 수탈기관 폭파를 추진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김구에게 전한 서한. 소지품(폭탄)이 준비되었으나 여비 등 비용 수백원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장래 준비를 낙관하고 있음. 극비리에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대외 비밀 유지를 부탁하고 있음.</p>						
						
2	나석주서간문 羅錫疇書簡文	1925.7.28	나석주 → 이승춘	1	종이	봉투:9.6x19 /편지지16x24.2
<p>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서신. 붉은 줄이 쳐진 얇은 白紙에 검은 잉크로 쓰인 반흘림체의 국한문혼용 서신. 나석주의사가 동지인 이승춘에게 국내 투탄의 거의 준비상황을 전하며 거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 폭탄은 준비되었으니 비용만 마련되면 예전 다니던 경로로 귀국하여 거사할 수 있다며 대외 비밀을 당부함</p>						
						

	유물명	작성일자	작성자	수량	재질	사이즈
	나석주서간문 羅錫疇書簡文	1925.8.4.	나석주 → 이승춘	1	종이	27.3x20.5
	<p>나석주가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 白紙에 검은 잉크로 쓰인 국한 문혼용의 반흘림체</p> <p>거사 장소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으로 정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함. 우리 민족의 착취기관인 조선총독부와 동척, 식산은행, 조선은행을 폭파대상으로 삼음. 그 중 동척과 식산은행은 거리가 가까워서 한 사람이 동시에 거사할 수 있다는 것과 투탄의 효과가 높은 점 등을 설명하며 이승춘의 동참을 권유하고 있음.</p> <p>1926년 12월 28일 동척과 식산은행 투탄의거가 거행되기 1년 전인 1925년 여름부터 투탄대상 기관을 특정하여 거사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p>					
3						

	유물명	작성일자	작성자	수량	재질	사이즈
4	나이서관문 羅李書簡文	1925.9.11	나석주·이승춘 → 김구	1	종이	봉투:9.7×14.8 /편지지:21.2×20.4
		<p>羅·李가 김구에게 보낸 편지. 열은 감청색 봉투 및 담홍색 편지지에 검은 잉크로 흘림체의 국한문혼용.</p> <p>나석주와 李某가 공동으로 김구에게 보낸 서신으로 이모는 거사를 함께 도모한 李承春으로 추정됨.</p> <p>나석주와 이승춘이 계획이 여의치 않아 자신들은 威海衛, “황형”(黃海觀으로 추정됨)은 北京으로 각각 출발할 예정이며 차후 다시 만나기로 약정하였음을 김구에게 전함</p> <p>나석주가 김구와 국내 투탄거사를 계속 협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p>				
						
5	김영일서관문 金永一書簡文	1925.8.12	김영일 → 이승춘	1	종이	봉투:10x15.5 /편지지:17.4x20.8
		<p>나석주가 김영일이란 이름으로 이승춘에게 보낸편지. 白紙에 검은 잉크로 縱書된 국한문혼용의 반흘림체임.</p> <p>나석주의사가 국내 거사계획을 세우고 중국 烟台에서 국내 잠입을 위해 선박을 교섭한 과정과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 걸어서라도 280여 리 떨어진 石島로 가서 배편을 구해보고 싶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있음. “황선생”(황해관)의 자금지원을 기다리며 숙박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음.</p>				
						

	유물명	작성일자	작성자	수량	재질	사이즈
6	김영일서간문 金永一書簡文	1925.8.14 1925.8.25	김영일 → 이승춘	1	종이	봉투:10x15.5 /편지지:17.4x21
<p>나석주가 김영일이란 이름으로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 白紙에 검은 잉크로 반흘림체의 국한문혼용임. 내용에서 3枚는 1925년 8월 25일, 1매는 같은해 8월 14일 작성한 것임.</p> <p>조직문제에 의견을 달리한 이승춘에게 의열투쟁에 임하는 자신의 결의를 밝힌 내용. 무릇 독립운동가는 “의사될 용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귀국하여 거사를 결행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표현하고 있음.</p>						
						
7	김영일서간문 金永一書簡文	1925.8.26	김영일 → 해관	1	종이	17.4x21.1
<p>나석주가 김영일이란 이름으로 黃海觀에게 보낸 편지. 黃海觀의 본명은 黃翊秀임. 편지지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혼용의 반흘림체 縱書임. 상점 주인과 거사를 위한 귀국선박 협의를 마쳤으며 자금도착을 기다리고 있음을 황해관에게 전하는 내용. 심지어 숙박비와 식비가 밀려 여관 주인의 심한 독촉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며 조속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줌.</p>						
						

3) 문헌자료

- 대한애국정신보급협회, 『건국투사 義士 羅錫疇傳』 1947.
- 김상옥·나석주열사기념사업회, 『김상옥 나석주 항일실록』 삼경당, 1986.
- 김희곤, 「제2차 유립단의거연구-심산 김창숙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영범, 『의열투쟁 I -1920년대-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6권,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김영범, 『혁명과 의열-한국 독립운동의 내면』 경인문화사, 2010.
- 김성민, 『투탄과 자결, 의열투쟁의 화신 나석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 김성민, 「나석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51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9.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의 “1항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근거
 - 나석주 의사의 서신은 의사가 1925년 국내에 잠입하여 일제 착취기관을 폭파하려던 계획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특히 나석주의사가 1926년 12월 28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기 1년 전인 1925년 여름부터 이 거사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음.
 - 일제강점기 의열투쟁에서 독립운동가가 직접 남긴 기록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주로 일제측 보고서류의 자료에만 의존함에 따라 거사계획과 실행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음.
 - 나석주 의사의 서한은 거사의 추진주체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자세히 전해주고 있음. 또한 거사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와 운동자금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솔하게 알려주고 있음. 따라서 나석주 의사의 서한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소중한 역사 경험을 후대에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나석주 의사의 서한 7종은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추진과정 뿐 아니라 독립운동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착취기관을 폭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 우리 민족운동사, 의열투쟁사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주는 자료임
- 따라서 국한문으로 흘려 쓰인 전문을 쉬운 우리 말로 번역하여 전시한다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후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8.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은 6·25전쟁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유물 추천('20.1월), 등록 추진 자문회의('20.2.17.)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4.9.)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공군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1건 1점	표지 35.9 × 29cm 내지 34.5 × 26.3cm	1953년	공군참모총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335-1 공군박물관
제10전투비행단 군사일지	1건 2점	17.5 × 26cm	1960년 추정		
비행기록 수첩 및 출격 표시 작전지도	2건 2점 (각1점)	○ 수첩 - 10.3 × 15.2cm ○ 지도 - 50.4 × 73cm	○ 수첩 -1952~53년 ○ 지도 -1953년 이후		
조종사 출격일지	1건 2점	25.5 × 17.5cm	1952 ~1953년		
조종사비상생환용 작전지도	1건 1점	84.1 × 98.5cm	1951년		
김영환 장군 명패	1건 1점	6.5×24×4.7×4.5cm (세로×가로×높이×밀면)	1951년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문화재 등록 및 명칭 부여 검토의견 】

-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 '김영환 장군 명패' 2건은 희소성 등 부족하여 등록 가치 낮음
- 공군 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 ○○○·○○○ : 등록 가치 있음
 - (종합보고서 내 문서) 당시 상황에서 종합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해 보고서 내 문서사본을 등사인쇄 하였으나, 그때 만들었을 문서 사본들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본 유물에 있는 것만으로 판단됨.
 - (종합보고서) 현재 소장처 외 타 부대(공군본부 진주지소 제10전투비행단)에도 있으나, 타 부대 소장본은 본 유물을 복제해간 것이므로 현재 남아있는 종합보고서 자체는 본 유물이 원본임
 - ○○○○ : 등록 가치 부족
 - 문서와 사진이 원본인지 분명하지 않음
- 명칭 :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 모두 10전투비행단 관련 유물이고, 공군 전체기록물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므로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으로 명칭 부여

(3) 추진경과

- ('20.1.~2월.) : 6·25전쟁 분야 문화재 지자체·관계기관 추천
- ('20.2.17.) : 6·25전쟁 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자문회의
- ('20.4.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20.4.9.)
 - 해당 유물들은 6·25전쟁과 당시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강릉)기지와 관련된 유물들임. ① '종합보고서'는 전쟁 당시 작전·교육·기상 등 작전요소를 총망라하여 도면과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국군과 북한군의 상황까지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며, ② '비행기록 수첩'과 ③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는 작전을 수행한 지역을 기록과 점으로 표시한 유물로 비행기록을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임. ④ '군사일지'는 비행단의 활동내용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임. ⑤ '조종사 출격일지'는 참전 조종사의 매 출격마다 일시, 목표지점, 임무, 작전 지도 등을 기록한 것으로, 전투조종사의 활약을 보여주는 유물임. 해당 유물들은 6·25전쟁과 관련된 공군의 기록으로서 역사적·사료적 가치 등을 지니므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 다만 ⑥ '김영환 장군의 명패'의 경우 개인의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를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⑦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는 다량으로 제작하여 분배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다량 존재하고, 추가 기록 등이 없어 등록가치가 낮다고 판단됨

○ ○○○('20.4.9.)

- 6·25전쟁 전투비행단 기록물은 6·25전쟁기간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강릉)의 경과와 실상을 알려주는 매우 희귀한 공군 기록물임.
- ① 종합보고서는 제10전투비행단의 작전, 정보, 교육 등의 내용을 도면과 문서로 정리하였으며, ② 군사일지는 부대의 주요 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하였음.
- ③ 비행 기록수첩과 ④ 출격 작전지도는 작전지역 등이 표기가 되어 있어 공군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며, ⑤ 조종사 출격일지는 공사 1기 이배선이 자신의 임무에 관한 상세한 활동 내용 등을 일자별로 기록하였음, 이상 유물들은 희소성이 있으며,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문화재로 등록이 필요함.
- 다만 ⑥ 김영환 장군 명패와 ⑦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는 현재 동종의 유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희귀성과 역사적 가치 면에서 다소 떨어지므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4.9.)

- 6·25전쟁 공군 군사작전 기록은 전쟁 당시 강릉기지와 관련된 기록물임. 이들 중 ① 비행기록 수첩과 ②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는 당시 출격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으며 ③ 조종사의 출격일지는 전투조종사의 작전상황, 작전준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음. ④ 10비 군사일지는 각 부대의 주요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희귀하며 가치가 높음.
- 다만 ⑤ 종합보고서는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문서와 사진 등이 원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⑥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는 대량제작되었으며 판넬 작업으로 훼손이 있어 가치가 크지 않음. 또한 ⑦ 김영환 장군의 명패는 개인의 명패로서 보존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를 제외한 공군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등 5건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335-1 공군박물관
3. 소유자 : 공군참모총장
4. 조사자 의견('20.4.9.)

<○○○ >

1)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1건 1점)

가) 개요

- (1) 이 문건은 1953년 3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0전투비행단의 작전·정보·교육·통신·기상 등 작전요소를 총망라하여 도면과 문서로 정리한 종합보고서임. 6·25전쟁시 유일한 전투비행단이었던 제10전투비행단의 종합적 면모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
- (2) 이 문건을 작성한 목적은 1953년 2월 15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최초의 전투비행단으로 창설된 제10전투비행단(제1대 단장 김영환 대령)의 지난 10여 개월간 업적을 회고하면서 먼저 전사한 영령들에 대해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작전경과에 대해 냉정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작전을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대 비행단장으로 취임한 장지량 대령 지시로 작전처장 이강화 중령 통제 하에 작성한 것임.
- (3) 이렇게 작성된 문건을 1979년 3월 21일 제2대 제10전투비행단장이었던 장지량이 기증한 것으로, 1979년 3월 21일부터 공군박물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해오며 따라 큰 손상은 없으나, 보존처리 및 디지털화가 필요함. 검은색의 두꺼운 종이에 문서와 도면을 붙여 끈으로 편철하였으며, 표지는 가죽으로 제작하였음. 문서는 일종의 용린장(龍鱗裝)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 한 면에 종이를 여러 장 덧붙인 경우가 많은데, 자료 열람 시 손상의 우려가 있음.
- (4) 문건의 구성은 내용을 펼치면 좌측에 서술부분이 있고, 우측에 도면부분으로 구성하였음. 서술부분은 사본을 만들기 위해 등사기(mimeograph machine)로 인쇄하였으며 도면부분은 실제 도면을 그린 다음 이를 흑백사진기로 찍어 인화한 것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사본을 생산함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주요 구성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속표지2. 초대·2대 비행단장 사진3. 서언(2대 비행단장 장지량)4. 제10전투비행단 작전종합보고 : 보고에 대한 설명(작전처장 이강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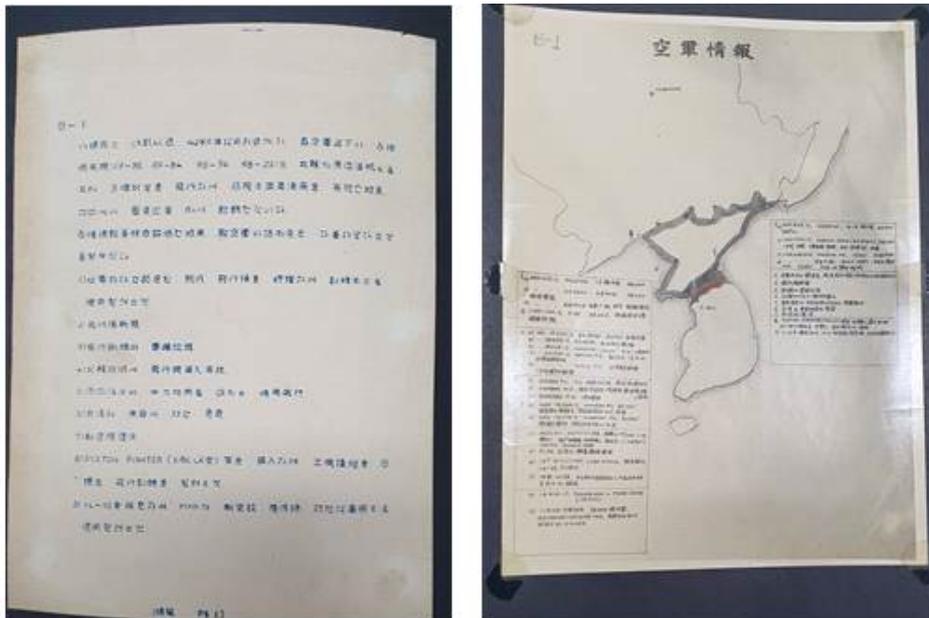
5. 기상 : G-1~G-9
6. 작전 : 무기급병력, A-1~A-20
7. 운비 : 연락비행반, F-1, F-2
8. 교육 : C-1~ C-8, 기구증설, 편제표
9. TAC : D-1~D-9
10. 통신 : 통신요원현황, E-1~E-6
11. 정보 : B-1~B-15, 해결되어야할 각종 요소, TAC 지원계획안

(2) 제원 : 표지(가죽) 35.9 × 29cm, 내지(종이) 34.5 × 26.3cm



(3) 수록 예시 : 정보 B-1

(가) 일부 원본사진



(나) 일부 해제내용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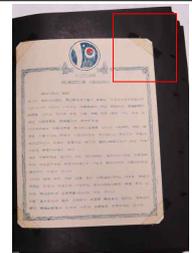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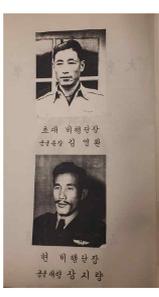
이 정보는 휴전이후 4286(1953)년 12월 31일까지 5공군 솔하(率下, 예하의)의 각종 정찰기(RF-86, RF-84, RB-54, RB-26)는 북한의 동서 해선으로부터 3리(哩) 밖을 비행하여 목시(육안관측) 및 사진정찰을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요점만을 따서 기술한 것이다.

각종 정보를 종합평가한 결과 적 공군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성(既成, 기존) 비행장을 수리하여 훈련용으로 사용하려하는 것
- 2) 비행장 신축
- 3) 비행훈련과 정비 확장
- 4) 북한지역에 비행기 도입
- 5) 동서해안과 중립지대를 연하는 정찰비행
- 6) 태만과 동서에 대한 위협
- 7) 제공권 획득
- 8) PISTON FIGHTER(YAK. LA형) 등을 도입하여 제트기 폭격기종을 목표로 비행훈련을 하려는 것
- 9) IL-10을 보완하여 MIG가 제공권 획득 시 대공격용으로 사용하려는 것.

(다) 문건의 진위여부와 희소성

- (1) 현재 공군박물관 이외 동일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3곳으로 공군 기록물관리를 총괄하는 '공군역사기록관리단'(2개소 2점)과 종합보고서 발간당시 강릉기지 주둔부대였던 '제10전투비행단'이 1점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강릉기지 주둔부대인 '제18전투비행단'은 관련 자료를 소장하지 않음.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2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군본부에 소장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진주지소에 사본으로 보관하는 것임
- (2) 비교1) 겉표지의 경우 공군박물관 소장본은 가죽인 반면, 나머지는 종이로 되어 있어 상이하고, 속표지의 경우 공군박물관 소장본은 검은 종이에 직접 컬러로 그림을 그리고 백색 붓글씨를 쓴 반면,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공군박물관 것을 복사한 것임. 단 10전투비행단은 속표지를 컬러로 그려서 교체하면서 그 뒷면의 역대단장 사진이 붙어있는 면도 교체가 불가피하여, 교체하면서 글씨체 및 글자 배열이 다르게 교체된 것으로 판단됨
- (3) 비교2) 공군박물관 소장본은 이강화의 '보고에 대한 설명' 1쪽 상단에 테이프 접착 면 내부에 푸른색 점이 있고, 다른 소장품에도 동일한 위치에 테이프 자국과 점 자국이 그대로 복사되어 남아있음.
- (4) 비교3) 역대단장 사진의 경우 공군박물관 소장본은 흑색종이에 흑백사진을 테이프로 붙이고, 백색글씨를 직접 쓴 반면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소장본은 공군박물관 소장본을 복사하고 사진만 추가로 크게 붙임. 반면에 10전투비행단본은 속표지를 교체하면서 복사본이지만, 공군박물관 소장본과 글씨체 및 글씨 배열이 상이해짐
- (5) 소결론 : 공군역사기록단의 소장품은 모두 공군박물관 소장품의 복제 본으로 판단되고, 제10전투비행단의 소장품은 공군박물관 소장품의 복제 본에 표지와 역대단장 사진부분만 새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군박물관 소장본이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고 판단됨

구분	공군 박물관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제10전투 비행단	제8전투 비행단
		공군본부	진주지소		
겉표지					
속표지					
	실제 그린 그림	좌측본 흑백복사	좌측본에서 흑백 재복사	실제 그린 그림	
이강화 발간사 우측 모서리 테이프와 이물질					소장본 없음
	테이프 내에 청색점 존재	테이프자국과 청색점 자국 흑백복사			
역대 단장 사진					
	흑백사진 부착 및 백색붓글씨	복사본, 사진추가부착, 좌측과 동일 서체	좌측본에서 그대로 흑백 재복사	복사본, 공군박물관본과 서체/글자배열 상이	

(라) 소장경위

- 1979년 3월 21일 제2대 제10전투비행단장이었던 장지량 장군이 기증한 것으로, 1979년 3월 21일부터 공군박물관에서 인수하여 관리

(마)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수장상태 : 큰 손상은 없으나, 보존처리 및 디지털화가 필요함.

(바)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공군창군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우리 공군사 연구에 활용
- 원문과 해제자료 공개 추진 : 학술적 연구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문에 대한 전산파일(pdf파일) 뿐만 아니라 한글 해제본도 병행하여 공개추진이 필요함.

(사) 등록가치의견

- (1) 공군이 1949년 10월 1일부로 육군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부대로 창설된 이래 1953년도에는 2개의 비행단으로 확장되어, 사천기지의 '제1훈련비행단'은 비행훈련을 담당했고, 강릉기지의 '제10전투비행단'은 유일하게 전투 임무를 수행했음. 이 문건은 1953년 2월 15일 창설된 제10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10개월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임
- (2) 주요 내용은 이 문건을 발간하는 목적을 제2대 비행단장 장지량 대령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작전처장 이강화 중령이 기술하였으며, 정보, 작전, 운비, 교육, TAC, 통신,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현황과 설명문으로 구성하였음.
- (3) 일례로 작전 분야를 보면 항공기·무기·병력·차량·조종사·출격·훈련현황뿐만 아니라 개인별 비행시간 현황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정보 분야를 보면 적 공군정보·적 공군세력·비행장·지상군정보·북한군 부대배치·출격횟수·탄약량·탄약소모량·사고통계·전사자·전과·비행기탑승허가서 발행현황 등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10전투비행단 창설 초기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
- (4) 특히 펼쳤을 때 우측면에 붙어 있는 현황은 사본을 생산하기 위해 그림이나 도표로 먼저 그린 다음 이를 흑백사진기로 찍어 인화하여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사진을 활용한 것은 작전처장이었던 이강화 중령과 매우 관련이 큰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이강화 중령이 군복무간 촬영한 사진 다수를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바 있음. 따라서 이강화 중령은 사진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해 남달리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됨
- (5) 이상의 사항으로 비추어 볼 경우 1953년 제10전투비행단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북한군 및 국군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자료로 등록가치가 높음

2) 비행기록수첩 및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2건 2점)

가) 개요

- (1) 이 문건은 정찰비행전대 소속 임상섭 조종사가 1952년 5월 22일 현지임관으로 소위로 임관하여 작성한 ①'비행기록수첩'과 이를 1:1,000,000 지도에 점으로 표시한 ②'작전지도'임.
- (2) 수첩에는 6월 7일부터 시작하여 L-4·L-5 연락기, 10월부터 T-6훈련기, 12월부터 AT-6공격기, 그 다음해 3월부터 F-51전투기를 비행한 날짜·기종·횟수 등의 자료가 상세히 적혀있음
- (3) 1953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전지도에는 38선 이북지역에서 임상섭 중위가 수행한 작전지역을 점으로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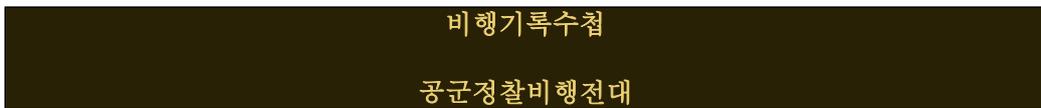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1) 제원 : 비행기록 수첩 10.5×15.5cm, 작전지도 49.5×73cm
- (2) 수록 예시 : 2월 22일~3월 10일까지 비행기록
 - (가) 비행기록수첩 일부 원본사진



(나) 비행기록 일부 해제내용

① 표지



② 비행기록

월/일	기종	시간	횟수	총 시간	총 횟수	과목	기종별		과목별		비고
							총시간	횟수	총시간	횟수	
21	AT-6	2.0	1	130.40	493	T-5	79.05	251	3.30	2	K-4, K-8, K-7
"	"	1.3	1	132.10	494	T-2	80.35	252	1.30	1	-
22	"	3.4	3	135.50	497	T-2	84.15	255	5.10	4	K-4, K-5, K-7
23	"	2.1	1	138.0	498	T-5	86.25	256	5.40	3	-
중 략											
3/8	AT-6	1.45	10	151.45	544	T-1	100.10	302	57.45	-	
"	F-51	1.0	1	152.45	545	T-1	1.0	1	-	-	
9	"	1.0	1	153.45	546	T-1	2.0	2	-	-	
10	"	1.0	1	154.45	547	T-1	3.0	3	-	-	

②-1) 3월 8일 이전까지는 주로 T-4, T-5, T-6 및 AT-6 등 훈련기를 조정하여 151.45시간 544회를 비행했고, 이 기간 AT-6기종만 보면 100.1시간 302회를 조정했음. 또한 3월 8일을 기해서 AT-6에서 F-51 전투기로 기종이 전환되어 처음 1시간을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서 다음날부터 F-51을 주로 조종했음을 알 수 있음

②-(2) AT-6의 1회 조종시간은 1~2시간 정도였고, 2월 22일의 경우 3회 3.4시간을 조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월 8일부터 F-51은 매일 약 1시간씩 조종했음을 알 수 있음

(다) 작전지도 일부 원본사진



(라) 비행기록 일부 해제내용

① 출격일지 내용과 지도상 표기된 점 표시 비교 : 대체로 일치함

구분	출격 횟수	출격구역									
		DT	CT	BT	YC	YB	YD	BU	CU	BS	미식별
비행기록 수첩	146	56	41	14	7	2	2	2	6	1	15
작전 지도	144	59	48	14	10	1	3	3	5	1	0
차이	-2	+3	+7	0	+3	-1	+1	+1	-1	0	-15

② 지도의 제작시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손상되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DMZ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출격 시 작전지역을 실시간대 점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1953년 이후 발행된 지도를 구해 출격한 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됨

다) 문건의 진위여부와 희소성

- (1) 비행기록수첩과 작전지도는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원본으로 판단됨. 특히 비행기록수첩은 비행 후에 조종사 이었던 임상섭 중위가 그때그때 실제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2) 작전지도는 임상섭 중위가 출격하면서 그때그대 실제 지도에 표기한 것이 아니고 DMZ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53년 이후에 발행된 지도를 확보하여 본인이 출격했던 곳을 나중에 지도상에 표기한 것으로 판단됨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록수첩’과 ‘작전지도’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건이 상호 연관성이 매우 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별개로 분리하기 보다는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소장경위

- 1979년 2월 17일 임상섭이 공군박물관에 기증

마)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수장상태 : 수첩 잉크의 탈색 등으로 인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향후 적외선 촬영 등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바)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공군창군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우리 공군사 연구에 활용
- 원문과 해제자료 공개 추진 : 학술적 연구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문에 대한 전산파일(pdf화일) 뿐만 아니라 한글 해제본도 병행하여 공개추진이 필요함.

사) 등록가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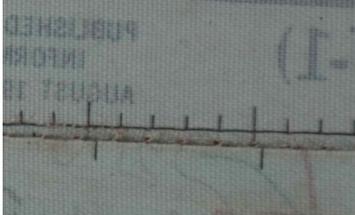
- (1) 비록 조종사 1명의 개인의 비행기록이지만 6·25전쟁 시기 우리 공군의 훈련기와 전투기의 비행기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생생한 자료로 등록가치가 높음
- (2) ‘비행기록수첩’과 ‘작전지도’는 외형상 별개의 두 건이지만, 상호 연관성이 매우 깊은 것이므로 별개로 분리하기 보다는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1건 1점)

가) 개요

- (1) 이 문건은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로 미 공군 항공지도 제작소에서 1951년 8월 제작된 항공지도임. 축척은 1:500,000 기증자가 6·25전쟁 시 출격 중 휴대하고 다니던 것으로 판단됨

- (2) 일반적인 지도가 ‘종이’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면 이 지도는 물에 젖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에 인쇄하였으며, 조종사가 몸에 지니고 있다가 비행경로 이탈 또는 추락 등의 이유로 기지복귀가 제한될 경우 기지로 복귀하는데 참조하기 위해 천으로 제작하여 휴대성과 내구성을 견고히 했음
- (3) 지도는 두 개의 지도를 봉합한 것으로, 원래 양면으로 제작되어 한 면은 38°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남쪽, 다른 면은 한반도의 북쪽이 인쇄되어있는 지도임. 따라서 출격기지인 강릉과 공격 대상인 북한지역이 서로 다른 면에 있어 한눈에 볼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장의 지도를 재봉틀을 이용하여 봉합한 것으로 보임.

참고지도(worth point)	지도 절단면	재봉면
		

나) 소장경위

- 1994년 9월 12일 마종인이 공군박물관에 기증

다)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수장상태 :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함

라)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공군창군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우리 공군사 연구에 활용

마) 등록가치(진위여부와 희소성 및 문건의 의의 및 등록가치)

- 생활용 작전지도는 당시에 다량으로 제작해 조종사에게 분배하였고, 오늘날에도 다량이 존재하여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희소성이 적음. 지도에 다른 추가 도식이나 기록이 없어 문건의 의미가 크지 않음. 따라서 등록가치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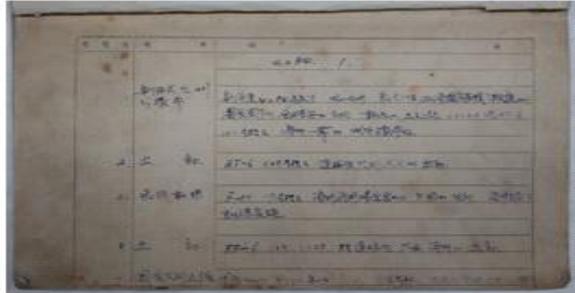
4) 10비 군사일지(1건 2점)

가) 개요

- (1) 이 문건은 1953년 2월 12일 정식 창설된 제10전투비행단의 것이지만, 기록 기간은 195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5년 12월 31일까지 기록으로 총 2권으로 구성된 군사일지임.
- (2) 제10전투비행단은 초기 ‘공군비행단’ 시기의 일부(1951.1.1.~1951.7.31.)와 공군비행단이 제1전투비행단으로 바뀌고 ‘제10전투비행전대’가 창설되었던 시기(1951.8.1.~1953.2.14.)에 이어 제10전투비행전대가 ‘제10전투비행단’으로 바뀐 이후의 시기(1953.2.15.~1955년)를 기록하고 있음
- (3) 군사일지는 각 부대의 주요활동을 일자 순으로 기록한 군사자료로 이 자료도 일자에 따라 날짜별로 신년식 및 뼈라 살포·출동·비행훈련·단장 출장 등 부대의 활동내용이 기록되어있음.
- (4) 6·25전쟁 당시 비행단의 활약을 일자별로 기술한 사료이면서, 10전투비행단이 탄생 시점과 관련된 3개 비행단의 역사가 기록되어있어 공군 주요 부대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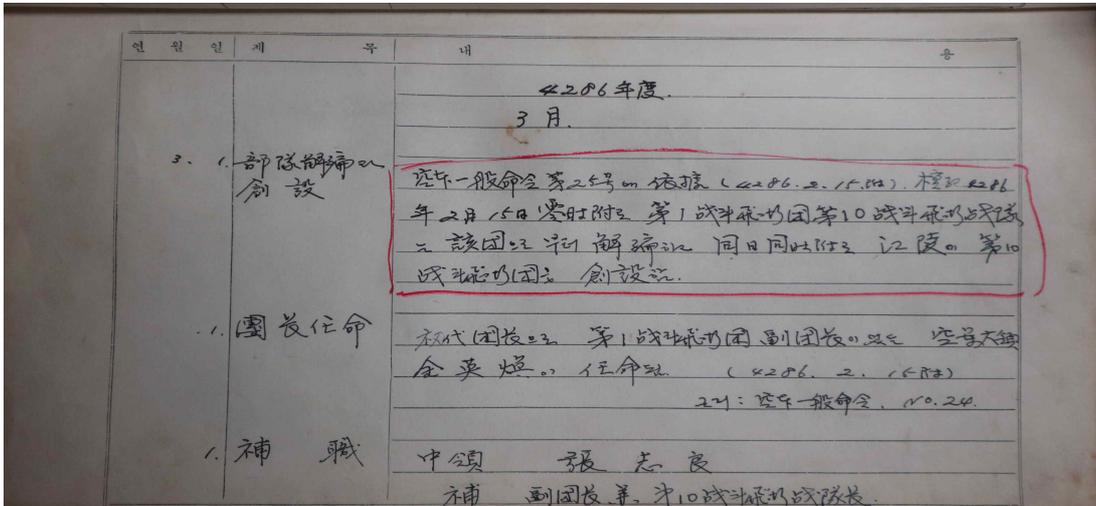
- (1) 주요 구성내용 : 연월일, 사건제목, 사건내용 요약 등으로 구성되어 일일 단위로 주요내용을 작성함.
- (2) 제원 : 17 × 25.5cm
- (3) 수록 예시
 - (가) 제1권 표지 및 1쪽



10비 군사일지 제1권
 수록기간 : 1951년 1월 1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부대명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연월일	제목	내 용
		4284.1
1.1	신년식 및 뼈라 살포	신년도 4284년도를 맞이하여 주둔지(북○초등학교 교정)에서 단장 각하(閣下)의 전 장병에 대한 훈시가 있는 다음 10:00경 AT-6 101호기로 제천일대에 뼈라 살포함
2	출동	AT-6 105호기는 연락을 위해 대구, 대전에 출동함
2	비행훈련	F-51 17호기로 제주비행장0관에서 5회 걸쳐 공중조작훈련을 실시
3	출동	AT-6 105, 110호기 연락을 위해 대전, 제주에 출동
4	단장 대구 출장	단장께서는 09:00 신년 초○ 공군본부로 출장차 ○ 대구 향발

(나) 1953년 3월 1일 제10전투비행단 창설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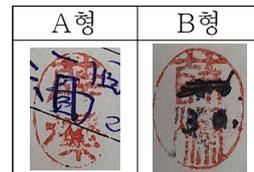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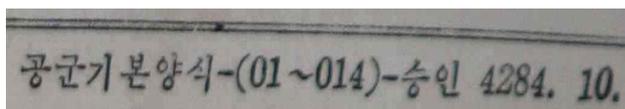
연월일	제목	내용
		4286년도 3월
3.1	부대 해편과 창설	공군일반명령 제25호에 의거(4286.2.15.부) 단기 4286년 2월 15일 00시부로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는 해단(該團, 그 단)으로부터 해편(편제를 해제)하고 동일동시부(같은 날 같은 시간)로 강릉에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함
1	단장임명	초대 단장으로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이었던 공군대령 김영환이 임명됨(4286.2.15.부) 근거 : 공군일반명령 제24호
1	보직	중령 장지량 보 부단장 겸 제10전투비행단전대장

다) 소장경위

- 2009년 6·25 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10전투비행단에서 발견되었으며, 2014년 4월 30일 공군박물관으로 이관됨

라) 문건의 진위여부와 희소성

- (1) 195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5년 12월 31일까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군사일지로 희소성이 있음.
- (2) 군사일지의 양식은 1951년 10월 승인된 공군기본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바, 최소 1951년 10월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100여 곳에 걸쳐 오기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자가 날인을 하였는데, 날인한 사람은 1959년 3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제10전투비행단 정훈관실에서 복무한 공군 장교 '설찬(薛燦)'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일지는 이 시기에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마)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수장상태 : 표지 부분에 오염과 결실이 심하며 내부도 열화와 변색된 부분이 있어 보존처리 및 디지털화가 필요함.

바)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공군창군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우리 공군사 연구에 활용
- 원문과 해제자료 공개 추진 : 학술적 연구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문에 대한 전산파일(pdf화일) 뿐만 아니라 한글 해제본도 병행하여 공개추진이 필요함.

사) 등록가치의견

- (1) 1951년부터 일자별로 제10전투비행단의 부대상황을 알 수 있는 유용한 1차 사료로서 1951년 1월 1일에 신년식 및 뼈라 살포 등을 하였고, 공군기지간에 일정수의 연락기를 운행한 것과 훈련활동을 볼 수 있음
- (2) 1953년 3월 1일자는 제10전투비행단이 1953년 2월 15일부로 창설되었지만 실제 창설 및 출범은 1953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대 단장으로 김영환 대령이, 부단장으로 장지량 중령이 임명되었으며, 장지량 중령은 제10전투비행전대장을 겸직한 것을 알 수 있음
- (3) 이상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공군의 전투부대가 ‘공군비행단’시기 (~1951.7.31.)와 ‘제10전투비행전대’시기(1951.8.1.~1953.2.14.)에 이어 1953년 2월 15일부로 ‘제10전투비행단’으로 창설된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로 등록가치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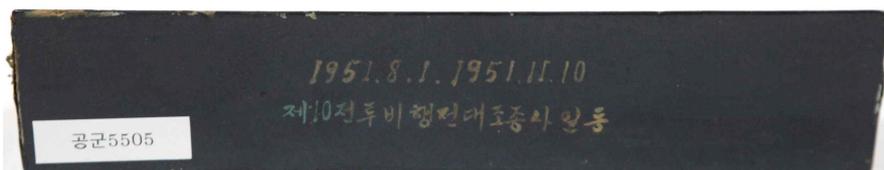
5) 김영환 장군 명패(1건 1점)

가) 개요

- (1) 이 명패는 제10전투비행전대의 초대 비행전대장인 김영환 대령(1921.1.8.~1954.3.5.)의 명패로서, 김영환은 공군 창설과 발전의 중심인물이며, 일선에서 활약한 공군 대표 조종사이기도 함.
- (2) 명패의 뒷면에는 ‘1951.8.~1. 1951.11.10 제10전투비행전대 조종사 일동’이라는 문구가 있고, 명패의 모서리부분이 박락되어있으며, 유물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라벨이 부착되어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1) 주요 구성내용 : 연월일, 사건제목, 사건내용 요약 등으로 구성되어 일일 단위로 주요내용을 작성함.
- (2) 제원 : 6.5 × 24 × 4.7 × 4.5cm(세로 × 가로 × 높이 × 밀면)
- (3) 명패사진



다) 소장경위

- 1951년 11월경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공군박물관 소장 경위는 자세히 기록되어있지 않음

라) 문건의 진위여부와 희소성

- 제10전투비행전대 제1대 전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김영환 대령의 명패가 맞으며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 조종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제작한 것으로 제10전투비행전대 초대 전대장의 명패로 볼 경우 유일한 것으로 희소가치가 있음

마)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수장상태 : 명패의 모서리부분이 박락되어있으며, 유물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라벨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어있음

바)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공군창군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우리 공군사 연구에 활용

사) 김영환 장군 명패(1건 1점)의 의의(意義) 및 등록가치

- (1) 김영환 대령이 제1대 전대장직을 마칠 때 조종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명패를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부대에서는 지휘관이나 또는 특정 인물이 이임하거나 진출(轉出)을 할 때 이와 같은 기념품을 주는 전통이 있음.
- (2) 제1대 전대장 김영환 대령의 명패로서는 개인의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개인의 역사적 가치가 문화재로 등록할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가치가 낮음

5) 이배선 조종사 6·25전쟁 출격일지 및 전투일지(2건 2점)

가) 개요

- (1) 이 문건은 1952년 12월 13일 첫 출격한 공사 1기 출신 조종사 이배선이 자신의 임무에 관한 상세한 브리핑 및 착안사항을 일자별로 기재한 일지로 내용의 수록기간은 1952년 12월 13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임.
- (2) 두 권의 기록은 모두 이배선이 출격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1권에 해당하는 ‘출격일지’는 1952년 12월 13일부터 1953년 3월 27일까지 내용을 기록하였고, 제2권에 해당하는 ‘전투일지’는 1953년 3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내용을 기록하였는바, 제목만 다르고 구성 형식이나 내용은 모두 개인의 출격내용을 기록한 것임
- (3) 매 출격마다 일시, 목표지점, 임무종류, 작전지도(비행경로, 목표물위치, 주변 지형 등을 직접 조종사가 그림), 작전성과, 작전 시 특이사항(이륙에서 착륙까지 단계별로 비행조작의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재함),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마음자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함.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1) 제원 : 25 × 17cm

(2) 수록 예시
 (가) 출격일지



단기 4285년 12월 14일~4286년
출격일지 1
 이 배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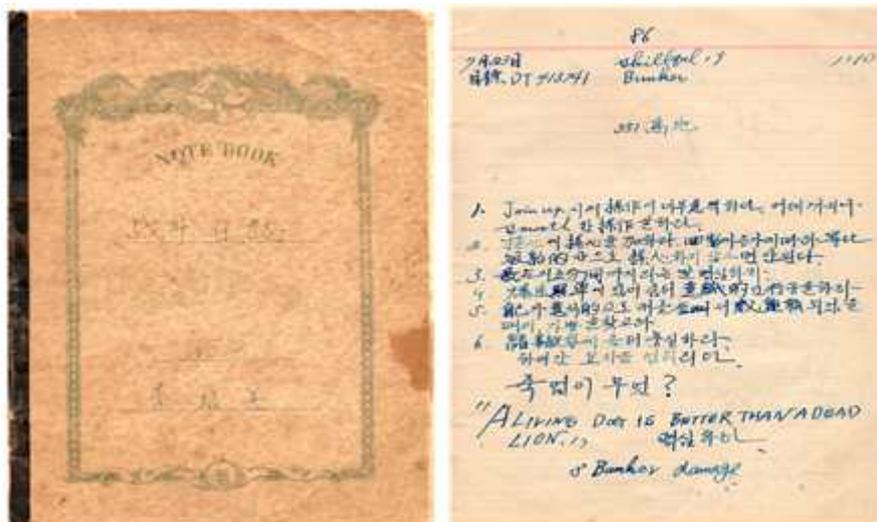
12월 13일
 목표 : CU6831 철교 파괴 TOT 15:00

공격요령
 목표의 철교는 대개, 남북으로 놓여 있다. black상황에 대비하여 동방(東方) 즉 바다 쪽으로 진입하여 남쪽을 따라 동방으로 이탈함이 좋을 것이다. 특히 너무 내려가지 마라(남쪽으로) 만일 3,4편대에 있어 진입이 늦게 되며 서방으로 진입하여 우측으로 선회하여 요도와 비행장이 있는 갈마반도 사이 지점에서 랑데부하여 남침(南針, 남쪽으로 향할)할 것이다.

항법
 K-18→고성→타깃(target) 154 75m 334
 혹은 K-18→soari 156 75 336 126 40 306

- ① 임무지역에 대한 요도와 함께 브리핑 받은 공격요령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 특히 정상적인 임무수행방법과 함께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안도 기술하고 있음
- ② K-18비행장을 이륙한 후 고성을 경유하여 원산에 위치한 목표까지 이동경로 및 비행방법을 정상적인 방법과 예비 방안으로 나누어 기록함

(나) 전투일지



전투일지
No 2
이 배 선

7월 23일

목표 : DT 413741 병커 1:10

351고지

1. Join up시의 조작이 너무 급격하다. 어디까지나 smooth한 조작을 하라
 2. 조심에 조심을 가하라 ○○증가에 따라 ○○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의 오분 간까지라는 말 명심하라.
 3. 폭격조준에 있어서 좀 더 의식적인 행동을 하라
 4. 자기가 의식적으로 애를 써서 ○○○되었을 때의 기쁨을 찾으라.
 5. 제사○황에 좀 더 충실하라. 하여간 요즈음 엉터리다 주검이 무엇?
“A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명심하라
- 8 Bunker damage

- ① 12월 13일 출격일지가 임무에 주안을 두고 작성한 것에 비해 7월 23일 전투일지는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마음자세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 ② 특히 휴전이 임박한 시점에 시행된 동해안 351고지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임하면서 마음자세를 다지는 것과 임박한 휴전협정을 두고 죽지 않아야 한다는 생존의지를 강하게 엿볼 수 있음

다) 소장경위

- 이배선 조종사의 가족이 1986년 공군박물관에 기증함

라) 문건의 진위여부와 희소성 : 전투기 조종사였던 이배선이 직접 비행내용을 기록한 진품으로 희소성이 높음

마)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수장상태 : 명패의 모서리부분이 박락되어있으며, 유물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라벨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어있음

바)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공군창군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우리 공군사 연구에 활용
- 원문과 해제자료 공개 추진 : 학술적 연구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문에 대한 전산파일(pdf파일) 뿐만 아니라 한글 해제본도 병행하여 공개추진이 필요함.

사) 등록가치의견

- (1) 6·25전쟁 당시 한국 전투조종사의 작전상황, 작전준비 등 객관적 출격 상황을 브리핑 받듯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 긴박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던 전투조종사의 활약을 보여주는 유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 (2) 6·25전쟁 당시 전투기가 출격 시 임무브리핑 내용이 무엇이었고, 생사를 넘나드는 시점에서 전투기 조종사이면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다짐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1차 사료로 등록가치가 높음

<000>

1) 개요

-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은 6·25전쟁 전쟁기간 1951년 1월부터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5년 12월까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비행훈련, 전투일지, 군사일지, 출격기록, 출격결과, 교훈 분석 등을 포함한 매우 희귀한 공군 기록물임. 이들 문서 중 상당 부분은 전쟁 직후 항공항습 처리 시설이 미비하여 훼손된 것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존처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 중 공군 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는 전쟁 당시부터 긴박한 전쟁 기간 중에도 한국 공군이 사후 전쟁 분석이나 후대 항공작전이나 조종사 교육을 염두에 두고 그 교훈을 위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식이나 책임감을 갖고 보고되었으며, 이 기록물은 1979년 3월 21일 장지량 장군이 기증하였으며 2009년까지 제10전투비행단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4년 공군박물관으로 이관되었음. 10비 군사일지는 전쟁 당시 공군의 주요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1950년대 말 추후 일괄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공군의 초기기록으로 매우 귀중한 기록이며, 2014년 4월 제10전투비행단으로부터 공군박물관으로 이관됨. 비행기록 수첩과 작전지도는 전쟁 기간 기록된 개인기록으로 1979년 2월 임상섭이 기증한 기록물이며, 비행기록 수첩의 내용과 작전지도의 표기 내용이 일치하며 공군 역사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음. 조종사 출격일지는 1952년 12월 13일 첫 출격한 공사 1기 출신 조종사 이배선이 자신의 임무에 관한 상세한 브리핑 및 주요 내용을 일자별로 기재한 일지이고 그 수록 내용은 1952년 12월 13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배선의 가족이 1986년 공군박물관에 기증하였음.

2) 주요내용 및 특징

- 이번 문화재 등록을 위한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은 6·25전쟁 기간과 정전협정체결 직후에 생산된 문서이며 한국 공군의 초기기록으로서 매우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그 중 명패와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는 동종의 유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제외되어야 함.

가)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 이 기록물은 제10전투비행단의 작전, 정보, 교육, 통신, 기상 등의 내용을 도면과 문서로 정리한 종합보고서임. 한국 공군은 1948년 9월 13일 육군 항공사령부로 출발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되어 공군비행단으로 개편되었으며, 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으로 개칭되었음. 이 기록물은 제10전투 비행단장이었던 장지량 장군이 1979년 3월 비행단에 기증하였으며, 2014년 공군박물관으로 이관되었음.



- 제10전투비행단은 전쟁 시기 공군의 최전방이었던 강릉지에서 활약한 비행단이며, 그 전신인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부터 전투출격기록은 휴전 시까지 총 7,851회에 달하고 있음.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1년 8월 1일 창설되었으며, 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으로 승격하였음. 작전 기간 중 특히 승호리 철교폭파, 평양대폭격, 351고지 전투지원 등의 작전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매우 소중한 사료가치를 갖고 있음. 이 기록물은 전쟁 기간 작전, 전투 및 지휘관의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사료이며, 전쟁사 연구에 필수적인 희귀한 사료임. 이 기록물은 검은색 두꺼운 종이를 바탕 면으로 하여 문서와 도면을 붙여 끝으로 편철하였으며, 표지는 당시 수준에서는 매우 희귀한 가죽으로 제작하였음. 문서는 한 면에 종이를 여러 장 덧붙인 경우가 많은데 자료 열람시 손상의 위험이 있음. 두면은 사진으로 인화,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소 변성되었음. 현재 기록물의 큰 손상은 없으나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보존처리 및 디지털화 작업이 필요함.



나) 제10전투비행단 군사일지

- 군사일지는 각 부대의 주요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군사자료이며, 일자에 따라 신년식 및 전단 살포 작전, 출격상황, 비행훈련, 비행단장의 지휘 활동 등 부대의 활동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2014년 제10전투비행단에서 공군박물관으로 이관되었음. 10비 군사일지는 전쟁 당시 공군의 주요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1950년대 말 추후 일괄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공군의 초기기록으로 매우 귀중한 기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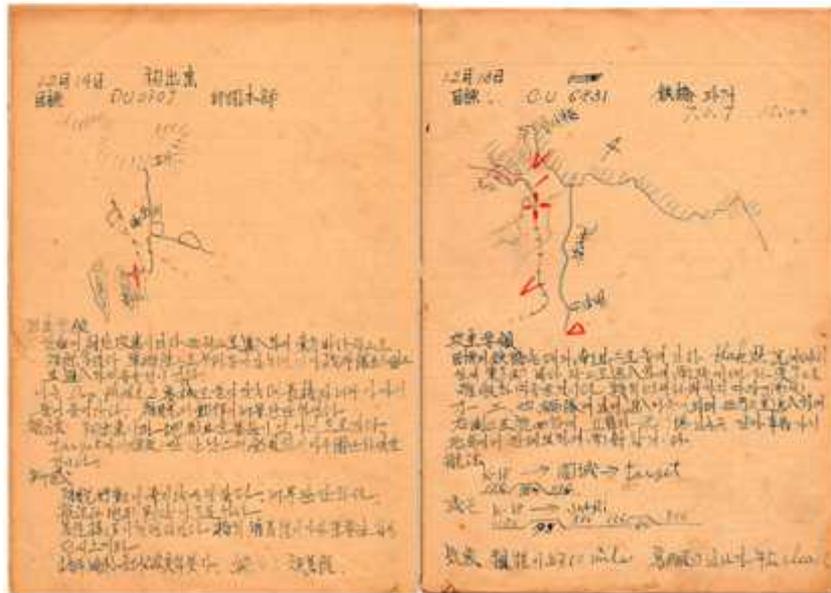


- 군사일지에는 1951년 1월 1일부터 195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군 각 부대의 활동 상황이 기록되어 있음. 군사일지 작성 당시에는 일지 작성에 참고가 된 작전보고 또는 전투상보, 작전결과 보고서 등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그 보고서는 남아있지 않고 군사일지만이 보존되어 있음. 군사일지의 양식은 공군 기본양식으로 1951년 10월 승인된 것으로 판단됨.
- 군사일지의 내용 가운데 100여 곳에 걸쳐 오기한 부분을 수정하고 날인하였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장이 사용되었음. 그 인장의 주인은 1959년 3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제10전투비행단 정훈관실에서 복무한 공군 장교 설찬으로 판단됨. 따라서 군사일지의 수정 부분은 1950년대 말 설찬이 1차 사료를 근거로 보완한 것으로 추정됨.

다) 조종사 출격일지

- 이 기록물은 1952년 12월 13일 첫 출격한 공사 1기 출신 조종사 이배선이 자신의 임무에 관한 상세한 브리핑 및 활동 내용을 일자별로 기재한 일지이며, 수록기간은 1952년 12월 13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임. 매년 작전을 위해 출격할 때마다 일시, 목표지점, 임무의 성격, 작전지도(비행경로, 목표물위치, 주변 지형 등을 직접 조종사가 작성), 작전성과, 작전간에 특기사항 즉 이유에서 착륙까지 단계별로 비행조작의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재),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고려해야 할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음.





- 6.25전쟁 당시 한국 전투조종사의 작전 상황, 작전준비 등 객관적 출격 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임. 긴박한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전투조종사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군작전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함.

라) 비행기록 수첩

- 비행기록 수첩은 6.25전쟁 기간 항공작전에 투입된 공군조종사의 개인기록으로 항공작전과 전쟁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1979년 2월 임상섭이 기증한 기록물이며, 수첩의 비고란에는 알파벳 구역 표시 뒤에 네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세부 좌표를 표시하여 작전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앞 두자리는 세로축, 뒤의 두 자리는 가로축을 표시하는 것임



마) 출격 작전지도

- 출격 전지도는 상기 비행기록 수첩을 작성한 임상섭이 당시 지도에 작전지역을 표기한 작전지도임. 작전지도에 표기된 내용이 비행기록 수첩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여 공군 역사자료로 매우 가치가 높음.

	출격 횟수	출격구역									
		DT	CT	BT	YC	YB	YD	BU	CU	BS	미식별
비행기록 수첩	146	56	41	14	7	2	2	2	6	1	15
작전지도	144	59	48	14	10	1	3	3	5	1	0
차이	-2	+3	+7	0	+3	-1	+1	+1	-1	0	-15

- 일부 수첩에 작성된 내용 중 탈색 등으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함.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향후 적외선 촬영 등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 군사지도의 제작 시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손상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군사분계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53년 이후로 판단됨.

바) 김영환 장군 명패

- 김영환 장군의 명패는 6.25전쟁 시기 눈부신 활약을 했던 김영환장군이 사용하던 명패를 공군박물관에서 기증받아 보존하고 있는 유물임. 명패 뒷면에 공군 후배들이 그를 기려 메모를 남긴 것이 특징적으로 보임. 그러나 명패는 유사한 유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자료가치 면에서나 희귀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므로 문화재 등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조종사 비상생환용 지도

- 이 지도는 6.25전쟁 기간 항공작전 시 실제 사용된 지도라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 가치가 있으나 지도상에 자료 가치가 될만한 표기가 없으므로 지도 자체로는 가치가 떨어짐. 현재 같은 유형의 동일한 지도가 미군 공군 맥스웰 기지에 다수 존재하므로 희소성도 떨어짐. 따라서 문화재 등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문헌자료

- 공군본부, 2002, 『전투요보』 (1950-1951), 공군본부.
- 공군본부, 1972, 『공군 25년사 1948-1972』, 공군본부.
- 공군본부, 1954, 『공군발전약사』 제1권, 공군본부.
- 공군본부, 1991, 『공군사 1945-1953년』, 공군본부.
- 국방부, 1951, 『한국전란1년지』,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86 『한국전쟁 요약』, 교학사.
-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상,중,하), 군인공제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정문사문화주식회사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2013, 『6·25전쟁사』 (제1권-11권), 국군인쇄창.
-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연구』, 군인공제회.
- 이중근, 2013, 『6·25전쟁 1129일』, 우정문고.

4) 기타(등록 시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공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김영환장군 명패, 조종사 생환 작전지도, 군사일지, 출격일지, 비행기록수첩, 작전지도 등은 모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관련 기록물들임. 따라서 이 기록물들이 공군기록물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이므로 그 명칭을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향후 공군에서 생산한 다른 기록물들이 발굴될 때 6·25전쟁 공군 기록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종합보고서, 군사일지, 출격일지, 비행기록수첩, 작전지도 등 5건은 전쟁기간 한국 공군의 현황과 실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이며 모두 유일본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됨. 다만 이 기록물들은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임을 감안할 때 문화재 등록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상기 기록물 중 김영환 장군 명패와 조종사 생환 작전 지도는 동종의 유물이 많이 존재하므로 희귀성이나 역사적 가치 면에서 다소 떨어지므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등록가치의견

- 공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시기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군사일지, 출격일지, 비행기록수첩, 작전지도 등은 전쟁시 공군작전의 경과와 실상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1차 문서이고, 전쟁 당시 미군이 생산한 많은 방대한 기록물에 비해 다소 분량이 적은 편이지만, 한국 공군이 작성한 적지 않은 희귀한 군사작전 기록물임. 전쟁 전후 한국군의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이 기록물은 전쟁 당시 상황을 미군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상황을 담고 있고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기록물임.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 5건을 등록 문화재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기록물 보존 관리 면에서나 일반인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 5건은 생산된 지 70년 가까이 경과되었고, 공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기록물 모두가 원본 문서이고 제작 출처가 분명하며,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며 당시 기록물로서는 희소성이 있으며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등록 문화재로 등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은 문화재 등록에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공군이 생산한 군사작전 기록물로서 역사적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됨.
- 그러나 본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김영환 장군 명패와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 지도는 현재 동종의 유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희귀성과 역사적 가치 면에서 이번 문화재 등록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6)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6·25전쟁 제10전투비행단 기록물 중 많은 문서가 보존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전쟁 초기기록이나 투명지 기록의 경우는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특별하게 보존정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 기록물은 부분적으로 공군박물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면서 1차 정비를 수행한 상황이지만, 상당 부분의 기록물이 현재 상태로 방치할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큼.

7)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이 기록물은 6·25전쟁사를 연구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기록물들로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에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 자료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전쟁사나 6·25전쟁 당시 역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인터넷을 통해 대외로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1) 개요

- 6.25 전쟁 강릉기지 공군 군사작전 기록의 종류
 - 가) 비행기록 수첩
 - 나)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
 - 다) 조종사의 출격일지
 - 라) 10비 군사일지
 - 마) 종합보고서
 - 바)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
 - 사) 명패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6.25 전쟁 강릉기지 공군 군사작전 기록의 내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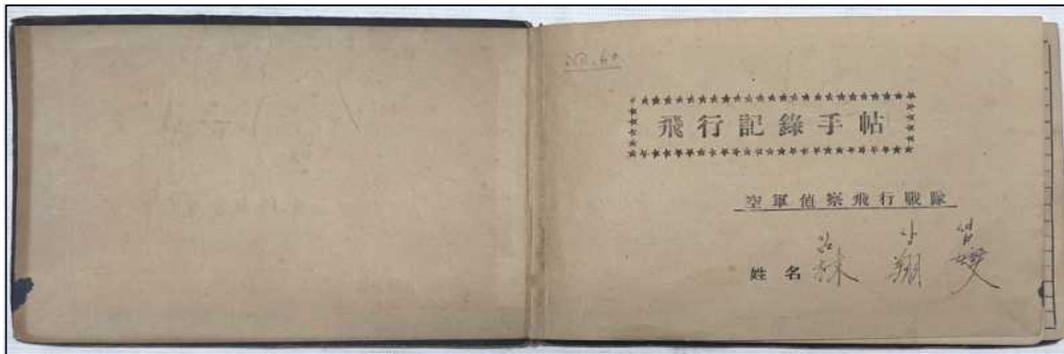
(1) 비행기록 수첩

- 제작년도: 1950년대
- 표제: 비행기록수첩(<그림 1> 참조)
- 제작자: 공군순찰비행전대 임상섭(<그림 2> 참조)
- 크기 10.3 × 15.2 cm

- 구성: 1점
- 소장경위: 1979년 2월 17일 임상섭 기증(<그림 2> 참조)
- 특징:
 - 경찰비행전대에서 발행한 비행기록수첩임.
 - 비행기록 수첩과 작전지도 표기가 대부분 일치함.(공문박물관 제공의 <표 1> 참조)
 - 비고'란 세부좌표: 알파벳 구역 표시 뒤에 총 네 자리의 숫자를 이용하여 세부좌표를 표시함. 앞의 두 자리는 세로축, 뒤의 두 자리는 가로축임. (<그림 3> 참조)
- 가치: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와 함께 당시 출격의 상황을 살필 수 있음.
- 보존상태: 필기류 잉크의 탈색 등이 진행되어 있음.(<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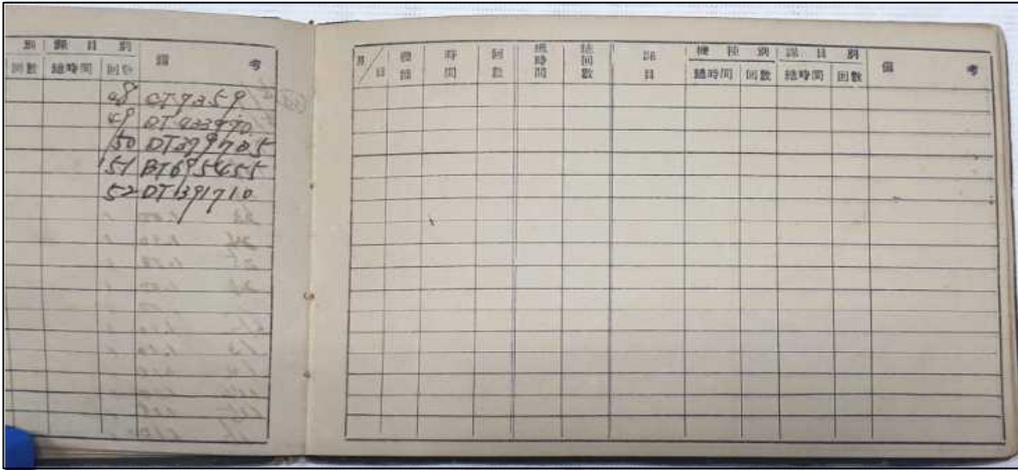
<그림 1> 비행 수첩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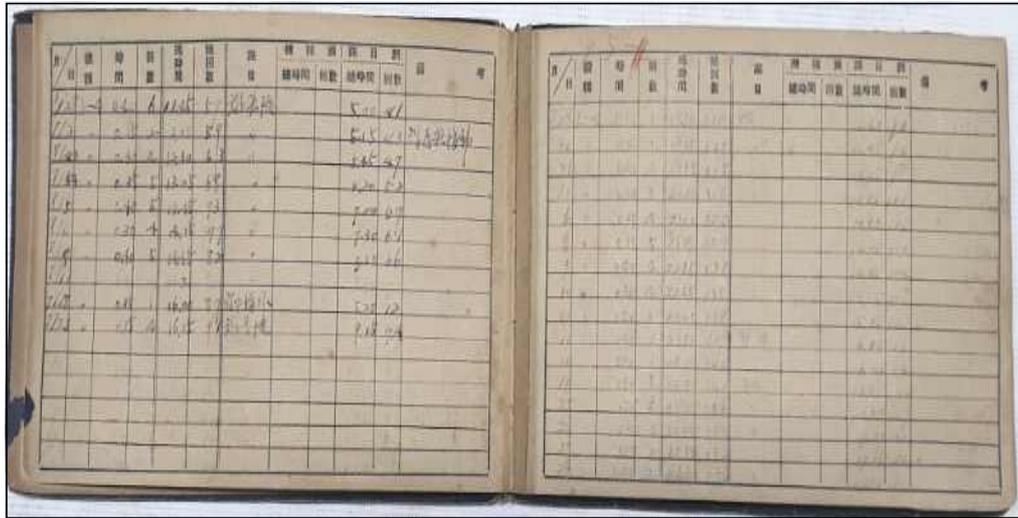
<그림 2> 비행수첩 표제면

	출격 횟수	출격구역									
		DT	CT	BT	YC	YB	YD	BU	CU	BS	미식별
비행기록 수첩	146	56	41	14	7	2	2	2	6	1	15
작전지도	144	59	48	14	10	1	3	3	5	1	0
차이	-2	+3	+7	0	+3	-1	+1	+1	-1	0	-15

<표 1> 비행기록수첩과 작전지도의 표기 비교



<그림 3> 비행수첩의 '비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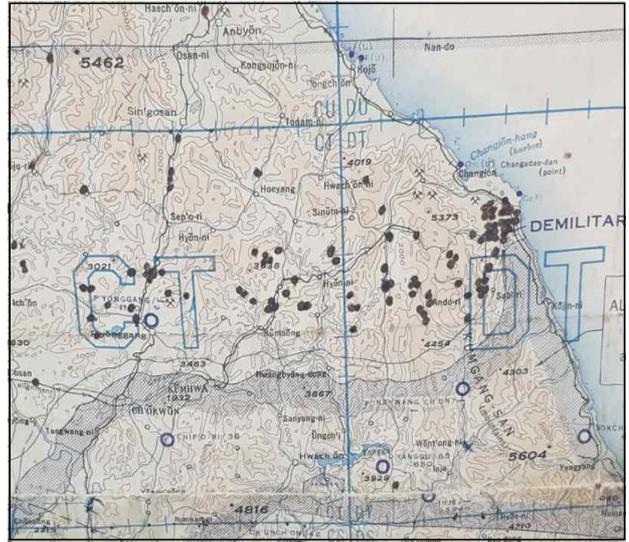
<그림 4> 비행수첩의 내용

(2)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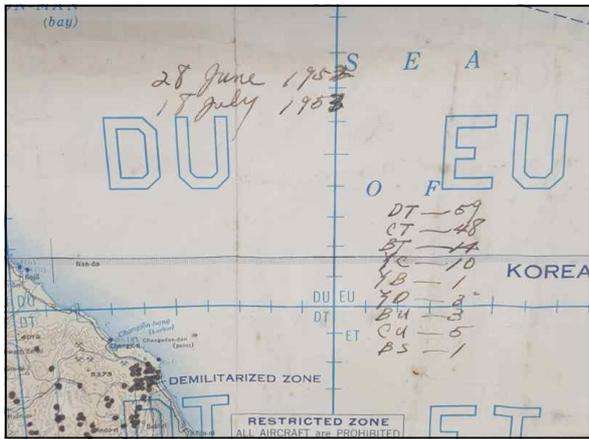
- 제작년도: 1950년대
- 축적: 1:1,000,000
- 구성: 1점
- 크기: 50.4 × 73 cm
- 소장경위: 1979년 2월 17일 임상섭 기증.
- 훼손여부: 남한 남쪽 일부부분과 왼쪽 하단 유실.(<그림 5> 참조)
- 특징
 - 지도 상에 점과 기록 등으로 작전지역이 표시되어 있음.(<그림 6>, <그림 7> 참조)
 - 이상의 비행기록 수첩과 작전지도 표기가 대부분 일치함. 작전지도내 구역별 표기 (점, 숫자) 일치함.
 - 지도의 제작시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잘려져 있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DMZ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53년 이후로 판단.
- 가치: 비행기록수첩 기록과 함께 당시 출격의 상황을 살필 수 있음. 당시 출격의 상황을 기록한 유일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그림 5> 출격표시 작전지도



<그림 6> 출격표시 작전지도의 점 표시



<그림 7> 출격표시 작전지도의 위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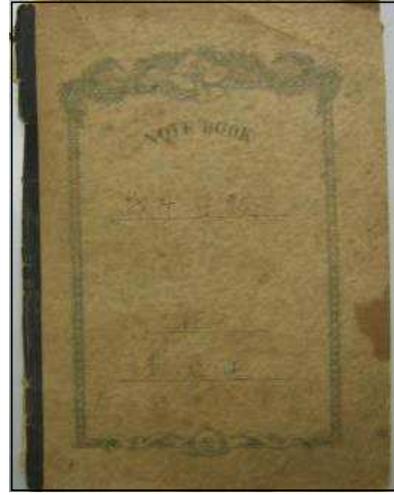
<그림 8> 출격표시 작전지도 중 평양부근 표시

(3) 조종사의 출격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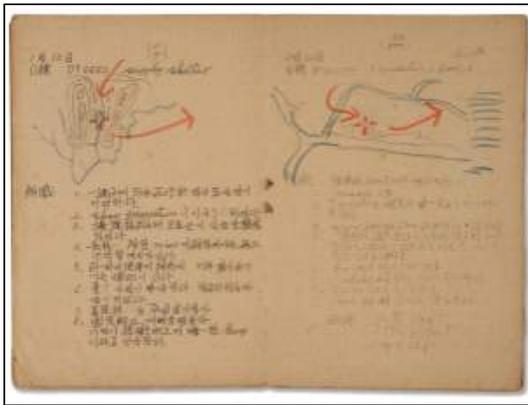
- 제작년도: 1952-1953년
- 구성: 2점
- 크기: 25.5 × 17.5 cm
- 제본: 양장 노트식
- 소장경위: 1986년 공사1기 이배선 조종사의 가족이 기증함.
- 수록기간: 1952년 12월 13일 - 1953년 7월 27일
- 특징
 - 출격일지와 전투일지로 2점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9>, <그림 10> 참조)
 - 1952년 12월 13일 첫 출격한 공사 1기 조종사 이배선이 자신의 임무에 관한 상세한 브리핑 및 착안사항을 일자별로 기재한 일지.(<그림 11>, <그림 12> 참조)
 - 매 출격마다 일시, 목표지점, 임무종류, 직접그린 작전지도, 작전성과, 작전시 특기 사항,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마음자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
- 가치: 6·25 전쟁 당시 한국 전투조종사의 작전상황, 작전준비 등 출격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일지로서 희귀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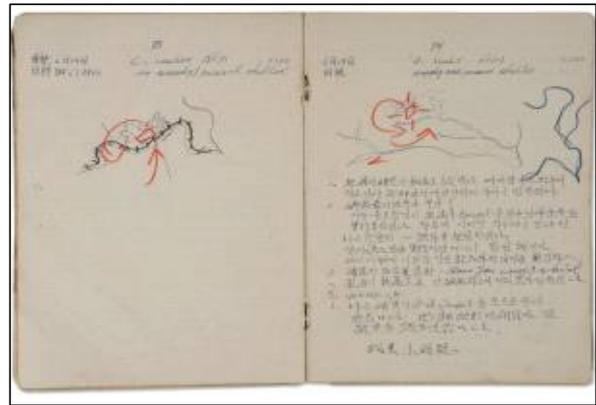
<그림 9> 출격일지



<그림 10> 전투일지



<그림 11> 출격일지의 일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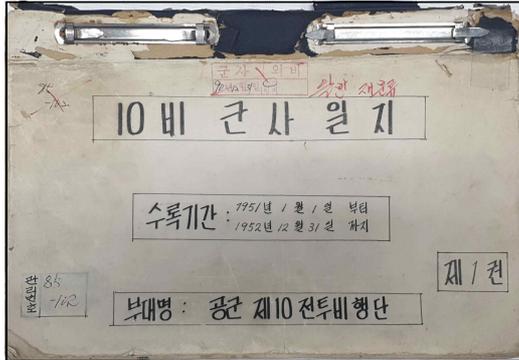


<그림 12> 전투일지의 일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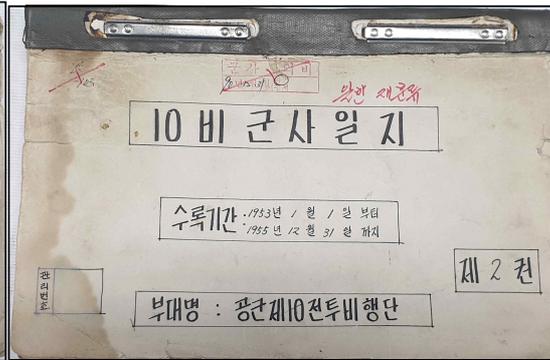
(4) 10비 군사일지

- 제작년도: 1951-1955년
- 구성: 2점
- 크기: 17.5 × 26 cm
- 제본: 가제본
- 소장경위: 2009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10전투비행단에서 발견됨, 2014년 4월 30일 공군박물관으로 이관됨.
- 수록기간: 1951년 1월 1일 - 1955년 12월 31일
- 특징
 - 각 부대의 주요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군사일지임.
 - 제1권은 1951년 1월 1일 - 1952년 12월 31일, 제2권은 1953년 1월 1일 - 1955년 12월 31일까지 기록하고 있음.(<그림 13>, <그림 14> 참조)
 - 일자에 따라 부대의 활동내용으로 신년식, 뼈라 살포, 출동, 비행훈련, 단장 출장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그림 15> 참조)
 - 군사일지의 양식은 공군기본양식으로 1951년 10월 승인된 것임.(<그림 17> 참조)
 - 입수이후 추후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즉, 100여 곳에 걸쳐 오기한 부분을 수정하고 날인한 인장이 있음. 이 인장은 1959년 3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제10전투비행단 정훈관실에서 복무한 공군 장교 설찬(薛燦)의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그림 18>, <그림 19> 참조)
 - 또한 이후 추가 기록도 보임.(<그림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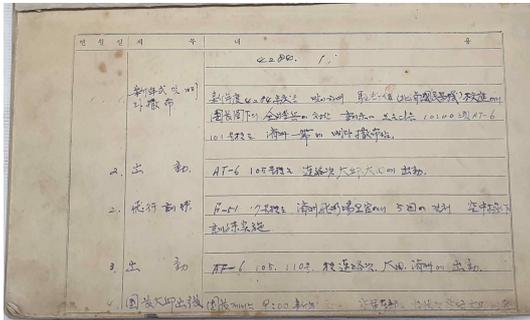
- 가치 : 1951년부터 1955년까지의 각 부대의 주요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군사일지로 로서 희귀자료임.
- 보존상태: 표지부분의 오염과 훼손이 심함, 본체의 열화와 변색이 다소 진행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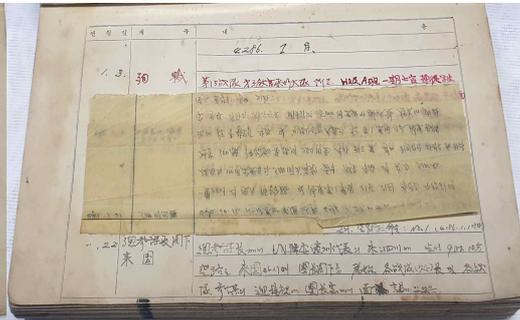
<그림 13> 군사일지 제1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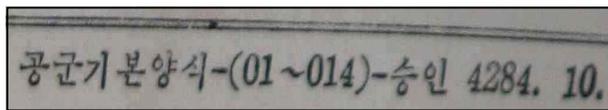
<그림 14> 군사일지 제2권 표지



<그림 15> 군사일지 제1권 1면



<그림 16> 군사일지 제2권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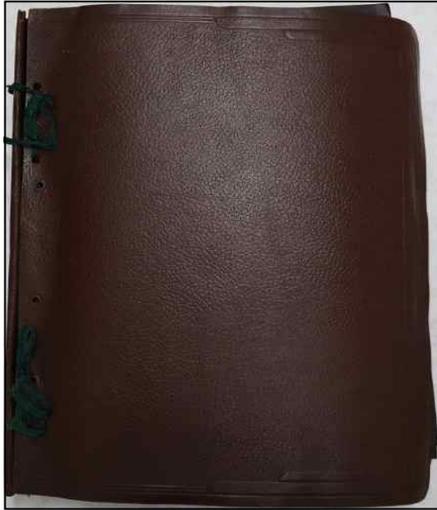
<그림 17> 10비 군사일지의 양식 승인 기록

A형	B형
	
<그림18>	<그림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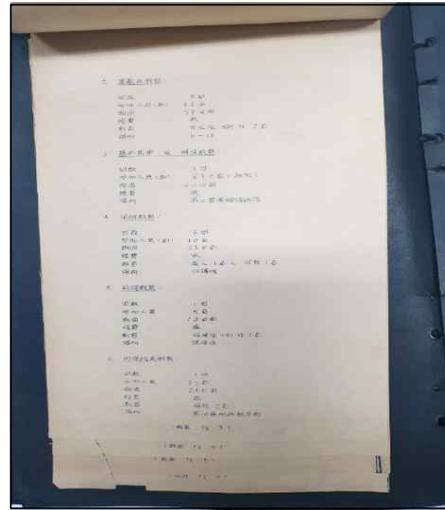
(5) 종합보고서

- 제작연도: 1953년대 제10전투비행단 제작
- 크기: 36 X 29 cm
- 구성: 1점
- 제본: 가제본
- 소장경위: 1979년 3월 21일 제2대 제10전투비행단장 장지량 장군 기증.
- 특징:
 - 제10전투비행단은 6.25 전쟁 시기 공군 강릉기지에서 활약한 비행단임.
 - 1951년 8월 1일 제1전투비행단 소속의 제10전투비행전대를 창설.
 - 공군의 전투 역량을 강릉기지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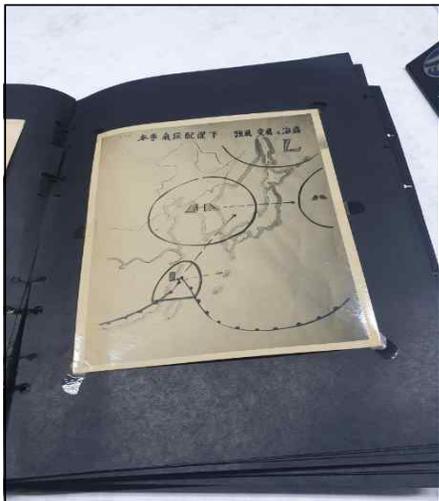
- 9월 28일 강릉으로 전진 및 적진 출격 감행.
-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3년 제10전투비행단으로 독립.
- 휴전 때까지 총 7,851회 전투 출격.
- 수록기간: 1953년 3월 6일부터 12월 31일
- 수록내용: 제10전투비행단이 작전, 정보, 교육, 통신, 기상 등 작전요소를 총망라함. 도면, 문서, 사진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치: 인쇄 또는 촬영 등의 방식으로 편집 및 재작업한 것임.(<그림 20>, <그림 21>,<그림 22>,<그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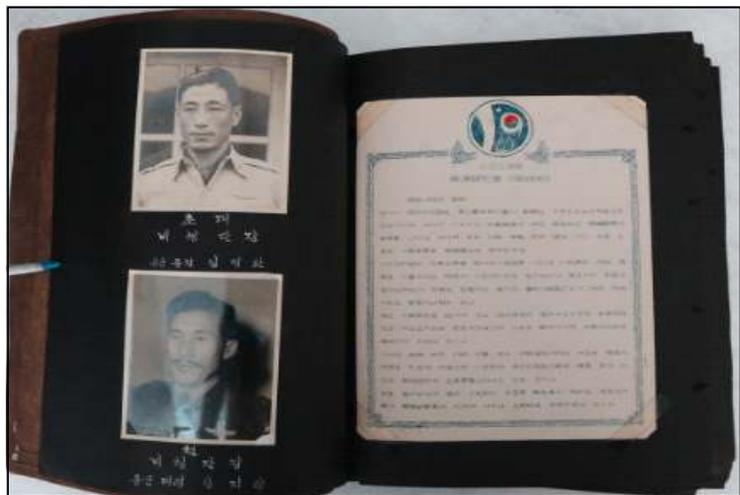
<그림 20> 종합보고서 표지



<그림 21> 종합보고서 내용



<그림 22> 종합보고서 내용



<그림 23> 종합보고서 내용

(6)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

- 제작년도: 미공군 항공지도 제작소에서 1951년 8월 제작된 항공지도임.(<그림 26>, <그림 27> 참조)
- 축척: 1:500,000
- 구성: 1점
- 크기: 84.1 × 98.5 99 cm
- 소장경위 : 1994년 9월 12일 마중인 기증

- 특징

-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
- 북한 중심으로 판넬작업함.(<그림 28>, <그림 29> 참조)
- 발행시기와 축적은 지도에 비친 부분을 찾아 반전시킨 결과임.(<그림 24>, <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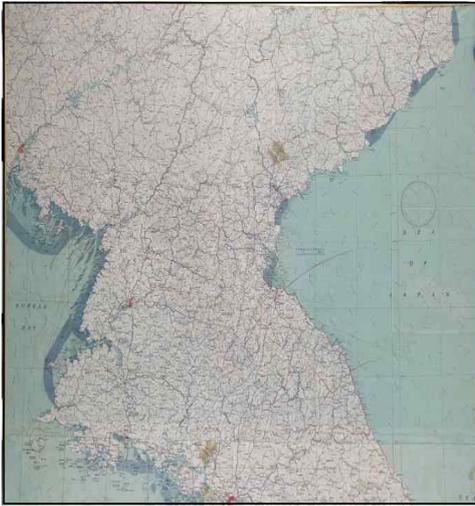
<그림 24> 제작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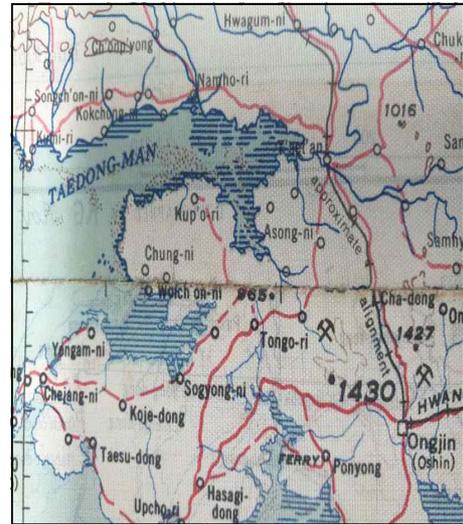
<그림 25> 축적표시

-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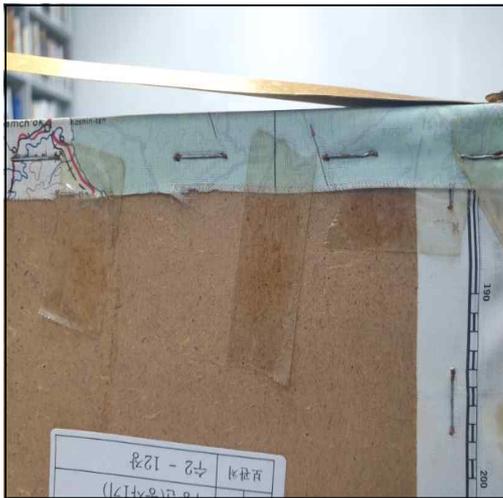
- 당시 인쇄 생산 된 것으로 일정량 이상 보급된 지도이므로 가치는 크지 않음.
- 판넬 작업등으로 훼손이 심함.



<그림 26> 조종사 비상행환용 작전지도



<그림 27> 조종사 비상행환용 작전 지도: 재봉



<그림 28> 판넬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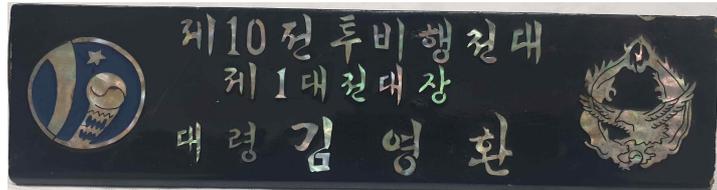


<그림 29> 판넬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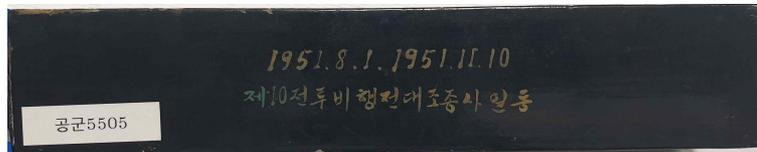
(7) 명패

- 제작 연도: 1953년 10월경
- 구성: 1점
- 크기: 6.5 × 24 × 4.7 × 4.5 cm (세로 × 가로 × 높이 × 밀면)

- 입수경위: 자세하지 않음
- 특징:
 - 김영환 장군 명패임, <그림 30> 참조)
 - 김영환 장군(1921. 1. 8- 1954. 3. 5)은 제10전투비행전대의 초대 비행전대장임.
 - 후면에 '1951, 8. 1. - 1951. 11. 10 제10전투비행전대 조종사 일동' 문구가 있음. (<그림 31> 참조)
- 가치: 개인적 명패로 역사적 가치는 높지 않음



<그림 30> 명패 정면



<그림 31> 명패 후면

나) 6.25 전쟁 강릉기지 공군 군사작전 기록의 가치

(1) 비행기록 수첩

-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와 함께 당시 출격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희귀자료이자 당시 출격의 상황을 기록한 유일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2)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

- 비행기록수첩 기록과 함께 당시 출격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희귀자료이자 당시 출격의 상황을 기록한 유일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3) 조종사의 출격일지

- 6·25 전쟁 당시 한국 전투조종사의 작전상황, 작전준비 등 출격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일지로서 희귀자료이며 유일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4) 10비 군사일지

- 1951년부터 1955년까지의 각 부대의 주요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군사일지로 희귀자료이며 유일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5) 종합보고서

- 종합보고서에 구축되어 있는 문서와 사진 등이 원본인지 분명하지 않음.

(6) 조종사 비상생환용 작전지도

- 대량 인쇄를 통한 대량 제작된 지도이며, 판넬 작업등으로 훼손이 심하며 가치가 크지 않음.

(7) 명패

- 개인의 명패로서 보존의 가치는 높지 않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부 기록자료와 필기류 잉크의 일부 번짐이나 흐려짐 등의 현상에 대한 탈산처리 필요, 손상 등의 보존 처리가 시급함. 그 외에 4) 10비 군사일지의 경우 체본 상태의 보존처리 등이 시급함.

4) 문화재 활용 착안사항

- 한국전쟁 관련 다양한 방면의 연구에의 활용 가치가 높음.
- 전쟁기록물로서 공군의 작전과 전쟁관련 내용 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의 활용 가치가 높음.

5) 등록가치의견

- 1) 비행기록 수첩, 2) 출격을 표시한 작전지도, 3) 조종사의 출격일지, 4) 10비 군사일지의 경우 현재 희귀하며 유일한 자료임.
- 이상은 공군 군사 작전 기록들로 강릉기지의 한국전쟁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의 이해와 연구로서의 가치가 높고, 일반인을 위한 한국전쟁 이해에도 가치가 높음

9. 「6·25전쟁 종군화가 미술작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과천시 소재 「6·25전쟁 종군화가 미술작품」의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6·25전쟁 종군화가 미술작품」은 6·25전쟁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유물 추천('20.1월), 관계전문가 자문('20.3월)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5.18.)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한강도강	1건 1점	34 × 96cm	1950	서울시립미술관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학살	1건 1점	23.8 × 33cm	1951	국립현대미술관장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반공여훈(反共女魂)	1건 1점	77.5 × 114.3cm	1952		
전장의 아이들	1건 1점	90.9 × 72.7cm	1955		
범일동 풍경	1건 1점	39.3 × 51.4cm	1951		
야전병원	1건 1점	116.3 × 90.3cm	1953		
복구-피난에서 돌아와	1건 1점	95 × 185cm	1950년대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1.~2월) : 6·25전쟁 분야 문화재 지자체·관계기관 추천
- ('20.3월) : 6·25전쟁 분야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
- ('20.5.1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5.18.)

- ① 이용노의 '한강도강'은 작가의 조형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고 전쟁 발발 직후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등록가치가 있음. ② 이철이의 '학살'은 민간의 살육 현장을 충격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6·25전쟁의 참혹성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생히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음. ③ 변영원의 '반공여혼'은 당시 6·25전쟁 관련 작품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던 것과 달리 입체과 화풍으로 표현되었으며, 단순한 화풍 모방을 넘어 현실인식이 담겨 있고, 한국사회에 형성된 반공주의가 내포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음. ④ 김영덕의 '전장의 아이들'은 6명의 아이가 맨발인 채로 운집하고 있는 작품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어 등록 검토할 만함.
- ⑤ 박고석의 '범일동풍경'은 피난지인 부산의 외곽지역인 범일동 일대를 그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6·25전쟁을 다소 막연히 다뤘다는 점에서 등록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⑥ 김두환의 '야전병원'은 『Life』誌에 실린 더글러스 던컨(Douglas Duncan)의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린 작품으로 현장감이 떨어지고 인체표현이 미숙하여 등록하기에 다소 미흡함.
- ⑦ 이상범의 '복구-피난에서 돌아와'는 피난 후에 집에 돌아와 폐허를 복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산촌 풍경을 그렸다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음. 그러나 이상범의 친일 행위가 거론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 ○ ○ ('20.5.18.)

- ① '한강도강'은 전쟁 당시 살기 위해 물결이 세찬 한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쟁의 아이러니를 대신하고 있으며, 긴박한 현장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있음. ② '학살'은 직접 작가가 보고 경험한 사건을 작품화한 것으로, 전장의 아픔을 극적으로 기록하였으며, 민간인들의 살육현장을 매우 회화적 기법으로 묘사하였음. ③ '반공여혼'은 전장에 나선 여인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작가의 독창적 미학과 제작기법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모두가 전장에 나서야 했던 당시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

- ④ ‘전장의 아이들’은 험벗은 당시 청소년들의 모습이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전쟁을 서사가 아닌 감성과 상징적으로 묘사하였음. ⑤ ‘범일동 풍경’은 전쟁을 진중한 회화적 방식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작가의 예술적 성정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작가가 피난을 가서 정착한 마을을 묘사하여 사실기록적 측면이 강조됨. ⑥ 야전병원은 다친 모자를 치료해주는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과 기록자로서의 미술의 사회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 ⑦ ‘복구-피난에서 돌아와’는 전쟁 당시 파괴된 현장을 복구하는 소재를 그린 유일한 작품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으며, 전후 복구 의지 같은 새로운 기운을 연상시킴.

○ ○ ○ ○ ('20.5.18.)

- ① ‘한강도강’은 전쟁 당시 피난민을 그린 몇안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수묵화로 기록한 전쟁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화 진흥의 의미가 있음. 또한 관념과 사실이 복합된 동시에 실경을 기록한 작품으로 가치가 있음. ② ‘학살’은 전쟁의 참상을 본인의 경험으로 증명하였고 외면해 온 학살을 소재로 한 드문 작품이며 드로잉이 있어 등록 가치가 있음. ③ ‘반공여혼’은 추상의 진입이 입체파라는 한국현대미술사의 한 현상을 보여주며, 국제적 양상 안에서 한국 미술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④ ‘전장의 아이들’은 전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사실주의적 시선이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유일하며, 작품과 시대상을 증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록 가치가 있음.
- ⑤ 박고석의 ‘범일동 풍경’은 부산 피난시절을 그린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6·25 자체의 기록성은 약하다고 판단됨. ⑥ ‘야전병원’은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사실성이 떨어짐. ⑦ ‘복구-피난에서 돌아와’는 전재복구가 드러나지만 내용 자체는 희소한 것은 아님

마. 의결사항

○ 보류

- 6.25전쟁 관련 미술작품으로 <학살>, <반공여혼>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지만 6.25전쟁 관련 미술작품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

○ 출석 12명 / 원안가결 2명, 보류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6·25전쟁 중군화가 미술작품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313 국립현대미술관
3. 소유자 : 서울시립미술관장 / 국립현대미술관장
4. 조사자 의견('20.5.18.)

<○○○>

1) 한강도강(이용노)



<도판1> 이용노, <한강도강>, 1950.

가)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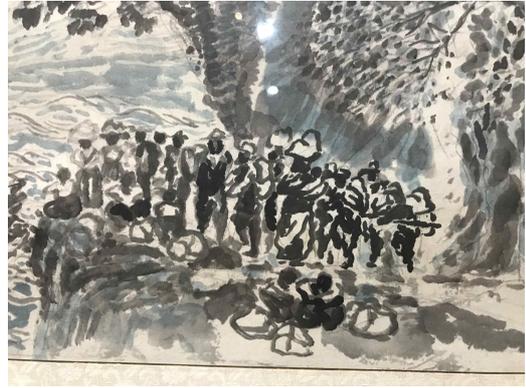
- 보존상태 양호함.

나) 내용 및 특징

- 한지 위에 수묵담채로 산과 물이 가득 그려져 있어서 얼핏 평범한 산수화로 보이지만 화면의 맨 왼쪽에는 한강철교가 작게 묘사되어 있고(도판2) 오른쪽 근경의 바위 주변에 머리에 보따리를 이거나 지고 있는 인물들이 운집해 있음(도판3). 그 바로 아래 강 위에 떠 있는 뗏목 위에는 많은 사람이 몸을 신고 있으며 한 인물이 긴 작대기를 이용하여 뗏목을 끌고 가는 장면임(도판4). 화면의 가운데 부분은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사람을 가득 실은 뗏목들이 그려져 있음.(도판5) 화면 오른쪽 아래 끝에 이용노의 주문방인만이 찍혀 있음.(도판6) 제작연도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림의 내용으로 보아,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에 한강철교가 폭파되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한강을 건넌던 상황을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음. 이용노는 동양화가이지만 현실인식이 강했던 작가로, 실제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즐겨 그렸으며, 6·25전쟁 관련 작품으로는 <서울공습>(1950), <부산피난시절>(1951), <피난>(1952) 등을 남겼음.



<도판2> 이응노, <한강도강> 한강철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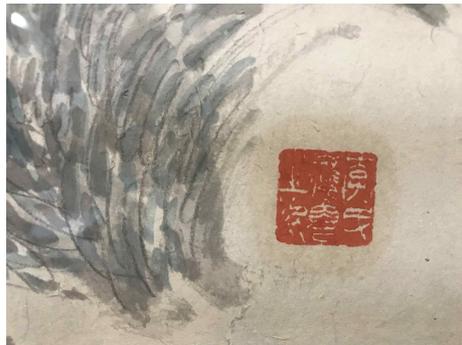
<도판3> 이응노, <한강도강> 인물 부분



<도판4> 이응노, <한강도강> 뗏목 부분 1



<도판5> 이응노, <한강도강> 뗏목부분 2



<도판6> 이응노, <한강도강> 낙관

다) 등록가치의견

- 이응노는 한국 현대화단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도불 후에 동양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는데, 현실 인식이 강하여 일찍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자신의 실제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한 작가임. <한강도강>은 작가의 조형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고 6·25전쟁 발발 직후의 시대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기 때문에 미술사적 의의가 있으며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2) 학살(이철이)



<도판7> 이철이, <학살>, 1951.

가) 현상

- 보존상태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어스름한 달빛 아래에 10여 명의 인물의 모여 있는 장면으로, 얼굴은 거의 드러나지 않음. 근경에 있는 인물의 청색 옷이 두드러지고 간간히 황토색과 붉은색으로 인물이 표현되어 있지만, 대부분 인물은 어두운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음. 그러나 근경에 팔을 벌리고 옷이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는 인물과 손에 칼을 든 인물들이 있어서 학살의 장면임을 짐작할 수 있음. 이 그림은 작가가 철수하는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3개월 만에 생환했는데, 당시 목격한 장면을 토대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그림의 밑그림으로 여겨지는 스케치가 남아 있어(도판8),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기 업은 여인이 곧 살해될 예정임을 짐작할 수 있음. 어두운 밤에 자행된 학살의 장면을 그린 이 작품은 크기는 작지만 6·25전쟁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음.



<도판8> 이철이, <학살> 밑그림

다)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과 관련된 작품이 여러 점 현존하지만, 민간의 살육 현장을 충격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함. 어두운 밤, 비수 같은 칼의 표현,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익명성은 학살의 공포감을 배가시키고 있음. 비록 작품의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6·25전쟁의 참혹성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시대성을 띤 작품으로 국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함.

3) 반공여혼(변영원)



<도판9> 변영원, <반공여혼>, 1952

가) 현상

- 보존상태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손에 총이나 포탄을 든 7명의 인물이 질주하고 있는 장면임. 인물은 구체적인 묘사 없이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이목구비가 생략되어 있으나 눈알과 머리카락만이 표현되어 있음. 특히 훔날리는 머리카락이 강조되어 있어 인물들이 여성임을 알 수 있음. 서명은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검은색으로 “1952. 버니”로 표기되어 있음.(도판10)



<도판10> 변영원, <반공여혼> 부분

- 인체를 단순화하고 쇠기모양으로 분할하여 평면적으로 처리한 점에서 피카소의 인체표현을 연상시키는데, 주제면에서 특히 <게르니카>를 연상시킴. 1937년 스페인 게르니카의 폭격에 대한 분노와 고발의식이 담긴 피카소의 작품은 6·25 전쟁 중에 중군화가로 활동하던 변영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게르니카>는 파괴된 장면을 흑백으로 표현하여 저널리스트적 시각이 강하다면, <반공여혼>은 붉은색과 검은색 배경에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질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보다 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주제를 다루었음. 어두운 배경에 질주하는 흰옷을 입은 여인은 밤에 출몰한 혼령으로 읽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암담한 한국인의 현실을 표현한 작품으로 읽을 수 있음. 즉, 캄캄한 하늘, 검붉은 땅,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의 사선으로 처리함으로써 고통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며, 흰옷을 입고 총을 들고 돌진하는 모습은 한국인의 반공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과 관련된 그림들은 흔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작품은 당시에 전위적이라고 여겨지던 입체파 화풍으로 표현한 점, 단순한 화풍 모방은 넘어서 현실인식이 담겨 있는 점,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 형성된 반공주의가 내포된 점 등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4) 전장의 아이들(김영덕)



<도판11>. 김영덕, <전장의 아이들>, 1955

가) 현상

- 보존상태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황량한 공간에 나이가 달라 보이는 6명의 남녀 아이가 맨발인 채로 운집해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임. 전면에 남자아이는 옷을 벗고 있고 그 외의 아이들은 일상적인 복장을 하고 있음. 아이들은 시선을 각각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서 두려운듯한 표정 짓고 있으며 화면의 한가운데에 있는 붉은 상의를 입은 소년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소년 뒤로는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음. 작가는 “굉음을 지르며 다가오는 전투기의 폭격에 맞서 아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그 공포를 견디는 장면”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김미정, 『1950년대 부산 지역미술의 리얼리즘 경향』,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집, 2011, p. 226), 폭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보임. 인물의 표현에서 커다란 눈, 각이진 얼굴, 붉은 갈색조의 피부색 등 한국인보다는 멕시코 벽화 속의 인물을 연상시킴. 오른쪽 아래 끝에 “應 55”라는 서명이 있음.(도판12)



<도판12> 김영덕, <전장의 아이들> 부분

다) 문헌자료

- 김미정, 「1950년대 부산 지역미술의 리얼리즘 경향」,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집, 2011, pp. 213-235.

라)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 관련 작품은 피난, 폐허 등의 주제가 주로 다뤄진 것과 달리,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임. 6·25전쟁이 끝나고 2-3년 정도 지난 후에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현장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검토할만함.

5) 범일동 풍경(박고석)



<도판13> 박고석, <범일동 풍경>, 1953

가) 현상

- 보존상태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6·25전쟁 중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부산의 외곽지인 범일동 일대를 그린 작품임. 아이를 업고 철길을 건너는 여인들, 거리를 달리는 지프, 나지막한 건물, 전봇대 등이 거칠고 투박한 붓질로 표현되어 있음. 대상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검은 윤곽선을 둘렀으며, 전체적으로 갈색조를 띠고 있어 암울한 피난지의 분위기가 느껴짐. 화면의 오른쪽 아래 끝에 “Park”이라는 검은색 글씨의 서명이 있음.(도판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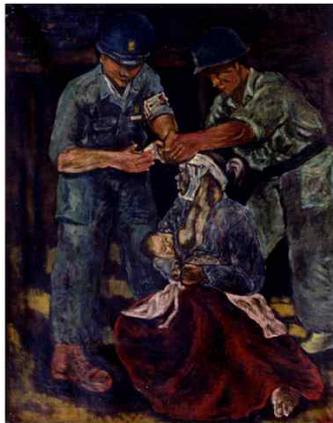


<도판14> 박고석, 범일동 풍경 부분

다) 등록가치의견

- 박고석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이고 피난지의 상황을 표현한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6·25전쟁을 다소 막연히 다뤘다는 점에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6) 야전병원(김두환)



<도판15>. 김두환,
<야전병원>, 1953.

가) 현상

- 보존상태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어두운 배경 속에 두 명의 군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머리부상을 처치하고 있는 장면임. 맨발로 땅에 주저앉아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는 듯한 여인을 두 명의 군인(위생병)이 힘을 합해서 치료하는 장면은 일종의 휴먼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가 이 장면을 실제 목격하고 그린 것은 아니고 당시 『Life』誌에 실린 더글러스 던컨(Douglas Duncan)의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린 작품임. 여인의 검붉은 색 치마는 군인의 군복과 색 대비를 이루어 표현적이지만 인체 묘사가 미숙함.

다) 문헌자료

- ○○○,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군사연구』 130집 (2010), pp. 33-68.

라) 등록가치의견

- 잡지에 실린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렸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지고 인체표현이 미숙하여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함.

7) 복구-피난에서 돌아와(이상범)



<도판16> 이상범, <복구-피난에서 돌아와>, 1950년대

가) 현상

- 보존상태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산기슭에 자리잡은 마을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이상범의 전형적인 필법으로 제작한 수묵화임. 화면의 중경에 파손된 건물과 전경에 쓰러져 있는 나무 등치, 빈 수레 등으로 폐허 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 주로 수묵으로 대상을 묘사 하였으면서도 연두색으로 나뭇잎과 풀잎을 표현하여, 봄의 계절감을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계절의 표현을 넘어 희망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속에 등장한 4명의 인물은 작게 그려져 있지만, 피난 후에 집에 돌아와 폐허를 복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국난을 극복하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 화면의 좌측 하단에 “靑田”이라는 묵서와 주문방인, 백문방인 낙관이 찍혀 있음.(도판17)



<도판17>. 이상범,
<복구> 부분

다)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으로 폐허 된 이미지는 대체로 도시의 건물들이 파괴된 모습으로 표현된 것과 달리, 산촌 풍경을 그렸다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음. 그러나 이상범은 친일적인 행위가 거론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한강도강(이용노)

가) 현상

- 일부 오염이 보이거나 대체적으로 양호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6. 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와 철교가 폭격으로 파괴된 이후의 모습을 포착.
- 당시 목선을 통해 한강을 건너 후방으로 피난을 떠던 사람들과 생계를 위해 서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인 나룻배가 흑석동 인근에 다다른 모습을 묘사
-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룻배에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절절함과 긴장감이 가득함
- 이용노의 속사와 화면의 경영이 매우 잘 드러남.

다) 문헌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저, 『근대를 보는 눈』, 삶과꿈, 서울, 1997,
- 정준모 저,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마로니에북스, 서울, 2014

라) 등록가치의견

- 6.25 전쟁 당시 시민들의 긴장감 넘치는 삶의 모습을 기록
-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결이 세찬 한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전쟁의 아이러니를 대신하는 작품
- 직접 당시 그곳에서 보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긴박한 현장의 모습 생생하게 담고있는 수작.

2) 학살(이철이)

가) 현상

- 합판에 제작된 작품으로 6.25전쟁 당시의 빈한한 재료임.
- 국립현대미술관의 보존처리로 현재 상태는 양호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작가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납북되어 가던 도중 탈출함.
- 이 당시 의정부 인근에서 작가가 직접 목격한 현장을 작품으로 형상화.
- 작품의 크기는 작지만 6. 25 당시의 살육현장을 생생하게 묘사.
- 어두운 밤에 칼을 들고 죽은 자와 죽이는 자들의 모습이 생생함.
- 잔혹한 현장을 표현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해 긴장감을 유발.

다) 문헌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저, 『근대를 보는 눈』, 삶과꿈, 서울, 1997,
- 정준모 저,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마로니에북스, 서울, 2014

라) 기타 : 동 작품의 바탕이 되는 같은 내용의 연필 스케치화가 있음.

마) 등록가치의견

- 직접 작가가 보고 경험한 사건을 작품화 함.
- 작품의 내용은 매우 잔혹하나 전장의 아픔을 극적으로 기록.
-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살육현장을 매우 회화적 기법으로 묘사함.
- 6. 25전쟁 중에 제작됨.

3) 반공여혼(변영원)

가) 현상

- 보존처리를 거쳐 일부 균열이 보이나 대체적으로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6.25 전쟁에 참가한 여성들이 전장을 내닫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
- 전장을 기록함에도 입체파적인 작화태도가 매우 독창적.
- 절제된 색채의 구사
- 초현실주의적으로 다소 과장된 인체의 이목구비의 묘사는 매우 흥미로움.
- 전쟁이라는 사건을 상징적이고 회화적인 기법과 방식으로 재해석

다) 문헌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저, 『근대를 보는 눈』, 삶과꿈, 서울, 1997,
- 정준모 저,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마로니에북스, 서울, 2014

라) 등록가치의견

- 전장에 나선 여인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묘사
- 전쟁을 작가의 독창적인 미학과 제작기법을 재해석
- 모두가 전장에 나서야 했던 당시 긴박한 상황을 묘사
- 전장의 뜻과 의미가 강조된 작품
- 6.25 전쟁중에 제작된 비교적 대작이라는 점.

4) 전장의 아이들(김영덕)

가) 현상

- 작품의 표면에 일부 균열이 보이나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님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험벗은 당시 청소년들의 모습이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 절제된 표현과 색채사용으로 전장의 후방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묘사.
- 전장에 내동댕이 처진 9명의 고아들의 겁먹은 듯한 표정이 압권
- 보호자 없는 고아들이 자기 보호본능 때문에 원형으로 서로 애워싸고 서로를 보호해 주고 있는 인물 배치는 전장의 긴장감을 더욱 확대.

다) 문헌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저, 『근대를 보는 눈』, 삶과꿈, 서울, 1997,
- 정준모 저,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마로니에북스, 서울, 2014

라) 기 타

- 발표당시 원제는 『막아선 아이들』 이란 설이 있음.
- 1997년 이후 작가는 모든 전시 및 문헌자료에 『전장의 아이들』로 표기

마) 등록가치의견

- 1956년 6.25 전쟁 후 부산에서 열린 청맥회 출품작품.
- 전쟁을 서사가 아닌 감성과 상징적으로 묘사한 점
- 전장을 직접 다루지 않고도 전장의 참혹한 현실을 구체적 상징으로 묘사.

5) 범일동 풍경(박고석)

가) 현상

- 육안으로 볼 때 일부 화면에 균열이 있음
- 작품의 상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수복보존처리 이후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6.25 당시 부산 피난 간 박고석의 범일동 피난민들의 일상풍경
- 박고석 특유의 묵직하고 힘 있는 표현주의적인 터치가 특징
- 철길에 아이를 업고 나온 하릴없는 아낙의 모습이 피난민들의 지난한 일상을 상징
- 6.25 전쟁 중에 제작됨.

다) 문헌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저, 『근대를 보는 눈』, 삶과꿈, 서울, 1997,
- 정준모 저,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마로니에북스, 서울, 2014

라) 등록가치의견

- 6.25 전쟁을 매우 진중한 회화적 방식으로 묘사함.
- 전쟁 당시의 상황을 내용으로 하지만 작가의 예술적 성정이 뚜렷하게 나타나 예술성이 뛰어남.
- 특히 작가가 피난을 가서 정착했던 마을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사실기록적인 측면이 강조함
- 6.25전쟁 중에 제작됨

6) 야전병원(김두환)

가) 현상

- 국립현대미술관의 수복보존처리로 작품상태 대체적으로 양호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야전병원에서 다친 모자를 치료해주는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
- 다친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어미의 젖을 차는 아이의 모습이 전쟁과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생각하도록 함
- 세부적인 묘사나 데생이 나이브 하나 그 점이 되려 전장이라는 긴박한 상황을 무게있게 전달.

다) 문헌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저, 『근대를 보는 눈』, 삶과꿈, 서울, 1997,
- 정준모 저,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마로니에북스, 서울, 2014

라) 등록가치의견

- 역사의 기록과 기록자로서의 미술의 사회적 특성이 잘 드러남.
- 종군화가로 전선을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
- 전선에서 일어난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

7) 복구-피난에서 돌아와(이상범)

가) 현상

- 작품의 상태는 매우 양호함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6.25 전쟁당시 부산으로 피난갔던 작가가 서울 누하동 본가로 돌아온 후 전쟁으로 부수진 가옥을 수리하는 모습을 묘사
- 작품 속 성과 등을 보면 실경산수의 대가인 작가의 특징을 살려 누하동의 실제 풍경을 토대로 화면을 구성한 것으로 추정.
- 전장의 긴박함은 덜하지만 전쟁 당시 살 곳을 정비하는 모습이 전쟁의 현실을 상기시킨다는 점은 중요.
- 작가특유의 칼칼한 준법과 화면의 경영이 예술적으로 매우 출중함.
- 특히 부수진 건물의 잔해가 전쟁의 파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건물보수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왜소하게 느껴져 전쟁의 아픔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극적인 부분이 강조됨.

다) 문헌자료

- <https://www.mmca.go.kr/collections/collecstionsDetail.do?menuId=2010000000&wrkMngNo=KO-05409>

라) 기 타

- 작품의 제목은 발굴 당시 미상이었으나 그후 전시과정에서 현 제목으로 명명된 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동 제호를 사용하고있음.
- 따라서 동 제목을 존중해 줄 것을 제안함.

마) 등록가치의견

- 6.25 전쟁 당시 파괴된 현장을 복구하는 소재를 그린 유일한 작품
-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매우 높음.
- 화면전체를 감싸고 있는 연녹색의 기운은 전후 복구의 의지 같은 새로운 기운을 연상시킴.

<○○○>

1) 한강도강(이용노)

가) 현 상

- 먹으로 그린 6.25전쟁 당시 그림
- 보존상태 양호

나) 내용 및 특징

- 6.25전쟁 당시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당했을 당시 경험을 가진 작가의 작품
- 수묵으로 전장의 기록을 보여줌
- 한강의 물결과 사람들이 일체되어 나약한 전쟁 당시 인간상을 보여줌
- 그럼에도 생존을 위해 강을 건너는 이들의 인파를 통해 시대상 증언
- 언뜻 산수화로 보이거나 사실을 기록한 작품
- 피난민, 기다림 등이 가시화한 작품

다) 문헌자료

- ○○○,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 12.

라)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 당시 피난민을 그린 몇 안되는 작품 중 하나
- 수묵화로 기록한 전쟁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화 진흥에서 의미 있음
- 관념과 사실이 복합된 동시에 실경을 기록한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음

2) 학살(이철이)

가) 현 상

- 그림을 보호하는 매트가 큰 유리 액자 보존
- 색채와 표면이 잘 보존되어 있음
- 합판에 유채로 그린 작가 특유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

나) 내용 및 특징

- 작가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
- 작가가 인민군에게 끌려가던 중 본 장면을 후에 그린 것임
- 한밤중에 일어난 전쟁 당시 학살을 주제로 한 유일한 작품
- 학살장면은 이수역의 작품 내에 작게, 그리고 이 작품밖에 없음
- 이 장면을 그리기 위한 드로잉이 존재

다) 문헌자료

- 조은정, 「한국전쟁기 남한미술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연구 - 종군화가단과 유격대의 미술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pp.139 - 194.
- 조은정,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 12.
- 정준모,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화가들이 기록한 6.25』, 마로니에북스, 2014.

라) 기 타

- 등록문화재로 등록가치 높음
- 관념적으로 대하는 전쟁을 사실로 기록
- 경험을 기록한 점에서 6.25전쟁을 대상으로 한 작품 중에서도 독보적임
- 드로잉이 있어 고심한 작품임을 알 수 있음

마)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의 참상을 본인의 경험으로 증명한 작품
- 외면해 온 학살을 소재로 한 드문 작품
- 딱 들어맞지는 않으나 드로잉이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있음



그림 - 이철이 학살 드로잉

3) 반공여훈(변영원)

가) 현 상

- 유리액자에 보존
- 검정색 부분 물감의 균열이 있으나 작품을 감상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님

나) 내용 및 특징

- 전쟁 당시 그림 유화 작품 중 그리 작지 않은 크기임
- 대학을 막 졸업한 작가로서 젊은이의 전쟁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 있음
- 전쟁 중 제작된 얼마 되지 않은 유화작품 중 하나
- 새로운 기법으로서 입체파, 피카소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작품
- 피카소의 전쟁을 기록한 방식에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 작품

다) 문헌자료

- 정준모,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화가들이 기록한 6.25』, 마로니에북스, 2014.
- 조은정, 「 한국전쟁기 남한미술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연구 - 종군화가단과 유격대의 미술인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연구』 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pp.139 - 194.
- 조은정, 「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 12.

라) 등록가치의견

- 추상의 진입이 입체파라는 한국현대미술사의 한 현상을 보여줌
- 국제적인 양상 안에서 한국 미술의 양상 파악

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세계미술사조와 한국미술에 대한 관계 명시
- 국제적인 정세 속의 한국 미술의 양상

4) 전장의 아이들(김영덕)

가) 현 상

- 작품 위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 틀로 가려져 있음
- 보존상태 양호

나) 내용 및 특징

- 전후 상황을 가시화
- 전장의 경험을 사실주의적 양식으로 표현
- 사회를 담은 도전적인 표정 등은 한국 현대미술에서도 드문 작품
- 전후 민족적인 그림들 속에서 그러한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국제적인 양식을 담은 작품
- 화가가 부산 국제신보 기자로 재직하며 취재하던 당시 사회상 반영
- 전쟁을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한 작품으로서 가치가 높음

다) 문헌자료

- 정준모,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화가들이 기록한 6.25』, 마로니에북스, 2014.
- 최영욱, 김창남, 『신영복평전, 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 돌베개, 2019.

라) 기 타

- 그림이 사회활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예
- 신영복의 전언에 따라 미술실에 걸려 있던 것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작품이 확인됨
- 신영복 글 「청구회 추억」의 단서가 되는 그림

마) 등록가치의견

- 전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사실주의적 시선이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거의 유일한 작품
- 작품과 시대상을 증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록 가치가 입증됨

바)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작품

지난 2008년에는 단행본 『청구회 추억』이 출간되었다. 외국인도 읽을 수 있게, 또 영어 공부를 함께할 수 있게 만든 영한 대역판이다. 영어 번역은 성공회대 조병은 교수가 맡았다. 정세현 화백의 따뜻한 삽화가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쇠귀가 이 단행본을 위해 새로 쓴 저자 후기(「청구회 추억의 추억」)에는 당시 아이들이 숙명여대 교수실로 보낸 편지와 쇠귀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원초적 계기를 마련해 준 김영덕 화백의 그림 〈전장의 아이들〉도 실려 있다.

김영덕 화백은 쇠귀가 부산상고에 다닐 때 미술 선생이었다. 당시 미술반이 아님에도 미술반에 자주 들렀던 쇠귀는 김영덕 선생의 〈전장의 아이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는다. [청구회, 115] 이 작품은 김 화백이 부산 『국제신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취재할 때 마주쳤던 떠돌이 전쟁고아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남루하고 불쌍한 전쟁고아들을 그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당시 미군의 썩썩이(전투기)는 전투 지역에 사람만 모여 있으면 저공비행을 하며 기총 소사를 해 댔다. 그림 속 소녀는 마치 대공 경계를 하는 듯하다. 김 화백의 반전(反戰)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의 본래 제목은 <막아선 아이들>이었는데, 전시회 출품 과정에서 <전장의 아이들>이 되었다. 김영덕 화백은 부당한 전쟁이 이어지고, 그 참상을 알면서 순수미술만 할 수는 없어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본래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쇠귀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부산상고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김 화백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 갔다.

그림 2 - 신영복평전2

돌이켜 보면 내가 청구회 어린이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의 작품 <전장의 아이들> 때문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나는 미술반원은 아니었지만 미술 선생님이 좋아서 자주 학교 미술실 안에 마련된 선생님 작업 공간을 찾았다. 그곳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다. 전쟁의 비극과 공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 나 역시 50년대의 아이였지만 그 후 나는 그 그림 속의 어린이들의 표정과 모습을 통하여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출소 후 선생님 벽제 화실에서 다시 그 그림을 만났다. 오랜 세월의 격리 때문이었을까. 놀랍게도 서오릉 길에서 만난 어린이들

이 바로 그 그림 속의 어린이들이란 것을 깨달았다. 진실의 해후 같은 감동이었다. [청구회, 115]

그림 3 - 신영복평전3

5) 범일동 풍경(박고석)

가) 현 상

- 캔버스에 무광유리가 장착되어 있고 나무 액자 장착함
- 표면에 약간의 균열이 있으나 보존에는 무관함
- 색채가 선명하게 보존상태 양호함

나) 내용 및 특징

- 부산 피난시절의 장면을 그린 것임
- 피난지 수도의 모습을 그린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표현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념의 표현임
- 루오와 같은 테두리와 필치로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
- 정확한 지역명을 지닌 작품이라는 의미도 있음

다) 문헌자료

- 정준모,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화가들이 기록한 6.25』, 마로니에북스, 2014.
- 조은정, 「한국전쟁과 지방화단: 부산, 제주, 호남화단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8호, 2010. 11, pp.35-64.
- 조은정, 「한국전쟁기 남한미술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연구 - 종군화가단과 유격대의 미술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pp.139 - 194.
- 조은정,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 12.

라) 기 타

- 부산 피난시절을 그린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음
- 6.25전쟁이라는 상황은 제목을 보아야만 알 수 있음
- 관념적 작품이므로 6.25 자체의 기록성은 약하다고 판단함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유보

마)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의 상황을 드러내기에는 추정을 필요로 함

6) 야전병원(김두환)

가) 현 상

- 유리 액자 안에 보존
- 소장 당시 캔버스가 늘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바로 잡혀 있음
- 보존상태 양호

나) 내용 및 특징

- 김두환이 종군화가단 소속이었을 때 제작한 것임
- 야전병원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정경을 기록한 것으로는 드문 것임
- 더글라스 사진을 보고 제작한 것으로서 당시 종군화가단의 제작방식을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
-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전쟁에 대한 해석을 여성의 숭고한 자세 등으로 성스러운 전쟁을 드러내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시도한 작품

다) 문헌자료

- 조은정,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 12.
- 조은정, 「1950년대 전반 한국미술에서 타자 읽기」, 『미술사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03. 12, pp.119-148.

라) 기 타

- 김두환 사후 작품 기증으로 알고 있음

마) 등록가치의견

- 종군화가단 작품이나 필치가 졸렬함
-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사실성이 떨어짐

7) 복구-피난에서 돌아와(이상범)

가) 현 상

- 유리 액자 안에 보존
- 부분 변색이 있음
- 6.25 전쟁복구를 기록한 동양화로서 규모가 큼

나) 내용 및 특징

- 전재복구를 기록한 대가의 작품
- 동양화에는 많지 않은 전재복구의 주제
- 규모가 크고 작가의 양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실성을 보여줌
- 작가의 이산을 경험한 후 사회에서의 느낌이 담긴 작품으로 추정됨
-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보기드문 사실성을 지닌 작품

다) 문헌자료

- 정준모, 『한국미술,전쟁을 그리다 화가들이 기록한 6.25』, 마로니에북스, 2014

라) 등록가치의견

- 한국화로서 전재복구가 드러나지만 내용 자체는 희소한 것은 아님
- 규모가 큰 화면에 산수화의 느낌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나는 현실감이 주의 깊음

10. 「조선왕조 어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조선왕조 어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왕조 어진」은 6·25전쟁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유물 추천('20.1월) 및 관계전문가 자문('20.3월)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4.17.)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태조어진	1건 1점	311x175.3cm	1900년	문화재청장 (국립 고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	1건 1점	281.5x105.5cm	1935년		
순조어진	1건 1점	313x144.5cm	1900년		
순종어진	1건 1점	254x120.8cm	1928년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등록 명칭 관련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 태조어진
 - 현재 '국보 제317호 태조어진'이 지정되어 있음(푸른색 곤룡포)
 - 따라서 명칭에서 중복되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와 구분되는 명칭 부여 필요
 - 홍룡포본 태조어진
 - 홍포본 태조어진

(3) 추진경과

- ('20.1.~2월) : 6·25전쟁 분야 문화재 지자체·관계기관 추천
- ('20.3월.) : 6·25전쟁 분야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
- ('20.4.17.)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4.17.)

- (태조어진) 태조어진은 영흥 준원전에 봉안되어 있던 붉은색 곤룡포의 태조어진을 이모한 모사본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소개되었다가 1954년 화재로 불에 탄 어진임. 해당 유물은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산물로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근대기 어진의 봉안과 이관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음. 또한 조선시대 붉은색 곤룡포 태조어진의 용상·곤룡포·신발의 색채와 세부문양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복원도를 제작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음.
- (원종어진) 현존하는 조선시대 어진이 많지 않아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나, 적잖이 훼손되었으며, 제작자 김은호의 친일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순조어진) 화재로 화면의 3/4 정도 불에 타버렸고 얼굴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어진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였음.
- (순종어진) 근대기 사진을 활용한 초상화 제작의 대표적 사례이며, 황룡포를 입고 있어 시대성이 있으나, 훼손이 심하며 제작자 김은호가 친일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함.

○ ○ ○ ○ ('20.4.17.)

- 어진은 조선시대 미술 대표 분야인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며 중요시되어 온 왕실회화로 왕조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성을 지님.
- 태조어진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금번 검토 대상 태조어진과 국보317호 뿐으로 희소적 가치가 있으며, 원종어진은 추존왕의 어진으로서 공신상 형식을 취하고 있는 특이성과 희소성이 있음. 순조어진은 원유관에 강사포를 착용한 모습으로 희소성이 있으며, 순종어진은 조선의 마지막 어진 제작 양상을 보여주는 귀한자료이며 화가·제작경위·과정 등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의뢰가 남아 있음.
- 조사된 어진 4점은 비록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완전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 ○○○('20.4.17.)

- 해당 어진들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옮겼다가 1954년 발생한 화재로 손상되었음.
- '태조어진'과 '순조어진'은 왕실의례에 사용되었기에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당대 최고의 솜씨를 지닌 화원들이 제작하여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음. 그러나 화면의 절반이 결실되고 얼굴이 일부만 남아 있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종어진'은 조선시대 어진으로 얼굴을 알 수 있는 것이 태조·영조뿐인 상황에서 추존왕이지만 얼굴을 보여주는 귀한 작품이며, '순종어진'은 대한제국 황제였던 순종의 어진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그러나 원종·순종어진은 제작자인 김은호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으로 인해 논란이 있음.
- 또한 어진은 조선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화재였기에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이라고 보기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조선왕조 어진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3. 소유자 :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4. 조사자 의견('20.4.17)

<○○○>

1) 태조어진

가) 현상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태조어진은 붉은색 곤룡포의 전신정면의좌상(全身正面 椅坐像)이며, 화재로 훼손되어 태조 모습의 왼편 절반 정도만 남아있음.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太祖高皇帝御眞 光武四年庚子移摸”라는 표제가 있는데, 글씨를 화폭에 직접 쓰지 않고 별도의 천을 붙이고 썼음(도판 1). 1954년에 화재로 부분 소실된 어진을 2012년에 보존 처리하여 족자 형식으로 새로 장황을 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은 영홍 준원전에 봉안되어 있던 붉은색 곤룡포의 태조어진을 조석진, 채용신 등이 이모한 모사본임. 원래 1900년 5월에 경운궁에 선원전을 짓고, 영홍 준원전에 모셔져 있는 붉은색 곤룡포의 정면관 전신상의 태조어진을 모사하여 봉안하였으나, 1900년 10월 경운궁 선원전의 화재로 태조어진을 포함한 7왕의 어진이 소실되었음. 그해에 다시 태조어진을 포함하여 7왕의 어진을 모사했고 1901년에 선원전을 다시 건립하여 봉안하였음. 이때 범본은 영홍 준원전에 봉안되어 있던 붉은색 곤룡포의 어진을 한양으로 옮겨와 이모했는데, 그 과정을 기록한 『영정모사도감의궤』(1901)가 남아있음.
- 1920년에 일제강점기에 창덕궁에 신선원전을 건립하고 어진을 모두 옮겨 봉안하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소개했는데, 1954년에 보관창고의 화재로 어진들이 대부분 훼손됨.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태조어진 외에도 영희전과 목청전의 태조어진도 같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 두 어진은 완전히 소실되었음.

다) 문헌자료

-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2015.
- 『궁중서화』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조선시대에 26점 정도의 태조어진을 제작했고 전국 각지의 진전에 봉안 해두었지만, 현재는 1872년에 제작한, 전주 경기전에 있는 푸른색 곤룡포(국보 제317호) 어진

만이 온전히 남아 있음. 2013년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붉은색 곤룡포 어진을 복원모사도를 제작했는데, 그 제작과정에서 1913년에 촬영한 영흥 준원전 태조어진 유리원판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함께 불탄 태조어진은 곤룡포, 신발, 용상, 채전 등의 색채와 세부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음. 특히 왼쪽 눈과 귀가 남아 있어서 어진 제작의 관건인 얼굴표현에서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었음(도판 2). 따라서 본 유물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결국, 현재 국내에는 1872년 전주 경기전의 푸른색 곤룡포의 노년의 태조어진과 2013년 국립고궁박물관의 붉은색 곤룡포의 중년의 태조어진이 남아 있는 셈인데, 불탄 어진은 조선시대 붉은색 곤룡포 태조어진의 복원도를 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였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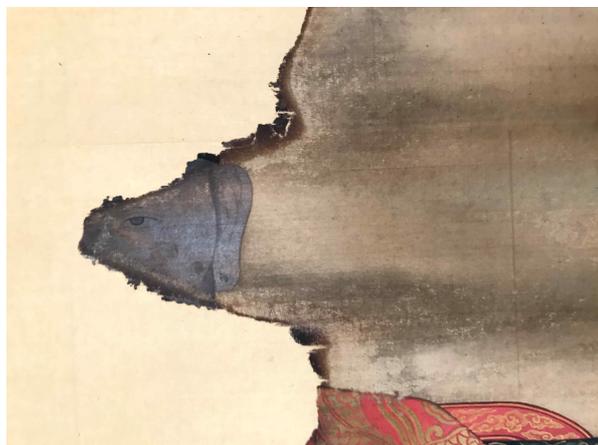
- 또한, 절반가량 소실된 어진은 6.25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물로,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됨. 다시 말해, 일종의 네거티브 문화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완전성을 상실하였고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했다라도,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산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짐. 자랑할만한 ‘보물’만을 문화재로 볼 것인지, 비록 예술성이나 완전성이 훼손되었더라도 역사적 사건을 내포한 유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 태조어진과 관련해서 근대기 태조어진의 봉안과 이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01년에 고종이 경운궁에 신원전을 재건립하고 이 태조어진을 봉안했고, 1908년에 통감부는 ‘향사이정(享祀釐正)에 관한 건’ 칙령으로 다른 진전에 봉안되어 있던 태조어진들 - 한양의 영희전(1688년어진)과 개성의 목청전(조선 초기 어진)- 을 경운궁 선원전에 함께 봉안하도록 했고, 1920년에는 창덕궁 신선원전으로 옮겨 봉안하도록 했음. 6.25전쟁 동안에 부산으로 이 어진들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태조어진들이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고궁박물관 소장 태조어진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어진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는 없더라도, 근대기에 어진의 봉안과 이관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도판 1 - 태조어진



도판 2 - 태조어진



2) 원종어진

가) 현상

- 화면의 오른쪽으로 절반 가까이 화재로 훼손되어 있음. 얼굴과 흥배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흥배에는 백택 문양이 있고 서대를 두르고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얼굴 부분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사모와 관복을 갖춰 입고 교의자에 앉아 발 받침에 발을 올린 자세임을 알 수 있음. 가슴 부분에 백택 문양이 그려져 있는 흥배와 서대(무소뿔로 장식한 허리띠)가 비교적 잘 남아 있음. 바닥에는 화려한 색채와 문양이 있는 채전이 깔려있음. 김은호가 1935년에 모사한 범본은 1872년 원종어진(조중묵, 박기준 등의 화사가 모사에 참여)이었으며, 1872년의 원종어진은 1613년, 원종 생존 시에 제작한 공신 초상화를 범본으로 삼은 모사본이었음.

다) 문헌자료

-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2015.
- 『궁중서화』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현존하는 조선시대 어진이 많지 않아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나, 적잖이 훼손되었으며, 제작자 김은호는 친일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음.

3) 순조어진

가) 현상

- 화면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버렸지만 화면 오른쪽 상단에 “純祖肅皇帝御眞 光武四年庚子移摸”라고 적힌 표제가 손상되지 않았음. 원유관의 일부와 귀 부분이 남아 있으며, 바닥에 깔린 화문석에서 용 문양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화면의 3/4 정도가 불에 타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으나 표제에 적힌 내용으로 1900년에 순조어진을 모사했음을 알 수 있음. 어진 모사에 참여한 화가는 조석진, 채용신 등이었음. 타다 남은 부분을 통해서 원유관에 강사포를 착용하고 교의자(交椅子)에 앉아 있는 모습이며 발은 받침대에 올린 상태임을 알 수 있음. 강사포의 옷주름에 음영을 넣고 있으며 바닥에는 용 문양이 있는 화문석이 깔려 있음.

다) 문헌자료

-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2015.
- 『궁중서화』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화재로 화면의 3/4 정도 불에 타버렸고 얼굴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어진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였음.

4) 순종어진

가) 현상

- 화면의 오른쪽으로 1/3 정도 불에 탔고 표제는 남아있지 않음. 익선관과 황룡포를 착용한 황제가 금빛 교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임. 금빛의 발받침에 발을 올리고 있으며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화면의 오른쪽이 불에 타버려 표제가 남아 있지 않으나 익선관과 황룡포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황제의 어진임을 알 수 있음. 얼굴 부분이 그을려 있으나 오른쪽 눈과 입이 남아 있어서 순종황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얼굴의 이목구비가 구체적이고 명암이 표현되어 있어 어진을 제작할 때 김은호는 순종의 사진을 범본 삼아 그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이 어진 1928년 순종과 순명효황후의 부묘례를 행하면서 제작된 것이며 그 후에 선원전에 봉안되었던 어진으로 알려져 있음.

다) 문헌자료

-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2015.
- 『궁중서화』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근대기에 사진을 활용한 초상화 제작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황룡포를 입고 있어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훼손이 심한 편이고 제작자 김은호가 친일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함.

<○○○>

1) 태조어진

가) 현상

- 1921년 건립된 창덕궁 신선원전 제1실에 봉안되었던 본(本)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란을 피해 부산 동광동에 있던 국립국악원 창고로 옮겨져 임시 보관되어 있었는데 1954년 화재로 인해 좌측 절반 정도가 훼손된 상태임. 이후 창덕궁에 보관되어 오다가 1992년 12월 덕수궁 내의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옮겨졌으며 2005년 8월 현재 위치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짐.
- 2012년 국립고궁박물관이 수행한 ‘소장유물 긴급보존처리’ 사업(참여 기관: 정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보수되어 전체적으로 현재의 보존 상태는 양호함. 원래는 반소(半燒)된 상태의 어진 화면이 액자에 보관되어 있었고 분리된 원래 장황은 따로 보관되어 있었음. 보존처리 시 남아 있던 원장황을 참조하여 유소(流蘇), 낙영(落纓), 상·하 회장(回裝), 가장자리(邊兒), 상·하 축(軸), 금구(金具) 등을 새로 제작하고 원래의 족자 형식으로 복원함.
- 조사된 <태조어진>은 말린 상태에서 불에 탄 흔적이 화면에 뚜렷하며 화면은 우측 50% 정도(가로 폭 72.5cm)만 남아 있음. 다행히 표제(標題)와 눈·귀 부분을 포함한 태조 얼굴이 1/4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음. 다만 태조의 얼굴 부분이 은 검게 그을린 상태임.
- 바탕은 전반적으로 붉고 푸르게 안료가 이염되고 얼룩이 많은데 화재를 당했을 때 물에 의해 장황의 비단·유소·낙영 등에서 번진 것으로 생각됨.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조선왕조의 제1대 국왕 태조(1335-1408, 1392-1398 재위)의 어진으로 홍색 곤룡포(袞龍袍)에 흑화(黑靴)를 착용하고 두 손을 모은 채 정면관으로 용상에 앉아 있는 자세임. 의뢰에 의해 제작에 참여한 주관화사는 조석진(趙錫晉, 1853-1920)과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며 동참화사는 전수묵(全修默), 백희배(白禧培, 1837-?), 윤석영(尹錫永), 조재흥(趙在興), 박용훈(朴鏞薰, 1841-?), 서원희(徐元熙, 1862-?), 홍의환(洪義煥), 이기영(李祺榮, 1852-?), 김기락(金基洛), 강필주(姜弼周, 1852-1932), 김제순(金濟淳), 이경환(李慶桓), 유의련(劉義連) 등임을 알 수 있지만 동참화사 중에 누가 태조어진 제작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붉은 비단의 제침에는 “太祖高皇帝御眞 光武四年 庚子移摸”라 표제가 쓰여 있어서 이 초상이 대한제국기인 1900년에 이모된 태조 초상화임을 알 수 있음. 태조의 얼굴은 왼쪽 귀와 눈 부분이 남아있는데 어진박물관 소장 국보 제317호 <태조어진>과 비교하면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음.
- 곤룡포에는 금색 용무늬 흉배가 있으며 옆트임 부분을 보면 곤룡포 안감은 남색이며, 녹색 겹감에 붉은 안감은 댄 답호(襜褕)를 입고 청색의 철릭(帖裏)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복식 표현은 색깔만 다를 뿐 국보 제317호와 흡사하며 주칠 용상의 형제(形制)·문양·장식, 채진(彩氈)의 문양 패턴도 색깔만 다를 뿐 국보 제317호와 거의 흡사함.
- 조사된 <태조어진>은 1900년 음력 윤8월 21일 화재로 경운궁 선원전 내에 봉안되었던 일곱 왕(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현종)의 어진이 모두 소실되어 이 어진들을 중수할 때 제작된 것 중의 하나임. 모사의 범본이 되었던 것은 함경남도 영흥의 준원전(濬源殿) 소장되어 있던 익선관(翼善冠) 본(현재 1913년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이 남아 있음)으로 1838년에 이모된 것임. 1838년 제작된 본은 1837년 준원전에 도둑이 들어 어진이 훼손되었으므로 새로 제작한 것인데, 이때 범본으로 삼은 것은 당시로서는 원래 태조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진 준원전의 또 다른 소장본이었음. 따라서 조선 초기의 모습을 간직한 준원전 소장본을 1900년에 이모한 조사 대상 <태조어진>도 조선 초기의 태조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됨.



조석진·채용신 외, <태조어진>, 1900년, 비단에 채색, 220.0×147.7cm, 국립고궁박물관.



<태조어진>의 표제 부분

다) 문헌자료

- 『影幀摹寫都監儀軌』, 1901년, 국립고궁박물관.
- 조선미, 『어진, 왕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궁중서화 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 III-태조어진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2017.

라)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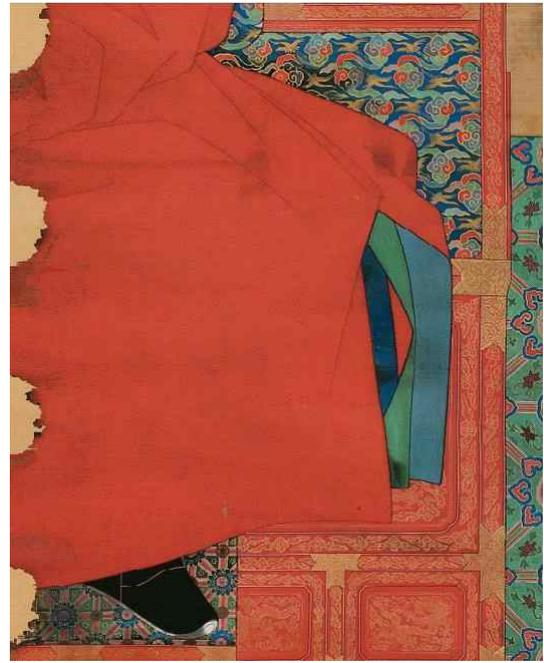
- 어진박물관 소장 국보 제317호 <태조어진>과 명칭에서 중복되며 혼동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홍릉포본 태조어진’ 혹은 ‘홍포본 태조어진’과 같이 국보 제317호 <태조어진>과 구별되는 명칭의 조정과 부여가 필요함
- 제작 시기를 표기할 때, 연구자마다 음력 일자를 취하기도 하고 양력 일자를 취하기도 하므로 제작연도 표기에 논의가 필요함. 어진 제작 당시는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하던 시기인데 실록은 양력, 의궤 및 승정원일기는 음력으로 표기함. 조사 대상 <태조어진>은 1900년에서 1901년에 걸쳐 경운궁 선원전에 봉안할 7조 어진 제작의 일환으로 그려진 것으로, 의궤 기록에 의하면 태조어진은 음력 1900년 윤8월(양력 10월)에 제작에 들어가 음력 12월에 완성되고 양력 일자로는 1901년 완성임.

마) 등록가치의견

- 조선시대 초상화는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표적 분야의 미술품이며 그중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제작한 어진은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작기법, 탁월한 예술성, 높은 완성도를 가짐. 또한 어진은 가장 중요시되어 온 왕실회화로서 왕조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성을 지님.
- 조선시대에 어진은 많이 그려졌지만 현재 20점(비공식적으로 제작된 고종어진 2점과 일본인이 그린 고종어진 제외)이 남아 있음. 완전한 것은 1900년 제작의 <영조어진>(보물 제932호)과 1872년 제작의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등 두 점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탄 흔적을 가지고 있음. 그중에서 훼손 부분이 적은 <연잉군초상>(1714년 제작)과 <철종어진>(1861년 제작)은 각각 보물 제1491호와 제1492호로 지정되어 있음.
- 신선원전 12실에만 총 48점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왕실에서 어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음.
- 어진 중에서도 조선을 개국한 창업주인 태조 어진은 다른 어느 왕보다 많이 제작 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16세기 중엽 선원전에 봉안된 태조어진만 26점이었던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국보 317호와 이번 조사대상의 <태조어진> 뿐이므로 희소적인 가치가 있음.
- 따라서 조사된 <태조어진>이 비록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완전성이라는 요건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희소적인 면에서 가치가 크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태조어진> 얼굴 부분



<태조어진> 복식 부분



영흥 준원전 태조어진 유리원판 사진

2) 원종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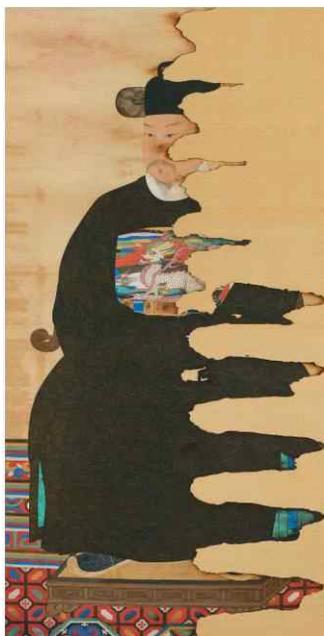
가) 현상

- 1921년 건립된 신선원전 제3실에 소장되어 있던 본(本)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란을 피해 부산 동광동에 있던 국립국악원 창고로 옮겨져 임시 보관되어 있었는데 1954년 화재로 인해 화면 우측 절반 정도가 훼손된 상태임. 그후 창덕궁에 보관되어 오다가 1992년 12월 덕수궁 내의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옮겨졌으며 2005년 8월 현재 위치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짐.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30여년 전에 죽자로 한번 개장되었으므로 어진 제작 당시의 원래 상황 형태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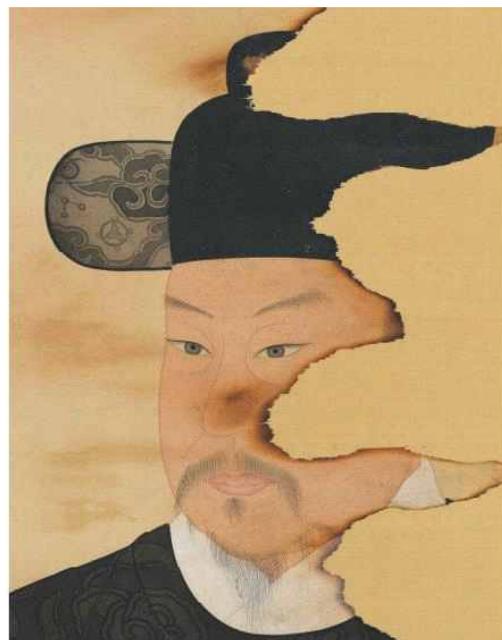
- 현재 남아 있는 화면 좌측 부분은 가로 폭이 67cm 정도임. 바탕 화면은 화재 시 열화로 인한 황변 현상이 보이며 꺾임 현상도 있고 안료가 이염되어 얼룩이 있음. 그러나 2012년 국립고궁박물관이 수행한 ‘소장유물 긴급보존처리’ 사업(참여 기관: 장항문화재연구소)을 통해 보수되어 전체적으로 현재의 보존 상태는 양호함.
- 2012년 보존처리 시 유소(流蘇), 낙영(落纓), 상·하 회장(回裝), 가장자리(邊兒), 상·하 축(軸), 금구(金具) 등을 새로 제작함.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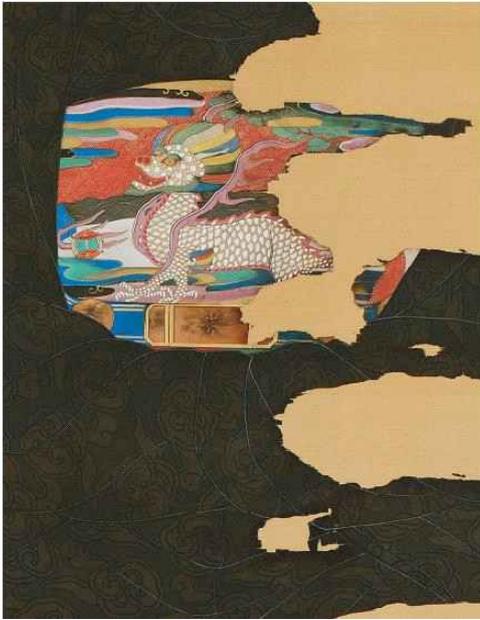
- 원종(元宗, 1580-1619)은 조선의 제16대 국왕인 인조의 생부로 사후에 왕으로 추존됨. 원종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에, 1613년에는 임해군(臨海君)의 역모사건을 다스린 공로로 익사공신(翼社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아들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이 됨. 1632년(인조 10)에 원종이라 묘호가 정해지고 1635년에 종묘에 부모됨.
- <원종어진>은 다른 어진들과는 달리 오사모(烏紗帽)에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공수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 상임. 흉배는 왕자임을 상징하는 백택(白澤) 문양이며 1품을 나타내는 서대(犀帶)를 두름. 바닥에 깔린 채전(彩氈)의 문양, 팔자형(八字形)으로 놓인 발, 단령의 틈새로 보이는 속옷, 의자 손잡이 등의 특징은 전형적인 17세기 공신초상의 형식임. 원종은 추존왕이므로 생전에 어진을 도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원종어진>은 공신 책록 때 받은 공신초상을 범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임.
- 원래 신선원전에는 원종어진이 1872년에 제작된 한 점밖에 없었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1935년 4월부터 1936년 1월까지 한 점이 더 모사됨. 범본이 삼았던 것은 신선원전에 있던 원종어진이었음. 두 점 모두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훼손되었는데 1872년에 제작된 원종어진은 얼굴 부분이 모두 불에 타 알아볼 수 없으며 단지 표제를 통해 원종 어진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처음에는 조사대상 <원종어진>은 표제가 있는 우측 절반이 불에 탄 상태였으므로 누구의 초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문헌기록을 검토하고 현재 남아 있는 두 본을 비교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어진은 1935년 김은호(金殷鎬, 1892~1979)와 조수 장운봉(張雲鳳)이 이모한 <원종어진>임을 밝혀냄.



김은호 외, <원종어진>, 1935년, 비단에 채색, 193.2×90.8cm, 국립고궁박물관.



<원종어진>의 얼굴 부분



<원종어진>의 흥배 부분



<원종어진>의 신발, 답장, 채전 부분

다) 문헌자료

- 『影幀摹寫都監儀軌』, 1901년, 국립고궁박물관.
- 조선미, 『어진, 왕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궁중서화 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 III-태조어진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2017.

라) 등록가치의견

- 조선시대 초상화는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표적 분야의 미술품이며 그중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제작한 어진은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작기법, 탁월한 예술성, 높은 완성도를 가짐. 또한 어진은 가장 중요시되어 온 왕실회화로서 왕조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성을 지님
- 조선시대에 어진은 많이 그려졌지만 현재 20점(비공식적으로 제작된 고종어진 2점과 일본인이 그린 고종어진 제외)이 남아 있음. 완전한 것은 1900년 제작의 <영조어진>(보물 제932호)과 1872년 제작의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등 두 점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탄 흔적을 가지고 있음. 그중에서 훼손 부분이 적은 <연잉군초상>(1714년 제작)과 <철종어진>(1861년 제작)은 각각 보물 제1491호와 제1492호로 지정되어 있음.
- 신선원전 12실에만 총 48점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왕실에서 어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음.
- <원종어진>은 추존왕의 어진으로서 공신상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이성과 희소성이 있음.
- 따라서 조사된 <원종어진>은 비록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완전성이라는 요건에는 부족하지만 현재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희소적인 면에서 가치가 크므로 지금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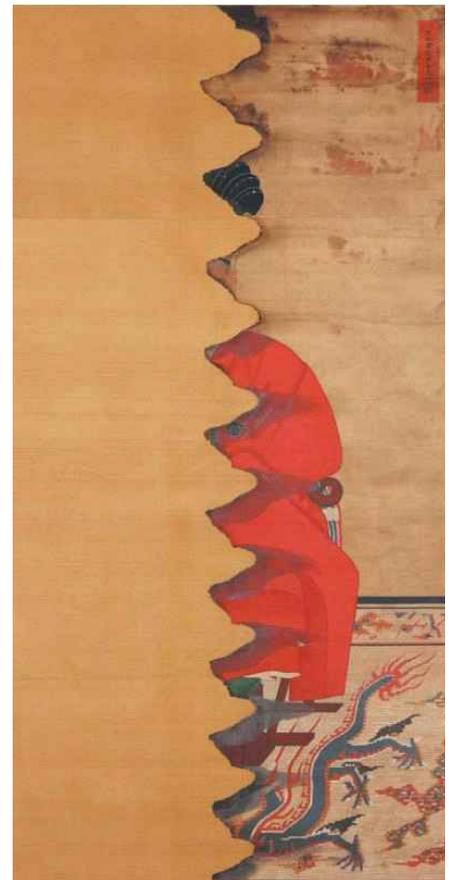
3) 순조어진

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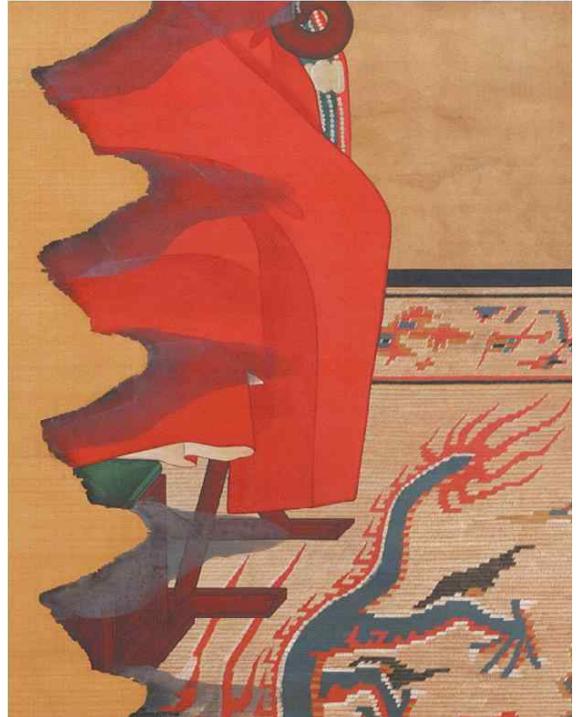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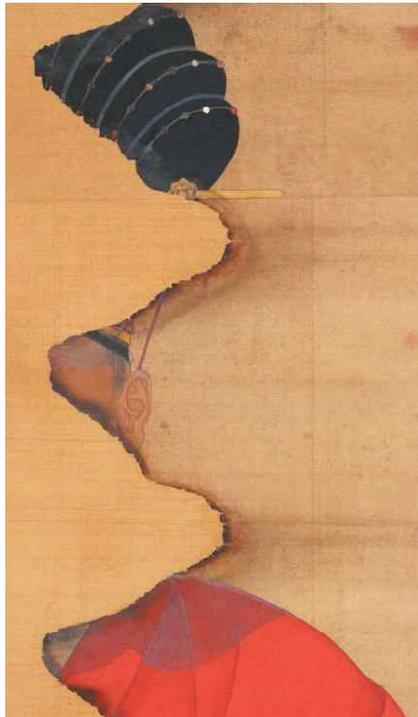
- 1921년 건립된 창덕궁 선선원전 제1실에 봉안되었던 본(本)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란을 피해 부산 동광동에 있던 국립국악원 창고로 옮겨져 임시 보관되어 있었는데 1954년 화재로 인해 좌측 절반 정도가 훼손된 상태임. 이후 창덕궁에 보관되어 오다가 1992년 12월 덕수궁 내의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옮겨졌으며 2005년 8월 현재 위치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짐.
- 2012년 국립고궁박물관이 수행한 ‘소장유물 긴급보존처리’ 사업(참여 기관: 정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보수되어 전체적으로 현재의 보존 상태는 양호함. 보존처리에 남아 있던 원장황을 참조하여 유소(流蘇), 낙영(落纓), 상·하 회장(回裝), 가장자리(邊兒), 상·하 축(軸), 금구(金具) 등을 새로 제작하고 원래의 족자 형식으로 복원함.
- 조사된 <순조어진>은 말린 상태에서 불에 탄 흔적이 화면에 뚜렷하며 화면은 우측 50% 정도만 남아 있음. 다행히 붉은 비단에 쓴 표제(標題)가 남아 있어서 이 그림이 순조어진임을 알 수 있으며 귀 부분을 포함한 순조 얼굴 부분이 약간 남아 있음.
- 바탕은 전반적으로 열에 의한 항변, 안료의 이염, 얼룩, 가로 꺾임 등이 남아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조선왕조의 제23대 왕인 순조(純祖, 1790-1834, 1800-18034 재위)의 어진으로 1900년에서 1901년에 걸쳐 경운궁 선원전에 봉안할 7조 어진(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현종) 제작의 일환으로 그려진 것임.
- 원유관(遠遊冠)에 홍색 강사포(絳紗袍)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 의상임. 바닥에는 용문양이 있는 화문석이 깔려 있음. 화면 우측에는 적색 제첩에 “純祖肅皇帝御眞 光武四年庚子移摸”라고 표제가 쓰여 있음.
- 범본이 되었던 어진은 당시 영희전에 봉안되어 있던 1830년 제작의 원유관본이었으며 주관화사는 조석진(趙錫晉, 1853-1920)과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며 동참화사는 전수묵(全修默), 백희배(白禧培, 1837-?), 윤석영(尹錫永), 조재흥(趙在興), 박용훈(朴鏞薰, 1841-?), 서원희(徐元熙, 1862-?), 홍의환(洪義煥), 이기영(李祺榮, 1852-?), 김기락(金基洛), 강필주(姜弼周, 1852-1932), 김제순(金濟淳), 이경환(李慶桓), 유의련(劉義連) 등임을 알 수 있지만 동참화사 중에 누가 순조어진 제작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조석진·채용신 외, <순조어진>, 1900년,
비단에 채색,
215.6×117.5cm,
국립고궁박물관.



<순조어진>의
표제 부분

<순조어진> 얼굴 및 원유관 부분

<순조어진> 채전 부분

다) 문헌자료

- 『影幀摹寫都監儀軌』, 1901년, 국립고궁박물관.
- 조선미, 『어진, 왕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궁중서화 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라) 기타

- 제작시기를 표기할 때, 연구자마다 음력 일자를 취하기도 하고 양력 일자를 취하기도 하므로 제작연도 표기에 유념해야 함. 어진 제작 당시는 공식적으로 양력을 채택하던 시기인데 실록은 양력, 의궤 및 승정원일기는 음력으로 표기함. 조사대상인 <순조어진>은 1900년에서 1901년에 걸쳐 경운궁 선원전에 봉안할 7조 어진(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 제작의 일환으로 그려진 것이므로 제작시기를 사업이 시작된 1900년으로 볼 것인지 사업이 완료된 1901년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마) 등록가치의견

- 조선시대 초상화는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표적 분야의 미술품이며 그중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제작한 어진은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작기법, 탁월한 예술성, 높은 완성도를 가짐. 또한 어진은 가장 중요시되어 온 왕실회화로서 왕조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성을 지님.
- 조선시대에 어진은 많이 그려졌지만 현재 20점(비공식적으로 제작된 고종어진 2점과 일본인이 그린 고종어진 제외)이 남아 있음. 완전한 것은 1900년 제작의 <영조어진>(보물 제932호)과 1872년 제작의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등 두 점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탄 흔적을 가지고 있음. 그중에서 훼손 부분이 적은 <연잉군초상>(1714년 제작)과 <철종어진>(1861년 제작)은 각각 보물 제1491호와 제1492호로 지정되어 있음.

- 신선원전 12실에만 총 48점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왕실에서 어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음.
- 조상 대상 <순조어진>은 원유관에 강사포를 착용한 모습으로 희소성이 있음.
- 따라서 조사된 <순조어진>이 비록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완전성이라는 요건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희소적인 면에서 가치가 크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순종어진

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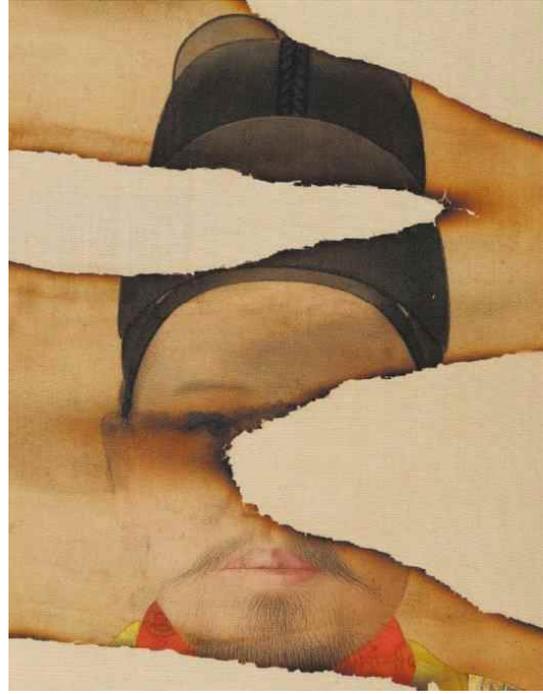
- 1921년 건립된 창덕궁 신선원전 제12실에 봉안되었던 본(本)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란을 피해 부산 동광동에 있던 국립국악원 창고로 옮겨져 임시 보관되어 있었는데 1954년 화재로 인해 우측 1/3 정도(남아 있는 부분 가로 폭은 약 78cm)가 불규칙하게 훼손된 상태임. 그후 창덕궁에 보관되어 오다가 1992년 12월 덕수궁 내의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옮겨졌으며 2005년 8월 현재 위치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짐.
- 2013년 국립고궁박물관이 수행한 ‘소장유물 긴급보존처리’ 사업(참여 기관: 장항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보수되어 전체적으로 현재의 보존 상태는 양호함. 보존처리할 때 기존에 남아있던 회장(回裝) 일부, 유소(流蘇), 낙영(落纓) 등을 참조하여 어진의 위상에 맞게 반소되기 이전의 상황 상태로 복원함.
- 열화에 의해 화면은 황변이 진행되었고 유소 및 낙영에서 이염된 청색 및 적색 얼룩이 바탕에 번져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공수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정면관의 전신좌상임.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고 흑화(黑靴)를 신은 발을 올려 놓은 답장도 황색임.
- 표제가 있는 화면의 우측 부분이 소실되어 누구의 초상인지 알 수 없지만 황색 곤룡포를 입은 점으로 대한제국기 황제이며, 순종황제의 초상사진을 근거로 이 초상화는 조선왕조 마지막이자 제27대 왕인 순종(純宗, 1874-1926, 1907-1910 재위)의 어진임을 알 수 있음. 또 제작 과정을 기록한 『순종효황제순명효황후 부모주감의궤(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를 통해 이 어진을 1928년 주관회사 김은호(金殷鎬, 1892-1979)와 동참회사 안명준(安明濬) 및 백윤문(白潤文, 1906-1979)이 그렸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된 <순종어진> 제작에 범본이 되었던 것은 1909년(융희 3)에 이와다(岩田)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음도 의궤를 통해 알 수 있음. 사진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전 세대의 어진화사인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나 조석진(趙錫晉, 1853-1920) 등이 그린 화풍과는 다르게 김은호는 붓질이 드러나지 않게 매우 부드럽게 입체감을 살려 그림.
- 범본이 된 사진은 군복 차림이므로 진전(眞殿) 봉안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복식은 의례용 어진에 맞는 익선관과 곤룡포로 바꾸어 그림.



김은호 외, <순조조어진>, 1928년, 비단에 채색,
171.4×94.9cm, 국립고궁박물관.



<순조조어진>의 얼굴 부분



<순조조어진>의 답장, 채전 부분



범본이 된 순종사진, 1909년 촬영

다) 문헌자료

- 『影幀摹寫都監儀軌』, 1901년, 국립고궁박물관.
- 조선미, 『어진, 왕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궁중서화 II』, 국립고궁박물관, 2019.
-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 III-태조어진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2017.

라) 등록가치의견

- 조선시대 초상화는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표적 분야의 미술품이며 그중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제작한 어진은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작기법, 탁월한 예술성, 높은 완성도를 가짐. 또한 어진은 가장 중요시되어 온 왕실회화로서 왕조의 정통성과 왕실의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성을 지님.
- 조선시대에 어진은 많이 그려졌지만 현재 20점(비공식적으로 제작된 고종어진 2점과 일본인이 그린 고종어진 제외)이 남아 있음. 완전한 것은 1900년 제작의 <영조어진>(보물 제932호)과 1872년 제작의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등 두 점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에 탄 흔적을 가지고 있음. 그중에서 훼손 부분이 적은 <연잉군초상>(1714년 제작)과 <철종어진>(1861년 제작)은 각각 보물 제1491호와 제1492호로 지정되어 있음.
- 신선원전 12실에만 총 48점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왕실에서 어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음.
-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서 순종어진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었지만 조선왕조의 어진 제작 전통에 따라 진전 봉안용으로 만들어진 것임. 조선왕조의 마지막 어진 제작 양상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어진 제작과 관련된 의례가 남아 있어 제작 화가, 제작 경위 및 과정 등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음.
- 따라서 조사된 <순종어진>이 비록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완전성이라는 요건은 다소 부족하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희소적인 면에서 가치가 크므로 지금이라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1) 태조어진

가) 현상

- 한 점 내리단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붉은 색 곤룡포를 입은 채, 용상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전신좌상임. 화면의 2/5 높이까지 채전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그 위의 붉은 용상이 놓여 있으며 나머지 배경은 생략되었음.
- 우측 상단에는 직사각형의 붉은 비단으로 된 표제가 부착되어 있는데, “太祖高皇帝御眞 光武四年 庚子移摸”라고 묵서로 적었음.
- 표제의 붉은 색이 바랬으며 아래로 변진 흔적이 있고, 화면 윗부분에도 회장의 푸른색이 변진 얼룩이 있음.
- 화면의 좌측 절반이 불에 타 소실되었는데, 화측으로 말려있을 때 한 쪽이 손상되어 반원형 모양으로 타들어간 흔적이 세로 방향으로 반복되어 나타남.
- 현재 상황은 2012년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하면서 새로 제작한 것인데 남아 있던 회장비단, 낙영, 유소, 상하축 등을 참고하여 제작했음.
- 그림은 안정적인 상태이며 별도의 오동나무 보관상자가 있음.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조선의 창업주인 태조의 어진은 국초부터 제작되어 함흥, 평양, 경주, 개성, 한성, 전주 등 전국 여섯 곳의 진전에 모셔졌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란과 화재 등으로 손상과 이모를 거듭하여 현재는 전주 경기전의 태조어진만 온전히 남아 전함.
- 고종은 1897년 경운궁에 새로 선원전을 세우고 경복궁으로부터 여섯 왕(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의 어진을 이안하여 봉안했으며, 1900년 5월에 영홍 준원전본을 바탕으로 태조어진을 모사하여 경운궁 선원전 제1실에 봉안했음. 그러나 그해 10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곱 어진이 모두 불타버렸고, 이에 다시 건물을 짓고 어진들을 모사했음.
- 이 태조어진의 경우 1900년 11월25일(음력 10월4일; 경자년 광무4년) 유지본에 모사작업 시작하여 12월15일 비단 정본에 채색을 완료하고, 12월22일 표제를 작성하여 완성함. 이후 나머지 어진들도 완성한 후, 이듬해 1901년 6월에 다시 선원전에 봉안함.
- 당시 태조어진의 모사에는 주관화사로 조석진(1853-1920), 채용신(1850-1941)이 참여하였는데, 제작과 관련해서는 1901년에 간행한 『영정모사도감의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이후 태조어진을 비롯한 어진들은 1921년 창덕궁의 신선원전으로 옮겨 봉안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옮겨졌는데, 1954년 12월26일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손상되었음. 태조어진은 畫軸의 형태로 말려있던 상태라서 원편 절반 정도가 타들어간 형상이며, 얼굴에서는 한쪽 눈과 귀가 가까스로 남았으나 불길에 그을려 어둡게 변한 상태임.
- 경기전 태조어진이 푸른 곤룡포에 노년의 모습인 반면, 이 태조어진은 붉은 곤룡포에 장년의 모습이기에 원래는 검은 수염으로 표현되었음. 채전의 복잡한 무늬와 용상의 금박장식, 곤룡포의 자수 문양이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었음.

다) 문헌자료

- 조인수, 「전통과 권위의 표상: 고종대 태조 어진과 진전」, 『미술사연구』 20, 2006
-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 2013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 III』, 2017
-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서화 II』,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조석진, 채용신필 태조어진은 선원전에 봉안되어 왕실의례에 사용되었기에 그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당대 최고의 솜씨를 지닌 도화서 화원들이 제작하였으므로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음.
- 그러나 화면의 절반이 결실되었으며 특히 초상화로 가장 중요한 얼굴이 일부만 남아 있으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화재였기에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이라고 내세우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오히려 휴전 후 부산 피난처에서 관리 소홀로 훼손되었다고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2) 원종어진

가) 현상

- 한 점 내리닫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원종은 낮은 오사모를 쓰고 검은 단령의 관복을 입었는데, 목에는 흰 직령이 나와 있음. 아랫배 앞쪽으로 양손을 소매 속으로 맞잡고 교의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임. 화면의 1/3 높이까지 채전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나머지 배경은 생략되었음.

- 가슴에는 백택 흉배가 붙어있고 허리에 서대를 둘렀으며, 족좌 위의 놓인 두 발을 바깥쪽으로 벌렸음.
- 화면의 우측 1/3 정도가 불에 타 소실되었는데, 화축으로 말려있을 때 한 쪽이 손상되어 둥글게 타들어간 흔적이 위에서 아래로 반복되어 나타남.
- 현재 상황은 2012년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하면서 새로 제작한 것인데, 삼십 여 년 전에 이미 족자로 개장한 적이 있어서 원래의 상황 형식은 알 수 없음. 낙영, 유소 등은 새로 제작하여 부착했음.
- 그림은 안정적인 상태이며 별도의 흑칠 오동나무 보관상자가 있음.

나) 주요내용 및 특징

- 원종(1580-1619)은 이름이 부(瑒)이고, 선조의 아들이며 인조의 생부임. 1587년 정원군(定遠君)에 봉해지고, 1604년 임진왜란 중 왕을 호종했던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고, 1613년에는 임해군 역모사건에 공을 세워 익사공신(翼社功臣)에 책록되었음. 그가 죽은 후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대원군이 되었으며, 1632년 원종으로 추존되었음.
- 원종의 어진은 원래 익사공신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왕으로 추존되기 이전인 1632년에 남별전(후에 영희전으로 이름이 바뀜)에 모셨다가, 그림이 낡아 1872년 종친부 주관으로 다시 모사하여 영희전 제3실에 봉안했고, 이후 1921년 창덕궁의 신선원전으로 옮겨 봉안했음.
- 이 원종어진은 창덕궁 신선원전에 봉안된 원본을 바탕으로 김은호가 1935년에 이모한 것임. 1935년에 간행된 『선원전영정수개등록』에 따르면 신선원전 제3실에 봉안된 원종어진이 다른 어진과 달리 부분(副本)이 없어 모사했다고 함. 1936년의 『선원전영정모사등록』 기록에 따르면 김은호는 의복의 모양과 의자 옆면을 고쳐서 그렸다고 함. 실제로 다른 공신초상과 비교해보면 양쪽 소매 자락이 길게 내려와서 차이가 남.
- 그 후 한국전쟁 때 다른 어진들과 함께 부산으로 옮겼다가 1954년 12월26일 발생한 화재로 손상되었는데, 畫軸의 형태로 말려있던 상태라서 오른편 일부가 타들어간 형상임. 이때 함께 전하던 1872년의 원종어진 이모본도 화재로 손상되었음.

다) 문헌자료

- 임현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반소된 공신초상화의 주인공 검토』, 『고궁문화』 2, 2010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 II』, 2016
-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서화 II』, 2019
- 조선미, 『어진, 왕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조선시대 어진으로 얼굴을 알 수 있는 것은 태조, 영조 뿐인 상황에서 추존왕이지만 얼굴을 보여주는 귀한 작품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당대 초상화에서 최고라고 평가되던 김은호가 제작하였으므로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음.
- 그러나 김은호는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적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임.
- 또한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이라고 내세우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오히려 휴전 후 부산 피난처에서 관리 소홀로 훼손되었다고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3) 순조어진

가) 현상

- 한 점 내리단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검은 원유관을 쓰고 붉은 강사포를 입은 채, 용상에 측면으로 앉아 있는 전신좌상임. 화면의 1/3 높이까지 용무늬의 화문석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그 위의 교의가 놓여 있으며 나머지 배경은 생략되었음.
- 우측 상단에는 직사각형의 붉은 비단으로 된 표제가 부착되어 있는데, “純祖肅皇帝御眞 光武四年 庚子移摸”라고 묵서로 적었음.
- 화면의 좌측 절반이 불에 타 소실되었는데, 화축으로 말려있을 때 한 쪽이 손상되어 반원형 모양으로 타들어간 흔적이 세로 방향으로 반복되어 나타남.
- 현재 상황은 2015년 고창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하면서 새로 제작한 것인데 낙영, 유소는 없음.
- 그림은 안정적인 상태이며 별도의 흑칠 오동나무 보관상자가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순조(재위 1800-1834)의 어진은 1808년에 익선관 대본과 소본을 그렸고, 1830년에 4월 효명세자가 주도하여 원유관 대본과 소본을 그렸는데, 이 중 원유관 소본이 1897년 경운궁 선원전으로 이안되어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1900년 10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어진들과 함께 불타버렸고, 이에 다시 건물을 짓고 어진들을 모사하기로 함.
- 이 순조어진의 경우 1900년 12월31일(음력 11월10일; 경자년 광무4년) 순조어진 모사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 1월20일(음력 12월1일) 표제를 작성하여 완성한 후, 6월에 다른 어진들과 함께 다시 선원전에 봉안함. 당시 모사할 때 영희전에 봉안되어 있던 1830년 제작의 원유관 대본이 범본이 되었음.
- 순조어진의 모사에는 주관화사로 조석진(1853-1920), 채용신(1850-1941)이 참여하였는데, 제작과 관련해서는 1901년에 발간한 『영정모사도감의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이후 순조어진을 비롯한 어진들은 1921년 창덕궁의 신선원전으로 옮겨 봉안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옮겼는데, 1954년 12월26일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손상되었음. 순조어진은 畫軸의 형태로 말려있던 상태라서 원편 절반 정도가 타들어간 형상이며, 얼굴에서는 한쪽 귀가 남아 있고 불길에 검게 변한 상태임.

다) 문헌자료

-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 2013
-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서화 II』, 2019
- 조선미, 『어진, 왕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조석진, 채용신필 순조어진은 선원전에 봉안되어 왕실의례에 사용되었기에 그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당대 최고의 솜씨를 지닌 도화서 화원들이 제작하였으므로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음.
- 그러나 화면의 절반이 결실되었으며 특히 초상화로 가장 중요한 얼굴이 일부만 남아 있으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화재였기에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이라고 내세우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오히려 휴전 후 부산 피난처에서 관리 소홀로 훼손되었다고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4) 순종어진

가) 현상

- 한 점 내리닫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높은 익선관을 쓰고 황색 곤룡포를 입었는데, 아랫배 앞쪽으로 양손을 소매 속으로 맞잡고 황색 용문으로 장식된 교의에 정면으로 앉아 있는 전신좌상임. 화면의 1/3 높이까지 화문석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나머지 배경은 생략되었음.
- 가슴에는 오조용보가 붙어있고 허리에 옥대를 둘렀으며, 족좌 위의 놓인 두 발을 바깥쪽으로 벌렸음.
- 화면의 우측 1/3 정도가 불에 타 소실되었는데, 화측으로 말려있을 때 한 쪽이 손상되어 둥글게 타들어간 흔적이 위에서 아래로 반복되어 나타남.
- 현재 상황은 2013년 장황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하면서 새로 제작한 것인데, 원래의 형식을 따랐으며 낙영, 유소 등은 새로 제작하여 부착했음.
- 그림은 안정적인 상태이며 별도의 흑칠 오동나무 보관상자가 있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순종(재위 1907-1910)은 고종을 이어 대한제국 황제가 되었다가 폐위되어 이왕으로 1926년 생애를 마감한 인물임.
- 순종의 어진은 다수가 제작되었는데, 김은호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유지초본도 남아 전함.
- 이 작품은 순종이 죽은 지 2년 후인 1928년에 순종과 순명효황후의 부모례를 행하면서 제작한 어진으로, 이후 창덕궁 신선원전에 봉안했음. 이에 대해서는 『순종효황제순명효황후부모주감의궤』의 뒤에 수록된 「어진보사급봉안일기」에 기록되어 있음. 김은호는 이미 1916년에 순종어진을 제작한 바 있는데 남아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작품과 비슷함.
- 이 순종어진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옮겼다가 1954년 12월26일 발생한 화재로 일부 손상되었는데, 畫軸의 형태이었기에 말려있던 상태라서 오른편과 가운데 일부가 타들어간 형상임. 표제는 불타 없어졌으나 얼굴을 남아있는 사진과 비교해 보면 순종임을 확인할 수 있음.

다) 문헌자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 I』, 2015
-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서화 II』, 2019
- 조선미, 『어진, 왕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라) 등록가치의견

- 대한제국 황제였던 순종의 어진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당대 초상화에서 최고라고 평가되던 김은호가 제작하였으므로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음.
- 그러나 화면의 절반 가까이 결실되었으며 특히 초상화로 가장 중요한 얼굴이 일부만 남아 있으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김은호는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적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임.
- 더욱이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이라고 내세우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오히려 휴전 후 부산 피난처에서 관리 소홀로 훼손되었다고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11. 「보병과 더불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보병과 더불어」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병과 더불어」는 6·25전쟁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유물 추천('20.1월), 등록 추진 자문회의('20.2.17.)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4.23.)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보병과 더불어	1건 1점	31.8 × 35.5cm (악보)	1952년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1353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1~2월.) : 6·25전쟁 분야 문화재 지자체·관계기관 추천
- ('20.2.17.) : 6·25전쟁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자문회의
- ('20.4.2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문화재적(예술적) 가치 관련 추가 검토 의견(요약) 】

○ ○○○(작곡, 음악학)

- 6·25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두 예술가의 영혼이 서로 만나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반영하여 표현하였으므로 보존의 의미가 큼.
- 그 당시 한국에서 오케스트라와 혼성 4부합창곡의 대편성으로 작곡한다는 것은 매우 초창기였음. 이러한 시대적 초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작품의 예술적 독창성은 한국적이며 서양적인 융합구조로 작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 리듬과 다 리듬, 강약의 대비 등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함은 예술적이며 학술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 ○○○(작곡, 음악학)

- 이상근 선생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의 작품으로서, 전쟁 중에 작곡되어지고 불리어진 음악이 대부분 대중가요이었는데 비해 고전음악으로는 거의 유일한 작품임. (6·25전쟁으로 중단되었음)
- 그 시대의 개인적인 예술혼에 의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생명존중, 평화, 사랑)을 표출해낸 유일한 작품으로 그 희귀성 또한 매우 높음.
- 그 규모가 당시 한국음악계 실정으로는 혼성합창단, 교향악단 등 매우 큼
- 작품성도 뛰어나 역사적으로나 사료적으로나 예술적 가치로 볼 때에도 간결하고 단아하여 한국전쟁에 관련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사료됨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20.4.23.)

- ‘보병과 더불어’는 작곡가 이상근이 청마 유치환의 종군 체험 시집 ‘보병과 더불어’를 토대로 작곡한 동명의 작품으로, 교향곡 형식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칸타타임. 해당 유물은 패천, 고저, 원산 등 구체적인 지명을 배경으로 종군 체험이 담긴 시를 소재로 창작한 교향곡으로, 각 악장이 6.25전쟁 초기의 전황을 담고 있는 역사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악보 중간과 맨 뒷장에 일시와 장소가 명기되어 있어 창작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20.4.23.)

-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는 6·25전쟁 당시 마산으로 피난했던 작곡가 이상근이 종군작가로 참전한 유치환의 전쟁서정시 '보병과 더불어'에 수록된 시 4편에 곡을 붙여 교향곡 형식으로 완성한 관현악 총보임. 해당 유물은 6·25전쟁 기간 당시 모습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며, 당시 전쟁기간 동안에 군인들과 국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중가요나 가곡은 많이 생산되었으나, 칸타타 형식의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치가 있음. '보병과 더불어'는 유물은 당시 전쟁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그 경험을 전쟁 중에 작품으로 완성하여 전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제작시기·제작자가 분명하고 원형보존의 상태가 우수하므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20.4.23.)

-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는 6·25한국전쟁 중 한국전쟁을 내용으로 작곡한 관현악과 합창곡이라는 점에서 기념적·상징적인 가치가 있으며, 한 편밖에 없는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희귀성이 있음. 또한 작곡가 연구와 한국 창작음악 연구에 있어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 등이 있음.
- 다만, 6·25전쟁과 관련된 창작곡이 적지 않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에 출판·연주되지 않고 2006년에 연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가치가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움. 관현악과 합창이 함께하는 창작곡이 이 작품 전에 적지 않았으므로 양식이나 형식 측면에서 의미는 크지 않음. 그러나 경상남도·부산,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점, 경남 마산에서 작곡한 한국전쟁과 관련한 유일한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창작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도등록문화재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보병과 더불어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1353
3. 소유자 : 진주시장
4. 조사자 의견('20.4.23.)

<○○○>

1) 개요(현상)

-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 작곡자가 직접 표지 도안을 작성하였고, 작곡기간과 장소, 서명 등을 악보 맨 뒤에 자필 기입함. 펜으로 세밀하게 악보를 기보했고, 악상 기호, 가사처리 등을 자세하게 기입함. 유일본이자 원본임.
- 전쟁 중 분실되었다가 2006년 발견되어 고문서 수집가로부터 진주시가 인수함. 2006년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의 지휘로 초연됨.

2) 주요내용 및 특징

- 작곡가 이상근(1922~2000)이 청마 유치환의 한국전쟁 종군 체험 시집 『보병과 더불어』(문예사, 1951. 9)를 토대로 작곡한 동명의 작품으로, 교향곡 형식의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칸타타임.
- 유치환은 6·25전쟁 때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의 일원으로 1950년 9월 보병 제3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동북부 전선에서 14일간 종군하였음. 『보병과 더불어』는 이때의 체험을 작품화하여 묶은 종군시집으로, 1951년 9월 문예사에서 출간되었음. 전쟁시는 선전 선동시, 기록시, 전쟁 서정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병과 더불어』는 전체 34편 가운데 선전 선동시와 기록시가 14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쟁 서정시에 속하는 작품으로 평가됨. 승전에 대한 염원이나 기록보다는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에 대한 탐구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진술의 방식이 아닌 간접적이고 내면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다 높은 문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한국전쟁 중에 전쟁을 소재로 작곡된 ‘유일한’(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클래식 음악 및 관현악 작품으로 평가됨. 대규모 합창을 동반한 레퀴엠은 전쟁의 비극성과 민족에 대한 연민, 전후 새로운 가치관과 인간상을 그리고 있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는 군인들의 심리, 전우애, 성탄의 즐거움과 암울함이 교차되는 분위기의 여운, 아름다운 서정성이 내포되어 있음. 1950년대 한국 현대음악 수준으로 볼 때 진취적인 음악어법으로 작곡되었으며 군더더기 없는 호소력 있는 작품으로 음악사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 4악장의 교향곡 형식으로, “제1악장 전진(前進)-패천(沛川)에서, 제2악장 전우(戰友)에게-고저(庫底)에서, 제3악장 1950년의 크리스마스에 부치다, 제4악장 결의(決意)-원산(元山)에서”로 구성됨. 관현악 반주에 의한 혼성 합창곡임.
- 패천, 고저, 원산 등 구체적인 지명을 배경으로 종군 체험이 담긴 시를 소재로 창작한 교향곡으로, 6.25전쟁 초기의 전황을 담고 있는 역사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문헌자료

-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집,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2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6·25전쟁 기간 중에 창작한 작품임(1952. 8.3~8.21). 악보 중간과 맨 뒷장에 일시와 장소가 명기되어 있음. 창작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창작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증명됨. 악보 첫머리에 자필 서명이 있으며, 작곡가의 필체 확인됨. 작품이 작곡가의 자필 악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전쟁 중에 작곡된 유일한 클래식 작품으로, 악보는 유일본이자 작곡가가 직접 작성한 원본임.
-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정밀하고 아름답게 작성된 악보임.
- 작사(유치환 시집)와 작곡(이상근의 악보) 모두 전쟁 중에 창작한 경우로, 한국전쟁을 대변하는 예술작품임.
- 각 악장이 소재로 하는 특정 장소나 시기가 6·25전쟁 초기의 전황을 잘 드러내는 역사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6·25관련 등록문화재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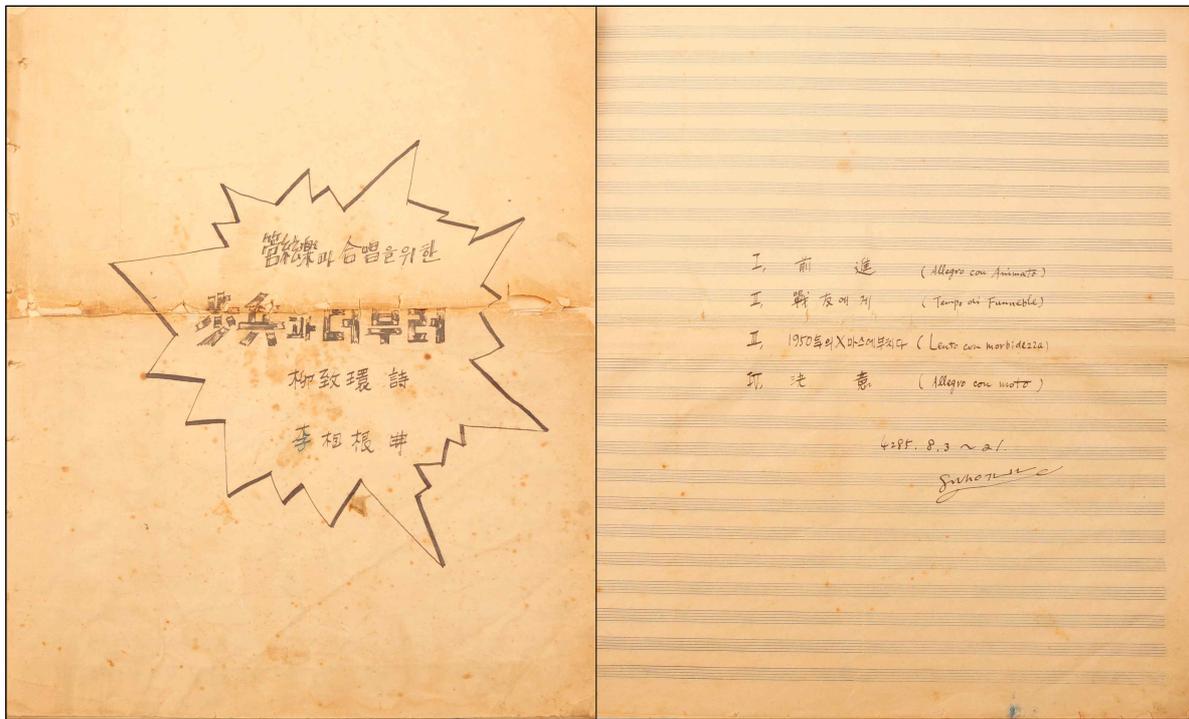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전쟁 중 악보를 분실하였다가 되찾아 작곡가 사후인 2006년에 초연이 이루어짐. 이후 부산, 대구 등지에서 연주하였고 6·25전쟁 관련 전시회에도 소개됨.
- 진주시에서 매년 ‘보훈음악회’를 개최하여 이 악보를 토대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혹상을 알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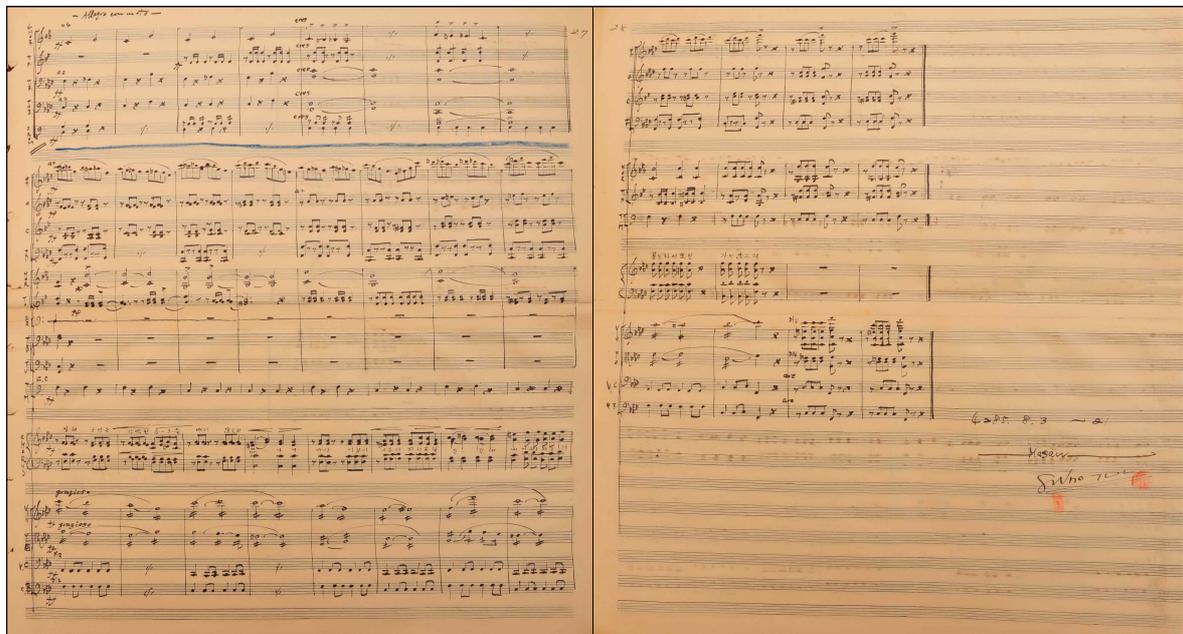
<○○○>

1) 개요(현상)

- 6·25전쟁 당시 경상남도 마산으로 피난했던 이상근이 종군작가로 참전한 시인 유치환의 작품인 전쟁서정시 ‘보병과 더불어’에 곡을 붙여 4악장 교향곡 형식으로 완성한 관현악 총보임.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작곡자가 직접 그린 악보기보는 컴퓨터로 제작한 것처럼 정밀하고 아름다움. 악보 표지는 작곡자가 직접 도안·작성하였고, 악보 뒤에는 창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작곡 기간과 장소, 서명 등이 수록되어 있음.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표지와 목차



제4악장 '결의' 4~5쪽.

2) 주요내용 및 특징 :

-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에 중군시집 중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청마 유치환의 전쟁시집 '보병과 더불어'에 수록된 4편의 작품에 곡을 붙인 관현악 총보임. 제1악장은 '전진', 제2악장은 '전우에게', 제3악장은 '1950년의 X마스에 부치다', 제4악장은 '결의'로 4개 악장의 총 30쪽 분량임.

- 유치환의 시집 ‘보병과 더불어’는 총 32편의 시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4편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임. 이 4편의 시는 6·25전쟁 기간 가장 벅찬 감격과 슬픔이 공존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12월 사이의 전쟁 모습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음. 이 시기는 통일을 눈앞에 둔 북진과 어쩔 수 없이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전면철수의 상황이 공존했던 기간임. 이러한 상황을 유치환은 담담하게 시로 그려내고 있으며, 이를 작곡가 이상근이 합창을 동반한 교향곡으로 완성한 것임.
-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는 ‘유치환·이상근’이라는 문학과 음악 분야의 두 거장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전쟁 중에 작품으로 완성하여 ‘전쟁의 시대’를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음. 시인 유치환은 1950년 10월에 동해안 도로를 따라 북진한 국군 제3사단 23연대에 종군문학인으로 참여한 인물이었음. 제23연대는 6·25전쟁 발발 당시부터 경상도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삼았던 부대로 이때부터 경상도 지역 문학·예술인들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 작곡가 이상근은 6·25전쟁 기간 마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교편을 잡고 작곡에 전념하였음. 전쟁 기간에 이상근은 ‘목관과 현악을 위한 3중주’곡을 작곡한 것이 국방부 정훈국 기록에 남아 있음.
- 6·25전쟁 기간에는 군인들과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중가요나 가곡집 등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칸타타 형식의 작품은 ‘보병과 더불어’가 거의 유일함. 6·25전쟁 기간에는 <승리의 노래>, <연합군환영가>, <통일행진곡>, <충진격의 노래> 등 군가형 대중곡들과 <보리밭>, <떠나가는 배>, <한송이 흰 백합화> 등 가곡, <아흔아홉냥>, <녹이상제> 등 가곡집 등이 생산되었으나 칸타타 형식의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또한 ‘보병과 더불어’는 민간차원에서 작곡가 개인의 자발성에 따라 예술적 창작의욕을 발휘한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펜으로 세밀하게 악보를 기보했고, 악상기호, 가사처리 등이 매우 자세하게 드러나며, 68년이 지난 자료임도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함.

3) 문헌자료

- 이순옥,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동남어문학회, 2007, pp.173-205.
- 이승하, “한국전쟁과 청마 유치환의 시-피난지에서 낸 시집 『歩兵과 더불어』” 『오늘의 문예비평』 116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0, pp.192-212.
- 국방부, 『정훈대계』 I, 1956, pp. B198-199.

4) 문화재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유치환·이상근’이라는 문학과 음악 분야의 두 거장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전쟁 중에 작품으로 완성하여 ‘전쟁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사료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이라는 점, 작품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원형보존의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 현재 6·25전쟁 기간에 만들어진 최초의 칸타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000>

1) 개요(현상)

- 1952년 작곡자가 자신의 창작곡을 직접 손으로 그린 악보의 원본 필사본임.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모두 30쪽으로 되어 있음. 첫 장은 표지이며 <管絃樂과 합창을 위한 歩兵과 더부러>라는 곡의 제목과 함께 작곡자의 이름과 작사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음. 둘째 장은 곡의 목차이며 I. 前進 II. 戰友에게 III. 1950年のX마스에부치다 IV. 決意라는 각 악장의 제목과 함께 4285.8.3.-21이라는 작곡 연월일 명기되어 있고, 작곡자의 사인이 적혀 있음. 3쪽부터 10쪽까지는 제1악장, 11쪽부터 21쪽까지는 제2악장, 22쪽부터 25쪽까지는 제3악장, 26쪽부터 30쪽까지는 제4악장이며, 모두 관현악과 합창, 가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악보 즉 총보(score)로 되어 있음. 그리고 곡이 끝난 다음에는 작곡연월일과 작곡한 장소('Masan'으로 명기), 작곡자 사인이 명기되어 있음.
- 작곡자가 직접 그린 필사본임이 확인되었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유치환의 시를 가사로 하여 만든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곡으로, 6·25한국전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모두 4악장으로 되어 있고, 각 악장에는 '前進', '戰友에게', '1950年のX마스에부치다', '決意'라는 제목이 붙어 있음.
- 작곡자는 곡의 형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관현악과 합창이 함께하는 일종의 칸타타(cantata) 형식으로 작곡을 하였음.
- 가사는 청마 유치환 선생이 6·25한국전쟁 때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의 일원으로 보병3사단에 중군하였을 때의 체험을 작품화한 중군시집인 『보병과 더불어』에 수록된 시 중에서 발췌를 한 것임.
- 작곡자의 유고 작으로, 1952년 작곡되었으나 악보가 분실이 되어 작곡자가 생존(2000년 사망)시 악보 출판 및 연주가 안 되었다가 2006년 악보가 발굴되어 연주가 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 악보가 출판이 되었음.

3) 문헌자료

- 유치환, 『歩兵과 더부러』, 부산: 문예사, 1951.
- 진주시, (사)이상근기념사업회, 『이상근관현악곡집III』, 2009.
- 한국예술연구소(편), 『한국작곡가사전』, 서울: 시공사, 1999.

4) 기 타

- 진주시에 따르면, 전쟁 중 지휘자 김생려씨가 연주하려 했다가 분실되었고, 2006년 고분서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가 되었으며, 이에 진주시가 고문서 수집가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함.
- 현재 진주시 청동기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원본 상태 및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함.

5) 문화재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6·25한국전쟁 중 한국전쟁을 내용으로 작곡한 관현악과 합창곡이라는 점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음.
- 인쇄본이 아니라 한 편 밖에 없는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희귀성이 있고, 보존 가치도 있음.
- 작곡가 연구와 한국 창작 음악 연구에 있어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 및 자료적 가치가 있음.
- 그렇지만 한국전쟁을 내용으로 한 창작곡이 적지 않게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움. 그리고 작곡 당시에 악보가 출판이 되었거나 연주가 된 것이 아니라 2006년에 연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관련 분야의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음. 관현악과 합창이 함께 하는 창작곡 역시 이 작품 전에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음악 양식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크지 않음.
- 따라서 문화재 등록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경상남도과 부산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점, 경상남도 출신인 작곡가가 경상남도인 마산에서 작곡한 한국전쟁과 관련한 유일한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창작곡이라는 점, 한 편밖에 없는 필사본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

-참고 6·25 한국전쟁 관련 창작곡-

1. 예술가곡(6·25 때 만들어졌거나 6·25를 다룬 것)

- <보리밭>(박화목 작사, 윤용하 작곡)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편 23편, 나운영 작곡)
- <떠나가는 배>(양중해 작사, 변훈 작곡)
- <기다리는 마음>(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
- <비목>(한명희 작사, 장일남 작곡)
- <그리운 금강산>(한상익 작사, 최영섭 작곡)
- <낙동강>(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
- <칠월의 노래-피난민의 노래>(김동진 작곡)
- <울음>(이호섭 작곡)

2. 동요(6·25 때 만들어졌거나 6·25를 다룬 것)

- <꽃밭에서>(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
- <자장가>(김영일 작사, 김대현 작곡)
- <무찌르자 오랑캐>(권태호 작곡)

3. 대중가요(6·25 때 만들어졌거나 6·25를 다룬 것)

- <전선야곡>(박시춘 작곡, 유호 작사)
- <굳세워라 금순아>(박시춘 작곡, 강사랑 작사)
- <아내의 노래>(손목인 작곡, 유호 작사)
- <삼다도 소식>(박시춘 작곡, 유호 작사)
- <전우야 잘 자라>(박시춘 작곡, 유호 작사)
- <6 · 25의 노래>(김동진 작곡, 박두진 작사)
- <통일행진곡>(김광섭 작사)
- <단장의 미아리 고개>(이재호 작곡, 반야월 작사)
- <꿈에 본 내고향>(김기태 작곡, 박두환 작사)
- <삼팔선의 봄>(박시춘 작곡, 김석민 작사)

4. 군가(6·25 때 만들어진 것)

- <휘날리는 태극기>(정동주 작사, 정동주 작곡)
- <육군가>(최달희 작사, 김동진 작곡)
- <바다로 가자>(손원일 작사, 홍은혜 작곡)
- <공군가>(최용덕 작사, 김성태 작곡)
- <해병대의 노래>(이화 작사, 윤용하 작곡)
- <승리의 노래>(이홍렬 작곡)

5. 교향곡

나운영 교향곡 제1번 : 한국전쟁(3관 편성 28분, 1958년)

6. 칸타타(오케스트라+독창+합창)

- <조국찬가>(김동진, 1955년)
- <비바람 속에>(모윤숙 작시, 김성태 작곡, 1958년)-정부위촉
-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모윤숙 작시, 김동진 작곡, 1958년)-정부위촉
- <한국환상곡>(안익태) - 1938년 작품이지만 후에 개작(한국 전쟁 부분을 첨가)
- <아름다운 내 강산>(최영섭, 1962년)

7. 관현악곡

- <관현악을 위한 진혼곡>(김형주, 1952년)

12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계엄 포고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계엄 포고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계엄 포고문」은 4·19혁명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유물 추천('20.1월), 등록 추진 자문회의('20.1.20.)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3.11.)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총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4·19혁명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문 및 공고문 훈시문, 담화문	19건 20점	270cm × 403cm 등	1960년	연세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박물관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문화재 등록 명칭 검토의견 】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계엄 포고문

(4) 추진경과

- ('20.1월) :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유물 추천(179건)
- ('20.1.20.) : 4·19혁명 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자문회의(7건)
- ('20.3.1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5.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 조건부 가결 : '4·19혁명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문 및 공고문 훈시문, 담화문은 관계기관 추가조사 후 재검토 필요',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는 등록 추진
- ('20.6월) : 4·19혁명 계엄 포고문 관련 관계기관 추가조사 ※ 붙임1 참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20.3.11.)

- 4·19혁명 계엄 포고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후세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여 '4월혁명연구반'을 결성하고 수집한 자료임. 4·19혁명 계엄 포고문은 '4월혁명연구반'에서 4.19~5.10까지 계엄사령부에서 나온 포고문·공고문·훈시문·담화문을 수집한 자료로, 4·19 당시의 상황을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자료임.

○ ○○○('20.3.11.)

- 4·19혁명 계엄포고문은 1960년 4월 혁명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들이 조직한 '4월혁명연구반'에서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당시 비상계엄, 포고문, 훈시문 등을 포함하는 자료임. 4월 혁명기 비상계엄 하 사회상과 국가의 대국민 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등록 가치가 있음

○ ○○○('20.3.11.)

- 계엄포고문은 4·19혁명 직후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이 수집한 계엄선포문, 포고문, 훈시문, 공고문, 담화문 등으로 구성된 원자료들임. 해당 유물들은 군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1차 자료이며, 현재 포고문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1>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계엄포고문」 관련기관 추가조사

- 국가기록원,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자료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민주화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각각 담당자 조사 결과, 자료 없음을 답변



참 만남 참 문화유산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19혁명 시기 계엄선포문 등 자료 현황 확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2432(2020.5.29.)호와 관련됩니다.
3. 우리청은 4·19혁명 60주년을 기념하여, 민주화 문화유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1960년 4·19혁명 시기 계엄선포문 등 관련 자료의 귀 기관 소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니 소장 유무(소장시 현황과 목록)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계엄선포, 포고문, 훈시문, 공고문, 담화문 등 4·19혁명 시기 계엄선포문 등 자료의 소장 유무 및 현황과 목록 등

붙임 계엄선포문 등 자료 목록 및 이미지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국방부 운영지원과 자료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관리계획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실

주무관	이정수	행정사무원	정유진	근대문화재과 2020.6.2	장	김동하
협조자						
시행	근대문화재과-2483			접수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계엄 포고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총장
4. 조사자 의견('20.3.11.)

<○○○>

1) 현상

- 4.19 혁명 당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계엄사령부에서 나온 포고문 13점, 훈시문 1점, 공고문 3점, 담화문 2점임. 당시 계엄의 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4월 혁명 연구반'에서 당시에 배포된 포고문을 수집한 것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모두 인쇄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가) 자료의 배경

- 1960년 4월 혁명이 진행 중일 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임. 이후 '4월 혁명 연구반', '대학원 4.18-4.26 사태 조사위원회' 등의 명의로 활동을 하여 모은 자료임.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던 김달중과 안병준이 4.19가 일어나자 이를 후세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여 4월 혁명에 대한 자료와 기록 전반을 수집하고 정리한 것임.
-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4.19 시위가 일어난 뒤이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이전의 계엄상태인 1960년 4월 23일경 '4월혁명 연구반'을 만들. 4월 혁명 연구반의 활동은 당시 한미재단 단장이자 호러스 언더우드의 친동생인 리처드 언더우드의 제의로 시작되었음. 그는 4.19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달중에게 4월 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을 제안하였고, 이에 김달중과 안병준이 자료를 수집하게 됨.
- 초기에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4.18과 4.19 관련 자료를 모았으며, 연세대학교 기독교학생회(SCA) 회장직에 있던 김달중이 YMCA 나 기독교학생회 조직,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3개 대학 정외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작성함. 나중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관계 기관을 포함하고, 대구와 마산 등 지방에 가서 2·28, 3·15 등에 관련된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함. 학생뿐 아니라 시위 주동자, 부상자,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함.

- 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처음에는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것이 한미재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작된 것이어서 중간에 문제가 되고 지원이 끊기게 됨. 이에 김하태 연세대 대학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학원 4.18-4.26 사태 조사위원회’ 이름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계속했으며, 김하태 원장과 홍이섭 교수, 조승순 박사가 4월혁명연구반의 지도교수를 맡아 진행함.
- 자료 수집 작업은 김달중·안병준 두 사람이 진행했으나, 나중에 김달중이 7월과 8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각각 열린 세계기독교 학생연맹[WSCF] 세계대회와 세계청년회[WAY] 제8차 이사회 등의 국제회의에 한국 학생 대표로 참석하게 되자,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정외과 동급생인 박충석이 가세하여 정리를 도움.
- 이 자료는 대외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가능한 적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후세의 학자들에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비공개로 하고 김달중 안병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구 자료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2010년까지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 강연, 자문, 토론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함. 당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인 그레고리 헨더슨이 자료를 한국에 두는 것보다 미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집요하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연세대 도서관 희귀자료실에 봉인해서 보관해 옴.
-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실에 보관되던 이 자료를 1998년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가 설립되자 이관되었으며, 2010년 박물관과 통합 후 현재 박물관 학예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김달중 안병준 두 사람은 2010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한 4.19 혁명 관련 구술 아카이브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술함. 이 내용은 현재 오픈 아카이브 4.19 구술 아카이브 서울 편에서 볼 수 있음.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

나) 자료의 내용

- 이 자료는 4월혁명연구반이 수집한 자료 가운데 계엄사령부에서 4월 19일에 내린 계엄선포로부터 시작하여 계엄사령부의 포고문 13점, 훈시문 1점, 공고문 3점, 담화문 2점을 수집한 것이다. 4월 혁명 연구반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관계 기관에도 자료를 의뢰했는데, 육군 본부 인쇄반에 연락해서 받은 자료라고 함.
- 수집된 자료는 총 19건 20점으로 내용은 다음 목록과 같음.(발표 일자별)

연번	유물 명칭	포고 날짜	수량	크기(cm)
1	계엄선포	1960.4.19	1	270x403
2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호	1960.4.19	1	510x410
3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2호	1960.4.19	1	533x415
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3호	1960.4.19	1	270x402
5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4호	1960.4.20	1	816x538
6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7호	1960.4.22	1	816x538

7	계엄사령부 담화문 - 각급 학교 수업을 개시하면서 학도 제군 및 교육자 제위께 고함	1960.4.25	1	816x534
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0호	1960.4.26	2	816x538 197x256
9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3호	1960.4.27	1	816x534
10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4호	1960.4.27	1	816x534
11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4호	1960.4.27	1	816x538
12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5호	1960.4.30	1	816x538
13	계엄사령부 훈시문 - 4.26 사태에 대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고함	1960.5.2	1	1073x813
1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6호	1960.5.3	1	816x534
15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7호	1960.5.3	1	816x538
16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5호	1960.5.4	1	816x534
17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9호	1960.5.10	1	816x534
18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6호	1960.5.10	1	816x534
19	계엄사령부 담화문 - 병원장 및 환자 귀하	일자 미상	1	405x534

- 「계엄선포」는 국무원 공고 제83호로 1960(단기 4293)년 4월 19일 오후 17시에 배포되었음. 계엄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며 공고자는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으로 되어 있음.
- 「포고문 제1호」 역시 1960년 4월 19일에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이 내린 것으로, 4월 19일 13시 현재 헌법 및 계엄법에 의거하여 계엄을 내림을 공고한 것임.
- 「포고문 제2호」도 같은 날 내린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집회를 해산하고,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며, 통행금지를 오후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며,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유언비어의 유포를 불허하는 등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포고문 제3호」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각 지구 계엄사무소장의 임명 내용을 담고 있음.
 - 계엄부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
 - 부산지구 육군소장 박정희
 - 대구지구 육군소장 윤춘근
 - 광주지구 육군소장 박현수
 - 대전지구 육군소장 임부택
- 「포고문 제4호」는 다음 날인 4월 20일에 나온 것으로, 무기나 흉기 등을 발견하거나 습득하면 경찰서나 헌병대에 신고할 것, 폭도 또는 불순분자를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법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포고문 제7호」는 4월 22일에 나온 것으로,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있으므로 광주 지구의 통금시간을 4월 23일 오전 5시를 기하여 2시간 단축하여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완화하며, 서울 부산 및 광주 지구의 국민학교 등교를 4월 25일부터 허가한다는 내용임.
- 「담화문」은 4월 25일에 ‘각급 학교 수업을 개시하면서 학도 제군 및 교육자 제위께’ 고한 것으로 25일에는 초등학교, 27일에는 중학교, 29일에는 대학과 고등학교를 차례로 열게 한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0호」는 4월 26일에 나온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 따라, 질서가 빨리 회복되도록 자중과 협조를 요망한다는 내용임. 「포고문 제10호」는 세로 쓴 대형과 가로 쓴 소형 2종이 있음.
- 「포고문 제13호」는 4월 27일에 나온 것으로, 치안 회복에 따라 비상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월 28일 오전 5시부터 서울 지구의 통행금지를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완화하고, 4월 28일부터 국민학교 아동의 등교를 허용한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4호」도 4월 27일에 나온 것으로, 서울 지구의 각 대학을 4월 29일부터, 중고등학교는 5월 2일부터 등교 중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임.
- 「공고문 제4호」는 4월 27일에 나온 것으로, 도심 및 외곽에서 각종 무허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포고문 제15호」는 4월 30일에 나온 것으로, 서울 지구의 야간 통행금지를 5월 1일부터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임.
- 「훈시문」은 5월 2일에 나왔으며, 4.26 사태에 대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고하는 것으로 군이 동요하지 말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사명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포고문 제16호」는 5월 3일에 나온 것으로, 사이버 단체의 빼라나 벽보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5월 3일 오전 5시를 기하여 정치에 관련된 전단이나 벽보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7호」는 5월 3일에 나온 것으로 서울지구의 야간 통행금지를 5월 4일 오전 5시를 기하여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임
- 「공고문 제5호」는 5월 4일에 나온 것으로, 이날을 기하여 통행금지 조치가 종전대로 환원함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야간차량통행증 및 야간통행증은 5월 5일부터는 무효하게 되어 통행금지 시간 내의 야간통행은 일절 금지하나, 다만 언론기관 및 외교관 차량이나 통행인의 경우는 예외로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9호」는 5월 10일에 나온 것으로, 부산 지구의 언론 출판 및 보도 통제를 5월 11일 5시부터 해제한다는 내용임.
- 「공고문 제6호」는 5월 10일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실시했던 집회 불허를 완화하며 집회를 할 때에는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경찰서에 허가서를 제출하여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 「병원장 및 환자 귀하」에게 보내는 담화문은 4.19 및 4.26 사건 당시 발생한 부상자가 여러 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나, 환자들이 병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속 입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며 병원장의 판단 아래 잘 진행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임. 발표 날짜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4월 말~5월 초에 발표된 것으로 추정됨.

3) 문헌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4월혁명 사료총집』,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 오픈 아카이브: 구술아카이브 > 4.19혁명 > 서울 관련 구술아카이브
구술자 : 김달중/안병준
구술일자 / 장소 : 2010년 11월 11일/연세대학교 박물관
구술시간 : 1시간 52분 17초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위의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4.19 혁명 연구반 조사 자료는 4.19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여 조사한 자료이며,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실에서 보존되어 왔음.
-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함께 소장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와 함께 4.19 당시의 상황을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을 통해 생생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인쇄물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수집되어 보존이 잘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복본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4.19를 기념하는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등록시 명칭은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로 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포고문과 함께 수집된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와 더불어 가지번호로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 ○○○>

1) 현상

- 4.19혁명 계엄 포고문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과 기록보존소, 박물관 등 보존환경과 보존시설을 완비한 공간에서 보존하여 보존상태는 모두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
비상계엄·포고문 12종·훈시문 1종·공고문 3종·담화문 2종 등 인쇄본
시기 : 1960년 4월 19일~7월 16일(계엄해제)
51×41(계엄선포), 82×54cm(포고문, 공고문), 20×26cm(포고문10호),
110×82cm(훈시문), 41×54cm(담화문1), 54×82cm(담화문2)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1960년 4월 혁명기 ‘4월혁명 연구반’에서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당시 비상계엄, 포고문 총 12종, 훈시문 1종, 공고문 3종, 담화문 2종 등이 포함된 19종으로 구성되었음.
- 4월 혁명기 비상계엄령령은 준비계엄(국무원 공고 제 82호)과 비상계엄(국무원 공고 제83호)으로 두 차례 선포되었음. 준비계엄은 1960년 4월 19일 오후 1시를 기해 “騷亂된 秩序를 回復하고 公共의 安寧을 維持하기 爲함”을 목적으로 선포되었음. 준비계엄 선포지역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남도 대전시에 해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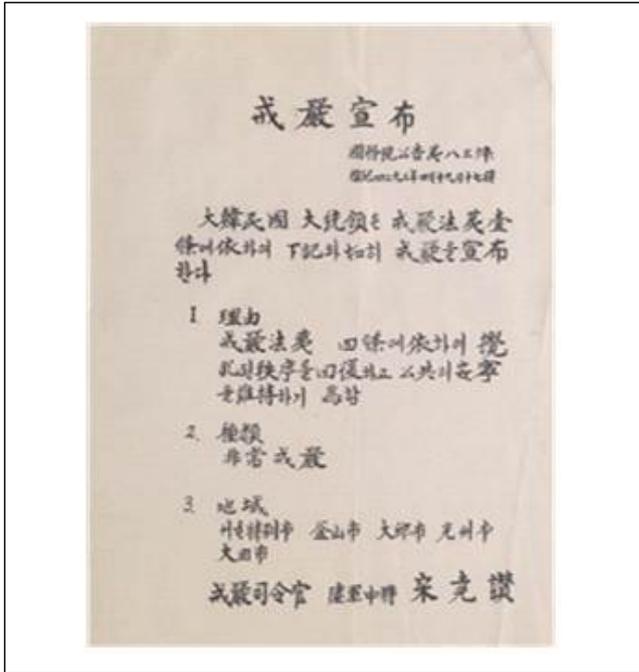
- 비상계엄은 1960년 4월 19일 오후 5시를 기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83호로 선포되었음. 비상계엄은 “戒嚴法 第四條에 依하여 騷亂된 秩序를 回復하고 公共의 安寧을 維持하기 爲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남도 대전시를 대상으로 선포되었음. 계엄사령관에 육군중장(陸軍中將) 송요찬(宋堯讚) 장군이 임명되었음.
- 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에는 1960년 4월 19일 국무회의 의결로 선포된 비상계엄(선포) 1건,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이 총 12건(1~4호, 7호, 10호, 13~17호, 19호) 등, 1960년 '4·26 이승만 하야'사태 관련하여 군 장병에게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장군의 '훈시문' 1건, 1960년 5월 연이어 공포된 건축·야간통행금지·집회 관련 공고문 4~6호, 담화문 2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상의 문서들은 1960년 4월 19일부터 발표된 비상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 명의로 내려진 각종 시책, 명령, 담화 등의 내용으로 4월 혁명기 국가가 국민을 관리·통제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매우 중요함.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만 소장하여 역사적 보존 가치 또한 매우 높음.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의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표] 4.19혁명 당시 계엄선포·포고문 외 19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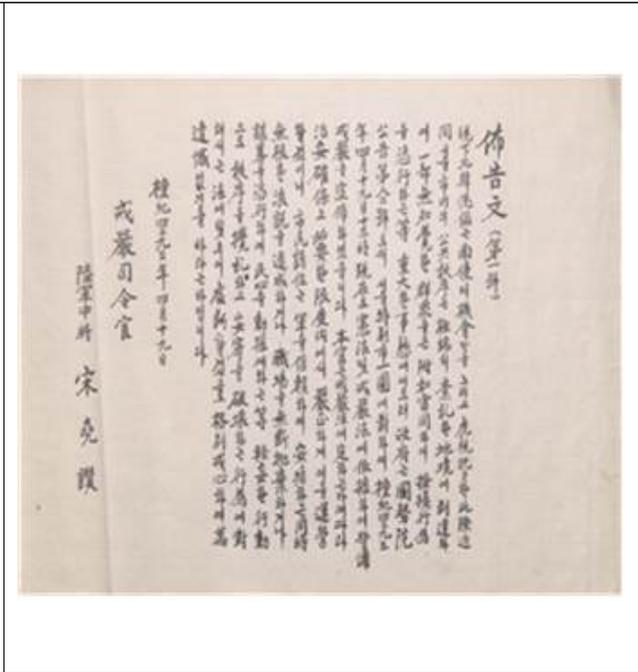
구분	건수	내용
계엄선포	1건	1960.4.19. 국무회의 의결 비상계엄 선포건
포고문	1~4호 7호, 10호 13~17호 19호	<p>포고문 1호(1960.4.19.)- 엄중한 시기에 계엄 선포의 중대성과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알리는 포고.</p> <p>포고문 2호(1960.4.19.)-4월 19일 오후 1시 기해 서울지구 치안확보를 위해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의 지구에 비상계엄을 선포</p> <p>포고문 3호(1960.4.19.)-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각 지구계엄사무소장 임명에 대한 포고</p> <p>포고문 4호(1960.4.20.)-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질서를 위해 폭동세력의 철저 색출을 단행할 것인바 외출을 최대한 자중할 것 등 협조 요청 포고</p> <p>포고문 7호(1960.4.22.)- 광주지구 통행금지 시간을 23일 05시를 기해 밤 9시부터 새벽 5시로 2시간 단축할 것, 초등학교 등교를 25일부터 허락함 등</p> <p>포고문 10호(1960.4.26.)-비상계엄 하에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특별 조치들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p>

구분	건수	내용
		<p>포고문 13호(1960.4.27.)-4월 28일 새벽 0시를 기해 서울지구 통금시간을 21시부터 익일 05시로 기함, 4월 28일 이후 계엄지구내 초등학교 아동의 등교 허락함</p> <p>포고문 14호(1960.4.27.)-치안상태가 회복되어감에 따라 비상조치 일부 완화할 것, 각 대학은 4월 29일부, 중고등학교는 5월 2일로 등교 중지 해제할 것 등</p> <p>포고문 15호(1960.4.30.)-서울지구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5월 1일 기해 22시부터 익일 05시로 단축 실시 포고</p> <p>포고문 16호(1960.5.3.)-치안과 질서는 대체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사전승인 없는 전단과 벽보의 게시불가 알림 포고</p> <p>포고문 17호(1960.5.3.)-서울지구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5월 4일 0시를 기해 24시부터 익일 05시로 단축 알림</p> <p>포고문 19호(1960.5.10.)-부산지구에 5월 5일에 내려진 언론·보도통제는 5월 11일 05시를 기해 해제함을 알림</p>
훈시문	1건	1960.5.2. 이승만 대통령의 '4.26 하야' 사태에 관하여 군 장병들에게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의 '훈시문'
공고문	4~6호	<p>공고문 4호(1960.4.27.)-소란기를 틔타 도심지대 및 외부에서 각종 무허가 건축이 성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국의 도시계획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즉각 철거할 것</p> <p>공고문 5호(1960.5.4.)-야간통행금지 제한에 대한 공고</p> <p>공고문 6호(1960.5.10.)-국내 혼란을 미연방지하고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1주일 전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 제출 후 계엄사령관의 허가 하에 집회 가능절차를 포고</p>
담화문	2건	<p>학교 수업 개시 담화문(1960.4.25.)-4월 19일 이후 각급 학교 문을 재개 관련 담화문. 초등학교(25일), 중학교(27일), 고등학교 및 대학교(29일)의 재개를 알리면서 학도 제군과 교육자에게 주의할 사항을 포고</p> <p>병원장 및 환자 담화문(날짜 미상)-4.19와 4.26 이후 계엄사령관이 병원장과 환자에게 내린 명령으로 병의 중함과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당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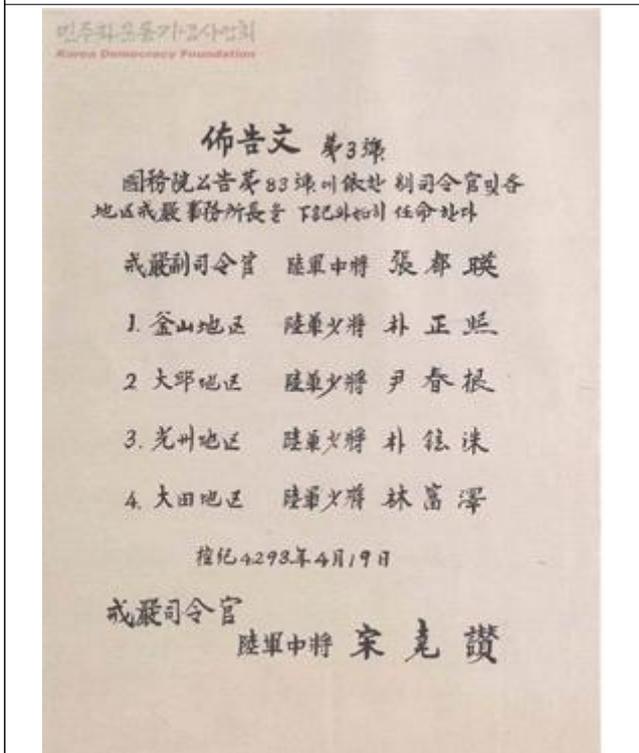
[관련 사진]



(비상)계엄선포 (계엄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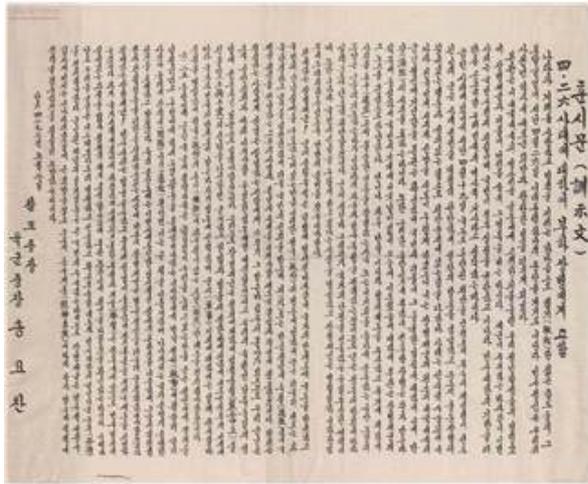
포고문 제1호 (계엄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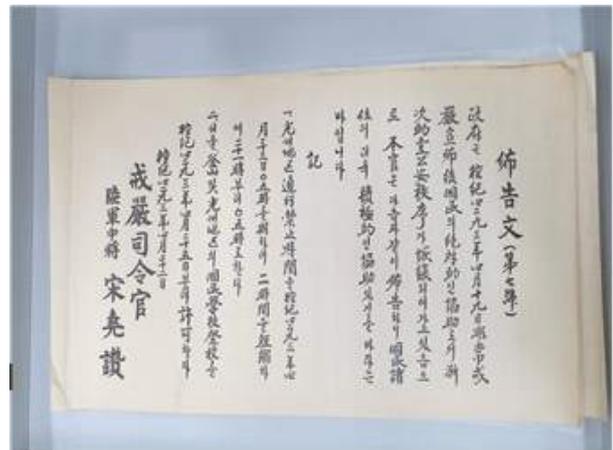
포고문 3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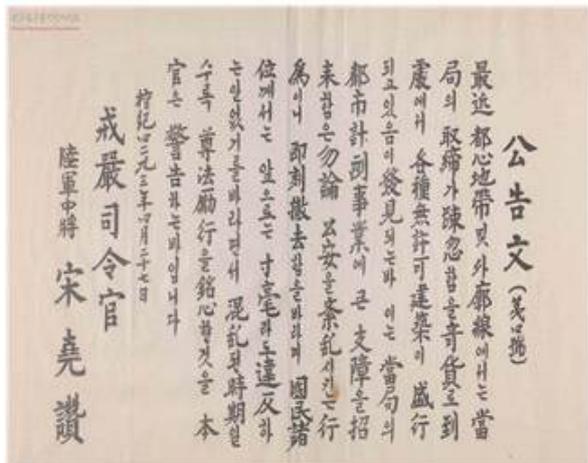
포고문(제10호) 계엄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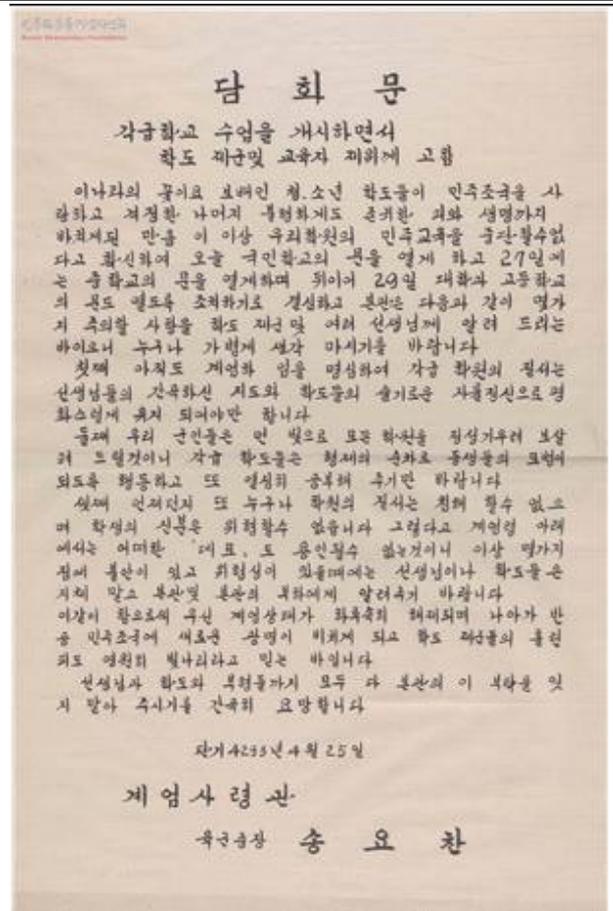
훈시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포고문7호(계엄사령관)



공고문 4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담화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60년 4월 혁명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최초의 민주혁명·시민혁명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짐. 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1960년 4월 혁명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년생(김달중·안병준)들이 시위 현장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조직한 ‘4월혁명 연구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들이 수집조사하여 4월혁명기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가치가 큼.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당시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비상계엄, 포고문 총 12종, 훈시문 1종, 공고문 3종, 담화문 2종 등 19종으로 구성되었음.
- 위 유물은 특히 1960년 4월 19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포된 각종 포고문 등을 통해 4월혁명기 비상계엄 하 사회상과 국가의 대국민 관리·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만 소장하고 있어 보존가치 또한 매우 중요함. 이상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에 의거하여 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 현상

- 계엄포고문류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사기록물의 경우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재질의 변색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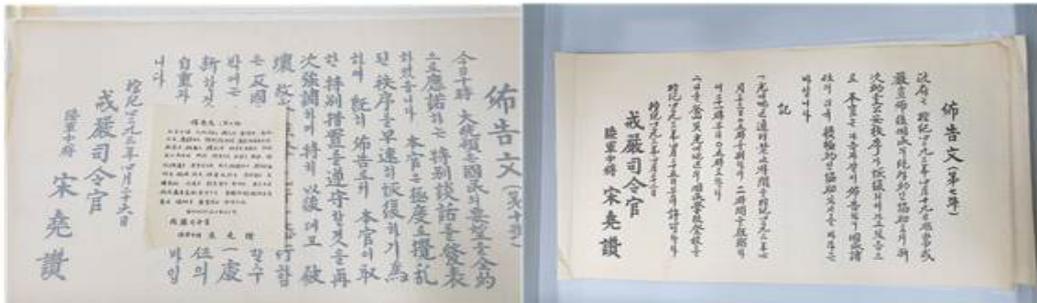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수집된 당시 계엄포고문류는 다음과 같이 총 19점임(표1 참조). 부분적으로 결락된 호가 있으나 4.19시기 계엄포고문류가 원본 그대로 보존된 유일본일 가능성이 큼.
- 포고문류를 분류하면 계엄선포문, 포고문, 훈시문, 공고문, 담화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그림3, 그림4 등 참조). 4월혁명연구반에서 이 포고문류를 원본 상태로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장처인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에 따르면, 포고문류는 당시 계엄사 인쇄담당 부대에서 보관 중인 것을 직접 입수하였기에 좋은 상태의 원본을 구한 것이라고 함. 백낙준 총장 명의의 공문과 언더우드 가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김달중, 안병준의 증언(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에 의하면, 4월혁명연구반의 활동을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당시 한미재단의 책임자였던 리차드 언더우드(호러스 언더우드의 동생)였다고 함. 또한 처음에 한미재단의 자금 지원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이후 연세대 대학원(대학원장: 김하태)의 프로젝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이 포고문류의 입수 시점은 계엄사령부가 아직 존재하고, 백낙준 총장(1960. 5. 퇴임)과 한미재단측의 호의적인 도움이 가능했던 4월혁명연구반의 활동 초기, 즉 4.19 직후였던 것으로 가늠할 수 있음.

<표1>

점명	규격 (mm)
계엄선포 (60.04.19)	270X403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호 (60.04.19)	510X410

점명	규격 (mm)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2호 (60.04.19)	533X415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3호 (60.04.19)	270X402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4호 (60.04.20)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7호 (60.04.22)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0호 (60.04.26)	816X538, 197X256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3호 (60.04.27)	816X53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4호 (60.04.27)	816X53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5호 (60.04.30)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6호 (60.05.03)	816X53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7호 (60.05.03)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9호 (60.05.10)	816X534
계엄사령부 훈시문 - 4.26사태에 대하여 부하 장병에게 고함 (60.05.02)	1073X813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4호 (60.04.27)	816X538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5호 (60.05.04)	816X534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6호 (60.05.10)	816X534
계엄사령부 담화문 - 병원장 및 환자귀하	405X534
계엄사령부 담화문 - 각급 학교 수업을 개시하면서 학도 제군 및 교육자 제위께 고함 (60.04.25)	816X534



3) 기 타

- 김달중, 안병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미대사관 문정관 그레고리 헨더슨은 이들에게 수집한 자료를 미국 측에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집요하게 설득하였으나 거절하고 연세대 도서관 희귀자료실에 봉인한 채 보관해 왔다고 함.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60년 4.19혁명 직후 연세대 4월혁명연구반 명의의 자료 수집 및 조사 작업은 4.19혁명에 참여한 주체들과 목격자 그리고 군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음. 일부 결락이 있지만 4.19 당시 계엄사의 포고문이 거의 완벽한 상태의 원본으로 보관되어 있는 점, 4.19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심층적 조사기록들 또한 무엇보다 당대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 특히 당사자들이 직접 조사에 응하여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됨.

13.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는 4·19혁명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유물 추천('20.1월) 등록 추진 자문회의('20.1.20.)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3.1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려대학교 총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4·19혁명 고려대학교 부상학생 조사서	3건 12점	18cm × 26cm 등	1960년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박물관
1960년 4월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머릿수건	1건 3점	28 × 66cm	1960년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유인물	1건 1점	35.3 × 25.5cm	1960년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문화재 등록 명칭 부여 검토의견 -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 4.19혁명 부상자명단(4·18의거 고려대 학생 부상자 명단)

(4) 추진경과

- ('20.1월) :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유물 추천
- ('20.1.20.) : 4·19혁명 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자문회의
- ('20.3.1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5.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
 - 보류 : 4.19혁명 관련 부상자 명단 조사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추가조사 필요
- ('20.6월.) : 관계기관 추가조사 실시 * 붙임1 참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 ○ ○ ('20.3.10.)

-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은 초안 2점과 정서본 1점이며, 4.18.~4.19. 당시 부상당한 고려대학교 학생의 명단을 정리한 기록물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원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또한 초안은 당시 시위 상황·관련 인물 등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등록 가치가 높으며, 정서본은 이를 정리한 것으로 이들이 일괄 존재할 때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고려대학교 학생 머릿수건은 유사 머릿수건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희소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일학생 정신대 성명서는 4·19진전의 상황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며 복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등록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 ○ ○ ('20.3.10.)

-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4·18 고려대학생 의거에 참가한 고려대 학생 부상자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초안 2종과 정서본으로 구성됨. 시위 참가학교가 주체가 되어 작성된 문서로는 현재까지 유일하며, 특히 당사자들이 날짜, 부상 부위 등을 직접 작성한 내용이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음.
- 머릿수건의 경우 신입생활영 기념물로 제작되어 다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재일학생조선인 성명서의 경우 등사본으로 총 매수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록 문화재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 ○ ○ ('20.3.10.)

-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4·19혁명에 참여한 고려대 학생들 가운데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측의 자체 조사물로 파악되는 자료임.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부상당하게 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머릿수건은 4·19혁명 전체를 상징하는 문화재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시위 과정에서 착용·활용했던 모든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는 정확한 입수 경로와 해당 자료를 매개로 한 구체적 교류상황을 알 수 있는 여타 자료·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시위 머릿수건과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유인물은 제외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붙임1>

4·19 혁명 고려대학교 부상자 명단 관련 검토 보고

I | 조사내용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전체 부상자 명단 파악
 - 대한적십자사 「4월혁명 부상자 개별 기록서」
 - 국립의료원에서 서울대병원 등 전국 33개 병원별 부상자를 조사('60.12월중)하여 대한적십자사에 '60.12.22.에 제출한 자료임
 - * 근거: 기록서 및 대한적십자사 60.12.23 등록 도장 등
 - 조사항목은 성명, 성별, 나이, 직업, 학교명·직장명, 본적, 현주소, 병명, 합병증, 입원 및 퇴원여부, 치료시작일, 치료완료일로 구성돼 있으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함
 - ☞ 대한적십자사 조사결과 사본이며, 원본은 없음. 당시 제출처인 국립의료원(보건복지부, 국가기록원) 조사결과 자료 없음.

국회 제 1046 호
 단기 4933 년 12 월 22 일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기이
 국 납 의 조
 4 월 16 일 부실 관아 기립 기록서 제출의 권
 (대호 한국보에 74 호 모
 4933 년 11 월 17 일)
 언의의 간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죄도 하나이다.

44331228
 863

서명명 韓宗三호
 1933.12.20
 서울대 학교의 파대 학부속 병원장
 서울대 학교의 파대 학부속 병원장
 大韓赤十字事務總長 기하
 四日華(命)爲(傳)惠音(個)人(記)錄(手)寫(檢)査(件)
 (對)檢(査)件(件) 副(紙)并(知)司(件) 作成(回)報(件)
 이리

44331220
 743

번호	성명	성별	직업	현재소	입국일
231	이우자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2	이찬수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3	이치우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4	이관우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5	이찬수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6	전승관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7	전장우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8	정호민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9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0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1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2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3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4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5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6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7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8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9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50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번호	성명	성별	직업	현재소	입국일
231	이우자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2	이찬수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3	이치우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4	이관우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5	이찬수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6	전승관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7	전장우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8	정호민	남	학생	서울	1933.12.20
239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0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1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2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3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4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5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6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7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8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49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250	최승자	여	학생	서울	1933.12.20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관련 타학교 자체 부상자 명단 여부

○ 고려대 소장 「조선일보 호외」 부상자 현황 및 대한적십자에 제출된 「4월 혁명부상자개별기록서」, 당시 신문에 기록이 있는 학생 소속을 토대로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조사함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성균관대, 홍익대, 건국대, 카톨릭의대, 한국외대, 단국대,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 창원대, 경남대

○ 각 학교 박물관, 기록관, 자료실 담당자 면담결과, 해당 자료 없음

* 고려대의 경우 418의거 특수성으로 자체 조사한 것으로 추정

<학교별 조사현황>

연번	학교명칭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기타	비고
1	서울대	×	×	×	·	·
2	연세대	×	×	·	·	·
3	고려대	●	×	·	·	·
4	중앙대	×	×	·	·	중앙대신문 수록
5	동국대	×	×	·	·	·
6	서울시립대	×	×	·	·	·
7	경희대	×	×	×	·	경희대신문 수록
8	성균관대	×	×	·	·	·
9	홍익대	×	×	·	·	·
10	건국대	×	×	·	·	·
11	가톨릭대	×	×	·	·	·
12	한국외국어대	×	×	·	·	·
13	단국대	×	×	·	·	단국대신문 수록
14	전남대	×	×	·	·	·
15	조선대	×	×	·	·	·
16	부산대	×	×	×	·	·
17	창원대	×	·	·	·	·
18	경남대	×	·	·	·	·

참고1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등록검토

- ‘4·18 고려대 데모’ 를 중심으로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은 상황과 시위 폭행장소(국회의사당 앞, 천일극장 등), 폭행도구·부상정도(곤봉으로 어깨 맞다, 깡패에 다리부상 등) 등 당시 정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으며, 본인 또는 타인이 대신 쓴 초본(1, 2)과 이를 재정서한 정서본으로 유일한 자료임
- ☞ ‘4·18 의거’ 는 4.19일 전날인 4.18일에 3·15부정선거 후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는 고려대 학생들이 벌인 시위이며,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깡패들이 습격을 당해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음. 이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이 4.19시위에 대폭 참여하여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임
- ☞ 「4·19혁명 참여고려대 학생 부상자 명단」은 ‘4·18 의거’ 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4·19 부상자 명단 보다는 대부분 4·18 부상자 명단으로 「4·18 의거 고려대 학생 부상자 명단」으로 검토 필요

<부상자 명단 초안1>

번호	이름	장소	상세정보
29	김정길	안산동	곤봉 어깨 맞다
27	김희우	천일극장 앞	등에 목망구 맞아 약알주안
91	김형길	동대문역	고문상관
4	박대영	천안 백리역 앞	간 과속과 병행
113	이민	천일극장 앞	네리타
117	이종득	"	백들로 머리 맞다
122	이현우	천일극장 앞	깡패에 어깨 타박상 (100 치료)
110	최건태	"	깡패에 다리 타박상 (약 1년 치료)
60	김정홍	국회의사당	경찰봉으로 머리 맞다
135	이호철	출 3가	(중상) 발목 타박상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박물관
3. 소유자 : 고려대학교
4. 조사자 의견('20.3.10.)

< ○ ○ ○ >

1). 현상

- 가)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4.19 혁명 당시 부상한 학생들을 조사한 문건의 초안 2건과 정서본 1건임. 고려대학교 문서 용지에 기록되어 있음.
- 나) 고려대학교 4·18의거 머릿수건 : 수건을 이용해 만든 머릿수건 3점으로, 4.18 의거 당시 학생들이 착용했던 것임. 그중 1점은 액자 안에 보관되어 있음.
- 다)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성명서 1점임.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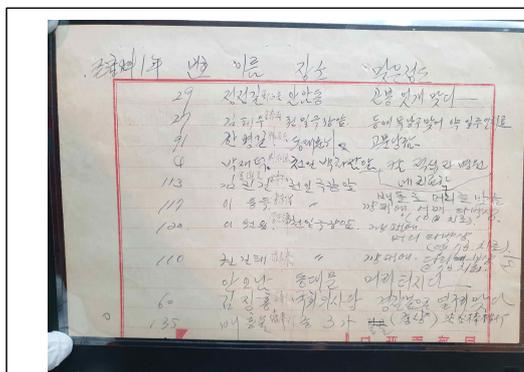
- 유물의 배경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1960년 당시 4월 16일에 전체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때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경찰이 눈치 채서 4월 18일로 행사를 연기함. 4월 18일 행사에서 학생들 3000여 명은 "민주역적 몰아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으며, 행진 도중 경찰의 곤봉에 맞은 학생도 있고, 학교로 복귀하는 도중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한 학생도 있음.
-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 그리고 머릿수건은 이 당시 시위와 관련한 물품임. 고려대학교에서는 고려대학교 사의 중요한 사료로 박물관에서 보존 및 전시하고 있음.
-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성명서는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대표 홍성정이 재일대한민국 거류민단과 재일대한청년단과 함께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를 주동하여 왔으며, 이승만 정권 퇴진을 이끌어 낸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임. 성명서의 날짜는 4월 28일로 되어 있음.

가)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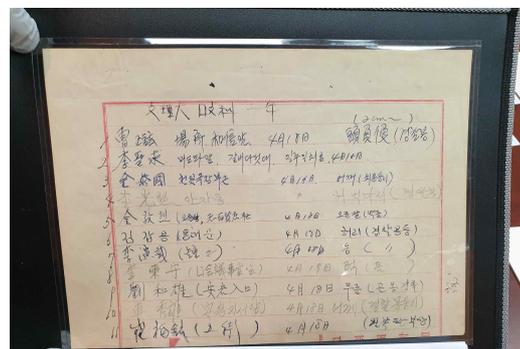
-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은 초안 2점과 정서본 1점으로, 4월 18일 당시 부상당한 고려대학교 학생의 명단을 정리한 기록물임. 모두 25.8x17.5cm 규격의 고려대학교 문서 용지에 작성되어 있음. 이 문서들은 원래 행정적으로 보존되었으나 고려대학교 역사를 정리하면서 박물관으로 이관된 문서들임.

- 초안 1은 7장, 초안 2는 2장, 정서본은 3장이며 앞뒤면에 기록되어 있음. 초안은 명단을 쓴 글씨가 각각 달라서, 부상자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조사자가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서본은 일정한 글씨로서, 초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임.
- 초안 1은 문서 용지에 가로와 세로 쓴 것이 혼재되어 있으며, 학과 및 학년별로 번호, 이름, 장소, 맞은 정도를 조사하여 기록함. 처음에는 한글로 이름을 썼으나 나중에 한자를 찾아서 작은 글씨로 덧붙인 것으로 보임.
- 문서 작성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초안 1의 13면(7장의 앞면)에 “6월 16일 현재”라는 기록으로 보아, 최종적으로는 6월까지도 조사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장/면	소속	부상 인원	비고
1장 1면	경제과 1년	10명	
1장 2면	경제과 1년	1명	
2장 3면	문리대 국문과 1년	11명	
2장 4면			백면
3장 5면	철학과 1년	3명	
3장 6면			백면
4장 7면	철학과 2년	3명	
4장 8면			백면
5장 9면	철학과 3년 철학과 4년	무사고 1명	
5장 10면			백면
6장 11면	림학과 3년	6명	
6장 12면			백면
7장 13면	미상(정치학과?) 3년 미상(정치학과?) 4년 영문과 2년	1명 1명 1명	신고자가 政四 代議員이라 쓰여 있어 정치학과에서 써낸 것으로 보임 영문과 2년 김연수 기록 뒤에 한자로 “六月 十六日 現在”라고 쓰여 있음
7장 14면			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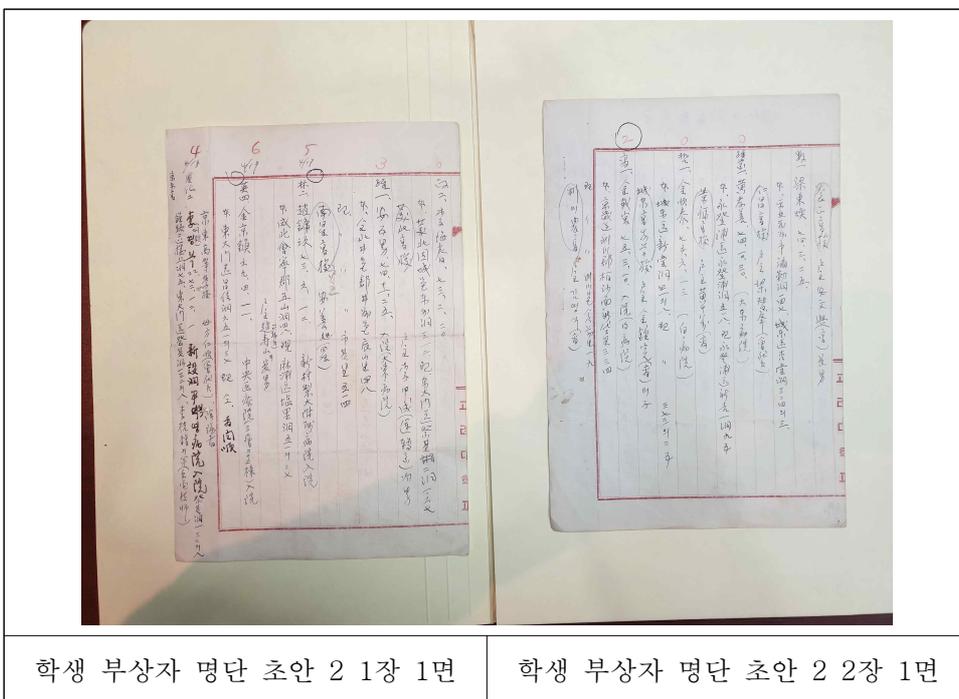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1 1장 1면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1 2장 1면

- 초안 2는 세로 작성했으며 글씨가 일정함. 1면 위에 '4월 18일 부상자 명단'으로 제목을 달고 소속 학과, 학년, 성명, 부상 날짜와 장소, 본적과 주소를 기록함. 성명 뒤에는 66.12.,29, 70.5.19 등의 수자가 한자로 쓰여 있는데, 생년월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의미는 파악할 수 없음. 출신고와 입원 병원이 기록된 내용도 있음.
- 초안 2의 1장 1면에 학생 외에도 보일러 기관사와 운전사 성명도 기록되어 있음. 보일러 기관사는 51세로 반도병원 입원이라고 쓰여 있음

장/면	소속	부상 인원	비고
1장 1면	사학과 4학년 철학과 4학년 농학과 3학년 농학과 4학년 보일러 기관사 운전사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보일러 기관사와 운전사는 난외에 적혀 있음
1장 2면	수학과 1년 경영학과 1년 철학과 1년 학과 미상	1명 1명 1명 1명	
2장 3면	법과 1년 법과 3년 학과미상 2년	2명 1명 1명	
2장 4면	정치학과 2년 경제과 1년 림학과 2년 영문과 4년 농화학과 2년	1명 1명 1명 1명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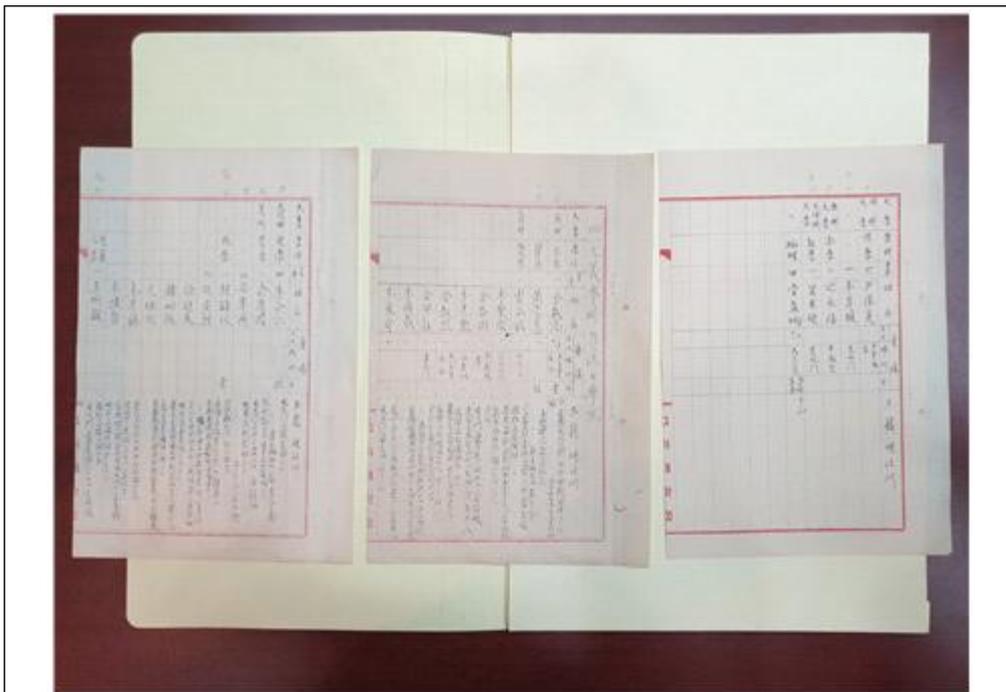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2 1장 1면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2 2장 1면

- 정서본은 3장 6면으로 “사일구 의거시 부상한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세로 기록했으며, 50명의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 학과, 학년, 성명과 부상 날짜와 장소, 부상의 정도를 기록하고, 학생의 본적 및 현주소를 정리하였음.

장/면	소속	부상 인원	비고
1장 1면	상과 상학 1년 상과 경영학 1년 문리과 국문학 1년	1명 1명 8명	
1장 2면	문리과 국문학 1년 문리과 영문학 4년 2년 철학 1년 2년 3년 4년	3명 1명 1명 2명 3명 1명 1명	
2장 3면	문리과 법학 4년 농과 농학 3년 4년 농과 임학 2년 3년 농예화학 1년	1명 1명 1명 1명 6명 1명	
2장 4면	정경과 정치외교학 2년 정경과 경제학 1년 농과 농업경영학 1년 2년	1명 9명 1명 1명	
	법과 법학 3년 1년 상과 상학 2년 문리과 수학 1년 물리학 4년	1명 1명 1명 1명 1명	
3장 2면			백면



학생 부상자 명단 정서본

- 초안의 내용과 정서본의 내용 중 일치하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지는 않아서, 다른 자료들이 있었으나 멸실되고 남은 자료들인 것으로 판단됨.
- 이 자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4월혁명 사료총집』에 수록되어 있음. 4월 18일과 4월 19일 당시 시위에 참가하여 부상한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을 당시에 정리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원본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나) 고려대학교 4.18 의거 머릿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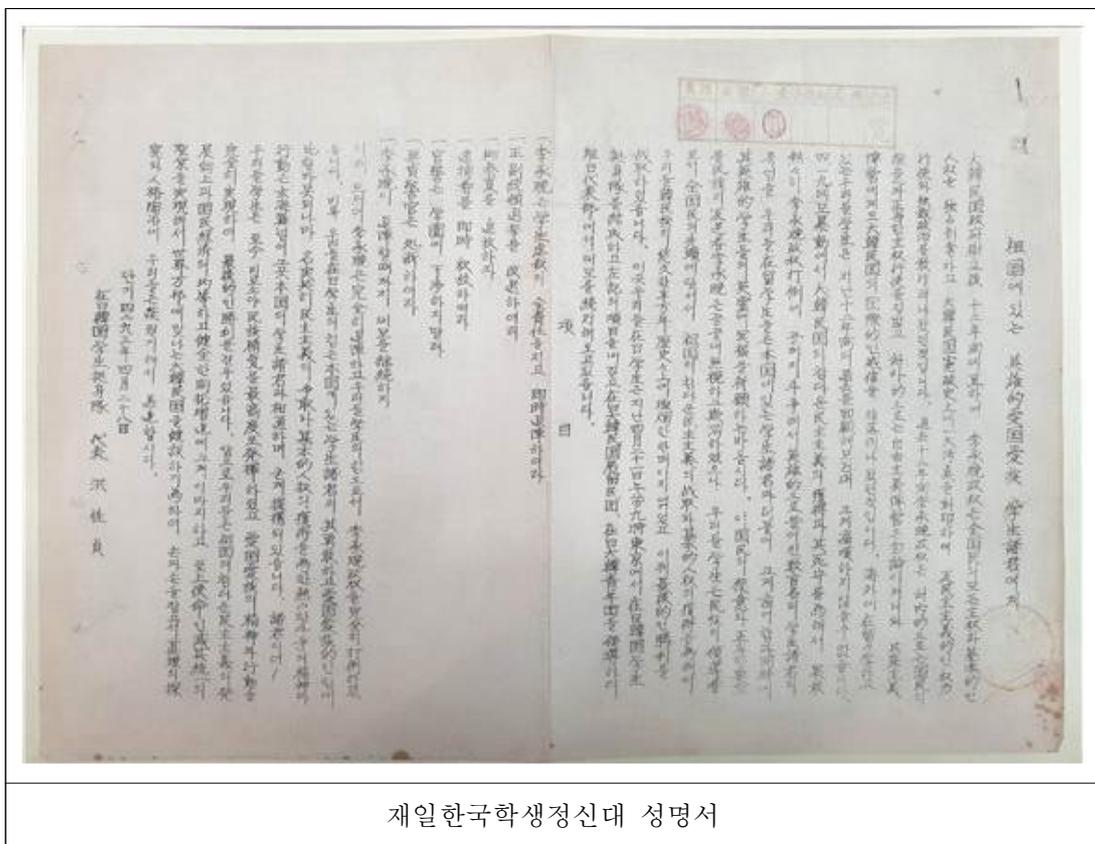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1960년 당시 4월 16일에 전체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때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경찰이 눈치채서 4월 18일로 행사를 연기함. 4월 18일 행사에서 학생들 3000여 명은 "민주역적 몰아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으며, 행진 도중 경찰의 곤봉의 맞은 학생도 있고, 학교로 복귀하는 도중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한 학생도 있음. 이 장면이 신문에 보도되어 다음날 4.19를 연동하였으므로 4.19과 관련해 중요한 유물임.
- 머릿수건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신입생환영회의 기념품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수건의 양쪽에 '축 입학'과 입학 연도인 '1960'이, 가운데에는 '고대' 글자가 찍혀 있음. 수건의 크기와 글자가 찍힌 방식이 조금씩 달라, 해당 업체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모양의 수건을 두르고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사진이 있어 당시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3점은 졸업생 교우들이 기증한 것으로, 액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영문과 58회 한기성(韓基星)이 기증한 것임.
- 현재는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3점이 파악되어 있으나 추후 유물이 더 나올 수도 있어 복수성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 3점만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고려대학교 4.18 당시 머리 수건

다)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성명서

- 재일유학생 단체인 재일한국인 정신대에서 이승만의 하야를 기념하여 한국 학생들에게 4월 28일에 보낸 성명서임.
- 제목은 “조국에 있는 영웅적 애국애족 학생제군에게”로 되어 있으며,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위해 재일 유학생들이 재일대한민국 거류민단과 재일한국청년단을 이끌고 재일대표부에서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를 계속했으며,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 이후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학생들과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임. 1960년 4월 28일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대표 홍성정 명의로 되어 있으며 등사본으로 제작되었음.
- 당시 행정 문서의 하나로 여겨진 듯하며 상단에 고려대학교 관련 행정인 난에 도장이 찍혀 있고, 오른쪽 하단에 고려대학교 접수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있는데 날짜는 5월 3일로 되어 있음.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3) 문헌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4월혁명 사료총집』,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4.19 관련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0일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준에 관한 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등록문화재의 원본성, 진정성, 희귀성 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논의함.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월 26일 이후에는 4.19 의거가 혁명으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4.19를 기념하는 것이 용이했으므로, 가능한 4월 26일 이전의 문건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재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이 제시됨.

- 그러나 관련 문서나 유물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짧은 기간에만 한정해서 작성되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4.19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는 것이라면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은 4.18과 4.19 당시 부상당한 상황을 조사하여 필사한 문건으로, 특히 초안은 당시의 시위 상황, 관련된 인물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료로서 등록가치가 높음. 또한 정서본은 이를 정리한 것으로 일괄해서 존재할 때에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등록할 때 명칭은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이 4.19와 관련성을 보여주며 객관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고려대학교 학생 머릿수건은 당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들렀던 것으로 가치가 높으나, 유사한 머릿수건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등록문화재의 희귀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재일학생 정신대 성명서는 4.19 당시에 재일 유학생들의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는 자료이나, 4.19 진전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며, 등사본으로서 복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1) 현상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초안1의 5쪽이 연필 기재로 다소 흐린 상태이나 그 외 초안1, 초안2, 정서본 모두 상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 필사본
 고려대학교, 1960년 4월 혁명기(시기특정 불가)
 초안1 7장 18×26cm, 초안2 2장: 18×26cm, 정서본 3장 39.3×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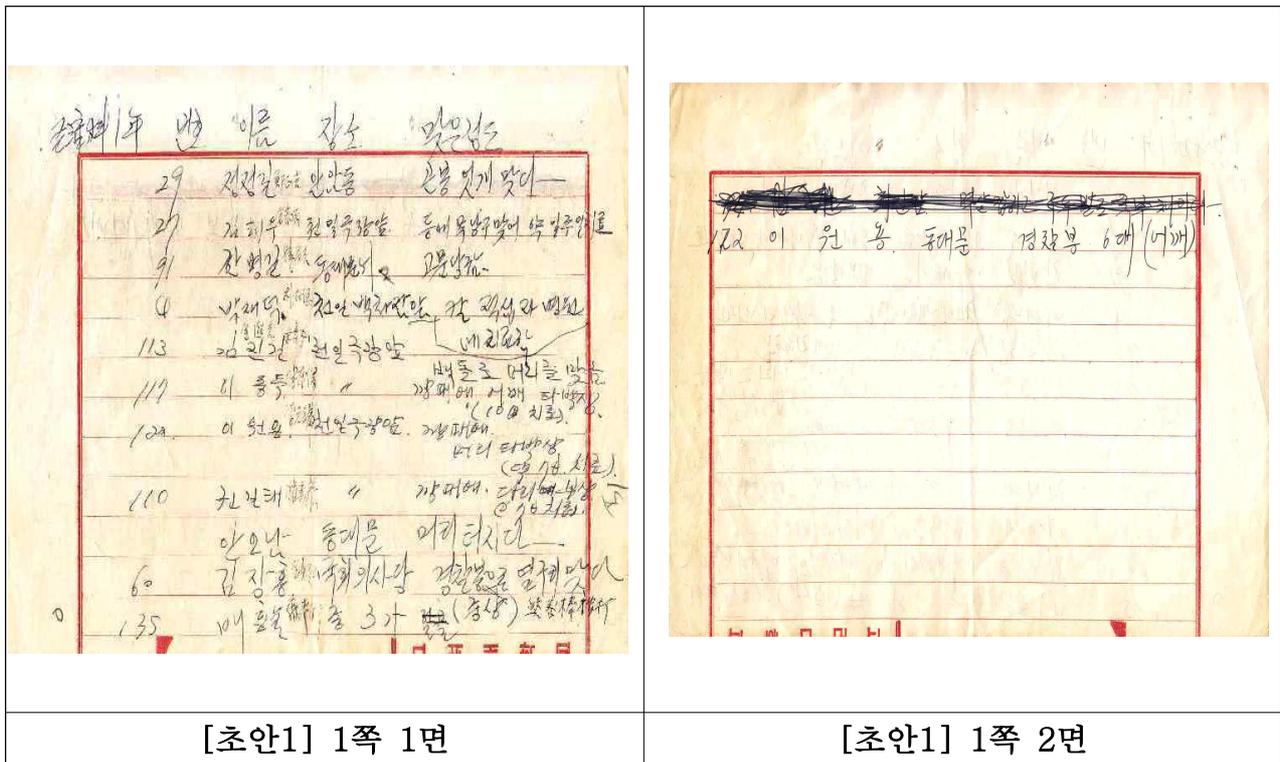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1960년 4월 혁명기 ‘4·18 고려대 데모’를 중심으로 시위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이 작성된 초안1, 초안2 및 정서본으로 구성되었음. 3종 모두 고려대학교 내 구성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초안과 정서본의 구분은 보관 당시 서류철 구분으로 분류되었음.
- 1960년 4월 혁명기 부상자 및 사상자 현황은 보건사회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당국에 의해 전수조사된 바 있으며 현재 기록이 남아 있음. 이 경우 4월혁명 당시 부상당해 입원했거나 치료했던 병원들을 대상으로 일괄 전수조사하여 명단이 제시되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건사회부가 전수조사한 『4월혁명 사상자 명단』(1960), 대한적십자사가 1960년 11월~1961년 1월 사이 조사한 『1960년 사월혁명 부상자개별기록서』 등이 있음. 두 기록 모두 당시 부상자들이 입원·치료했던 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명단이 1961년 1월 하순까지 보다 광범위로 포괄하였음.

- 본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4월 혁명 당시 기폭제가 되었던 ‘4·18 고려대 학생의거’를 포함하여 단일 학교 주체로 부상자 명단을 작성한 사례로 유일한 것으로 사료됨.
- 초안 1은 총 7장 8면으로 장별 필체가 다르고 가로쓰기 세로쓰기 두 종류로 구성됨. 초안 1에는 이름, 일련번호, 소속, 부상날짜, 장소, 맞은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문리대 국문과, 철학과 부상자 명단이 자필로 기록되어 사료적 가치가 높음.
 - <초안1> 1장 1면에 의하면 부상에 쓰인 도구는 각목, 벽돌, 경찰콘봉 등이 동원됐으며 등, 목, 어깨, 머리,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이 폭행대상이 되었음. 깡패에게 부상당한 기술을 볼 때 경찰제복 미착용인 일반인도 시위진압에 동원된 것으로 보임. 부상정도는 경상에서 중상 등 다양했고, 적십자병원 등에서 7일~10일 입원 치료됨.
 - 2장 1면은 문리대 국문과 1년 부상학생 기록으로 4월 18일 데모현장 기록임. 부상장소는 주로 안암동 부근이며 이 외 국회의사당, 미도파백화점, 화신백화점, 종로, 천일극장 등이 포함됨. 부상도구는 경찰봉, 벽돌, 쇠몽둥이, 경찰몽둥이 등이 동원됐고, 턱, 등, 어깨, 머리, 오른팔, 왼쪽팔 등 전신이 폭행대상이 됨.
- 초안 2는 2장 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한 필체로 1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1쪽 1면 상단에 ‘四月十八日 負傷者名單’ 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4·18 고려대 의거’당시 부상자 명단임이 확인됨.
 - <초안2> 소속학과는 철학과, 영문과, 임업과(농대), 농대, 가정과 등 다양함.
 - 2면에 4월 19일 부상자 2명 기록도 보임. 각각 일련번호 5번 임학과 2년 조용구(趙鏞玖), 일련번호 6번 영문과 4년 김경진(金京鎭)임.
 - 부상경위는 ‘未詳’이며, ○도병원, 신촌이대병원, 중앙○료원, 신설동○복영병원, 대동병원 등 입원장소도 다양함.
- 정서본은 초안으로 작성된 부상자 명단을 정서하여 재정리한 기록으로 총 5면이 남아 있음. 부상자의 소속 대학, 학과, 학년, 성명, 부상일/부상장소/부상정도 등을 기록하였으며 초안과 달리 본적, 현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료적 가치가 큼.
 - 부상날짜는 1쪽 1면, 3쪽 1면(1인)에 4월 18일로 기재되었음. 1쪽 2면, 2쪽 1면 등에는 부상날짜 미기재. 부상 장소 기록은 1쪽 1면, 3쪽 1면에 기재되었음. 천일극장 앞, 미도파백화점, 화신백화점, 안암동, 광화문, 중앙청 앞 등임.
 - 학년 별 구성은 1학년 26명, 2학년 9명, 3학년 8명, 4학년 5명임. 소속학과는 초안1, 2에 누락된 경제외교학과, 농업경제학과, 사학과, 농학과, 농예화학과, 물리과 등이 보임.
- 이외에도 ‘4·18고려대 의거’당시 참가학생들이 머리에 착용했던 ‘머릿수건 ’3종(28X66)도 조사에 포함되었음. 1960년 신입생활영회 기념품 명목으로 ‘축 입학’, ‘1960’이 인쇄되어 제작된 수건으로 ‘4·18 고려대 의거’ 당시 다수 학생들이 머리에 착용한 증거사진들이 남아 있음. 그러나 ‘머리 수건’의 경우 고려대박물관에 기증된 3종 외에도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 조사대상에 1960년 4월 28일 재일(在日) 한국학생정신대 소속 홍성정 군이 작성한 성명서 「조국에 있는 영웅적 애국애족 학생제군에게」 (크기 35.3X 25.5)도 포함 되어 있음. 이 성명은 재일한국인과 청년단체들의 4월 혁명 지지 표명과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이끌어 낸 것에 경의를 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본 성명서는 인쇄본으로 총 배포 매수 등 현황이 불확실하며 유사 성격의 성명서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1> 『초안1』·『초안2』·『정서본』 현황

분류	매수 현황	필사 내용
초안 1	7장 8면	-소속, 이름, 장소, 맞은정도 -경제과, 철학과, 경제학과, 국문과 등 -가로/세로 병기
초안 2	2장 4면	-세로쓰기 -이름, 소속, 주소, 치료장소(백병원 등) -경제학과, 철학과, 법학과, 농과 등
정서본	3장 5면	-소속 대학, 학과, 학년, 성명, 부상일/부상장소/부상정도 등 -부상자 본적, 현주소

<관련사진>



[초안1] 1쪽 1면

[초안1] 1쪽 2면

文理大 文科 一年 (20m~)

1	曹 璩	場新和信光	4月17日	頭員優 (정정명)
2	李 聖求	비리알, 권해아찌, 안주리리로	4/17/18	
3	金 泰國	천안부삼촌	4/17/18	서역 (최영희)
4	李 光烈	안안동	"	허백대리 (정환영)
5	金 欽烈	(2명, 天百貨店前)	4/17/18	32명 (별)
6	金 贊容	(동계은)	4/17/18	허리 (정찬용등)
7	李 漢載	(경인)	4/17/18	등 ()
8	李 東子	(天合議館前)	4/17/18	희 (동)
9	劉 和雄	(安老入口)	4/17/18	무음 (근용경학)
10	李 香桂	(安老외선양)	4/17/18	대개 (정환영등)
11	李 福敏	(고향)	4/17/18	(외부관부양)

[초안1] 2쪽 1면

11 李 聖求 4/17/18 頭員優 (정정명)

12 金 泰國 " " " " " "

13 李 光烈 " " " " " "

14 金 欽烈 " " " " " "

15 金 贊容 " " " " " "

16 李 漢載 " " " " " "

17 李 東子 " " " " " "

18 劉 和雄 " " " " " "

19 李 香桂 " " " " " "

20 李 福敏 " " " " " "

[초안 1] 3쪽 1면

哲 三年

一員傷場前
一學科 學科 學科

哲 三年

哲學科 三年

金 南 大 珠 祐 泰 內 君 經 行 堂

金 鎮 至 和 信 百 貨 店 前

金 南 元 一 安 院

金 南 元 一 安 院

金 南 元 一 安 院

金 南 元 一 安 院

[초안1] 4쪽 1면

一員傷場前
一學科 學科 學科

哲 三年

事 故 無

哲 四年

天一百貨店前 哲四 金 冕 仲

[초안1] 5쪽 1면

3) 문헌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 혁명 사료총집』

4) 기타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4·18고려대 학생 의거’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학생(당시 기준)이 고려대학교에 기증하여 박물관에 보관중임.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본 사료의 구체성·단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명칭으로 적절함. 4월 혁명기 부상자 및 사상자 명단 전수조사 자료는 있으나 시위 참가학교가 주체가 되어 부상자 명단을 작성한 사례는 본 건 외에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한국사회 민주주의 이행에서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인 1960년 4월혁명의 부상자 명단 문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 1960년 4월 혁명기 부상자 및 사상자 명단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보건사회부 주도로 전수조사하여 작성된 사례가 남아 있으나 이 경우 부상자들이 입원했거나 치료했던 각 병원들에서 작성된 기록이 근거가 되었음. 본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1960년 4·19 혁명 중 기폭제가 된 ‘4·18 고대학생 의거’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 중 부상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시위 참가 학교 주체로 작성된 문서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초안 1은 부상 당사자들이 날짜와 장소, 부상 부위 등을 직접 작성하여 역사적 구체성을 명징하게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에 의거하여 본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① 현재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된 ‘머릿수건(4·18고려대 시위 참가학생들의 착용)’의 경우 1960년 신입생환영 기념물로 제작되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려대 박물관 소장 3건을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② 1960년 4월 28일 재일학생 조선인(홍성정 군)의 성명서의 경우 등사본으로 총 매수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록문화재로 특정하는데 부적합 요소가 있음.

<○○○>

1) 현상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기록물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낱장별로 보관 처리를 한 상태로 글자 판독에 이상이 없으며 잘 관리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가)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이 명단은 1960년 4.19혁명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측의 자체 조사기록물로 파악됨. 부상 학생들의 구체적 신상을 비롯해 부상 정도, 시점, 장소,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4.19혁명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위 주체의 일차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초안1

- '초안1'의 경우, 학교, 학년, 번호(성격 미상), 이름(해당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한자 성명을 표기), 부상당한 장소, 맞은 정도 등이 기록되어 있음(그림1 참조).
- 대체적으로 공통된 내용은 4월 18일 서울 청계천 4가에 위치한 천일극장 또는 천일백화점 앞에서 발생한 정치깡패들에 의한 고려대 데모대 피습사건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임. 또는 4월 19일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다수임.
- 부상당한 부위를 등, 목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칼, 벽돌 등으로 맞았다는 진술, 깡패에 의해 어깨 타박상, 머리 타박상, 다리 부상 등으로 가해 주체와 부상 범위 및 정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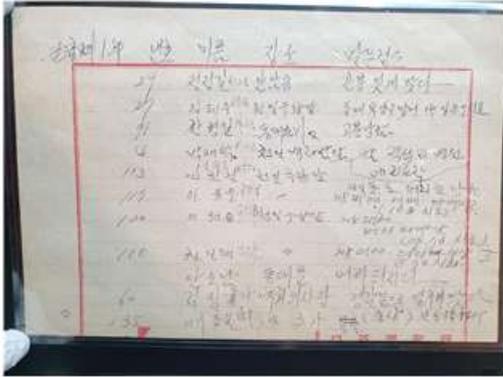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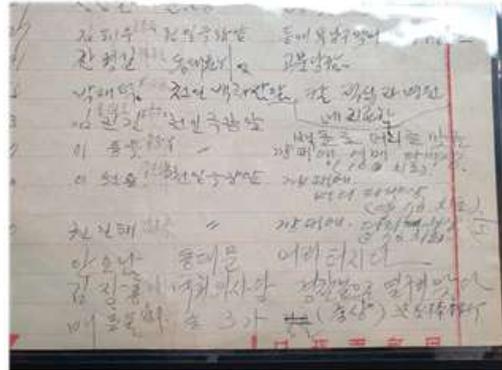


그림2

- 기록지의 필체는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됨.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부상자들이 병원에 있으므로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인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기록지는 '고려대학교'라고 인쇄된 서류용 종이를 사용한 점에서 당대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확인되는 반면 학생들 스스로의 기록이 아닌 학교 당국(담당 직원)에 의한 기록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함. 또한 이 기록물이 학교 당국에 의해 보관된 것으로 볼 때, 이승만 하야 후 부상학생들에 대한 당시 문교부의 조사 의뢰에 따른 학교측 문서 작성의 일환으로 기록된 초안이라고 볼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초안1의 4쪽 1면의 경우, 세로로 작성된 필체가 정갈하고 흘림체 또한 격조 있는 서체라는 점에서 많은 문서 기록의 경험이 있는 사무원(직원?)의 필체라고 판단됨. 6쪽 1면의 경우 역시 입학과 3학년 6명에 대한 기록인데 이 필체 또한 한 사람의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한 학생들에 의한 직접 기록이라기보다 학교측 직원에 의해 또는 학교측의 의뢰를 받은 학생들에 의해 대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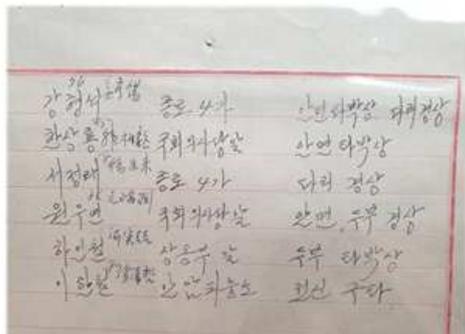


그림3

- 위와 관련, 7쪽 1면의 경우, 정갈한 한문 위주의 세로 서체 역시 교직원의 달필로 보임. 같은 면 '4월 혁명 부상자'라는 제목의 괄호 속에 '신고자는 정4 대의원'이라고 기재됨. 따라서 정의과 4학년 대의원 학생을 통해 학교측이 관련 사항을 일괄 파악하여 공식 서류로 작성하기 전에 기록한 초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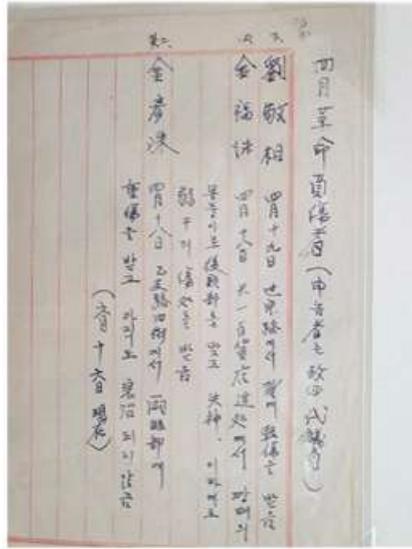


그림4

- 위의 같은 페이지 맨 끝 괄호 속에 '6월 16일 현재'라고 기재됨. 즉 기록물의 작성 시점은 1960년 6월 16일로 특정됨.

○ 초안2

- '초안2' 2쪽의 세로 서체 역시 달필이라는 점에서 교직원이 작성 주체일 가능성이 있음.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필체임. '초안2'에 해당하는 문서의 제목은 '4.18 부상자 명단'이며 학과, 학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출신고교명, 호주 성명(괄호안 직업 기재) 등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그림5, 그림6 참조). 농업, 회사원 등 호주의 직업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부상학생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연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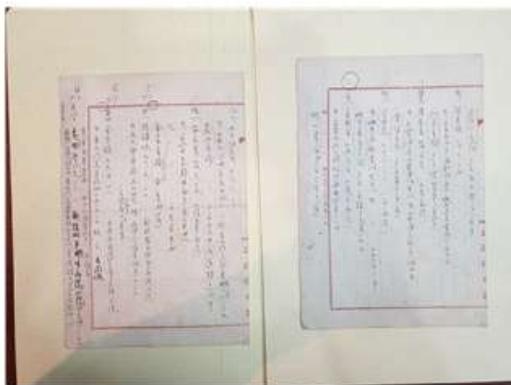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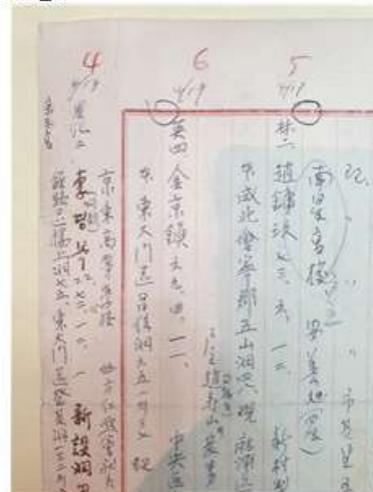


그림5



○ 정서본

- '4.19 의거시 부상한 학생'이라는 제목의 기록물은 정서본에 해당하며, 소속 대학, 학과, 학년, 성명, 부상 월일, 부상 장소, 부상 정도(輕, 重으로 구분), 본적, 현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음(그림7, 그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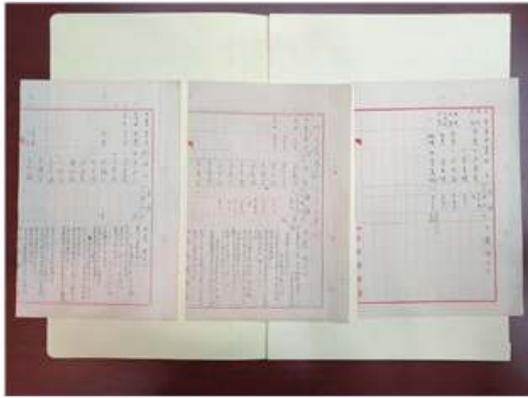


그림7



그림8

- 위 정서본을 여타 초안과 비교할 때, 대부분이 동일 인물로 확인됨으로써 두 문서의 상관관계가 초안과 이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정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초안1과 초안2에 나오는 42명의 이름과 정서본 50명의 명단이 대부분 중복됨. 같은 이름이 41명(오차 있을 수 있음)으로 확인되므로 이 문서군의 관련성은 비교적 명확함.
 - 4.19혁명 부상자 명단은 당시 단속적인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정부(보건사회부)에서도 4.19 직후 서울 각 병원별로 조사해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작성한 바 있음. 관련 기록은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
 - 또한 4.19혁명 유공자 심사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관련 명단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부상자관련 단체, 4.19 관련 단체 등에서도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고려대 4.19 참여 부상자들의 명단 또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위 자료들에 못지않으며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머릿수건
- 1960학년도 고려대 신입생들에게 제공된 기념품인데 "축 입학", "1960", "고대" 등의 글자가 인쇄되어 있음.
 - 관련 사진 및 소장처의 설명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려대 학생 상당수가 4.18과 4.19 당시 위 머리수건을 두르고 데모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유인물
- 성명서의 내용을 통해 재일 학생단체의 대표가 이승만 하야 직후 조국의 시국을 격려하는 일반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4.19혁명 당시 해외 교포 단체와의 교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음.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가)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이 기록물은 4.19혁명 직후 고려대학교가 주로 4월 18~19일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임. 비록 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기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부상당하게 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4.19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1차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음.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문서 구성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초본들과 정서본의 성격을 띠는 문서기록물의 완성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기록물의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머릿수건

- 머리수건의 경우, 고려대 학생들의 4.18시위와 4.19혁명을 상징하는 강렬한 기념물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4.19혁명 전체를 상징, 기념하는 문화재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4.19 시위 과정에서 착용 또는 활용했던 유사 물품을 모두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다)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유인물

- 정확한 입수 경로와 이 자료를 매개로 한 구체적인 교류상황을 알 수 있는 여타 자료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위 성명서의 내용과 의미 등을 종합할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14. 「인천 팔미도 등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 팔미도 등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 「인천 팔미도 등대」(’02.2.4.)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20.1.8.)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5.21.)를 실시하고 지정 가치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 「팔미도(八尾島) 등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무의동 산373)
 - 소유자 :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수량 : 1동(직경 3.04m, 높이 7.9m)
돌담(좌측 길이 8.8m, 우측 길이 10.7m, 높이 1.8m)
 - 면적 : 11.87㎡(보호구역 920㎡)
 - 건립시기 : 1903년
 - 구조 : 콘크리트조 추정
- (3) 검토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4) 추진경과
 - (’20.1.8.) : 사적 지정 신청(인천시→문화재청)
 - (’20.5.2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5.21.)

-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개시를 알리고 맥아더 장군의 연합군함대가 인천만으로 안전하게 상륙,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전체적으로 건축 당시의 기본적 건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등롱 및 등명기의 유지관리 상태도 양호하며, 대한제국기 건조물로서 원형의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국내 현존하는 등대 중 가장 오래된 등대로서 대한제국기부터 근대기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관련기록을 통해 연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적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 ○ ○ ('20.5.21.)

- 인천 팔미도 등대는 대한제국기에 설치된 최초의 등대로서 콘크리트로 축조 되었으며 약 100여년 동안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음. 동력 전환 단계마다 등명기의 회전 기계 변천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잘 남아있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6·25 전쟁 국면 전환을 도모 하는 군사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므로 사적 지정 가치가 높음.

○ ○ ○ ○ ('20.5.21.)

-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상륙작전 전개 시 미 극동군사령부 클라크대위의 주도로 팔미도 등대의 항해등이 복구·점화되었고, 팔미도 등대의 불빛으로 야군함선들이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월미도 및 인천항 등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음.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그로 인해 6·25전쟁의 국면이 일시에 뒤바뀌게 한 소중한 문화자산으로서 팔미도 등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평가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문화재구역 25.8㎡, 보호구역 966.2㎡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0.5.21(목)	대상 문화재	팔미도등대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근대건축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팔미도등대		
	③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제한)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5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 ○ ○ ○</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팔미도등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1. 문화재 종류

○ 사적

- 팔미도등대(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 2002년 2월 4일 지정)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인천 팔미도등대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현재 문화재 명칭인 ‘팔미도등대’보다 ‘인천 팔미도등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팔미도(八尾島)는 서해안에서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면적 75,670 m²의 작은 섬으로 인천항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15.7 km 떨어져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에 위치.
- 지름 300m 정도의 섬과 그 북동쪽에 위치한 암석(sea stack) 형식의 작은 바위섬이 사주(沙洲)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 형상이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아 팔미도라 지칭.
- 작은 섬이지만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서북쪽에 영종도와 무의도, 남쪽에는 대부도, 영흥도, 자월도 등의 주변 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지리적으로 해상 교통에서 중요한 역할.
- 팔미도는 지리적 장점과 해상교통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역할을 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 제물포해전, 1950년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팔미도는 팔미귀선(八尾歸船)의 아름다움, 즉 서해안 낙조에 팔미도를 돌아드는 범선의 자취와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서, 지역의 대표적 해상 경승지이자 인천팔경의 하나로 알려지기도 함.
- 팔미도는 현재 등대 및 경비 관련 인력만 상주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인천항과 팔미도를 부정기적으로 왕복하는 유람선에 의해 일시적으로 섬에 출입하여 인솔자 인솔하에 팔미도등대, 팔미도등대 역사관, 전망대 등을 관람할 수 있음.
- 팔미도등대는 팔미도의 정상부(해발고도 58m)에 위치하며 행정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 번지에 위치하고, 경위도상으로 동경 126°30' 38", 북위 37°21' 30"에 위치.
- 팔미도등대는 2002년 2월 4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2003년 팔미도등대 인근에 새로운 등대를 신축하였고 2014년 팔미도 선착장 인근에 팔미도등대 역사관을 건립.

4. 연혁 유래 및 특징

<연혁 · 유래>

- 팔미도등대는 그동안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알려졌지만, 1876년 개항 이후 외국 선박의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항로표지가 필요했음에도 팔미도등대가 건설된 1903년까지 근대식 등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음.
- 팔미도등대가 최초의 근대식 등대라는 견해는 한국등대국삼년보(1907~1909년 발간) 등 일본의 관련기록에 의존한 것으로, 당시 일본이 팔미도등대 건설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팔미도등대 건설 이전인 1893~97년 부산해관의 서신, 1885년 제물포해관의 서신 등에서 당시 등대 부설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확인되므로, 팔미도등대 이전에도 국내에 등대가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가능함
- 18세기 중반부터 일본, 청국,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당시 조선 연안에 자주 출몰하였으며, 이들은 서해안 조석 간만의 차와 남해안 다도해의 좁은 수로를 운행하면서 해난사고의 위험에 직면.
- 1876년 강화도조약과 개항 이후 외국 선박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선박의 안전항로 확보와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근대식 항로표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조선 정부는 1883년 개항장(인천, 원산, 부산)에 관세, 선박운항, 항로관리, 항로표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해관(海關)을 설치.
- 조선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던 일본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체결을 통해 항로표지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1895년 등대 건설을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 연안을 측량하고 건설 대상지를 조사
- 1901년 당시 대한제국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司)였던 존 맥리비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35~1920)은 일본의 요청과 계획을 받아들여 팔미도 등 32개소에 등대 건설을 추진
- 1883년 개항 이전부터 한강을 통해 서울로 연결되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였던 인천항은, 개항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의 출입이 더욱 증가.
- 인천항으로 출입하는 선박은 팔미도를 중심으로 좌측(대부도 측) 해역은 수심이 양호한 가항항로이고 우측(용유도 측) 해역은 사주와 얕은 여울이 산재하여 만조 때를 제외하고는 선박 운항이 어렵다는 운항 여건에 직면.
- 1902년 대한제국 해관 총세무사 브라운은 인천항 지나동(현 인천시 선린동)에 인천해관 공사국을 설치하고 등대 건설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인천항 출입항로에 팔미도등대, 소월미도등대(멸실), 북장자서등표(현존), 백암등표(현존) 건설에 착수.
- 팔미도등대는 1902년 3월 건설을 착공하여 1903년 4월 완공하고 1903년 6월 점등하였음을 각종 관련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03년 인근에 새로운 등대가 건설된 이후 등대의 기능과 역할을 중단
-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LO부대(일명 켈로부대)는 당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팔미도를 미리 탈취하여 교두보를 마련하고 1950년 9월 15일 새벽 팔미도등대를 점등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개시를 알리고 맥아더 장군의 연합군함대가 인천만으로 안전하게 상륙,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

<특징>

- 팔미도등대는 1895년 등대 건설을 위해 국내 한국 연안과 건설 대상지를 조사하였던 일본 등대전문가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洵彦, 1853~1932년)가 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나중에는 브라운이 초청한 영국 기술자 존 레지널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 1858~1921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 팔미도등대는 1902년 3월 건설을 착공하여 1903년 4월 완공하고 1903년 6월 점등하였으며, 기본적 형식은 전체 높이 7.6m의 등대와 등대 양쪽의 높이 1.8m의 석축 담장에 의해 구성.
- 직경 3.04m, 높이 4.5m의 원통형 등탑(燈塔) 상부에 등롱(燈籠)을 설치하고 등롱 외곽에는 철제 난간이 둘러쳐진 바닥을 설치하였으며, 등탑 내부에는 등롱으로 연결되는 길이 5m, 폭 0.3m의 철제 주물 사다리를 설치
- 등롱은 높이 3.1m, 직경 1.7m 규모의 철제 주물 구조물(영국 찬스형제상회 제작)로 반구형 지붕은 철제 주물, 원통형 벽체는 투명재질로 마감되었으며, 내부 중앙에는 1902 프랑스 ‘바비에 베날사(Barbier, Bénard & Turenne)’에서 제작된 회전식 등명기(燈明器)를 설치.
- 팔미도등대의 구조형식은 과거 관련문서에 연와석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기록되어 있고 지정신청서에는 2015년 시료채취 결과에 의한 무근콘크리트 구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외관에서 벽돌조, 석조, 콘크리트 구조 등의 기법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외관에서 등탑의 마감 및 벽체 상태는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추정 가능한 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출입구 주변의 화강석 장식, 화강석 전면 진입계단, 출입구 및 창문 상부의 화강석 인방, 등롱 외곽 외부 난간통로의 화강석 바닥과 테두리 돌출부 등은 석조로도 추정 가능한 기법을 보이고 있음.
- 등탑에 연결되어 높이 1.8m의 석축 담장이 양쪽으로 각각 10.7m, 8.8m 길이로 설치되어 있고 한쪽 담장에는 등탑 가까이 출입구 형식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담장도 등대와 함께 신청 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음.
- 2002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고 전체적으로 건축 당시의 기본적 건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등롱 및 등명기의 유지관리 상태도 양호하며, 대한제국기 건조물로서 원형의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팔미도등대 아래쪽 경사지에는 벽돌조, 동판 가락잇기 마감의 박공지붕의 소규모 사무소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팔미도등대와 관련되어 오래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구체적 건축연도가 확인되지 않아 건축이력에 대한 고증 및 조사가 필요함.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팔미도등대가 1902년 3월 건설을 착공하여 1903년 4월 완공하고 1903년 6월 점등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은 다수의 관련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일본 등대전문가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洵彦, 1853~1932년), 대한제국 총세무사 존 맥리비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35~1920), 영국 기술자 존 레지널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 1858~1921년) 등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 고증기록도 존재함.

- 현재 등대 지정문화재로는 팔미도 등대 외에 가덕도 등대(부산 유형문화재 제50호, 1909년 건설), 호미곶 등대(경북 기념물 제39호, 1908년 건설), 울진죽변 등대(경북 기념물 제154호, 1919년 건설)의 사례가 있음.
- 현재 등대 국가등록문화재로는 고흥 구 소록도갯생원 등대(제72호, 1937년 건설),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제106호, 1958년 건설), 군산 어청도 등대(제378호, 대한제국기 건설), 해남 구 목포구 등대(제379호, 대한제국기 건설), 신안 소흑산도 등대(제380호, 1935년 건설), 완도 소안면 당사도등대(제731호, 1909년 건설)의 사례가 있음.
- 팔미도등대는 그동안 알려진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현존하는 등대 중 건설연도가 제일 빠르고 가장 오래된 등대로서 역사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팔미도는 인천항의 출입하는 관문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오래전부터 해상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상부에 위치한 팔미도등대는 1903년 건설 이후 현재까지 그 중심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역할.
- 팔미도는 지리적 장점과 해상교통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역할을 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 제물포해전, 1950년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팔미도등대는 대한제국 시기 1902년 인천해관 공사국에 의해 소월미도등대(멸실), 북장자서등표(현존), 백암등표(현존)와 함께 건설되었으며, 오래전에 건설되었음에도 등탑, 등룽, 등명기 등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로서의 보존, 관리여건도 양호
- 이상과 같이 팔미도등대는 현존하는 등대 중 가장 오래된 등대로서 대한제국부터 근대기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련기록을 통해 연혁을 확인할 수 있고 원형의 보존관리 상태도 양호하므로, 사적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6.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 형태	토지면적	용 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인천 팔미도 등대	1903	콘크리 트 구조 (추정)	920㎡	등 대	인천광 역시 중구 무의동 산373	해양 수산 부	세종특별자 치시 다솜2로 94, 5동	인천지 방해양 수산청	인천광역 시 중구 서해대로 365-1
			11.7㎡						
			1동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고 보존, 관리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고시되어 있으며, 사적 지정시에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0.5.21(목)	대상 문화재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373번지 소재 팔미도 등대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팔미도(구)등대		
	③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에서 남쪽 15.7km 떨어진 • (구)등대 인근 (구)등대사무소(옛 사무동), 팔미도등대역사관(2014) 및 군부대, (신)등대와 직원숙소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 지정(2002.02.04.) • 현충시설로 지정(국가보훈처 고시 제2013-10호). 		
	④연혁·유래 및 특징	1903. 4. 완공 1903. 6. 점등 1950. 10. 인천상륙작전 지원 2002.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2004. 등대 기능 신등대로 이전 2016. 5. 등탑보수정비 2017. 5. 돌담보수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최초의 등대(1903년 건축, 사적지정기준 제1호 나목) 6.25 전쟁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기여(사적지정기준 제1호 다목)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등대 1동(면적 11.67㎡) 돌담 1식/길이 각 8.8m, 10.659 m/ 높이 1.8m, 두께 0.8m		
		<보호구역>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 373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제안한 활용방안: 팔미도 등대마을-팔미도(구)등대, 팔미도(신)등대, 팔미도역사관, 팔미도(구)등대사무소, 산책로 등의 물리적 요소를 정비, 연결.		
종합의견	팔미도 등대는 한국 최초의 등대이자 최초의 콘크리트 축조물 및 최초로 근대 광학기구를 사용한 중요한 유물로 현재 그 원형이 비교적 남아있으므로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제출자 : ○ ○ ○				
문화재청장 귀하				

팔미도등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I 최초의 등대 : 팔미도 등대

1. 등대

1) 개관

- 가. 해발고도 71m 섬 정상에 세워진 높이 7.9m, 지름 3.04m의 원형 콘크리트 축조의 등대
- 나. 1903년 4월 완공, 6월 점등
- 다. 불빛 10km 밖에서 볼 수 있는 6등급 프레넬렌즈의 등명기 설치
- 라. 점등 시부터 유인 등대{전국 38개의 유인 등대(2018년 해양수산부) 중 하나. 인천 관할의 유인등대 4기 중 하나}-숙소, 사무동
- 마. 인근 등대의 원료 공급을 위한 창고 등이 마련
- 바. 등탑 보호를 위한 석조 돌담- 최근 정비

2) 연혁

가. 대한제국 최초로 세워진 등대

- 1903년 대한제국 정부의 경비로 세워진 일본 상선과 군함 등 선박 운항을 위한 등대
- 특징 : 인천 팔미도 지리적 특성에 의해 일본이 등대 입지로 처음 설정
 - 1894년 6월~9월 연안 등대건설관련 조사와 측량 결과 가장 먼저 선택된 곳임
 - 팔미도 부근은 항로 폭이 좁고 수심이 얕으며
 - 큰 조석 간만의 차, 강한 조류
 - 인천항 진·출입 항로 중앙 위치
 - 팔미도를 중심으로 대형 선박은 비교적 수심이 양호한 좌측 항로, 소형 선박은 사주(沙柱)와 얕은 여울의 우측 항로 이용.
 - 해역 여건으로 1897년부터 팔미도 서단에 항로표지를 설치 운영
 - 일본과 서구 여러 나라의 항로표지설치 요구로 1902년 5월부터 팔미도 정상에 콘크리트 등탑 건립, 1903년 3월 완공, 6월 1일 점등
 - 1955년의 국제연합 한국부흥단(UNKRA)의 원조 복구계획에 힘입어 등대영조물, 발동발전기, 전기시설, 등대 보급선 등의 복구계획이 추진
 - 1960년대 국제협조기구(FOA)의 자금으로 현대식 등대로 전환.
- 건축 과정
 - 1901년 12월(메이지 34년) 일본의 체신기사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絢彦)가 한국정부의 초빙으로 파견되어 등대 건설에 착수
 - 당시 총 세무사 브라운(J.M. Brown)이 1902년 3월에 인천항 청국조계지(일제강점기 이후 지나정(支那町)으로 명칭 변경)에 해관등대국 설치
 - 이시바시 아야히코 병으로 귀국('회고 기사'에서 소월미도 등대를 자신이 설치한 최초의 근대 등대로 언급)
 - 1903년 3월에 요코하나 관리소 기사 아오야마(青山) 초빙. 그 역시 병으로 약 9개월 만에 해약 후 귀국
 - 1903년 총세무사 브라운, 상해 등대국 기사인 영국인 존 레지널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 哈爾定)에게 등대 건설 사무 일체 촉탁, 등대사업 설계 담당.
 - 석조로 계획. 축조 과정에서 돌 운반의 어려움과 비용의 문제로 포기, 콘크리트 축조 방식으로 변경(1902년 10월 7일 자 영국 부영사관 팩스(H. H. Fox)의 보고서 3항. by Acting Vice-Consul H. H. Fox)

- 콘크리트 축조 방식은 거푸집을 만들어 한 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 250mm 높이로 한 단씩 콘크리트를 나누어 부어 올리는 방식으로 축조 (cf 1. 『한국등대일람표』(1907)에 의하면 연와석조로 기록됨. 2. 『등대항로표지관리소 기록』(1910)에는 콘크리트로 기록)
- 백색 도장
- 등탑 내부: 가는 모래 이용한 모르타르 미장
- 등탑 출입구 좌·우측에는 화강석 기단, 목재여단이 출입문 설치
- 등롱으로 오르기 위한 철제 사다리 설치
- 유인 등대로 등대원의 숙소와 유류저장 창고 건축



팔미도 등대 전경



등탑 내 애자(페인트로 덧칠됨).

- 현재
 - 200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40호
 - 2003년 새로 건축된 신등대 등대 기능 이전
 - 2004년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유산
 - 2009년 보수 및 원형복구. 일반 공개
 - 2016년 등탑 보수 정비(금속안정화 처리, 균열부 충전, 건습식 세척, 창호보수)
 - 등탑 2016년 보수공사(등탑 내 전기 설비용 애자가 페인트칠로 원형 손상)
 - 등탑 보수 이후 부식 상황-2016년 수리에도 불구하고 도장의 문제로 부식이 진행됨

2. 등명기

1) 렌즈 및 전구

- 1902년 프랑스 바비엘 베날사 제작의 3면 렌즈의 6등급 프레넬 렌즈(재질: 유리)
 - Barbier, Benard, et Turenne (BBT):1862년 설립, 프레넬렌즈를 이용한 등명기 제작에서 선두 기업, 1982년 해체)
 - 렌즈는 유리를 가공해 3면(3섬광을 발하기 위함)으로 제작
 - 1면의 렌즈는 빛을 발산하는 중앙렌즈(1개)와 빛을 모으는 볼록렌즈(6개)로 구성
- 등불은 세 개 백색 점멸등, 점멸주기 8초로 3회 24초 주기로 16초 간격. 한 회 회전 주기 40초.

- 광원: 초기 석유등 백열등에서 1954년 자가발전 설비 조성으로 백열전구등 250W(후 500W)로, 1967년 수은등, 1981년 할로겐으로 교체
- 1962년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 광력: 초기 90축광 백색광(현재 5만 축광)
- 광달거리: 20해리



등탑에 부착된 등명기 제작사 패널



등명기 제작사

- ※ 프레넬 렌즈는 프랑스 물리학자 Augustin-Jean Fresnel이 등대를 위해 개발한 복합 콤팩트 렌즈로 100만 배를 구한 발명품으로 불림
- 볼록렌즈에서 사선을 없애
 - 볼록렌즈의 기능은 그대로 간직한 렌즈 빛의 파동성에 의한 간섭현상을 최대한 제거하고 빛을 굴절시키고 확대하는 방식의 렌즈
 - 작은 에너지로도 강력한 빛을 형성
 - 같은 광도의 빛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렌즈 여러 겹을 배치해야 하므로 두껍고 무거워지는 렌즈의 문제로 구성이 불가능
 - 프레넬이 렌즈의 면을 동심원 고리로 나누는 조르주 드 뷔퐁(1748)의 아이디어를 1820년에 실제 렌즈에 채용해 얇고 가볍고 커다란 렌즈 제작에 성공.



등명기 3면 중 한 면.

2) 회전기

- 부력이 강한 수은 위에 등명기를 띄운 수은조식(水銀槽式)였을 것으로 추측됨 (1897년 프랑스 개발, 1904년 이래 가동된 등명기 대부분이 이 프랑스 바비엘 베넬사의 수은조식 회전기를 채택

- 부력이 큰 수은이 가득 든 통에 등명기렌즈대를 띄우고 와이어로프에 매단 추가 내려오면서 회전(예: 소청도 등대, 속초 등대)
- 1903년 설치된 팔미도 등대의 등명기가 수은조식이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음
- 1930년대 일본에서 이를 대체하는 모방품이 개발, 이후 등명기들은 대개 이를 채택했으나 팔미도 등대의 채택 여부는 알 수 없음
- 1954년 9월 자가발전 시설 구비해 전기 동력의 회전기로 대체-대체전 회전기 원형은 찾을 수 없음
- 현재 회전기와 모터는 1986년 교체된 것임(장비이력에는 1985년으로 되어 있으나 회전기 패널에는 1986년으로 새겨짐)



회전기 패널에 새겨진 제작 연도



1985년 교체된 회전기



회전기 모터

3) 등룽

- 영국 찬스형제상회 철재 주물: 등명기 보호 목적, 분해 조립이 가능.
- 높이 3.17m, 직경 1.7m
- 반구형 돔형
- 광원 부분: 유리(높이 0.55m, 직경 1.70m)
- 등룽 상부 피뢰침과 풍향계 설치



팔미도 등대 등룽



등룽 부식 상황

- 현재: 비상용으로 가동-신등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용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

3. 기타 부속 시설

1) 돌담



등대 보호 돌담

- 등대 양쪽의 구조물:길이 각각 8.8m, 10.66m. 두께 0.8m, 높이 1.8m
- 팔미도 등대 축조 함께 축조되었다고 하지만 그 원형을 알 수 없음
- 2017년 5월 보수(페인트 제거, 건습식 세척, 줄눈보수, 페인트 도포)

2) 옛 사무동

- 1903년 건축되어 1962년 사무동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등대원 숙소 및 등대 사무실 사용.
- 박공 지붕 형태의 단층 건물, 좌우 벽면에 각각 2개, 뒷 면에 각 1개의 오르내림창.
- 내부 천정과 바닥: 목재마루 널로 구성
- 1960년대 후반, 군인 교회로 사용
- 2003년 수리 정비 이후 전시실로 사용



등대원 숙소 로 쓰였던 옛 사무동 전면



사무동 측면

II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팔미도 등대-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등대

- 6·25 전쟁으로 팔미도에서 후퇴 (식량난으로 도저히 등대 생활이 곤란하여 일시 철수 :정순중, 「등대원의 일기」(2003)
- 후퇴 시 '점등 불능'으로 상태 전환

- 유엔군 총사령부, 9월 15일 0시 팔미도등대 점등 전문 하달
- 팔미도 탈환 작전{KLO(Korea Liaison Office; 미 극동군 사령부 주한 연락처)}-9월 15일 이전 두 차례 교전(밤에는 KLO, 낮에는 북한군 점령), 9월 14일 야간 공격으로 장악.
- 1950년 9월 15일 0시 15분 점등으로 인천상륙작전이 개시
- 등명기 점등 불능 상태 : KLO 대원의 신화(“땅바닥에서 우연히 노즐을 찾아 끼웠다”)
- 해군의 요청으로 등대원이 팔미도로 돌아와 석유램프를 켜고 가성소다 등 재료가 없어 등명기를 손으로 직접 회전했다고 회고
- 이런 역사적 현장임을 기려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지정(현충시설, 관리번호 14-2-36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3-10호))

Ⅲ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등대는 대한제국기에 지어진 최초의 등대
- 콘크리트를 이용한 축조물임
- 100여 년 동안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 담당
- 동력 전환 단계마다 회전 기계의 변천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존재하며
- 인천상륙작전이라는 6.25 전쟁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군사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님.
- 사적지정기준 제1호 나목과 다목을 모두 충족함
- 보호물로 구사무동(비록 원형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함-이는 팔미도 등대가 유인 등대였고 100년 역사의 현장으로서 중요한 흔적을 가지기 때문임

Ⅳ 참고자료

- ○○○, “대한제국의 등대건축에 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1권 6호(통권200호) 2005.06
- 등대문화유산(가덕도 팔미도등대) 종합조사 연구용역(2019)
- 해상용 등명기(750mm 회전식)표준규격서[제2012-502호, 국토해양부, 2012.04.]
- 국립등대박물관 <https://www.lighthouse-museum.or.kr/kr/sub.jsp?code=H04050000>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0.5.21(목)	대상 문화재	팔미도 등대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등대		
	②문화재 명칭	(구)팔미도 등대		
	③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5.7km 떨어진 작은 섬 팔미도에 우뚝 솟아 있는 팔미도등대는 인천항 진입항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함. 새로운 팔미도등대가 2003년 12월 건립되기 전까지 100년간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금은 인천시유형문화재(제40호)로 지정·보존되고 있음. (구) 팔미도등대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음.		
	④연혁·유래 및 특징	인천항 입구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1902년 3월 인천 중구 선린동에 설치된 인천해관 공사부 등대국이 1902년 5월에 착수하여 1903년 4월에 준공한 근대식 등대이며, 6.25전쟁시 인천상륙작전시 유엔 해군함정의 수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내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903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유인등대라는 상징성(사적지정기준 제1호나목)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건과의 연관성(제1호다목)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구)팔미도 등대 1동(면적 11.87㎡ / 높이 7.9m) 및 돌담(돌담 1식 / 길이 각 8.8m, 10.659m / 높이 1.8m / 두께 0.8m) <보호구역> 무의동 산373 임야 920㎡(1필지)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등대와 군 시설만 있고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팔미도는 2003년부터 유람선만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음. 하선한 관람객들은 가이드 인솔하에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등대의 훼손 우려는 거의 없음.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팔미도등대에 등대원이 상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건조물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종합의견	사적으로 지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제출자 : ○ ○ ○				
문화재청장 귀하				

팔미도등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구)팔미도 등대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선 유엔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등대였음. 유엔군은 팔미도에서 인천상륙을 위해 월미도 및 인천항 등으로 향하는 상륙전 함대들의 수로를 안내하기 위해 팔미도 등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상륙작전시 수로를 안내하여 크게 기여하였음.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1950년 8월 26일 덕적도, 영흥도, 팔미도 일대 등 정확한 적정과 해안정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특수요원의 침투를 계획했음.
- 그러나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비추어 책임자가 흔치 않았으나, 다행히 클라크 대위가 추천되었음. 그는 극동군사령부 안에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그는 태평양전쟁 시기 호주, 필리핀, 오키나와 등을 거쳐 수많은 남태평양전선에 참가하였고, 항해, 통신, 포술 등 대전 이후의 다양한 함상 근무경력뿐만 아니라 병조장이 되기까지 오랜 사병경력도 소지하고 있었음. 그가 8월 26일 정보수집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자 서해지구 책임자인 앤드류스 소장의 주선으로 2명의 한국인 통역과 함께 영국해군 구축함 웨리티호와 한국 해군함정 PC703함과 함께 9월 1일 영흥도와 팔미도에 도착하였고, 주민들의 우호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정보수집에 착수하게 됨.
- 특히 그는 당시 작동하지 않고 있던 팔미도 등대의 항해등을 점화하여 아군함선들이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였고, 적이 아군의 상륙작전을 예상하고 있는지 혹은 방어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정보수집을 수행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9월 15일 새벽 유엔해군 상륙부대는 클라크 대위가 복구한 팔미도 등대의 휘황한 불빛으로 수로 진입을 인도하여 무난히 진입하는데 성공하였음.
- 팔미도 등대는 6.25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소중한 문화 자산임. 따라서 (구)팔미도 등대는 6.25전쟁 관련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평가됨.

15. 「강화 전영근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강화 전영근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전영근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3.16.)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5.2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전영근 가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105
 - 소유자 : ○○○
 - 수량 : 2동(1층)
 - 면적 : 174.7㎡(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안채 1901년 중수, 바깥채 1881년 중수(추정)
 - 구조 : 목조 주택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3.16.) : 「강화 전영근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20.5.2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5.20.)
 - 조사대상 주택은 'ㄱ'자형 평면의 안채와 'ㄴ'자형 평면의 바깥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배치를 구성하였으며, 안방 상량문은 1901년에, 바깥채 상량문은 1881년에 각각 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그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당시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

- 오래전에 건축된 주택이지만 근대기의 역사적 인물, 사건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전통적 형식과 기법 위주의 주택으로 근대기의 양식과 기법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 ○ ○ ('20.5.20.)

- 사직동 고택은 100년이 넘는 존치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근대 한옥으로서의 특징이 보이지 않으며,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자체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20.5.20.)

- 근현대기에 활동하였던 유명인과 관련되거나 특정 사건 등과 관련된 가옥도 아니고 근대기 한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강화도에 남아 있는 근대기 한옥이 많지 않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근대기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서 이 가옥의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를 검토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며, 지자체에서 시도등록문화재 및 건축자산 등의 제도를 통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인천 강화 부근리 전영근 가옥 (구) 인천 강화 부근리 황씨가옥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105
4. 소유자 :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한식 목구조
 - 준공일 : 안채 1901년 중수, 바깥채 1881년 중수 (상량문 기록)
 - 수량 및 면적 : 2동, 연면적 95.9㎡(안채), 78.8㎡(바깥채)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0.5.20.)

<○○○>

1) 개요

- 조사대상 건물은 강화도 고려산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회산황씨(檜山黃氏)가 여러 대에 걸쳐 거주하며 집성촌을 형성하였던 하점면 부근리 마을에 위치한 주택
- 현 소유자인 ○○○의 외고조 황씨가 건축한 주택으로, 전씨 모친 ○○○(1931년 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주택
- 외고조 황씨는 당시 강화도 시문 일대에서 최대지주로 3년에 걸쳐서 대규모 주택을 지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ㄱ'자형 평면의 안채와 'ㄴ'자형 평면의 바깥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배치를 구성하였으며, 바깥채는 중문이 설치되어 문간채의 역할도 함
- 안채는 대청 상부 종도리의 상량문에 신축(辛丑, 1901년) 2월 19일에 상량을 하였고 선대의 고가를 자손들이 중수하였다는 의미의 긍구궁당(肯構肯堂)이 기록되어 있어 1901년 중수된 것으로 확인 가능
- 바깥채는 사랑방 상부 종도리의 상량문에 숭장기원후광서(崇禎紀元後光緒) 신사(辛巳, 1881년) 임진(壬辰, 4월)에 중수입주(重修立柱)하고 상량(上樑)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1881년 중수된 것으로 확인 가능
- 'ㄱ'자형 평면의 안채는 꺾임부에 안방을 배치하고 한쪽 방향으로 대청, 건넌방을 배치하고 다른 한쪽 방향으로 부엌, 광, 찬모방을 배치하였으며, 부엌 상부에 다락을 설치

- ‘ㄴ’자형 평면의 바깥채는 꺾임부에 중문을 설치하고 한쪽 방향으로의 외부에서 뒷마루를 통해 직접 출입이 가능한 사랑방을 배치하고 다른 한쪽 방향으로의 하인방, 광을 배치
- 바깥채 광의 판문에서 경진년(庚辰年) 경진월(庚辰月) 경진시(庚辰時)라고 쓰여진 명문 흔적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깥채가 경진의 간지가 년, 월, 일 세 번 겹치는 1880년 4월 21일(음력 3월 12일)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 가능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안채는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훼손되었으며 특히 지붕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며, 지붕 기와, 지붕 목구조 부재, 외벽 마감 등은 부분적으로 개보수된 상태이고 부엌, 난방방식 등이 변형된 상태
- 바깥채는 2018년 개보수공사를 통해 지붕 등 부분적으로 보수되고 광 부분이 전통문화 교육장으로 개조되며 훼손이 심한 부분이 우선 보수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변에 도로, 경작지 등 여유공지를 확보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주는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는 바깥채의 광을 전통문화 교육장으로 개조, 활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소유주 가족이 거주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으나,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공공성, 구체성, 지속성 등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다수의 주택이 등록되어 있으나, 근대기의 역사적 주요 인물과 관련된 주택이거나 근대기의 특징적 기법과 양식이 적용된 주택들이 등록된 상태
- 조사대상 주택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기존 주택들에 비해, 근대기의 역사적 인물, 사건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전통적 기법 위주의 주택으로 근대기 양식과 기법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

7) 등록가치의견

- 조사대상 주택은 ‘ㄱ’자형 평면의 안채와 ‘ㄴ’자형 평면의 바깥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배치를 구성하였으며, 안방 상량문은 1901년에, 바깥채 상량문은 1881년에 각각 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그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당시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
- 오래전에 건축된 주택이지만 근대기의 역사적 인물, 사건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전통적 형식과 기법 위주의 주택으로 근대기의 양식과 기법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

-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등록문화재, 건축자산, 향토문화유적 등의 제도를 통해 보존, 관리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인천 강화 부근리가옥

<○○○>

1) 개요

- 강화 부근리 사직동 고택은 고려산 북쪽 기슭에 노후화된 한옥을 1901년(辛丑年)에 중건한 것으로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음. (‘강화의 상량문’ 강화문화원)
- 부근리 일대는 회산황씨(會山黃氏)의 世居地로 사직동 고택도 황 씨의 소유였다가 1993년에 현 소유주인 외손자 ○○○에게 상속되었음.
- 소유주의 모친인 ○○○ 님은 이 고택에서 태어나신 후 지금까지 거주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택의 문은 큰대문, 중대문, 쪽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대문을 들어서서 전실을 통해 중대문으로 나가야 중정으로 진입할 수 있고, 전실에서 우측의 쪽대문으로 나가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건물임.
- 집의 구조는 바깥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깥채는 좌측엔 사랑방, 우측에는 일꾼사랑방·찬광이 있고, 안채에는 도움이방·부엌·안방·마루·건넌방이 있음.
- 사랑방·안방·건넌방엔 다락, 사랑방과 거실 그리고 안방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반적으로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나, 바깥채는 보수공사로 인해 일부가 변형되었음.
- 안채는 구조부재의 노후화와 보일러 공사 등 생활을 위한 잦은 공사가 구조체에 영향을 주어 기와가 손상되어 있고 지붕전체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음. 건물 전체가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바깥채는 보수공사를 했으나, 손상된 구조부재를 교체하지 않아 사랑방의 부재들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주변에 유해한 시설은 없으며,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 보존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안채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바깥채를 다도와 명상의 체험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나,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취약하고 강화도의 특색을 보여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좀 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사직동 고택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다른 고택들에 비해 특별한 점이 없으며,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들이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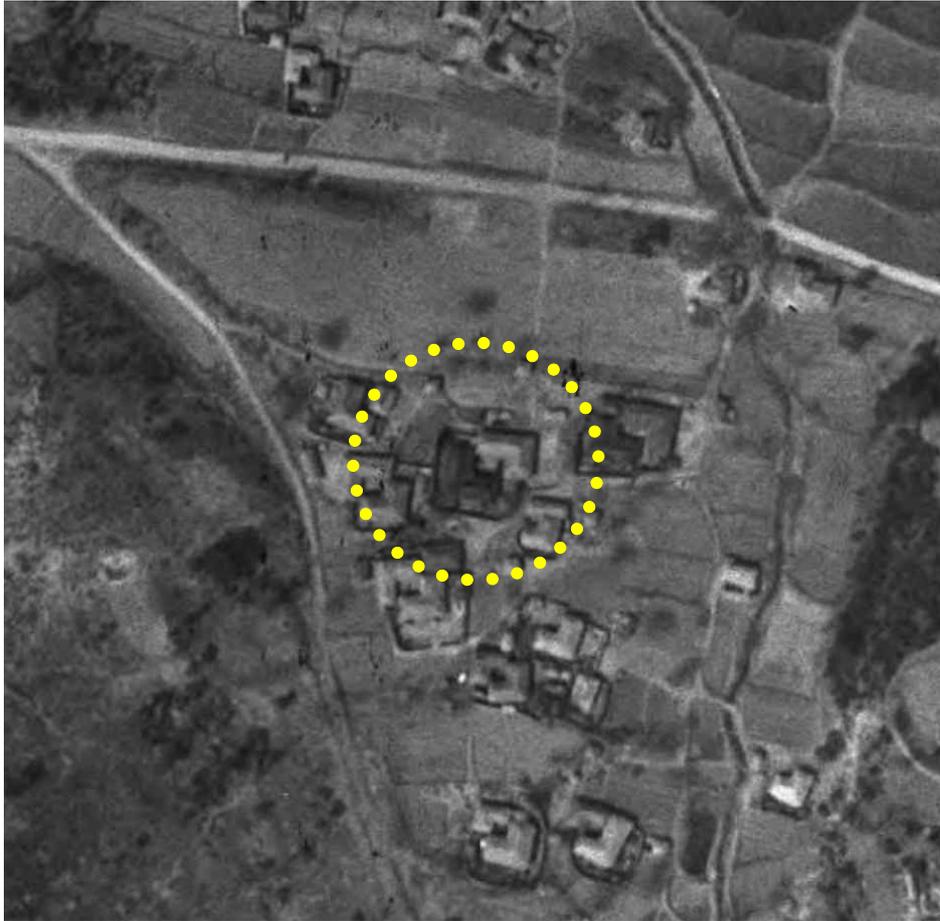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사직동 고택은 100년이 넘는 존치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근대 한옥으로서의 특징이 보이지 않으며,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자체의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개요

- 부근리 가옥은 남쪽으로 고려산을 등지고 북향하고 있다. 고려산 줄기가 마을과 북으로 열린 들녘을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강화읍에서 교동으로 향하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 안채 종도리에 기록된 상량문에 의하면 현 소유자의 외고조부 황씨가 1901년 2월 19일에 건축한 것이라 하며, 외할아버지 소유의 집을 어머니 ○○○씨가 물려받았다고 한다. 외고조부는 강화도 서문 최대지주였다고 전한다.(현지 조사 시 상량문은 어두워 확인 불가하였음)
- 건축물대장에는 1930년 사용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최초 등기된 것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전하는 말로는 본 가옥은 병어리 목수가 3년여에 걸쳐 건축하였다고 하며, 목수가 병어리였던 까닭에 큰 대문을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다.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600여 평 넓은 대지 위에 ㄱ자형 대문간사랑채와 ㄴ자형 안채가 튼口자 배치를 하고 있다. 1954년 항공사진으로 보아 원래 대문간사랑채는 초가였고 안채는 기와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모두 지붕을 기와로 마감하였다.
- ㄱ자형 대문간사랑채는 북쪽 도로변에 면하는 5칸과 남쪽으로 꺾인 3칸 건물로, 북변의 5칸 중 3칸은 헛간 혹은 곳간, 나머지 2칸은 중문간으로 사용하되 동북 모서리 출입 방향은 동쪽으로 하였다.

- 동북모서리 대문을 경계로 남쪽으로 꺾인 사랑채는 문간 포함 전면 3칸 규모로 그 중 2칸을 사랑방으로 구성하였다.
- 사랑채는 2고주 5량 구조로 사랑방의 앞뒤로 퇴칸을 두고 툇마루를 설치하여 외부에서의 출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대문간의 경우 사랑방의 북쪽 반칸에 아궁이를 둠으로써 대문칸에서 직접 안채가 보이지 않고 꺾여 들어가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 안채는 중부지방 양반집 안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전퇴가 있는 2칸 대청마루를 가운데 두고 서쪽으로 2칸 안방을 세로로 꺾어 길게 배치하고, 대청 동쪽에 1칸 건넌방과 건넌방에 이어진 1칸 마루방을 두었다. 또한 안방의 북쪽으로는 2칸 부엌과 1칸의 찬방을 달아내어 안채는 5칸 × 5칸 규모가 되었다.
- 1고주 5량 형식의 안채는 고주 위치에 상부에 교살창을 두고 있는 4분합문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나 툇마루는 개방하여 출입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방의 배면으로도 툇마루를 두고 있는데, 이는 북향한 가옥의 특성상 오후에 서쪽으로부터 햇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건넌방의 단부에 정자살 미서기 판문을 설치하고 유리창을 끼운 것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근대기 일본식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 허름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1고주5량 형식으로 종도리 아래 뜬창방을 사용하고 있고, 대청마루 전면에 교살창을 둔 사분합문을 설치하는 등의 세부적인 수법은 일반 민가보다 격식을 갖추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관리

- 대체로 건축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내부공간을 생활에 편의에 의해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 대문간사랑채는 원래 추가였으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와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어 건물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안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회침부분의 구조가 취약한 결과 안마당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회침 지붕엔 누수가 있어서 방수포를 덮어놓은 상태)
- 현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애착이 있어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은 편이지만 건축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한옥체험 가옥으로 운영하며, 다도 명상 전통음식 만들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강화읍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가옥의 상태가 불량한 까닭에 현 상태로의 계획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 생각됨
(다만, 수리가 잘 이루어질 경우 활용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전통가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평창동 박종화 가옥 등과 같은 유명 인물의 생가 혹은 생활공간과 관련된 가옥, 둘째는 예천 윤우식 생가 등과 같은 독립운동사 또는 사건에 관련된 가옥, 셋째는 근대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가옥으로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가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가옥은 인물과 사건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옥 전체의 변형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한옥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근현대기에 활동하였던 유명인과 관련되거나 특정 사건 등과 관련된 가옥도 아니고 근대기 한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강화도에 남아 있는 근대기 한옥이 많지 않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근대기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를 검토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6. 「강화 박수현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강화 박수현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박수현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3.16.)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5.2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박수현 가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236번길 35-1
 - 소유자 : ○○○
 - 수량 : 1동(1층)
 - 면적 : 145.42㎡(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1937년 추정(안채 대청 상량문)
 - 구조 : 한식목구조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3.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20.5.2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5.20.)
 - 철종 또는 금도사 관련 주택인지에 대한 고증, 안채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배치, 구성 등 건축연혁에 대한 고증이 미흡하여 건물의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현재 안채만 남아 있어 본래 대규모 주택으로서의 진정성, 완전성이 부족하고 또한 남아 있는 안채도 2018년 대대적 개보수공사를 통해 주요 부재 및 재료가 다수 교체되고 내외부 마감과 공간구성도 일부 변형되는 등 원형의 보존도 양호하지 못하며 근대한옥으로서의 건축적 특성도 두드러지지 못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등록문화재, 건축자산, 향토문화유적 등의 제도를 통해 보존, 관리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 ○○○('20.5.20.)

- 보존관리와 주변 환경관리 여건은 양호하나, 한옥체험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식으로 변형된 편리한 한옥에서의 체험은 진정성 있는 한옥체험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의 강화 옥림리 한옥은 1937년에 지어진 건축물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옛 건물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우므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5.20.)

- 근현대기에 활동하였던 유명인과 관련되거나 특정 사건 등과 관련된 가옥도 아니고 가옥의 전체를 구성하는 건물이 다 남아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안채 건물의 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성북동에서 사랑채 (1958년 건축)를 이건하여 하나의 완성된 가옥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사랑채의 이력을 좀 더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됨. 또한, 강화도에 본 가옥을 능가하는 전통가옥이 없다는 점에서 본 가옥의 안채가 근대기 강화도를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를 검토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며, 지자체에서 건축자산 등의 제도를 통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강화 옥림리 근대한옥 (구) 금도사 주택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236번길 35-1
4. 소유자 :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준공일 : 1937년 2월 27일 상량 (안채 대청 상량문 기록)
 - 수량 및 면적 : 1동, 145.42㎡(연면적), 145.42㎡(건축면적)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0.5.20.)

<○○○>

1) 개요

- 조사대상 건물은 철종(1831~1863년)이 1849년 즉위하기 이전 강화도 유배생활 당시 친한 친구였던 금도사가 살았던 집으로, 철종이 즉위 후 금도사에게 하사하였고 본래 99칸 집이었다고 전해지는 주택
- 현재 조사대상 건물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옥림리 일대는 금도사 후손들이 집성촌을 형성하고 모여 살았다고 전해지며, 조사대상 건물도 2015년까지 금씨 후손들이 소유
- 상량문에 의하면 1937년에 상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철종이 하사한 금도사 주택의 건물이 아니고 후에 금도사 주택 터에 또는 그 인근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됨
- 본래는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대규모 주택이었으나 현재는 안채였던 조사대상 건물만 남아 있으며, 2017년 안채 우측에 서울 가회동에서 철거된 한옥(1958년 건축)의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 주요부재를 활용하여 사랑채를 신축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사대상 건물은 강화도 해양관방유적 5진, 7보, 53돈대 중 하나로 일부 흔적이 남아 있는 옥창돈대(玉倉墩臺)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안쪽의 나지막한 구릉지에서 마을과 들판을 내려다 보는 곳에 입지
- 조사대상 건물은 본래 안채, 문간채 등 여러 채의 건물들로 구성된 대규모 주택에서 안채였던 건물이며,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고 나머지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고 최근에 사랑채를 신축

- 안채 대청 상부 종도리에 기록된 상량문의 ‘소화십이년정축이월이십육일견주살량 (韶和拾貳年丁丑二月二十六日未時堅柱上樑)’ 명문을 통해 1937년에 건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ㄱ’자형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격임부에 위치한 안방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대청, 방을 배치하고 다른 한쪽으로 부엌, 사랑방, 누마루를 배치하고 대청 하부에 지하실을 설치.
- 기본적으로 근대한옥 형식으로 건축되었으며, 기둥 높이의 확장과 고창 형성, 사랑방과 누마루 형성, 연결복도 형식의 마루공간 형성, 마루공간의 실내화와 유리덧문 설치, 벽돌조 외벽 마감, 지하실 설치 등 당시 근대한옥 기법을 적용
- 2018년 대대적 개보수공사를 통해 노후화, 훼손된 목부재와 창호 다수가 교체되고 기와는 전면 교체되고 외벽마감이 일부 교체되었으며, 내부는 부엌이 현대식으로 개조되고 화장실이 설치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근대한옥으로서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2018년 대대적 개보수공사를 통해 기본적 부재와 재료의 많은 부분이 교체되어 내외부에서 역사적 모습과 분위기는 많이 훼손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전반적 유지관리는 매우 양호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마을 안쪽의 넓은 대지 내부에 한적하게 위치하고 있고 소유주는 한옥에 애착심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는 현재 신축된 사랑채에 거주하며 안채를 한옥체험 가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공공성, 구체성, 실현성 등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근대한옥’ 명칭이 부여된 사례는 광주 장덕동 근대한옥 (국가등록문화재 제146호) 등 6건의 사례가 있고 이 외에도 근대한옥 형식의 가옥, 생가 등이 다수 등록된 상태
- 근대한옥으로 기존 국가등록문화재 사례들에 비해 조사대상 건물은 안채만 남아 있어 주택으로서의 완전성이 부족하고 인물 또는 사건과 관련된 역사성, 근대한옥으로서의 두드러진 건축적 특성이 미흡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

7) 등록가치의견

- 1937년 건축된 근대한옥이지만 철종 관련 금도사 관련 주택인지에 대한 고증, 안채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배치, 구성 등 건축연혁에 대한 고증이 미흡하여 건물의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

- 현재 안채만 남아 있어 본래 대규모 주택으로서의 진정성, 완전성이 부족하고 또한 남아 있는 안채도 2018년 대대적 개보수공사를 통해 주요 부재 및 재료가 다수 교체되고 내외부 마감과 공간구성도 일부 변형되는 등 원형의 보존도 양호하지 못하고 근대한옥으로서의 건축적 특성도 두드러지지 못한 상태
-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등록문화재, 건축자산, 향토문화유적 등의 제도를 통해 보존, 관리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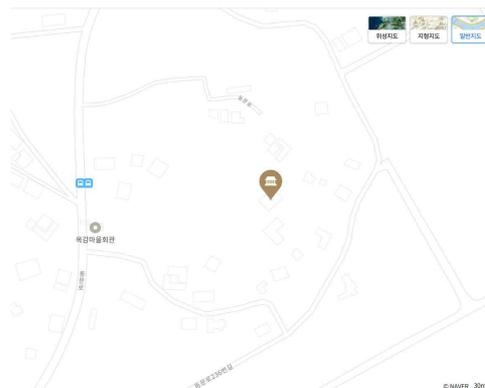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인천 옥림리 근대한옥

<○○○>

1) 개요

- 강화 옥림리 한옥은 강화문화원이 발간한 ‘강화의 상량문’의 기록을 근거하면 1937년(昭和 12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대상인 건축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입지조건은 옥림리 옥창돈대 아래의 나지막한 구릉지에 건축되어 앞에는 넓은 경작지가 보이는 곳이며, 예전에는 1,000여 평 규모였음.
- 건물의 배치는 2008년 조사에서 축대 위에 벽돌담장을 쌓고 ㄱ자형 안채(20칸)와 ㄴ자형 문간채(8.5칸)가 있었으나, 현재는 안채만 남아있고 문간채는 멸실되어 성북동 한옥을 이축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30년대 서울에 건축된 근대한옥과 유사한 양식.
- 외관은 한옥이나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음.

- 외부 덧문의 장식이 독특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등록대상인 건축물은 1937년에 건축된 건물과는 다른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현재 소유주(○○○ 1990生)가 2016년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강화읍 신우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4년에 걸쳐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됨.
- 이 공사과정에서 기와는 신재로 전부 교체하였으며, 목부재는 모두 면담기를 함. 기존 벽체는 단열을 위해 해체한 후 단열재를 시공하고, 창호도 내부에 제작한 창호를 설치함. 기초부분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석재로 기초를 설치함.
- 현재의 건물은 1937년의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어 보존된 원형은 찾기 어려웠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건물의 보존관리와 주변 환경관리 여건은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한옥체험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식으로 변형된 편리한 한옥에서의 체험은 진정성 있는 한옥체험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다수의 근대한옥들이 지정되어 있으나, 신청한 대상 건물과 기존 등록문화재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2008년도의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에는 강화 옥림리 한옥에 대한 조사자들은 1937년의 안채를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건물에 대한 의견은 건축적 가치는 중하, 지정가능성은 하로 평가하고 있음.
- 현재의 강화 옥림리 한옥은 1937년에 지어진 건축물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옛 건물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우므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1) 개요

- 옥림리 가옥은 조선 숙종대 축조한 옥창돈대 아래 나지막한 구릉지를 뒤로 하고 앞으로는 넓직한 들을 바라보고 자리 잡은 가옥으로 지역주민들과 현 소유자의 말에 의하면 조선 25대 왕이었던 철종(재위 1849년 ~ 1864년)이 강화도령으로 지내던 시절 친구였던 금도사(금호춘?)의 집으로 전한다.
- 토지대장의 소유권자 변동내용에 의하면 1974년 ○○○ 소유였다가 1999년 아들이었던 ○○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2015년 ○○○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6년 현 소유자인 ○○○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원래 금씨 집안의 가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금도사와의 관계는 향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에는 1935년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안채 대청의 종도리장여 측면에 기록된 상량문은 “昭和 拾貳年 丁丑 二月 二十六日 未時 豎柱 上樑 亥坐巳向 應天上三光..... ” 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안채의 건축은 1937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강화도에서는 본 가옥이 99칸집으로 통하는데, 현재는 안채만 남아있고, 사랑채로 사용되는 ㄱ자 건물은 성북동에 있던 1958년 건축된 한옥을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라 한다.
- 2018년 2월부터 낡은 안채를 시군비 7천만원 포함하여 2억5천만원을 들여 원형대로 수리하여 현재에 이른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돈대 아래 평탄한 장방형 대지 500 여평 위에 문간채 없이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 건물이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원래 사랑채는 없었으나 2018년 안채를 수리하면서 성북동에 있던 건물을 이곳으로 이전하여 배치하였다고 한다. 대지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나지막한 담장을 둘렀다.
(금번 문화재로 신청한 건물은 사랑채 제외한 안채)
-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6칸의 규모로 ㄱ자로 격여 있다. 2칸 대청을 중심으로 동쪽에 2칸 건넌방을 배치하고 서쪽으로 세로로 2칸 안방을 배치하고 그 아래 2칸 부엌과 1칸 안사랑 및 1칸 누마루를 배치하였다.
- 일반적인 중부지방 양반집 안채의 형식을 따르되 안사랑마루를 누마루 형식으로 높게 하고 전면으로 돌출시켜 안주인의 위상이 높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청과 건넌방의 전면으로 뒷마루를 두고, 안방과 안사랑마루를 연결하는 복도를 뒷마루 형식으로 안채의 서쪽에 길게 설치하였다.
- 안채 대청 전면 뒷마루와 안방 후면의 뒷마루 복도 앞에는 매칸마다 미서기형식의 4짝 유리문을 설치하여 폐쇄적 공간을 구성하였지만 미서기문에 한지 대신 유리를 끼워 넣어 밝은 공간을 만들었다. (2018년 수리이전에는 간유리가 끼워져 있었음)
- 1고주 5량 구조를 기본으로 전면에 퇴를 설치하거나 배면에 퇴를 설치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를 날렵하게 처리하고 합각면에는 전돌로 글자를 새겨 넣었다.
- 전체적인 칸잡이는 8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안대청은 7자로 하였는데, 이는 2칸 대청을 커다란 대들보로 고주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 민가로서는 고급형식에 해당하는 민도리 소로수장집으로 처마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사용된 부재도 고급 육송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청 구조 역시 뜰창방을 사용하고 있고 등 세부적인 수법이나 사용부재에서 고급주택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안사랑마루에는 원래 장마루가 깔려 있었으나 수리하면서 우물마루로 바뀌었고, 안대청의 연등천장도 개관으로 마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엌은 현대식으로 개조하였지만 아궁이는 그대로 두었다.
- 수리 이전 사진으로 보아 건물 전체에 함석으로 만든 처마를 덧대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리과정에서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3) 원형보존·변형 및 관리

- 수리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지붕 기와와 서까래를 제외한 주요 가구구성부재는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원래 본 가옥을 구성하고 있었던 문간채와 곳간채 등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어느 건물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상량문이 전해져 오고 있다.
(광무7년 1904년 계묘년 3월 11일 상량)



- 현재 안채의 상태는 수리가 잘 이루어져 노후한 곳은 없고 햇빛이 잘 드는 양명한 장소로 통풍도 원활한 장소이고, 소유자의 부친이 거주하며 관리하고 있어 관리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한옥체험 가옥으로 운영하여 강화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강화읍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가옥의 상태도 양호한 까닭에 계획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전통가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평창동 박종화 가옥 등과 같은 유명 인물의 생가 혹은 생활공간과 관련된 가옥, 둘째는 예천 윤우식 생가 등과 같은 독립운동사 또는 사건에 관련된 가옥, 셋째는 근대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가옥으로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가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가옥은 인물과 사건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옥 전체의 구성을 알 수 없다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즉,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안채뿐이고, 가옥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건물을 소멸되고 없는 상태이다.
- 비록 건물 자체의 완성도는 높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와 기법을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인 것이 분명하지만 건축 당시의 건축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특정한 기술이나 공간적 특징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 다만, 철종과 관련된 인물로 금도사가 살던 집이라 하는 점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고려의 여지는 있지만 금도사가 살던 당시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점이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근현대기에 활동하였던 유명인과 관련되거나 특정 사건 등과 관련된 가옥도 아니고 가옥의 전체를 구성하는 건물이 다 남아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안채 건물의 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성북동에서 사랑채(1958년 건축)를 이견하여 하나의 완성된 가옥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사랑채의 이력을 좀 더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됨. 또한, 강화도에 본 가옥을 능가하는 전통가옥이 없다는 점에서 본 가옥의 안채가 근대기 강화도를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를 검토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추진경과

-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지원(종합정비계획 수립)
- '18.5.31. :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 '18.7.25. : 1차 자문회의
- '18.11.8. : 2차 자문회의
- '18.11.26. :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3) 종합정비계획 주요내용

- 종합정비계획(2019년 11차)



○ 종합정비 내용(2019년 제11차 회 심의)

구분	항목	내용	사업년도	
문화재 건물 보수	1	돈우실 지붕교체 및 리모델링	-지붕재 철거 교체 -내부 수납공간 설치, 외장도색	2019~2020
	2	청수정(창고) 보수 혹은 철거	-건물 철거 자문 -건물철거 주변 정비	2020~2021
	3	생활관 지붕 보수	-기와 해체 -서까래 보수, 기와 보수	2020~2021
	4	초고 정비	-목재 보수 -도장 보수	2019~2020

구분	항목	내용	사업년도	
주변 보수 정비	5	낙산 토목 옹벽 보수	-치장 벽돌 정비, 토목 옹벽 진단 -옹벽 마감정비	2020~2021
	6	영내 암반 보수	-바위 틈 충전 -바위 사면 고이기, 계측기 설치	2020~2021
	7	남측 인접지 보수	-현황 측량, 불량 옹벽 철거 -토목 옹벽 보수, 도색 및 정비	2021~2022
	8	이화마당 담장정비	-기존 담장 철거 자문 -사고석 담장 해체 후 막돌 담장 설치	2022
	9	지적정비, 대장정비	-지적공사 측량, 토지 매입 -행정사항 진행, 대장정비	2022~2025
안전관련 정비	10	생활관 다용도실 증축	-담장내부 지하층 증축 -다용도공간 설치, 기존 지하층 연결	2022~2025
	11	운동실 정비	-내부정비 -수납공간, 다용도공간 설치	2021~2022
	12	분관 석축부분 증축	-기존 석축 제거 -다용도실 증축	2020~2021
기념관 건축	13	기념관 건립	-기념관 건립(건립위치 4가지 안)	2020~

○ 종합정비계획(금차 수정안)



○ 종합정비 내용(금차 수정안)

구분	항목		내용	사업년도
문화재 건물 보수	1	돈우실 지붕교체 및 리모델링	-지붕재 철거 교체 -내부 수납공간 설치, 외장도색	2019
	2	청수정(창고) 보수 혹은 철거	-건물 철거 자문 -건물철거, 주변 정비	2023
	3	생활관 지붕 보수	-기와 해체 -서까래 보수, 기와 보수	2023~2024
	4	초고 정비	-목재 보수 -도장 보수	2019
주변 보수 정비	5	영내 암반 보수	-바위 틈 충전 -바위 사면 고이기, 계측기 설치	2022~2024
	6	남측 인접지 보수	-현황 측량, 불량 옹벽 철거 -토목 옹벽 보수, 도색 및 정비	2023~2025
	7	이화마당 담장정비	-기존 담장 철거 자문 -사고석 담장 해체 후 막돌 담장 설치	2024~2025
	8	지적정비, 대장정비	-지적공사 측량 -행정사항 진행, 대장정비	2023~2026
유물전시 계획	9	사적지 개방, 유물 옥외전시, 유물 실내전시, 디오라마 제작		2020~

라.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심의

- 소위원회 위원 : ○○○, ○○○, ○○○, ○○○, ○○○

○ 출석 12명 / 보류 12명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지반조사를 위한 현상 변경 허가 신청 등 3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p>(1) 허가 받는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p> <p>(2) 허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1번지 외 ○ 사업내용 : 지반조사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심도 30m이내, 굴착구경 75mm - 수리특성, 지하물리탐사, 공내 재하·전단시험 <p>(3)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공사 시 천공기로 인한 진동 및 소음발생, 굴착공사 후 굴착공의 관리 및 원상복구 등에 유의하여 진행 ○ 건축(토목)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진행 <p>(4)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면)</p> <p>< ○○○('20.5.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중 전면 경사지에 조성되는 지하주차장 4개 층과 지상공원을 착공하기 전에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성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등)가 필요한 상황임 ○ 지반공사를 위해 계획된 굴착공사는 지하 주차장 및 지상공원 조성 공사 착공에 대비하여, 공사 예정지 지반의 구조적 특성 및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답동성당으로부터 40m와 102m 이격된 2개소에 각각 계획된 급회 굴착공사는, 답동성당의 보호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굴착공사 시 천공기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발생, 굴착공사 후 굴착공의 관리 및 원상 복구 등에 유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조건부 허가	'20.6.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p>	<p>서울 서대문구</p>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장</p>	<p>(1) 허가 받는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허가내용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사업내용 : 2020 서대문 독립민주 축제 - 행사기간 : '20.8.14.~8.15. - 임시시설 ·메인무대 1식(16,900mm*9,000mm*9,125mm) ·천막 38동, 음향시설 등 설치 - 행사내용 ·메인무대 : 개막식, 축하공연, 역사콘서트 등 ·10~12옥사 : 특별기획전시, 독립민주인사 포토프린팅 전시,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3) 허가조건 ○행사 내용은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행사 내용은 고증자료를 확보 후 사실에 근거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 ○행사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행사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겪서는 아니되며, 이의 예방을 위하여 질서유지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함 ○행사 준비, 진행, 완료 단계까지 모든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위와 같은 사항의 불이행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사 중이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불허처리가 될 수 있음 (4)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면) < ○○○('20.5.28.)>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그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던 '서대문 독립민주 축제'를 2020년에도 개최하기 위해 행사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임 ○주요 설치시설물은 메인무대 1개소와 간이텐트 38동으로 모두 행사기간 동안만 설치, 이용되는 임시용 가설방식으로 설치되며, 예년 행사와 동일한 규모와 방식으로 설치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행사기간 동안에만 설치, 이용되는 임시가설시설이고 기존 시설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은 조립식 공법으로 설치되고 예년과 동일한 규모와 방식으로 설치되므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 됨</p>	<p>조건부 허가</p>	<p>'20.6.1.</p>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p>	<p>서울 중구</p>	<p>남대문경찰서장</p>	<p>(1) 허가 받는자 : 남대문경찰서장 (2) 허가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정동 6-1 (1구역 내, 이격거리 약39m) ○ 세부내용 : 경찰버스용 전기공급시설 설치 - 변압기, 개폐기 각1대, 분전함 2대 설치 · 변압기: 1.5m(가로)×1.0m(세로)×1.4m(높이) /기초 설치 깊이 1.07m 굴착 · 개폐기: 1.6m(가로)×0.8m(세로)×1.3m(높이) /기초 설치 깊이 1.07m 굴착 · 분전함 : 0.67m(가로)×0.41m(세로)×1.7m(높이) - 지하설치물 · 핸드홀(지하매설) 설치 굴착규모: 3.1m(가로)×2.6m(세로)×2.8m(깊이) · 관로설치: 1.2m(폭)×5m(연장)×1m(깊이) (3) 허가조건 ○ 사업 추진(굴착) 시 매장문화재관련 전문가 및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직원 입회하여 조사 * 입회조사결과보고서를 서울 중구청을 거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 허가(사용)기간 만료 전 원상복구하여야 함(다만, 시설의 운영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4) 허가기간 : 2020.6.10.~2022.6.10. (5) 참고 ○ 전문가 자문의견 < ○○○('20.5.14.)> -외국 공관 경비를 위해 상주하는 경비인력 버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서울 시내에 주요 지점(세종로, 종로 등)에 설치된 선례들과 마찬가지로 버스 매연, 소음으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정동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되지만, 주변 가로변에 설치되어 문화재 주변 가로경관과 보행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영구적 시설보다는 경비인력 철수 또는 외국공관 이전 시기까지만 임시적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치 예정 장소가 덕수궁 복원 구역에 속해있으므로, 굴착공사 부분은 발굴기준을 준수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p>	<p>조건부 허가</p>	<p>'20.6.10</p>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궁능유적본부 의견</p> <p>-과거의 덕수궁 영역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관련 사업 추진 시 입회조사(전문가 및 문화재청 직원 입회)와 향후 운영 소요가 해소될 시 원상복구가 필요함</p>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